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3호 (통권 76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3호 (통권 76호), 2018년 9월호.

발행일/2018년 9월 30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석종준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일반 논문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 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 김기흥 · 5
The Criticism of the Human View Founded on the
Political Ideology of Hitler from
Christian Ethicality Standpoint | Ki-Heung Kim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
: 교육과정의 재구성 제안을 중심으로 | 김미림 · 39
A Study on the High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of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Proposal of the Curriculum | Mi Rim Kim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김민선 / 오혜정 / 손병덕 · 71
Effects of Religious Characteristics among Christian Young People
on the Participation and Continuity of Voluntary Activities |
Minsun Kim / Hyejeong Oh / Byoungduk Sohn

교육심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 탐색 | 김셋별 / 이호담 · 99
A Literature Review and Reflection on Educational Meaning that
Christian Youths Have in Doing Volunteering Works
: View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 Saetbyul Kim / Ho-dam Lee

폴 리콴르의 성서 해석학에 대한 연구 | 이상민 · 129
Study on the Biblical Hermeneutics of Paul Ricœur | Sang Min Lee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 포토보이스의 적용 | 이은미 · 163

A Photo-Voice Study on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 Eun Mi Lee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 이풍인 · 217

A Study of René Girard's Idea of Mimetic Rivalry
From Bad Mimesis to Good Mimesis | Poong-In Lee

계몽과 경건의 변증법 - 18세기 독일 사상의 지형도 | 정인모 · 243
The Map of Thought - Dialectics of German Enlightenment and
Pietism in the 18th Century | In-Mo Jeong

禧年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 조혜신 · 263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Jubilee Law
- Focused on Basic Income | Hye-Shin Cho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관계 분석
: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중심으로 | 최명민 / 이현정 · 295
An Analysis of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Jesus Christ |
Myung-Min Choi / Hyun-Jung Lee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 최용준 · 323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Transformation | Yong Joon (John) Choi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 허은철 · 353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 of the
Christian World View | Eun Chul Heo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 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The Criticism of the Human View Founded on the Political Ideology of Hitler from Christian Ethicality Standpoint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iewpoint of humanity of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which was revealed in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and social policies pursued by Germany's Third Reich and to criticize such viewpoint from Christian ethicality standpoint.

At the time, dictatorship served the basis for Germany'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centering around the ideology of national communities, anti-Semitism, living space ideology, racism and social Darwinism. Some of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Hitler and his followers committed the war of aggression and genocide against other peoples and nations on the basis of the shallow-minded elitism formed by selfish group consciousness. However, the Biblical view of humanity pursues mutual respect, inclusive and open communities in a peaceful relationship, rather than exclusive, rejective, or hostile attitude for reason of ethnic or racial backgrounds.

Second,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committed national crimes of massacr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 disabilities as 'worthless lives' based on economic value, as well as slaughtering a lot of Jews based on eugenic racism. However, the Christian viewpoint of humanity is based on dignity and noble value of human beings and basically supported by the twin pillars of the order of creation and salvation ministry in the infinite love and providence of God, not the conditional and

*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2018년 08월 10일 접수, 09월 01일 최종수정, 09월 05일 게재확정

relative concepts claimed by the Hitler's dictatorship or philosophers.

Third,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massacred myriads of human beings, destroying the nobility of human life, and even committed suicides in seeking final resolutions of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disputes, etc., as they considered the 'death' as extinction based on their belief in materialism or atheistic existentialism.

However, the Bible attributes the death to the sin of human beings and declares that there is the strict judgment by God after death. In addition, the life in this world and the life after death are linked by interrelationships. Particularly, the act of taking away the life, whether it is one's own life or other person's life, is considered a serious challenge to the Creator who is the Master of life and is regarded as a serious sin because human beings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Finally, the utilitarianism or secularism have been coming to the fore gradually these days in coming to grips with social issues associated with life ethics, such as euthanasia, artificial abortion, capital punishment, suicide, etc.

Constant discussions and study would be very imperative, which aim to restore the distorted humanity and human dignity by criticizing the spirit of the times, where the life, existential value and meaning of human beings are judged increasingly from the prism of rationality, economic feasibility, and productivity, based on the Christian viewpoint of ethicality.

Key Words : Christian ethics, human dignity, Hitler, national socialist, human view

I. 서론

지난 2018년 1월 31일 독일연방의회는 메르켈(A. Merkel) 총리와 12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중에 히틀러 시대(1933-1945)에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가졌다. 이는 헤르초크(R. Herzog, 1934-2017) 전(前) 대통령이 1996년부터 공포하여 매년 1월 27일을 나치 독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켰다. 1945년 1월 27일은 히틀러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 수용소가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Red Army)의 진주로 해방된 날이었다. 이날 연방의회 기념식에는 첼로 연주가이며, 1943년 12월에 범죄자로 판결을 받아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던 라스크 발피쉬(A. Lasker-Wallfisch, 1925~현재)가 기념사를 했다. 당시 그녀는 첼로 연주자라는 이유로 수용자들이 강제노동 현장으로 행진할 때에 연주를 하는 소위 '소녀 오케스트라(Maedchenorchester)'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1944년 11월에 그녀

의 두 언니마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베르겐 벨젠(Bergen-Belsen)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날 라스크 발피쉬는 기념사에서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이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아울러 메르켈 독일총리도 지난 1월 27일자 팟캐스트(podcast)를 통하여 반유대주의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적대주의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나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멸절(Extinction)의 시대라 일컫는 고대시대에서 그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조차도 국가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유기나 살해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기형(奇形)적인 신생아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살해 대상이 되었고, 당시 대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Sokrates, B. C. 470~B. C. 399)와 플라톤(Platon, B. C. 427~B. C. 347)조차 같은 인식을 가졌다. 장애인들은 군복무, 정치나 혹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로 분류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의술의 신(神)으로 등장하는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와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B. C. 460~B. C. 377)도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적 행위를 반대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잔인한 매질을 하여 성곽 밖으로 추방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이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벌을 내리는 신(神)을 달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기원전 약 900년경 고대 스파르타(Sparta)의 신생아는 사회공동체 수용 대상 여부는 마을의 원로회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당시 철학자이자 전기 작가였던 플루타르코스(Plutarch, A. D. 45~A. D. 12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마을의 원로회는 아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아이가 건강하고 풍채가 좋은 경우에는 원로회가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약하고 흉한 아이들은 즉시 이른바 ‘유기법(遺棄法)’에 의거하여 그리스의 타이게투스(Taygetos) 산의 깊은 협곡 속으로 던지도록 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 C. 384~B. C. 322)도 허약아나 장애아동의 양육은 법적으로 금하도록 하였고, 사회적으로 이상형에 부합되는 건강한 아이에게만 생명권과 양육권이 보장되었다(Stadler, 1998; Mattner, 2000).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Seneca, A. D. 4~A. D. 65)에 의하면 로마 사회에서도 지적이나 지체장애인들에 대

한 살해는 세간에서 흔하게 행해진 일이었다(Goffman, 1990).

광견(狂犬)은 죽여야 한다. 사납고 통제가 어려운 황소는 때려 눕혀야 한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가축은 다른 무리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칼을 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형적으로 출생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익사시킨다. 필요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화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理性的)인 행동이다.

비록 생존권이 부여된 장애인이라도 노예 시장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어 장애나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소위 ‘광대시장’(Narrenmarkt)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가장 불품없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높은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였다(Mattner, 2000).

한편 중세시대는 기독교 사상 중에 ‘이웃사랑’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초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는 등 멸절의 시대인 고대에 비하여 자선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명권이 인정되고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인식과 실천적인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도 일부 부정적인 인간관도 존재하였는데, 즉 장애아란 악마가 바뀌치기한 아이라 믿거나 장애는 조상이나 당사자의 죄에 대한 신이 내린 벌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질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 학대나 살인도 허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연시(年市)에서 어릿광대로 경제적이나 유희의 수단이나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중세 말기에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구빈원(救貧院)에 입소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하였다(Fengler/Jansen, 1987). 사실 고대시대에 비하여 중세는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폭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고 국가적인 정책도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대시대를 지나 중세의 자선과 보호의 시대를 거쳐 근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 관련 인식이나 정책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점점 비관적이어서 특수교육 무용론(無用論)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소위 ‘제2의 멸절기’인 히틀러 정권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와 갈렌 추기경(Clemens Augustinus Graf von Galen, 1878-1946) 등 독일교회를 중심으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등을 앞세운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수많은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대량 학살함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처참히 무너졌다. 인류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 정보화 및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나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시

대에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합리성이나 경제성 또는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간관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시대나 나치스 정권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가치와 의미가 임의의 조건적,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인정된다면, 멸절의 시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재현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김기홍, 2014).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인 4월 초에 3천여 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하여 연명 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하였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특정 질환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자가 약 14,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MBN 뉴스, <http://mbn.mk.co.kr>). 그 밖에도 호주의 104세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l)박사가 불치병이 아님에도 삶의 무의미를 느껴 안락사(조력자살)를 위해 비교적 안락사가 자유로운 스위스에서 5월 10일 바젤의 안락사협회인 라이프사이클(Lifecircle)에서 진정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크리스천 투데이, <http://www.christianoday.c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 히틀러 독재정권의 인간관을 그의 주요 정치이념과 사회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오늘날 왜곡된 인간 존엄성 사상이 점점 팽배한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 속에서 이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히틀러의 주요 정치이념과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살펴본 인간관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오스트리아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3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1905년에는 성적미달로 실업계 중등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를 중퇴하고 특정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어 1906년 린츠(Nin兹)의 어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1907년에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빈(Wien)으로 옮겼고, 빈(Wien)예술

대학에 두 번이나 입학에 실패하였다. 이에 그는 고아수당과 자신의 그림 판매를 통해 생활하였고, 1913년까지 노숙자 숙소 등지에서도 기거하였다(Friedlander, 2001). 이처럼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여러 역경의 삶 중에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적 다윈주의나 인종우생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등을 통하여 급진적 반유대주의나 반자유주의, 반공산주의 등의 사상으로 이미 세계상(世界像)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는 시종일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적인 사상을 추종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특히 게르만인의 소위 ‘군주적(君主的, germanische Herrenrasse) 인간관(人間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3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뮌헨(Muenchen)으로 이주하고,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병으로 바이에른(Bayern) 연대에 배속되어 여러 번의 부상에도 전령으로서 공을 인정받아 철십자훈장을 받았다. 북 독일의 야전병원에서 종전(終戰)을 맞이한 히틀러는 이곳에서 독일의 패배나 휴전체결이 모두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의 계략과 배신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였다(Wolgast, 2009).

1919년에 새롭게 창당된 독일노동자당(Deutsche Arbeiterpartei: DAP)에 입당하였는데, 특히 반유대주의적인 당의 노선이 그의 사상과 일치하였다.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 기법으로 1920년 개명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의 선전부(Propagandaobman)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그는 점차 정치적인 활동무대를 넓혀 당은 결국 ‘히틀러운동’(Hitlerbewegung)의 중심으로 되었는데, 특히 자신의 세련된 수사학을 바탕으로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이나 민주 공화국 체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문제들에 집중하여 정치선동을 함으로서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영입되었다(Hufton, 1999).

1921년 7월 그는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당수로 전권을 장악하였고, 1923년 11월에는 ‘히틀러 쿠데타’(Hitlerputsch)를 통하여 먼저 바이에른(Bayern)을 접수한 후 독일제국의 권력을 강탈하여 바이마르(Weimar)공화국 전복을 시도했지만, 반란죄로 체포되어 5년의 금고형을 받아 약 1년 후에 특사로 조기 출소하였다. 그는 수감기간에 많은 책을 읽었고, 또한 무모한 정치적 야망과 극단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나의 투쟁’(Mein Kampf)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히틀러는 인종적으로 순수한 소위 ‘대(大)게르만족의 지도자 국가’(Grossgermanischer Fuehrerstaat)를 창설하여 자칭 다

른 열등한 혼혈종이나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자 갈망했다. 당시 독일의 제일 과제는 독일국민들의 삶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사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후 출소한 히틀러는 쿠데타로 금지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을 재건하였고, 이 당을 거대정당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승계하려는 계획은 1929년까지는 선거 패배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 초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독일 사회 분위기는 서서히 히틀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었다. 1932년 봄 제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우파정당의 후보로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1847~1934)에게 패배했지만, 1/3이상의 상당한 득표를 하였다. 또 같은 해 제국의회 선거에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이 제1당으로 등극하여 마침내 수상으로 임명되어 수개월 내에 합법적으로 독재자로서의 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Klee, 1985).

더군다나 1933년 2월 27일 제국의회 건물에 대한 방화사건으로 다양한 법령이 공포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공포 정치적 행정시스템 가동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실시된 전권위임법(Ermächtigungsgesetz)의 가결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회운영이 중단됨으로서 독재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는 독일국방군(Reichswehr)을 비롯하여 특히 나치스 돌격대(Sturmabteilung: SA)나 나치스 친위대(Schutzstaffel: SS)를 자신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목적 실현을 위한 폭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동쪽으로의 영토를 확장하여 독일국민들을 위한 이른바 ‘생활공간’(Lebensraum)을 마련하고자 제2차 대전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히틀러의 망상적 정치이념은 결국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대한 공격명령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약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특히 유대인, 장애인, 집시민족 등이 대량 학살을 당하였다. 1945년 4월 25일 연합군의 베를린 포위로 독재자는 4월 28일과 29일 사이에 브라운(Eva Braun, 1912~1945)과 결혼식을 거행한 후에 4월 30일 그들은 총통전용 지하 방공호(Fuehrerbunker)에서 자살을 하였고, 독일 국방군은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에 이르렀다(Friedlander, 2001).

이처럼 히틀러 정권(1933~1945)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히틀러의 인간관을 포함한 주요 세계관은 1925년과 1926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인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정책노선이며 1920년 2월 24일 뮌헨(Muenchen)에서 히틀러가

선포한 ‘25개 조항 강령’(25-Punkte-Programm)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제3제국 시대의 정치이념과 이에 따른 사회정책들은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Lebensraum)주의, 사회적 다윈주의 및 인종주의, 반의회정치주의, 지도자 중심(우상)주의(Fuehrerprinzip), 반공산주의, 반자본주의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히틀러의 인간관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주요 정치 이념과 사회정책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민족공동체 사상은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 독재정권의 국가질서와 세계관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목적이었다. 그들은 민족공동체를 계급적 대립이나 신분상의 투쟁이 없는 혈통상의 연합체, 공동의 운명 혹은 공동의 정치적 신념에 바탕을 둔 민족의 생활공동체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민족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혈통적으로는 아리아족이어야 하고,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주의에 동의하여야 했다(Jeffrey, 2000). 1933년 10월 1일 히틀러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뷔케베르크(Bueckeberg)의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독일민족이란 반드시 혈통 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관을 의미하며, 개개인은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반면에 민족(Volk)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Ferdinand, 1991).

그러나 제3제국 당시 수많은 인종학 관련 출판물이 발간되어 공적으로 학교나 관공서에서 사용했지만 사실 금발, 푸른 눈, 큰 체격을 가진 북 게르만인이라는 애매한 이상형으로는 그들이 지향하는 ‘인종(Rasse)’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는 없었다. 실제로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은 인종공동체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고, 특히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아리아인에 대립되는 인종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민족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한 특별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략은 이미 나치스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Holocaust) 전인 1935년 9월 15일 제7차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 전당대회에서 반유대적이고 인종 이데올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뉘른베르크법’(Nuerberger Gesetz)에 포함되었다. 이에 의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이나 교제의 엄격한 금지와 함께 민족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의 배제가 법적으로 결정되었다(Bernd, 1993).

히틀러와 민족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공동체 사상은 세계관의 공동체로서 정치적 운동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도자’(Fuehrer)에 대한 숭배 등 사이비 종교처럼 개인의 사생활 속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히틀러에 대한 무제한적 신봉을 하는 자만이 민족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인정된 반면에, 이에 주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사상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민족공동체 사상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국내·외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안전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정의(正義) 및 독일사회의 민족적인 개혁의 이상형으로 선전되었다. 물론 독일 민족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민족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결국 멸절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Franz, 1997).

2.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

‘유대인은 우리의 불행이다’. 이 말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하인리히 폰 트라이취케(Heinrich von Treitschke, 1834~1896)에게서 유래하였다. 그는 1879년~1880년 사이에 이를 입증하려고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결국 후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선전물인 광고나 포스터에 인용되기도 하였다(Ahlheim, 2011).

사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 개념은 19세기의 산물인데, 독일 언론인인 빌헬름 마르(Wilhelm Marr, 1819~1904)가 새롭게 해석하였다. 즉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이해하는데, 원래 ‘Anti’는 ‘반대’라는 뜻이며, ‘Semites’는 창세기의 인물인 노아(Noah)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셈(Sem)에서 유래하였다. 셈족들은 사실 동일한 어족(語族)에 속하였고, 주로 북동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출신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랫동안 유대인이나 유대종교인들과 동일시되었으며, 또한 이는 ‘인종’ 개념과 관련성을 두어 주로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었다(Friedlaender, 2007).

유대인들은 긴 역사에서 배제, 학대 및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종교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인종으로 간주되어 19세기에는 새롭게 반유대주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사고와 비이성적인 증오심을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오용하였다. 히틀러의 세계관은 일생동안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유대인과 모든 유대적인 것에 대한 적대심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1907년~1913년 사이에 화려한 도시였던 빈(Wien)에서 극도의 빈곤 중에 살았고, 실업학교 중단이나 미술대학

진학의 실패 등 개인적인 실패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세계상이 형성되었는데, 즉 자신의 고난 속에서 다만 더 강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또 히틀러의 사상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빈(Wien) 시장인 칼 뤼거(Karl Lueger, 1844~1910)로부터 군중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배웠고, 아울러 빌헬름 마러(Wilhelm Marr)의 여러 저술들이 히틀러에게 큰 작용을 하였다. 이때 히틀러는 게르만 인종이 장차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었다(Barkai, 1988).

반유대주의 사상은 민족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에 겪는 독일의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행 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추종세력을 확보하는 사상적 도구였다. 1920년 2월 24일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25개조로 구성된 강령에는 반유대주의의 기본원칙이 규정되었는데, 몇 가지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Essner, 2002).

- 국민은 다만 민족공동체의 일원만 해당된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란 독일 혈통을 말하며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유대인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국민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만 손님으로만 독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인법이 적용된다.
- 국가의 법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단지 국민에게만 권한이 허용된다.
- 모든 비독일인들의 계속적인 이민은 저지한다. 1914년 8월 2일 이후로 독일로 이민 온 모든 비독일인들은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1933년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이 권력을 이양 받음과 동시에 반유대주의 이념은 국가 정책의 원칙이 되었고, 또한 ‘직업공무원 재건법’(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이라는 법령으로 유대인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5년의 뉘른베르크법을 통하여 독일 내 유대인들은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직업금지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았다. 또한 1933년 4월 1일 토요일부터 독일지역의 유대인 가게, 백화점, 은행, 의료기관, 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등에 대한 불매와 배척 운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펼쳐졌다. 또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에 주도된 소위 ‘11월 학살의 밤’(Novemberpogrome)에 독일 내 유대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량학살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가정집, 공동묘지, 기도실, 회당 등이 파괴되었고, 약 30,000여명의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었다(Koop, 2014).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이념 위에서 히틀러는 계속하여 독일 국민들로 하

여금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인 사고를 적극 고취시켰고, 결국 수백 만 명에 이르는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생활공간이념(Lebensraumideologie)

독일 동물학자이자 지정학자(地政學, geopolitics)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1897년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과 1901년의 ‘생활공간’(Lebensraum) 논문에서 처음으로 ‘생활공간’ 개념을 언급하였다. 비록 그가 인류 역사는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해했지만, 사실 자신의 생활공간 이론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시 독일 전역의 보도매체에서 독일의 광범위한 국제정치나 외교정책과 관련시켰고, 정치적 입장의 ‘생활공간’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후반에 민족들 간의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으로 이해하면서 발전하였다(Jahn et al, 2017).

히틀러는 1924년 자신의 고백록인 ‘나의 투쟁’(Mein Kampf) 제1권에서 국외정치와 관련하여 장차 독일제국이 동부유럽 등 해외에 대한 팽창정책을 위하여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칼 에른스트 하우스호프(Karl Ernst Haushofer, 1869~1946)의 이론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 히틀러는 게르만이나 아리아종의 우월성과는 반대로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심을 고취시켜 인종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일의 새로운 생활공간의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그는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인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 양도된 독일지역의 반환요구와 우랄, 흑해, 우크라이나 및 코카서스 등을 포함한 동부유럽 전역에 대한 정복야욕까지 품었다. 1926년에는 독일의 문필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한스 에밀 빌헬름 그림(Hans Emil Wilhelm Grimm, 1875~1959)의 ‘공간 없는 민족’(Volk ohne Raum)이라는 소설이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영토팽창 정책의 표어로 채택되어 독일을 위한 공간과 땅의 확보는 이른바 ‘의로운 투쟁’(gerechter Kampf)이라는 정치적 선동의 슬로건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Burleigh, 2000).

민족우생학적인 입장에서 생활공간사상은 히틀러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고, 히틀러는 1933년 2월 3일 제국 수상의 권력 장악 후에 독일 국방군(Reichswehr) 장교들 앞에서 처음으로 동부유럽에서의 생활공간 확대와 이에 대한 독일화(獨逸化)

정책을 공표하였다. 이에 나치스 정권은 독일인에 대하여 지배적 민족이나 군주적 민족(Herrenvolk)이라는 민족적-사회적 다윈주의 이념을 기초로 독일인을 위한 거주 지역 확장과 소위 열등인간(Untermenschen)으로 격하시킨 슬라브인들에 대한 착취와 대량 학살을 통하여 독일의 자주적 경제 재건을 꾀하였던 것이었다(Frei, 2013).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스탈린(Josef Wissarionowitsch Stalin, 1878~1953) 상호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히틀러의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Unternehmen Barbarossa)으로 선전포고 없는 소련 공격으로 무효화되었다. 우선 생활공간 사상은 폴란드에 대한 공격과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멸절전쟁(Vernichtungskrieg)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즉 동부유럽에서 우랄산맥에 이르기까지 독일인들을 위한 거주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쟁 목적에 따라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 1900~1945)는 우랄 산맥 서쪽의 소련지역에 군주적 인종으로 불리는 독일인을 대량으로 정착시키는 반면에 소련인의 대부분을 시베리아로 추방하고 일부는 남겨서 노예노동 착취 등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Hass, 1990).

히틀러는 최후 순간까지 이른바 미래의 ‘대(大)독일제국’(Grossgermanisches Reich) 건설을 위하여 동유럽으로의 영토 확장이라는 생활공간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부와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침략한 뒤 자신의 점령정책 계획에 따라서 소비에트 연방의 유럽 지역에 대한 정복을 꾀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는 이미 베를린 근교에서 막바지 치열한 전투로 생의 마지막 시기였던 1945년 4월 29일까지도 자신의 헛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국방군의 변함없는 임무는 동부유럽에서 독일민족을 위한 생활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Voigt, 2008).

4. 인종주의(Rassismus) 및 사회적 다윈주의(Sozialdarwinismus)

히틀러와 추종자들은 인종을 아리아인과 유대인 등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다. 이에 아리아인을 인간의 이상형임과 동시에 다른 인종들을 지배하기 위한 존재로 이해한 반면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롭게 하는 위험한 민족으로 간주하였다. 나치스 정권은 자신들의 인종학을 인종론(Rassentheorie)과 민족우생학(Rassenhygiene)등 두 가지 사이비 학문으로부터 인용하였다. 이 두 가지 입장은 19세기 말에 발전하였는데, 나치정권은 인종론에서 인류는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된다는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그

들은 인종의 개념을 민족의 개념과 동일시하였고, 독일민족을 아리아족의 대표로 선전하였다.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인종론에서 아리아족을 완전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모든 다른 인종들에 비하여 원(原)인종으로 월등하며 모든 타 인종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lumelle-Urbe, 2004).

또 히틀러는 민족우생학을 기초로 아리아족은 금발, 푸른 눈, 유능하고 신실한 성품 등의 순수성과 우수한 특질을 유지해야하며, 다만 이들을 통해서만 인류는 고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아리아민족의 주적(主敵)으로 보았고,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존재로 보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았다. 즉 유대인들은 위협적인 존재이며, 검은머리, 검은 눈, 게으르고 교활함 등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간상으로 나치스 정권의 수많은 선전물을 통하여 왜곡시켰다. 특히 독일국민들에게 소위 아리아 인종유지를 위한 12계명이 담긴 전단지들을 뿌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라!’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 민족사회주의적인 인종론은 가히 종교적인 위치에까지 이를 정도였다(Miles, 1992).

또한 학교 수업에서도 반유대적인 사상이 대대적으로 교육되었는데, 모든 학교에 소위 ‘인종지도책’(Rasseatlas)이 있었고, 여기에는 아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30여개의 큰 그림들이 제시되었다. 학교졸업 시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유대인들은 독일민족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굳게 믿었다. 독재 정권은 소위 위험한 유대인으로부터 자기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천여 개 이상의 반유대인법을 제정하였으며, 1935년 9월 15일에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령’(Nuernberger Gesetz)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 법에는 아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결혼대상자들은 자신의 아리아계 출신을 증명하는 확인증(Ahnenpass)을 소지해야만 했다(Benzenhoefer, 2006).

그 이후에 제3제국은 극단적인 인종론으로 많은 유대인 가게를 파괴하고, 대대적인 구금을 하거나 새롭게 독일로 병합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약 17,000여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였다. 또한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 밤의 ‘유대인 박해의 밤’(Reichspogromnacht)에 유대인 회당이 소실되고, 약 26,000여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그 중에 일부는 독일을 떠나기로 동의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여 1939년까지 석방됐지만, 약 500여명 이상은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의료적인 치료 거부행위 등으로 희생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는 유대인의 권

리가 대폭 축소되어 실제적인 직업 활동과 공립학교 교육이 금지되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공원의자가 따로 설치되었으며, 음식점 출입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종론의 말미에는 소위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Endlösung der Judenfrage)이 제시되어 6백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다(Rudnick, 1990).

나치스 독재정권의 인종론에 대한 망상은 유대인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 및 만성 환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히틀러는 그들을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을 감소시키며, 인류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는데 유해한 ‘살 가치가 없는 목숨’(Lebensunwertes Leben)으로 여겨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또한 히틀러는 이른바 우생학(Erbpflege)과 인종관리학 관련 정책에 의해 유전학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적 불임수술을 하였다. 이는 ‘차세대유전성질환예방법’(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을 바탕으로 1933년 7월 14일 발효되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악영향으로부터 아리아 민족의 순수혈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나치스 독재정권의 인종론이나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은 결국 소위 ‘Aktion T-4’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수 십 만 명의 환자와 장애인들을 멸절시설(Vernichtungslager)로 이송한 후에 독가스, 독주사나 기아사 등에 의하여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Klee, 1983; Hamm, 2005).

이처럼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적 인간관은 민족공동체, 반유대주의, 생활공간, 인종주의 및 사회적 다윈주의 등의 주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매우 공격적이고 극단적이며 분리주의적인 특성을 보였던 것이었다. 독재정권은 혈통적으로는 게르만인이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며,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주의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된 충복(忠僕)에게만 기본적인 생명권이 부여되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광적인 세계관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정복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에 약 60여 개국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총 6천 5백만 여명이 이상이 비참하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소련의 경우 약 2천 7백만 명이 숨졌는데, 독일군에 의하여 전쟁포로가 된 소련의 붉은 군대 약 3백만 명이 아사(餓死), 질병, 학대, 총살이나 특별 수용소 구금 등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 밖에도 약 7백만~1천백만 여명이 비인간적인 환경 가운데서 독일이나 점령지에서 강제 노역자로 투입되었다(Schreiber, 2013; Gruchmann, 1985).

또한 히틀러는 1941년~1945년에 걸쳐 아우슈비츠(Auschwitz) 등의 강제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Holocaust)를 통하여 약 560만 명~630만 여명의 유럽 내 유대인들을 국가

적 범죄를 통하여 학살하였다(Pohl, 2000; Benz, 2008). 게다가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등의 이념적 기초로 한 보건정책에서 1934년부터 약 40만 명의 각종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적 불임시술을 시행하였다. 특히 비생산적인 존재로 보았던 지체, 지적 및 정신 장애인들은 민족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보아 ‘살 가치가 없는 목숨’(Lebensunwertes Leben)으로 분류된 후에 ‘Aktion T-4’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의 특별 살해 시설에서 약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약물, 독가스, 영양실조 등을 통하여 살해되었던 것이었다(Aly, 1989; Hamm, 2005; Benzenhoefer, 2000).

Ⅲ. 기독교 윤리적 인간존엄성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의 인간관 비판

인간의 존엄성 관련 법조항은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헤셀베르거(Hesselberger, 1999)는 인간 존엄성의 주요 근거를 주로 철학적 입장과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각각 두고 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존엄성 개념은 17세기~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자연법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Gerhardt, 2004).

인간이 최고로 존엄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장 탁월하고, 이성(理性)의 빛을 통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푸펜도르프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가 영혼과 이성 그리고 결정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던 것이었다.

또 계몽주의자이자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785년 자신의 저서인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에서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생존권에 대한 인정, 만인의 원칙적인 평등성에 대한 인정 등 세 가지 원칙을 말하였다.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따라서 인간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예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는 노예소유자가 노예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이 훼손되며, 아울러 억압 및 사기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특히 인간이 가진 도덕적 자율성에 그 바탕을 두었던 것이었다(Quante, 2010).

그러나 기독교 윤리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 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인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질적 차원과 입장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즉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섭리주,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창조과정에서부터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과는 엄연히 구별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에 분명하고도 심오한 의미를 가진 인간 존엄성 사상의 근본적인 주요 근거를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역사과정에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독특하게 창조됨으로서 어떤 피조물들과도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26절~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중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이하생략).

여기에서 인간은 먼저 '자연적인 것' 이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처럼 인격성, 자기 초월성, 지성적, 이성(理性)적, 도덕적, 사회적, 창조적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피조물과는 창조의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질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시 8: 5~8에서 하나님이 사실 보잘 것 없는 인간을 광대한 사물의 구도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 존재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사상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인간의 존엄성은 궁극적인 존엄자이신 하나님의 반영(反影)으로서 부여된 존엄성이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금물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일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존재인데, 즉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창 1: 28-30; 시 8: 6-8)으로 말미암아 월등히 상위에 있지만, 창조주에 대해서는 비자율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바 하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경재 외, 1992; Sire, 1988; 1990).

둘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다른 피조물, 즉 땅과 자연 및 동물 등에 대한 경작권과 관리권을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간에게 이른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중략)...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중략)...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24편 1절에도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땅은 인생에게 주셨으며’, 시편 8편 6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이하생략)...’이라고 관리권을 위임하신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후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식물뿐만 아니라 광물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작이나 관리를 허락하시어 이른바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시키심으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이다(이기락, 1992; Wright, 1983).

셋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서로 상이한 측면에서 평가되곤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구별된 존엄한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 종함으로서 타락한 존재이며, 이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대상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철저히 죄악으로 물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도록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었다(김형민, 2017; 양승훈, 1999; Stott, 1984).

이러한 기독교 윤리적인 인간존엄성 사상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여 히틀러 독재정
권이 지향했던 민족공동체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이념, 인종주의 및
사회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이념과 그에 따른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으로 자행한 사회
정책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제3제국 시대의 주요 인간관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따라서 형성된 민족공동체
사상, 침략을 통한 식민지 확보를 위한 생활공간이념,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적인 정
치 이념 등의 정치적 선동을 통하여 소위 아리아족 또는 게르만 족 외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적대시하는 천박한 선민사상을 앞세워 멸절의 대상으로 분류한 나머지 끔찍
한 침략전쟁과 집단학살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민족(혈통)이나 인종적인 이유로 결코 배타적, 거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
다는 화평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
이다.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의 인간관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
님의 형상에 따라서 독특하게 창조된 인간의 본래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인 사회적
상호관계를 들 수 있다. 이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
히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삼위의 협력과 상호 존중 및 인정을 바
탕으로 형성된 한 하나님으로서 사회(공동체)적 존재이시라는 점이다. 사실 모든 인간
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적 흐
름은 개인의 선(善)과 공동의 선(善),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 개인과 집단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은 어떤 강력한 개인도 자신의 주장
을 단체에 강요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단체도 개인이나 소수의 권리와 존엄성을 파
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Stott, 1984).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며(롬 3: 10-12; 요일 1: 8; 롬 3: 23),

아울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요 3: 16-17; 딤후 2: 4)는 것이다. 즉, 신,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사역은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정해진 시간동안 다 열려있고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창 12: 3; 사 11: 10; 요 10: 16; 롬 15: 7-13).

아울러 아담 이후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는 히틀러의 식민정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에 이익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 분열, 갈등 및 살인 등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화평과 섬김과 긍휼과 희생과 헌신의 왕(고후 5: 18-19; 롬 5: 1, 8; 빌 2: 1-3; 요일 2: 2; 히 9: 26-28)으로 성육신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도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적인 상황에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통합, 다양한 종족문화 즉, 역사의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궁극성, 즉 재림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 즉, 구속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서 인류 사회의 분리와 갈등보다는 통합과 조화의 공동체를 강조하였다(신 32: 8; 계 21: 24, 26; 갈 3: 28 등). 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와 같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구원 공동체의 꿈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Stott, 1984).

둘째,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각각의 인간은 모두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가치롭고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철학자들이 조건적, 상대적으로 주장하는바 인간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자율적 존재에 기인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으로 물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김형민, 2017).

하지만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이른바 우생학적 인종주의 관점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동시에 경제학적인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수 십 만 명의 정신질환자, 지적 및 지체장애인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된 후에 참혹하게

대량 희생되는 등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범죄가 자행되었다.

한편 오세철(1987)은 성경에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 등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가 총 160회(구약 89회, 신약 71회)기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사실 성경에서 언급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불평등의 조건(창 29: 19; 레 21: 17-23), 죄의 결과(욥 29: 15; 왕하 6: 18, 왕상 13: 4, 사 16: 1; 잠 26: 7), 조롱이나 무능력자(신 16: 19, 삼하 5: 6-8) 등의 부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출 4:11; 요 9: 1-3), 선교나 전도의 대상(눅 4: 17;-19; 사 61: 1-2),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레 19: 14; 신 27: 18) 혹은 천국의 동등한 구성원(미 4: 6-7) 등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있다는 점이다(이계윤, 2002). 그러나 황홍렬(2008), 박혜진, 조영길(2009) 및 이은미(2013)에 따르면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인 사회적 태도가 대체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왜곡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성경에서 장애나 혹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징적이거나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결코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는 옳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허용(요 3: 16; 딤후 3: 4; 롬 5: 8;)되어 있으며,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질환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전인적인 관심과 긍휼과 치유하심이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성경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도우고 존중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시 133: 1-3; 롬 14: 1, 10; 15: 1-3)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다(이상원, 2016).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독특하고 귀하며 가치로운 고유한 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즉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 6)’라고 선포하는 바처럼 인간 생명을 해하는 일을 큰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양승훈, 1999).

셋째,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은 ‘죽임’이든 ‘죽음’이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전혀 질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히틀러와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적(政敵)을 비롯하여 인종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및 생활공간 사상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명을 잔인하게 살상하였다. 유물론적이나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죽음을 아예 소멸(消滅)로 보는 반면에 불

교나 힌두교에서는 죽음을 끝없는 환생을 통한 윤회의 한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으로 ‘죽음’이나 ‘죽임’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여 선언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특히 인간 죽음의 유래는 본래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라고 본다. 죄란 인간사이의 문제기보다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 12)’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악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며,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9: 27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며 출생 후에 육체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각 사람마다 선악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재가 결코 한낱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지도 않으며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와 같은 경계와 경고의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타인이든 자신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벌(출 21: 12; 민 35: 16, 31 등)이 반드시 따르며, 성경은 철저히 금지(출 20: 13; 창 37: 21; 삼상 24: 10-11; 고전 6: 19; 딤후 4: 6-8, 18) 하고 있음도 분명히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제3제국 시대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추구했던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들과 당시 사회정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을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미와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관련하여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지향했던 인간관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적인 사상과 밀접한 관계성과 공통성이 있다 할 것이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보편적인 윤리 혹은 도덕적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을 주축으로 하는 성경적인 기본적 인간존엄성 사상은 더 더욱 수용되지 않는다. 단지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낳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못하다는 결과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많은 만행과 마찬가지로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 등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런 행위의 결과가 욕구의 최대 만족과 최소의 좌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태도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윤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호주 출신의 철학자이며 윤리학자인 피터싱어(Peter Singer, 1946~현재)는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이른바 이성, 자의식 및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인격체’(Person)로서의 인간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는 태어나 장애인들을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에 각각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만 인격체로서의 갖추어야 할 속성을 지닌 인간존재에게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등을 지지한 미국의 상황윤리학자였던 조셉 프란시스 플레처(Joseph Francis Fletcher, 1905~1991)의 이른바 ‘인간성의 징표’(indicator of humanhood)를 가진 사람을 ‘인격체’(Person)로서의 인간으로 명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의식을 비롯하여, 자기통제, 미래감, 타인과 관계를 맺을 능력, 의사소통, 타인에 관한 관심, 호기심 등이 포함되었다. 마치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게르만족 이외에는 유대인이나 슬라브족 등을 ‘하등인간’으로 간주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 지체장애인 등에 대하여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하여 처절한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된 두 윤리학자들도 인간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와 가치에 조건적, 상대

적 존엄성을 부여하였던 것이었다(구인회, 2002; 문성학, 2001).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이른바 ‘존엄사법’에 의거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계획서’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최근 호주의 구달(Goodall) 박사의 안락사(조력자살)이나 이미 오랫동안 특히 우리나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suicide) 등의 사회적 현상을 감안할 때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고귀한 기본적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윤리 문제가 점차 제한적인 전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감에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점차 인간의 존재가치 및 의미 등 보편적인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생산성, 경제성 및 합리성에 바탕을 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공리주의적 요인에 집중됨과 동시에 특히 현세주의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제3제국 기간(1933~1945)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 걸쳐 자신의 정치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정적(政敵)을 비롯하여 유대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테러와 대량학살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죽임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비롯하여 그 당시 수많은 주요 전범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으로서 모든 문제에서 헤어나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 낙태나 안락사, 자살, 사형 등의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나 논란도 결국은 ‘죽음’을 결정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적이거나 미래의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은 공통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초적 관점은 전혀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음이며(롬 6: 23; 약 1: 15), 죽음은 결코 완전 소멸이 아니라 그 이후의 하나님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결을 더 나아가서 죽음은 결코 절망도, 공포의 대상도 아니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으며, 이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요 3:16; 히 2:15; 고전 15: 55)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독립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동시에 무가치한 것은 또한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이다.

게다가 히틀러와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안락사나 자살 등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행위에서 타인에 대한 살인이든 자살행위든 간에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비롯하여 모든 개인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이 중세 이후부터 서서히 자기 자신 즉 이른바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통하여 오히려 점점 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생의 제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하면 인생들의 삶의 전 과정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출발과 지향점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의 시대정신(Zeitgeist)은 아마도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철저히 왜곡된 인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원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절박하고 필수적인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고, 친히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청지기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속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천하에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생명윤리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u, I. H. (2002). *Philosophy of Bioethics*. Seoul: Cheolhaggwa hyeonsilsa.]
- 김경재 · 오영석 · 김정준 · 박종화 · 고재식 · 김창락 · 정웅섭 · 홍정선 · 김성재 · 박근원 공저 (1992). **기독교와 문화**. 개정판.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 출판부.
- [Kim, G. J., Oh, Y. S., Kim, J. J., Go, J. S., Kim, C. R., Jeong, W. S., Hong, J. S., Kim, S. J., Park, G. W. (1992). *Christianity and Culture*. Revision. Gyeonggi-do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 김기홍 (2014). **장애아교육학**. 개정판. 서울: 집문당.
- [Kim, K. H. (2014). *Disabilities Children Education*. Revision. Seoul: Jipmondang.]
- 김현수 역 (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Sire, James W. 서울: 한국기독교 생회출판부(IVP).
- [Kim, H. S. (1995). *Christian Worldview and Modern thought*. Seoul: IVP. Trans. Sire, James W.]
- 김형민 (2017). 인간존엄성의 신학적 해석과 논증. **신학과 사회**, 31(1), 41-68.
- [Kim, H. M. (2017). Theological Interpretation and Justification of Human Dignity. *Theology and Society*, 31(1), 41-68.]
- 문성학 (2001). **현대인의 삶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 [Moon, S. H. (2001). *Modern life and ethics*. Seoul: Hyungseol Publishing.]
- 박영호 역 (1985).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Stott, John R. W.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 [Park, Y. H.(1985).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and Christian Answers*. Seoul: CLC. Trans. Stott, John R. W.]
- 박혜전 · 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 [Park, H. J., Cho, Y. G. (2009). Rehabilitation and Christian Call for the Disabled. *faith & scholarship*, 14(3), 135-175.]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 [Yang, S. H. (1999). *Christian worldview*. Seoul: Book Publishing CUP.]
- 오세철 (1987). 성서(聖書)에 나타난 장애자관(障礙者觀).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9, 1-23.
- [Oh, S. C. (1987). Perspectives of the disabled person in the Bibl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9, 1-23.]
- 이계윤 (2002).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출판부.

- [Lee, G. Y. (2002). *Theory and Practice of Rehabilitation Welfare Practice*. Seoul: Korea MILAL Missionary Press.]
- 이기락 (199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7, 34-53.
- [Lee, G. R. (1992). Biblical consideration of human dignity. *Catholic Theology and History*, 7, 34-53.]
- 이상원 (2016). **십자가에서 아가페로**.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솔로몬.
- [Lee, S. W. (2016). *From the cross to Agape*. 1 Corinthians. Seoul: Solomon.]
- 이은미(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hristian Approach to the Disabled.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정옥배 역 (1989).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Wright, C. J. H.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IVP).
- [Cheng, O. B. (1989). *The Old Testament Ethics for Modernity*. Seoul: IVP. Trans. Wright, C. J. H.]
- 정옥배 역 (1994). **지성의 제자도**. Sire, James 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Cheng, O. B. (1994). *Disciples of the mind*. Seoul: IVP. Trans. Sire, James W.]
- 황홍렬 (2008). 장애인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부산장신논총**, 8, 부산장신대학교출판부.
- [Hwang, H. Y. (2008). An attempt to establish the theology of the disabled pers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8,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Ahlheim, H.(2011). *Deutsche, kauft nicht bei Juden! Antisemitismus und politischer Boykott in Deutschland 1924 bis 1935*. Goettingen: Wallstein Verlag.
- [Ahlheim, H.(2011). *Germans, do not buy from Jews! Anti-Semitism and political boycott in Germany 1924-1935*. Goettingen: Wallstein Press.]
- Aly, G.(1989). *Aktion T4: 1939-1945. Die "Euthanasie"-Zentrale in der Tiergarten 4*. Berlin: Edition Hentrich.
- [Aly, G.(1989). *Action T4: 1939-1945. The "Euthanasia" Center in the Tiergarten 4*. Berlin: Edition Hentrich.]
- Barkai, A.(1988). *Vom Boykott zur "Entjudung". Der wirtschaftliche Existenzkampf der Juden im Dritten Reich 1933-1943*.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Verlag.

- [Barkai, A.(1988). *From boycott to “dejudishment”. The Economic Existential Struggle of the Jews in the Third Reich 1933-1943*.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Press.]
- Benz, W.(2008). *Der Holocaust*. 7. Aufl., Muenchen: Beck.
- [Benz, W.(2008). *The Holocaust*. 7th edition, Muenchen: Beck.]
- Benzenhoefer, U.(2000). “*Kinderfachabteilung*” und “*NS-Kindereuthanasie*”. Studien zur Geschichte der Medizin im Nationalsozialismus. Bd. 1. Wetzlar: GW AB.
- [Benzenhoefer, U.(2000). “*Children’s Specialist Department*” and “*NS Children’s Euthanasia*”. Studies on the history of medicine under National Socialism. Bd. 1. Wetzlar: GW AB.]
- Benzenhoefer, U.(2006). *Zur Genese des Gesetzes zur Verhuetung erbkranken Nachwuchses*.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 [Benzenhoefer, U.(2006). *On the Genesis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Diseased Offspring*.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 Bernd, S.(1993). *Volksgemeinschaft im Dritten Reich*. Die Konsensbereitschaft der Deutschen aus der Sicht sozialistischer Exilberichte. Duesseldorf: Droste.
- [Bernd, S.(1993). *Volksgemeinschaft in the Third Reich*. Consensus readiness of the Germ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ist exile reports. Duesseldorf: Droste.]
- Burleigh, M.(2000). *Die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Eine Gesamtdarstellung. 2. Aufl. Frankfurt a. M.: Fischer.
- [Burleigh, M.(2000). *The time of National Socialism*. An overall presentation. 2nd ed., Frankfurt a. M.: Fischer.]
- Essner, C.(2002). *Die Nuernberger Gesetze oder Die Verwaltung des Rassen- wahns 1933-1945*. Paderborn: Schoening.
- [Essner, C.(2002). *The Nuernberger Laws or The Administration of Racism 1933-1945*. Paderborn: Schoening.]
- Fengler, J./Jansen, G.(1987). *Handbuch der Heilpaedagogischen Psychologie*. Stuttgart/Berlin/Koeln/Mainz: Verlag W. Kohlhammer.
- [Fengler, J./Jansen, G.(1987). *Handbook of Therapeutic Psychology*. Stuttgart/ Berlin/ Koeln/Mainz: Press W. Kohlhammer.]
- Ferdinand, T.(1991).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Grundbegriffe der reinen Soziologie. 3. Auf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Ferdinand, T.(1991). *Community and society*. Basic concepts of pure sociology. 3nd. e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Franz, J.(1997). *Die braune Gesellschaft*. Ein Volk wird formatiert. Stuttgart: Verlag Der Evang. Gesells.
- [Franz, J.(1997). *The brown society*. A people is being formatted. Stuttgart: Verlag Der Evang. Gesells.]
- Frei, N.(2013). *Der Fuehrerstaat*. Nationalsozialistische Herrschaft 1933–1945.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Frei, N.(2013). *The Fuhrer State*. National Socialist rule 1933–1945.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Press.]
- Friedlander, H.(2001). *Der Weg zum NS-Genozid*. Von der Euthanasie zur Endloesung. Berlin: Heyne.
- [Friedlander, H.(2001). *The path to Nazi genocide*. From euthanasia to the final solution. Berlin: Heyne.]
- Friedlaender, S.(2007). *Das Dritte Reich und die Juden*. Die Jahre der Verfolgung 1933–1939. Die Jahre der Vernichtung 1939–1945. Einbaendige Sonderausgabe. Muenchen: C. H. Beck.
- [Friedlaender, S.(2007). *The Third Reich and the Jews*. The years of the persecution 1933–1939. *The years of annihilation 1939–1945*. Inserted special edition: Muenchen.]
- Gerhardt, V.(2004). *Die angeborene Wuerde des Menschen*. Aufsaeetze zur Biopolitik. Berlin: ParErga.
- [Gerhardt, V.(2004). *The innate dignity of man*. Essays on biopolitics. Berlin: ParErga.]
- Goffman, E.(1990). *“Stigma-ueber Techniken der Bewaeltigung beschaedigter Identitaet*. Frankfurt. a. M.: Suhrkamp.
- [Goffman, E.(1990). *“Stigma-about techniques of managing bewitched identity*. Frankfurt. a. M.: Suhrkamp.]
- Gruchmann, L.(1985). *Der Zweite Weltkrieg*. Muenchen: dtv.
- [Gruchmann, L.(1985). *The second World War*. Muenchen: dtv.]
- Hamm, M.(2005). *“Lebensunwert”: zerstörte Leben*. Zwangssterilisation und “Euthanasie”. Frankfurt a. M.: Verlag für akademische Schriften.
- [Hamm, M.(2005). *“Unhuman life”: destroyed lives*. Forced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Frankfurt a. M.: Publishing house for academic writings.]
- Hass, G.(1990). 23. August 1939. *Der Hitler–Stalin Pakt*. Berlin: Dietz Verlag.

- [Hass, G.(1990). August 23, 1939. *The Hitler-Stalin Pact*. Berlin: Dietz Press.]
- Hesselberger, D.(1999). *Das Grundgesetz*. Kommentar fuer die politische Bildung. 11. Aufl. Neuwied/Kriftel: Luchterhand.
- [Hesselberger, D.(1999). *Constitution*. Comment for the political education. 11th edition. Neuwied/Kriftel: Luchterhand.]
- Hufton, O.(1999). *Menschenrechte in der Geschichte*. 2. Aufl. Frankfurt a. M.: Fischer.
- [Hufton, O.(1999). *Human rights in history*. 2nd ed. Frankfurt a. M.: Fischer.]
- Jahn, P./Weiler, F./Ziemer, D.(2017). *Der deutsche Krieg um "Lebensraum im Osten" 1939-1945*. Berlin: Metropol.
- [Jahn, P./Weiler, F./Ziemer, D.(2017). *The German War for "Habitat in the East" 1939-1945*. Berlin: Metropol.]
- Jeffrey, V.(2000). *Der "Geist von 1914" und die Erfindung der Volksgemeinschaft*. Hamburg: Hamburger Edition.
- [Jeffrey, V.(2000). *The "Spirit of 1914" and the invention of the Volksgemeinschaft*. Hamburg: Hamburger Edition.]
- Klee, E.(1983). *"Euthanasie" im NS-Staat*. Die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Frankfurt a. M.: S. Fischer.
- [Klee, E.(1983). *"Euthanasia" in the Nazi state*.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 Frankfurt a. M.: S. Fischer.]
- Klee, E.(1985). *Dokumente zur "Euthanasie"*. im NS-Staat.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Klee, E.(1985). *Documents on "euthanasia"*. in the Nazi stat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Koop, V.(2014). *Wer Jude ist, bestimme ich: "Ehrenarier" im National sozialismus*. Koeln/Weimar/Wien: Boehlau.
- [Koop, V.(2014). *Whoever is a Jew, I determine: "Ehrenarier" under National Socialism*. Koeln/Weimar/Wien: Boehlau.]
- Mattner, D.(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 [Mattner, D.(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 between exclusion and integration*. Stuttgart: Press W. Kohlhammer.]
- Miles, R.(1992). *Rassismus*.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und Theorie eines

- Begriffs. Hamburg: Argument Verlag.
- [Miles, R.(1992). *Racism*.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theory of a concept. Hamburg: Argument Press.]
- Plumelle-Urbe, R. A.(2004). *Weisse Barbarei*. Vom Kolonialrassismus zur Rassenpolitik der Nazis. Zürich: Rotpunktverlag.
- [Plumelle-Urbe, R. A.(2004). *White barbarism*. From colonial racism to racial politics of the Nazis. Zürich: Rotpunkt Press.]
- Pohl, D.(2000). *Holocaust*. Die Ursachen-das Geschehen-die Folgen. 2. Aufl. Freiburg: Herder.
- [Pohl, D.(2000). *Holocaust*. The causes-the events-the consequences. 2nd ed. Freiburg: Herder.]
- Quante, M.(2010). *Menschenwuerde und personale Autonomie*. Demokratische Werte im Kontext der Lebenswissenschaft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Quante, M.(2010). *Human dignity and personal autonomy*. Democratic values in the context of the life sciences. Hamburg: Felix Meiner Press.]
- Rudnick, M.(1990). *Aussondern-Sterilisieren-Liquidieren*. Die Verfolgung Behinderter im Nationalsozialismus. Berlin: Edition Marhold.
- [Rudnick, M.(1990). *Singled-sterilizing-liquidating*. The Persecution of Disabled People in National Socialism. Berlin: Edition Marhold.]
- Schreiber, G.(2013). *Der Zweite Weltkrieg*. 5. Aufl. Muenchen: C.H. Beck.
- [Schreiber, G.(2013). *The second World War*. 5th edition. Muenchen: C.H. Beck.]
- Stadler, H.(1998). *Rehabilitation bei Koerperbehinderung*. Eine Einfuehrung in schul-, sozial- und berufspaedagogische Aufgaben. Stuttgart/Berlin/Koeln: Verlag W. Kohlhammer.
- [Stadler, H.(1998). *Rehabilitation in case of disability*. An introduction to school,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tasks. Stuttgart/Berlin/Koeln: Press W. Kohlhammer.]
- Voigt, R.(2008). *Großraum-Denken*. Carl Schmitts Kategorie der Großraumordnung.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Voigt, R.(2008). *Great space Thinking*. Carl Schmitt's category of the great space-order. Stuttgart: Franz Steiner Press.]
- Wolgast, E.(2009). *Geschichte der Menschen- und Buergerrechte*. Stuttgart: Kohlhammer.
- [Wolgast, E.(2009). *History of human and civil rights*. Stuttgart: Kohlhammer.]

인터넷 자료

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2018. 4. 11).

[German Federal Government,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8/01/2018-01-31-bt-gedenken-ns-opfer.html>(2018. 4. 11).]

MBN 뉴스. <http://mbn.mk.co.kr>(2018. 4. 10).

[MBN News,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3&news_seq_no=3499691(2018. 4. 10).]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2018. 5. 11).

[Christian Today. <http://www.christiantoday.co.kr>(2018. 5. 11)/news/312230(2018. 5. 11).]

논문초록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 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김기홍 (부산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독일의 제3제국이 추구했던 다양한 정치이념과 사회정책들 속에서 나타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인간관을 고찰하고, 이를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시 독재정권은 특히 민족공동체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이념,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독일의 국내·외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이기적인 집단의식에 따라서 형성된 천박한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타민족 및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민족이나 인종적인 이유로 배타적, 거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화평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둘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우생학적인 인종주의 관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학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수 십 만 명의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이라는 미명하에서 대량 살해하는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는 히틀러 독재정권이나 흔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적,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질서와 구원사역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이나 혹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죽음’을 소멸로 보아 많은 고귀한 생명을 학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음으로서 갈등과 분쟁 등 각종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상호 관련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목숨이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큰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오늘날 안락사, 인공임신중절, 사형, 자살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서 점점 공리주의적 혹은 현세주의적 사상이 점차 대두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존재 가치 및 의미 등이 점점 더 합리적, 경제적, 생산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시대정신을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왜곡된 인간성 및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는 매우 절박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 윤리, 인간 존엄성, 히틀러, 민족사회주의, 인간관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 : 교육과정의 재구성 제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gh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of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Proposal of the Curriculum

김미림 (Mi Rim Kim)*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theoretical reflections of the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for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ventually, I will suggest some hopeful directions for the christian and alternative mathematics curriculum. To reach this goal, chapter2 presents the educational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se objective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education, I will examine the ways of operating and organizing the high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s which are currently being practiced among the member schools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Furthermore, I will evaluate the necessity for restructuring the curriculum which emphasizes both christian and alternative education, so that the educational purpose for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ust be reflected in each subject education. Then chapter3 pursues a certain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mathematics and the goals of mathematics education based on it. These will be the crucial elements to be considered for reconstructing the educational curriculum. Lastly, this article presents the major three directions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curriculum, which reflect the goals as assessed above as to the christian alternative mathematics education.

Key Words :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athematical education, mathematics curriculum, religious neutrality of education, theology and mathematics

*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Baekseok University) 및 밀알두레학교 교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안로 76, adonis2307@daum.net

2018년 08월 12일 접수, 09월 17일 최종수정, 09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운동은 교육부의 인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 되어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혹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안교육은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안교육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각각 설립이념과 목적을 갖고 교육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대한 우려로 대안교육의 대안이 거론되는 요즘, 스스로의 성찰을 절감(切感)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의 일환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안교육의 여러 유형 중에서 기독교대안학교에 주목하여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교육과정의 의미는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정하고, 일정한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다. 기독교교육학자 리처드 에들린(Richard Edlin, 1994: 37)은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양적 증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행정, 경영, 교육과정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설립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 김선요와 박상진 등을 통해 재확인된다. 김선요(2004: 6)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의 문제를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을 주장한다. 또한 박상진(2016: 58)은, 타월하지 못한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대안이 되지 못하며,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현재의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과정, 특히 각 교과교육이 중시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이라는 특정 교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각 학문에 대해 점차 심화되는 교육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교과를 특정하였다.

앞으로 II장에서는 현재의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이자 교육방향이 되는 ‘교육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한 후에, 2절에서 이 교육목적이 수학교과에 반영되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마치며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적을 반영하여 교과와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수학교과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고, 수학교육목표와 재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현재

먼저, 1절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배경과 역할을 통해 기독교대안학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수학교육과정 편성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3절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적이 수학교육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1.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적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제도에 한계를 느껴 자유롭게 교육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 5월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고, 1996년 12월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고형섭, 2010: 18). 1997년에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를 허가하자, 1998년에 6개 학교, 1999년에 4개 학교가 개교하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고형섭, 2010: 8). 이렇게 시작되어 확산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기독교대안학교는 2006년에 50여 개, 2012년에 131개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에는 전국의 대안학교가 235개였으므로 대안학교에서 기독교대안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에 이르게 되었다(이종우, 2013: 160). 현재는 대안학교의 수가 급증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학교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대안학교의 급속한 확산 및 발전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왜곡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등장한 기독교대안학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역할을 전제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법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의하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된다. 여기서 대안학교의 ‘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으로 명시된다.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의 학생들이 학업 중도탈락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 특성을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안학교의 역할 중 중요한 하나는, ‘기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종교의 자유와 중립성을 이유로 종교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불가”하다. 교육에 대한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주제는 교육학자 또는 종교철학자 등에 의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되었다. 종교철학자 로이 클라우저(Roy Clouser, 2017: 22-23)는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에서 그 어떤 이론(학문)도 종교적 믿음에 의해 규제되고 지도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음을 주장한다. 어느 이론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그 이론이 전제하는 종교적 믿음에 따라 다르게 생각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는 것 뿐 아니라, 무언가를 신적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물이 수로 만들어져있다고 믿은 피타고라스학파를 예로 들 수 있다. 피타고라스학파는 일상 경험의 대상들이 수(數) 및 수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를 신적 실재로 보았다(Clouser, 2017: 45-48). 이것을 참고하면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에서 배제한 기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기독교선교학교(mission school)와 차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별개의 학교로 존재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중요한 다른 하나의 역할로 이어진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대학 입시로 축소 및 왜곡시키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어 획일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교육은 획일적인 평가로 이어져 성적 중심, 결과 중심의 교육이 되게 하였고, 학생의 재능과 흥미, 진로를 찾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소위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게 되었다. 이는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 학교의 문화가 변질되어 경쟁의 장이 되게 하며, 학생들은 협동과 공동체 문화를 경시하고 개인주의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김선요, 2004: 5). 또한 학생의 정체성과 재능, 소명 등을 스스로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대한학교는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 결과 중심 교육 등을 지양하며, 체험하는 교육과 인성교육,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대안적 교육’을 기독교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과 개인주의에 만연한 문화를 벗어나, 각 학생의 성품과 공동체성 등의 함양을 위해 기독교적으로 ‘인성 교육’을 하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학생의 정체성과 재능, 은사, 소명을 깨닫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설립이념만 가졌거나 예배나 성경공부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대한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모든 면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고형섭, 2010: 12).

왜곡된 교육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한학교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배제된 기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통해 대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그리고 이 역할들은 기독교대한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기독교대한학교의 첫 번째 교육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의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육이다. 교회와 학교를 신앙을 교육하는 기관과 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도 기독교적인 지식과 가치, 신념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교육이 지식적인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삶에서 배우고 경험되어야 하며, 삶으로 배운 모든 것을 통해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대한학교의 두 번째 교육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인성교육과 학생 개인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는 ‘대안적’

교육이다. 학생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재능과 은사, 소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진로를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성적 중심과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교육의 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며 친구들과 선·후배 간에 화합하도록 하며 이웃과의 소통과 협력을 배우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교육을 실현해야 하며, 여러 교과를 통한 지식의 함양 뿐 아니라 그동안 공교육에서 간과되었던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에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대안학교의 장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본 절에서는, 실제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하 기대연)에 소속된 회원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살펴볼 것이다. 2018년 3월에 홈페이지의 회원학교 명단을 기준으로, 기대연의 회원학교는 65개교이다. 65개교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41개교이며, 그 중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별 교육과정이 기재된 23개교를 중심으로 수학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학교과는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학교와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학교로 분류할 수 있다. 23개교 중 20개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며, 3개교는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안에서도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1 기대연 회원학교의 수학교육과정 분류

		구분	학교 비율	합
국외(미국) 교육과정		AP-course 개설	2/23	3/23
		AP-course 미개설	1/23	
국가 교육과정	(1) 계열별	인문 과정 개설	6/23	20/23
		인문, 자연 과정 개설	10/23	
		인문, 자연, 예체능 과정 개설	2/23	
		인문, 자연, 검정고시 과정 개설	2/23	
		인문, 자연, 검정고시 과정 개설	2/23	
	(2) 기본 단위 기준	기본 단위 유지	17/23	20/23
		기본 단위 초과	3/23	

먼저,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학교에 대한 설명이다. 기대연 회원학교 중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3개교는 모두 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3개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2개교는 속진 과정으로 연결되는 AP-course가 개설된 반면에, 1개교는 개설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교육과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학교 체계에 차이가 존재한다. 중학교 기간의 시작은 5학년 또는 6학년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모든 주가 동일하게 9학년에서 12학년까지로 정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이하 CCSSM)가 국가 수학교육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42개 주가 이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영옥, 2016: 373). CCSSM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최소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CCSSM의 부록에 고등학교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CCSSM의 부록에서는 미국 내의 전통 과정, 통합 과정, 전통 속진 과정, 통합 속진 과정의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 과정을 밟은 후에 고등 수준의 수학 교과목으로 미적분학 입문, 미적분학, 고급 통계, 이산수학, 고급 양적 추론이나 기술 경력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교과 과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CCSSM, 2010: 3). ‘전통 과정’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Algebra I, Geometry, Algebra II로 구분했던 것을 기반으로 이 순서로 학습하도록 구성된 과정이며, ‘통합 과정’은 이와

달리 대수와 기하를 혼합하여 Mathematics I · II · III으로 구분하고 이 순서로 학습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속진 과정’은 AP-course 등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이나 통계와 같은 고등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7학년과 8학년에 고등학교의 내용을 속진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전통 속진 과정’은 고등학교의 Algebra I 을, ‘통합 속진 과정’은 고등학교의 Mathematics I 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미적분이나 고급 통계 등이 제시되지 않지만,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대학입학시험 또는 대학 이후의 생활을 위해 속진 과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정영옥 외, 2016: 373-374).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20개교의 분류 안에서도 수학교육과정의 편성은 다양하다. Table1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재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계열별 분류이다. 기독교 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은, 인문 과정만 편성된 경우, 인문 과정과 자연 과정이 편성된 경우, 인문 과정과 자연 과정 그리고 예체능 과정이 편성된 경우, 인문 과정과 자연 과정 그리고 검정고시 과정이 편성된 경우 등으로 운영된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과정의 분류는 일반 학교와 다르지 않지만, 검정고시 과정은 특수한 경우이다. 이 분류의 20개교 중 비인가 학교는 14개교인데, 그 중 2개교는 수학 I · II를 중심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권고하는 ‘기본 단위’를 유지하는 학교와 초과하는 학교로의 분류이다. 20개교 중 기본 단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7개교, 초과하는 학교는 3개교이다. 여기서 ‘단위’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학기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와 기본 단위는 5단위이며, 3단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에 적용중인 국가 수준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을 공통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선택 교육과정에 속하여 각 교과(군)에 따른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를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수준의 수학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의 과목은 기본 과목(1개), 일반 과목(6개), 심화 과목(2개)으로 구성된다. ‘기본 과목’에 해당하는 ‘기초 수학’은 중학교 수학의 내

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하는 과목으로, 수와 식의 계산, 방정식과 함수,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를 다룬다. ‘일반 과목’은 수학 I ·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II, 기하와 벡터의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 수학을 이수한 후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수학 I’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수학 II’는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를 다룬다. ‘미적분 I’은 수학 I · II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다룬다. ‘미적분 II’는 미적분 I을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대학의 자연 계열 또는 공학 계열 등 미적분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이수하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을 다룬다. ‘기하와 벡터’는 미적분 I · II를 이수한 후,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평면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벡터를 다룬다.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고급 수학 I · II는 수학의 일반 과목에서 학습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심화된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목이다. 심화된 수학적 지식과 사고 방법을 습득하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키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함으로써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학습에 기초를 제공한다. ‘고급 수학 I’은 벡터와 행렬, 일차변환, 그래프, ‘고급 수학 II’는 복소수와 극좌표, 미적분의 활용, 편미분을 다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의 과목은 공통 과목(1개), 일반 선택 과목(4개), 진로 선택 과목(4개)으로 구성된다.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다. ‘수학’은 기존에 수학 I · II에 해당한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를 다룬다.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 I ·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수학 I · II’와 ‘확률과 통계’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수학 I’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학 II’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미적분’은 수학 I · II를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의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기하’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기하학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실용 수학’은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규칙, 공간, 자료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I’을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수와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다. ‘수학 과제 탐구’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수학 과제 탐구’에서는 수학 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학습한 수학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교과와 수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한다(교육부, 2015).

기본 단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3개 기독교대안학교는 모두 자연과정에서 초과한다. 보다 많은 시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수학 I ·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II, 기하와 벡터의 6개의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현실적 이유라 할 수 있다. 3개교는 모두 사교육을 지양하고 학교의 교육과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을 권고한다. 편성된 교과 시간에서 전통적인 학교교육과 같이 강의식 수업만 진행하지 않고, 충분히 학생들이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위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를 통해 전체 기독교대안학교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학교과 특성상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비중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학습의 연계성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검증되어 사용되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

이다. 그 외에도 상급학교 진학과 검정고시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교육 과정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현행 기독교대안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2절에서 살펴본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며, 그 기준은 1절에서 강조한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이어야 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적이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경우에, 수학교육이 충분히 대안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2절에서 살펴본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OECD에서 주관하는 PISA에 참여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주었다. 수학교과와 경우, PISA 2000에서는 43개 참여국 가운데 3위, PISA 2003에서는 41개 참여국 가운데 3위, PISA 2006에서는 57개 참여국 가운데 1~4위, PISA 2009에서는 75개 참여국 가운데 3~6위, PISA 2012에서는 65개 참여국 가운데 3~5위, PISA 2015에서는 70개 참여국 가운데 6~9위를 기록했다(구자옥 외, 2016: 19). 그러나 꾸준히 상위권의 학업성취를 보인 반면에,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와 수학을 대하는 자아신념을 측정하는 정의적 성취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현 외, 2014: 23). 즉 학생들은 수학을 학습하며 느끼는 흥미와 즐거움 등의 내적 동기와 수학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도구적 동기가 약하며, 주어진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아효능감이 낮다는 결과이다.

PISA 2003 결과를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교과에서 정형화된 기존의 익숙한 문제 유형과 단순한 개념 이해 및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에는 강하지만, 생소한 문항과 답을 추론하는 이유, 풀이과정을 답하는 등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에서 취약함도 드러난다(이동훈·유용재, 2013: 145). 이는 그동안 공교육의 수학교육이, 수학에 대한 가치나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전에, 강의식 수업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며, 과정보다 결과를 지향하는 평가에 의존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을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것에 습관을 들이면서, 자신의 목

표보다 낮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은 점차 포기하게 된다. 목표에 도달하는 학생들은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얻겠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수학을 포기하는 소위 수포자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교육과 동일한 교육과정, 심지어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대안적인 교육인가를 재고해야 한다.

더욱이 5단위로 편성해도 쉽지 않은 공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3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면, 학습에 대한 결손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 수준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며 교육 내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적인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의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수학 교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등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학에 대한 학습 손실은 학생에게 검정고시나 수능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더하게 되며, 대학을 진학해서도 스스로 채워야 하는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교육을 지양하며 기본 단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기독교대안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더라도 협력 학습과 다양한 교육방법 등을 통해 수학을 대하는 태도와 인성교육의 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학생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거나 학습에 대한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도움을 받는 학생은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한 번의 성취감은 다른 문제에 도전하는 자신감이 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함께하며 배려와 섬김 등의 가치를 수업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대안학교의 수학교육이 기본 단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양을 축소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경우에, 수학교육이 기독교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적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단편적으로 교과와 신앙의 연결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종교의 중립성을 이유로, 종교에 대한 가치를 배제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학자 반 브루멜렌(Harro Van Brummelen)은 교육이란 태도와 성향을 형성하고 사상에 형태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들은 각각

다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학교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Brummelen, 1992: 5). 즉 교육 전반과 교과교육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교육의 이면을 찾아, 기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성경은 한 결 같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초점을 벗어난 가치중립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대한학교는 숨겨진 가치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김선요, 2004: 6). 수학을 통해서 세상에 부여된 질서를 찾고, 그 질서를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고 믿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학교는 대안적일 뿐 아니라, 수학교과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한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독교대한학교의 수학교육에서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 논의하였는데, 국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상진(2010: 8)은 다수의 기독교대한학교에서 미국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등의 미국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수학교육은 근대 교육의 초기부터 계속하여 미국의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공교육에 대한 한계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미국 등의 국외 교육과정을 참고하되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외 교육과정은 사회적·제도적인 환경과 진학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 국외의 교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고려하되, 우리의 사회·문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Ⅲ. 기독교적이고 대안적인 수학교육의 제안

본 장에서는 기독교대한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

적 논의를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2절에서는 기독교대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수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3절에서는 이 교육목표가 반영되는 수학교육과정의 구성을 다시 강조하며, 구성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할 것이다.

1. 수학교과에 대한 신학적 이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신학과 수학의 결합의 시초를 피타고라스(Pythagoras)로 지목하였으며, 지성화된 신학의 특징이 연역적 추론을 이용하는 수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18-19세기까지 수학과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인간의 지적 시도를 넘어서, 종교적 함의를 갖는 작업이었다. 신의 창조물인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창조주에 대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경외감과 신뢰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신재식, 2006: 91-92). 16-18세기의 수학자들은 대부분 자연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탐구할 때에 자연에 대한 신의 수학적 설계를 전제하였고(Kline, 1980: 35), 그로 인해 수학적 지식은 성경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는 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수학적 언어로 저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신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으로 여겼고,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z)는 ‘신이 계산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Kline, 1980: 60).

신학과 수학의 관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이 수학적 설계자라는 믿음’이 분리되는 19세기이다. 신학과 수학의 분리가 확고해지면서 서로 교차하지 못하는 듯 했으나, 21세기에 신학과 수학의 공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현우식·김병한, 2003: 27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학과 수학의 결합 혹은 공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공통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신학과 수학이 결합 혹은 공명이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며, 수학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학과 수학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속한다. 학문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신학과 수학에서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학문 활동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신학이 신학적 전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수학은 수학의 기초적 전

제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현우식 · 김병한, 2003: 263-264). 수학은 함수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미지의 양을 다루는 도구(algebra)이자 미지의 공간을 다루는 도구(geometry)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학은 구체적 대상 뿐 아니라 추상적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현우식, 2007: 173). 예를 들면, 우리는 수(algebra)나 도형(geometry)이 가시적인 혹은 물질적인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1991: 190)도 수학적 이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수를 ‘세는 수’와 ‘셈의 준거가 되는 수’로 구분한다. 세는 수는 우리가 계산할 때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써의 ‘표현된 수’이며, 셈의 준거가 되는 수는 이미지로 만들 수 없지만 ‘실재하는 수’를 의미한다. 이 ‘표현된 수’와 ‘실재하는 수’의 관계는 ‘언어’와 ‘내용’의 관계와 유사하다(현우식, 2014: 250).

둘째, 신학과 수학은 감각이나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은 기독교 신앙과 수학이 인식론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기반이 있음을 주장한다(Gaebelein, 1991: 90에서 재인용).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공리(公理)’로 명명한다. 수학의 한 영역인 기하학에서 제일 기본 공리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Euclid Alexandriae)가 제시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이다. 이것은 자명(自明)하지만 본질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전제이다. 파스칼은 이것을 ‘직관’ 또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자명한 이 수학적 진리들은 ‘직관’을 통해 발견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진리임을 ‘믿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Pascal, 1996: 76). 자명한 수학의 공리들은 본질상 검증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들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후에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사용한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공리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기독교의 기본 공리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후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하면서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적 인격이라는 무한한 영역에서 열매들을 맺어간다(Gaebelein, 1991: 92-93).

셋째, 신학과 수학은 각 학문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수단’으로 ‘무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신학에서 진리의 문제가 ‘신’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학에서 진리의 문제는 ‘무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Davis & Hersh, 1981: 108). 아우구스티누스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Plato)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학

적 이해를 제시한다. 기존에 수학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은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비례와 형상, 경계가 없는 혼돈의 상태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고, 그에 따라 신도 유한과 관련된 존재로 해석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 무한을 자연수의 집합과 하나님의 지식의 새로운 차원에서 연결하여, 하나님을 모든 수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존재로 정의하였다(Augustinus, 2004: 1305). 그는 하나님의 지식도 수의 무한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하나님은 수의 무한성을 포함하여 무한한 지식을 가진 존재로 강조한다(현우식, 2014: 257에서 재인용).

수학자 헤르만 바일(Herman Weyl, 1949: 66)은 현대 수학을 무한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수학의 목표는 유한한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여 무한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수학에서 무한의 이해는 집합론을 창안한 칸토르(Georg Cantor)의 업적에 주목할 만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칸토르는(Dauben, 1990: 229), 무한 자체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다루는 새로운 장을 열어, 더 이상 무한을 끝없는 불완전한 수열로 이해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는 무한을 ‘절대적 무한’, ‘물리적 무한’, ‘수학적 무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절대적 무한’이란 ‘신 안에서 실현되는 무한’으로서 신학적 무한이라고 할 수 있다. 칸토르는 절대적 무한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는 무한이며, 완전히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의해 실현되는 무한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무한’은 ‘창조된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구체적 무한이다. 예를 들어, 무한히 작은 입자들로 이해되는 물리적 세계와 관련된 실무한이다. ‘수학적 무한’은 ‘추상 내에서 존재’하는 초한적 무한이다. 예를 들어, 마음이 추상적으로 수학적 양이나 수로 이해하는 실무한을 의미한다(현우식, 2011: 15-17). 칸토르가 말하는 절대적 무한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 정복될 수 없는 대상, 즉 도달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God)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칸토르는 무한의 개념을 통하여 신을 이해하는 길을 수학적으로 제시했으며,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신학적 명제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에 공헌하였다(현우식, 2011: 7).

넷째, 신학과 수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모든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각 학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길을 통하여 접근했을 뿐이다(Davis & Hersh, 1981: 108). 기독교의 오랜 전통대로 성경 뿐 아니라,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데, 이는 자연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신학적 이해를 찾아볼 수 있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은 숫자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고 말한다.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James Jeans)는 이에 동의하며 ‘우주의 본질을 파헤치려고 애쓰는 과학의 여러 영역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수학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평하며, 우주를 건축한 창조주를 ‘위대한 수학자’라 표현하였다(Jeans, 1931: 136, 144).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와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만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학문과 이성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이해는 계시를 통한 것인데,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의미와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이성의 작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장성민, 2008: 194). 계시는 이성을 통해 이해되지 않으면 불완전하지만, 이성엔 신앙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한 신적 진리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장성민, 2008: 38). 신앙과 이성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며 신앙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신학은,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에 통찰을 제공한다. 기독교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하는 기독교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전반에, 특히 간과될 수 있는 각 교과 교육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고려하며, 교과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바른 신학적 관점을 지닌 기독교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Pascal, 1996: 151). 또한 ‘진리는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며, 생명이 없는 진리는 궁극적이며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장성민, 2008: 80).

우리나라에 기독교대안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각 학교의 교과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교과교육과 신앙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철학이 학생들의 교육현장에도 드러나야 한다. 복음주의 교육가 프랭크 게블라인(Frank Gaebelien, 1991: 97)은 기독교인 수학교사는, 수학과 기독교가 공동의 토대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학생들이 거대한 산들과 끊임없이 곱이

치는 대양, 그리고 무수한 별들로 수놓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에 경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진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경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2. 기독교대학의 수학교육목표

1절에서 기독교대학은 각 교과교육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학교과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기독교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수학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대학 역시 학문으로서 수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수학적 사고력과 통찰력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수학은 단순히 계산을 하고 주어진 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학(mathematics)이란, 본래 특정 학문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학문 전체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희랍어 ‘mathematikos’는 정신적 훈련 또는 지성인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였기 때문이다(Davis & Hersh, 1981: 113). 따라서 수학교육의 목표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 법칙 등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사고력 신장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연 및 사회 현상 등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수학은 사고력과 기본적인 소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그러나 수학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며, 수학만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해는 이성인 신앙보다 우위가 될 수 없다는 신학적 관점이다. 엄밀한 개념과 표현을 추구하는 수학이라는 학문도, 그 한계를 갖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리의 선택으로부터 서로 다른 입장의 수학이 건설될 수 있고, 그 입장들이 대립하거나 상충할 수 있음을 수학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현우식·김병한, 2003: 264). 수학자 힐베르트(David Hilbert)는 직관적인 수학을 형식적인 언어로 표현된 공리체계로 대체하여,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모든 수학적 진리가 유한한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쿠르트 괴델(Kurt Gödel, 1986: 173)의 ‘제1불완전성 정리’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수학적 진리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

다. 괴델은 제1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유한한 공리와 추론 규칙에 의해 구성되는 형식 시스템은 언제나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여, 수학적 진리를 인간의 유한한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2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 시스템은 그 자체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음을 밝혔다(Gödel, 1986: 193). 이는 수학이라는 시스템이 무모순적인 형식 시스템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수학 내에서는 수학의 무모순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괴델은 수학적 진리의 세계가 수학적 도구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임을 보여주었다(현우식, 2007: 178).

수학의 또 다른 한계는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다. 파스칼은 기하학이 사유와 추론의 가장 완벽한 형식이기 때문에 기하학을 가장 탁월한 학문으로 본다(장성민, 2008: 57에서 재인용). 그러나 기하학이 정신의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 자체로 정의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개념들과 명제들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데, 이 한계는 더 나아가 인간의 조건이나 본질,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파스칼은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인식은 이성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초자연적 질서에서 인간의 본질과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장성민, 2008: 69). 다시 말해, 자연적 질서에서 초자연적 질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또 다른 수학교육목표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수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느 교과보다도 수학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그 자연 현상이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쉬운 예로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피보나치수열과 황금비를 들 수 있다. 솔방울 껍질이나 해바라기 씨의 모양 등을 관찰하며 동일한 숫자 규칙을 발견하게 된다. 이 규칙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는지 관찰할 수도 있으며, 이 규칙을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칙을 일반화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피보나치수열 뒤의 항과 앞의 항의 비율이 황금비에 수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뿐 아니라, 자연세계에 만연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독교적인 대안교육의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에 숨어있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교육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찾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것을 기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파스칼이 말하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초자연적인 질서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연의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역으로 초자연적인 질서로부터 다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되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기존에 관찰하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학교과를 통해서 지성과 신앙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수학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함양은 생소한 문제일 수 있다. 교육학자 헤르바르트(Johann F. Herbart)는 수학이 가장 완전한 지식이며 인간 사고의 본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수학이 자연현상과 법칙을 통각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도덕성(인성)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 함양을 위하여 모든 교과 중에서 수학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Herbart, 1806: 83, 144). 헤르바르트는 수학 그 자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수학을 통해 인식 주체의 문제를 관련시켜 다루어, 학생의 주체적인 정신 도야에 관심을 둔다. 그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도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수학교육과정을 대략적으로 밝힌다. 초등학생의 시기에는 ‘직관’의 형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중학생의 시기에는 산술과 기하, 삼각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도하여 ‘수학적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며, 고등학생의 시기에는 수학을 삶에 적용하고 구현하여 ‘정신 도야를’ 위해 주의 깊고 완벽하게 공부하여 완성할 것을 제시한다(Herbart, 1806: 160).

수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200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최근 홍인숙과 고상숙(2016: 612)은 수학교육에서 가능한 인성교육 요소를 ‘약속, 정직, 배려, 책임, 용서, 소유, 민주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의 8가지로 제시한다. 인성교육은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나 마음, 가치관 등의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수학적 의미를 생각하도록 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확률이 시작된 된 배경은 게임에서 유리한 경우를 계산하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능성’의 계산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순열, 조합, 자연

수의 분할 등을 통해 계산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실제로 팀을 조직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일 등에 사용되며, 이 방법의 합리성 등을 판단해 보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절을 요약하면, 기독교대한학교의 교육목적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교육이 각 교과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과 그 창조세계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결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측면도 담당해야 한다.

3. 기독교대한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대한학교는, 수학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인성 함양 등을 목표로 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 목표는 기독교대한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들로 이어진다.

첫째, ‘수학의 지식과 수학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대한학교 뿐 아니라, 수학교육의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학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연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로부터 수학 성적을 얻는 것 외에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쓸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남게 하였기 때문에 지식과 함께 그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수학교육의 목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정신도야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성’, 문화 유물이나 자연 등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이 학생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학교 수학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 등을 정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황혜정 외, 2008: 44). 이제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하고 수학의 가치를 느낄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수학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학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과정의 목표에만 기술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수학에 대한 가치와 정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1987년에 고시된 5차 교육과정부터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게 하며, 수학의 용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며, 이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외에,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하고,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갖는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의 국제비교평가인 TIMSS 2011에 기반하여 수학학습 흥미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수학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좋아함’으로 반응한 비율은 42개 참가국 중 41번째를 기록하게 된 것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박지현, 2013: 388). 아직 교육현장에서의 수학교과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과중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기능을 습득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생활의 문제해결에서도 단편적으로 정형화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학 지식 부분을 축소하고, 수학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가 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존재 목적과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수학교과의 기독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파스칼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며,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그분과 연합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Pascal, 1996: 112, 118). 이것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다음세대에 교육을 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교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다루어진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필자는 기독교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기독교교육과정과 세속교육과정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지적하는 김선요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삶의 영역을 ‘세속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종교 관련 교과 외에, 소위 ‘보통 교과’의 가치중립성으로 연결되어 기독교 신앙과 교과지식의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된다(김선요, 2004: 6).

신앙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한편에 믿음, 다른 한편에 교과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친 카이퍼는 당시 네덜란드의 학교교육이 법제화 되며 국가에 종속되고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배제되던 배경과,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위기를 느껴, 교육에서 성경적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은총과 영역주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경에 기반을 둔 전제인 세계관, 즉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 카이퍼는 이 원리가 단순히 신학과 교회의 영역에만 제한되길 원하지 않았다. 정치, 교육, 사회, 학문, 예술 등의 모든 사회방면에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가 흘러들어가 사회 저변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킨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함에 있어 교회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키는 세계관으로 제시했다(Kuyper, 1984: 51).

이 원리는 기독교적으로 교과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학교는 지식을 세분화하여 각 교과목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지식에 대한 전체성을 보는 것과 교과 사이의 관련성을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기독교적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박상진(2016: 108-109)은 이에 대하여 기독교사는 ‘교과가 왜 지금과 같이 분류되었고, 그것이 왜 교육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등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교과의 분류 기준이나 교육 내용,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 이전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과정의 전문가에 대한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교사에 의해 재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사 수준의 재구성은 그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선요(2004: 6)의 제안처럼 공동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교과의 기독교적 해석과 같이 큰 영역은 교과 교사 이전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 교과교육학의 전문가들에 의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수업 준비 외에도 학생들의 신앙생활, 학교생활 전반, 행정적 업무, 상담 등의 여러 업무를 담당

하는 기독교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또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셋째, 수학교육과정의 구성에 고려되어야 하는 마지막 요소는 ‘인성교육’의 측면이다. 성적중심과 결과중심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개인주의적인 혹은 이기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었고,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제는 비인간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인간적인 교육으로 회복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정형화된 문제보다 비정형화된 문제들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추론한 것을 나누며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학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수학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 ‘수학교과에서 기독교적 해석’을 하는 것, ‘인성교육의 함양’을 추구하는 것 등을 전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설립이념을 가진 기독교대안학교가, 공교육과 같이 모든 교과에 있어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교과의 특성과 각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장점을 살리되, 여러 시도 중인 기독교대안학교의 각 교과교육이 함께 연구해야 할 부분은 함께 연구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주장이다. 특히 수학교과는 학습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기 어려워, 기존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용하거나 국외 교육과정을 번역하여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각 학교의 차원에서 혹은 교과 교사의 차원에서 교과교육과정에 대하여 고민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바른 신학적 배경에서 교과를 해석하고, 교과의 지식을 넘어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 그 노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는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성장하는 열매로 맺혀지리라 기대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적과 관련하여 그것이 교과교육에 충분히 반영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여, 고등학교 수학교과라는 특정 대상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배경에 따른 역할을 통해, 왜곡된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기독교성을 바탕으로 대안적 교육을 실현해야 함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이며 대안적 교육이 각 교과교육과정, 특히 수학교과에 반영되는지 살피기 위해 기대연의 회원학교를 중심으로 수학교육의 편성 및 운영을 점검하였다. 수학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경우와 국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며, 이 분류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운영이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가의 질문을 제기하고, II장을 마치며 더 이상 국외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하며 충분히 대안적이며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III장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수학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고, 기독교대안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수학교육의 목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수학적 사고력과 통찰력의 함양이며, 둘째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초자연의 질서로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지식 위주와 결과 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제시한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로 이어져, 수학의 지식과 그 가치를 깨닫도록 하며, 교과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독교대안학교의 중등교육의 특정 교과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금년(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항의 적용은 후속연구로 계획하고자 한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급성장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20여 년의 역사를 갖는 기독교대안학교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교육이 처음의 목적대로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각 교사와 학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공동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필요를 느끼며 학교 단위를 넘어,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교육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해 교과 모임 혹은 교육과정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성과 인성, 신앙 교육을 위한 각 교과와 교육과정의 개발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회복되는 길의 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의 변화는 기존 공교육의 개선과 발전에도 좋은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회복을 희망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형섭 (2010).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과정 사례 연구. **신학지평**, 23(2), 5-36.
- [Koh, H. S. (2010). A Case Study on Curriculum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Horizon of Theology*, 23(2), 5-36.]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제2011-361호 수학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2011-361 Curriculum of Mathematics Departmen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교육과학기술부 (2015). **제2015-74호 수학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74 Curriculum of Mathematics Department*. Se 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구자옥 외 (2016).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 PISA2015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oo, J. O. (2016). *A Case Study on OECD PISA: PISA 2015 Result Repor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김수진 · 박지현 (2013). TIMSS 2011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분석. **수학교육학술지**, 2, 387-391.
- [Kim, S. J. & Park, J. H. (2013). Analysis of students' confidence and interest in mathematics based on TIMSS 2011 results. *Studies in Mathematical Education*, 2, 387-391.]
- 김선요 (2004).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현황과 비전. **교육교회**, 328, 4-9.
- [Kim, S. Y. (2004). The Present State and Vis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ducation. *Church Education*, 328, 4-9.]
- 김형길 역. (1996). **팡세**. Pascal, B.(1678). *Pensees*.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H. K. (1996). *Pensees*.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Trans. Pascal, B. (1678). *Pensees*. Paris: Desprez.]
- 박상진 (2010). **한국 기독교학교교육운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Park, S. J. (2010). *Korean Christian School Movement*. Seoul: Ye Yeong Communication.]
- 박상진 (2016).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Park, S. J. (2016). *Studies on Christian School Education*. Seoul: Ye Yeong Communication.]
- 박영남 역. (1984). **칼빈주의**. Kuyper, A.(1981).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세종문화사.
- [Park, Y. N. (1984). *Lectures on Calvinism*. Seoul: Se Jong Culture Co. Trans.

- Kuyper, A. (198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 Co.]
- 신재식 (2006). 다윈진화론의 자연신학 비판과 다윈 이후 진화론적 유신론 연구: 기독교신학의 신-담론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1), 89-120.
- [Shin, J. S. (2006). The Critique of Darwin's Evolutions Theory on Natural Theology and an Evolutionary Theism after Darwin: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God-Talk in Christian Theology.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46(1), 89-120.]
- 이동훈 · 유용재 (2013).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성취 특성 연구 및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제언. **수학교육학술지**, 1, 141-146.
- [Lee, D. H. & Yoo, Y. J. (2013). A Study of Korean Students' Characteristics in Mathematics Achievement by analyzing PISA results And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Studies in Mathematical Education*, 1, 141-146.]
- 이종우 (2013). 한국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기독교 교육정보**, 37, 159-200.
- [Lee, J. W. (2013). The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Teacher Training in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7, 159-200.]
- 이창국 역. (1991). **신본주의 교육**. Gaebelein, F. E.(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e, C. K. (1991). *The Pattern of God's Truth*. Seoul: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Trans. Gaebelein, F. E. (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장성민 (2008). **마음의 질서: 파스칼 철학의 개혁주의적 해석**. 서울: 충신대학교출판부.
- [Jang, S. M. (2008). *Order of mind: A reformist interpretation of Pascal's Philosophy*. Seoul: Chongshin University.]
- 정영옥 외 (2016).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호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26(3), 371-402.
- [Chong, Y. O. et al. (2016). A Comparative Study of Mathematics Curriculum among the United States, Singapore, England, Japan, Australia and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6(3), 371-402.]

- 최승현 · 박상욱 · 황혜정 (2014). PISA와 TIMSS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정의적 성취 실태 분석: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7(1), 23-43.
- [Choe, S. H., Park, S. W. & Hwang, H. J. (2014). Analysis of the actual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in the PISA and TIMSS results: Focusing on Mathematics.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17(1), 23-43.]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회원학교 현황”,
<http://www.casak.org/sch/sch010.aspx?gbn=1&mc=02001>. (검색일 2018.3.4.)
- [“Member School Status of Associ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Retrieved from<http://www.casak.org/sch/sch010.aspx?gbn=1&mc=02001> (2018.3.4.)]
- 현우식 · 김병한 (2003). 신학과 수학에서의 진리와 믿음: 사영결정 공리의 신학적 함의. **신학사상**, 123, 263-291.
- [Hyun, W. S. & Kim, B. H. (2003). Truth and Faith in Theology and Mathematics: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Axiom of Projective Determinacy. *Theological Thought*, 123, 263-291.]
- 현우식 (2007). 쿠르트 괴델의 수학적 신학: 불완전성 정리, 무한, 하나님에 관한 존재론적 증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 171-196.
- [Hyun, W. S. (2007). The Mathematical Theology of Kurt Godel: In completeness Theorems, Infinity, and Ontological Proof of God.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49, 171-196.]
- 현우식 (2011). 칸토르의 수학 속의 신학. **한국수학사학회지**, 24(3), 13-21.
- [Hyun, W. S. (2011). Cantor's Theology and Mathematics of the Infinite.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4(3), 13-21.]
- 현우식 (2014). 아우구스티누스의 수학 신학. **조직신학논총**, 40, 245-274.
- [Hyun, W. S. (2014). Augustinus on Mathematical Theology.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40, 245-274.]
- 홍병룡 역. (2017).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Clouser, R.(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서울: 아바서원.
- [Hong, B. R. (2017).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Seoul: Abba Books. Trans. Clouser, R.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홍인숙 · 고상숙 (2016). 인성교육을 위한 수학 교수 · 학습에서 고등학생들의 범교과적 인성요소에 대한 인식변화. **수학교육학연구**, 26(3), 607-633.

- [Hong, I. S. & Koh, S. S. (2016). Exploring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n Cross-Curriculum Character Education Factors in Mathematical Teaching &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6(3), 607-633.]
- Augustinus, A. (1991). *Confessions: Saint August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Appendix A*. Common Core State Standards Mathematics.
- Davis, P. J. & Hersh, R. (1981). *The Mathematical Experience*. Boston: Birkhauser.
- Dauben, J. (1990). *Georg Cantor: His Mathematics and Philosophy of the Infinit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dlin, R. J. (1994).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Alabama: Vision Press.
- Gödel, K. (1986). *Kurt Gödel Collected Works Vol I: Publications 1929-19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bart, J. F. (1806). *Herbart's ABC of Sense-perception and Minor Pedagogical Works*. Trans. William J. E.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Jeans, J. (1931). *The Mysterious Unive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M. (1980). *Mathematics: The Loss of Certain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Brummelen, H. (1992).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Seattle: Alta Vista College Press.

논문초록

기독교대한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 : 교육과정의 재구성 제안을 중심으로

김미림 (백석대학교, 밀알두레학교)

본 논문은 기독교대한학교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대한학교교육이, 수학교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며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II장에서는 기독교대한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이것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국기독교대한학교연맹(이하 기대연)의 회원학교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독교적이며 대안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기독교대한학교의 교육목적이 각 교과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수학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학교육목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학교육목표는 교육과정의 구성원리로 이어져, 세 차원의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

주제어 : 기독교대한학교, 수학교육, 수학교육과정,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수학과 신학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ligious Characteristics among Christian Young People on the Participation and Continuity of Voluntary Activities

김민선 (Minsun Kim)*

오혜정 (Hyejeong Oh)(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손병덕 (Byoungduk Sohn)***

Abstract

Using the data of 250 Christian young volunteers, this study explored the condition of voluntary activities and continuity among Christian young people and how these variables have impacts on the continuity and the participation levels of voluntary activities among them. Frequency analysis, ANOV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Christian young volunteers' voluntary time, the level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the numbers of voluntary activities made impacts on the continuity and the participation levels of voluntary activities among them. Based on the results, the methods of voluntary participation, effective recruit and placement were discussed for the local social welfare practice driven by local churche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Christian young people, religious activities, voluntary activities, participation, continuity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mspiglet@hanmail.net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yejeong.oh@gmail.com

***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bdsohn@csu.ac.kr
2018년 09월 11일 접수, 09월 25일 최종수정, 09월 27일 게재확정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실천의 확대와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Dominelli, 2004).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실천현장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치인력 자원 및 실천방법으로 자원봉사가 주목받고 있다(이창수·김성운, 2014).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원봉사는 봉사기관에게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후원자를 확보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봉사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정서와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하며 삶의 질 제고를 돕는다(문재우·유연웅, 2013; Brown, Hoyer & Nicholson, 2012; Binder, 2015; Whillians, 2016). 이 때 문에 Snyder와 Omoto, Lindsay(2004)는 자원봉사를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의미로 “win-win-win”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학업과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으며,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기 동안 경험하는 자원봉사 기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청년 자원봉사 경험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발달,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 학업과 진로 준비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허성호·정태연, 2010; 박미정, 2016; Johnston, Swingle & Reid, 2017; Kim & Morgül, 2017), 특히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심정수·문재우, 2014; 전명숙·박선녀, 2016; Flanagan & Levine, 2010; Voogt & Roblin, 2012; OECD, 2018). 청년역량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유인하는 것은 자원봉사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 등록 봉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보건복지부,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등록 봉사자 중 20대가 약 236만 명(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 조사(보건복지부, 2017)에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은 각각 4%, 9%에 불과해, 청년 시절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30대, 40대까지 꾸준하게 지속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로는 자리 잡고 있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독교는 거듭난 신앙인의 중요 실천덕목으로 사랑과 섬김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성

경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초대교회,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제와 봉사활동이 사회로 전파되었고, 현대적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모두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하는 등 서구의 전문 사회복지실천과 봉사활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손병덕, 2010).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188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 등의 설립과 운영, 기부와 봉사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있다(한은섭, 2008).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등록 봉사자 중 기독교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의 13%, 종교인 중에선 48%에 달해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봉사자 중 가장 적극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 청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성이 ‘지속성’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성과 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봉사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속성을 결정하는 혹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김영익·최영창·최운진, 2015; 김진희, 2016; 김창래, 2016; 백운옥·감정기, 2016; 양미애, 2016; 송기영·김옥진, 2017; Chacón, Vecina, & Dávila, 2007; Yanay & Yanay, 2008). 그러나 기독교 신앙 여부와 신앙생활 특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신앙생활의 하위 요소, 예를 들어 기도, 성경읽기, 정기적 예배 참여 등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분석은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 봉사자에게 있어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신앙생활을 정기적 예배 참여, 기도, 성경읽기, 소모임 참여 등의 하위 요소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기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독교 청년의 자원봉사활동 동기 부여와 중도 탈락 예방, 봉사 지속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을 통한 교회 사회복지실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와 지속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 고찰

1. 자원봉사활동과 동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자원봉사를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도움 또는 그런 활동(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사전(2009)은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실천행위 그 자체이며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도적, 계획적인 일상 활동”으로 정의한다. 법적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가’,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어떤 사람은 중단하는가’ 등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동기(motivation)’에 대한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Frisch와 Gerrard(1981)는 자원봉사 동기를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 등의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와 스스로의 뿌듯함, 보람과 같은 이기적 동기(egoistic motives)로 설명하였고, Gidron(1985)은 사회적 기대나 인정, 보상을 비롯한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es)와 봉사자 개인의 가치나 관심, 흥미 등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es)로 설명하였다. 1990년대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은 자원봉사의 동기를 보다 구체화하여 가치 기능(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 사회적 기능(사회적 기대와 요청 충족), 경력 기능(봉사를 통해 기술 습득), 이해 기능(봉사를 통해 학습 증진), 상승 기능(자신의 소중함을 더욱 느낌), 보호 기능(우울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피하거나 해결)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Clary et al., 1994). 앞서 Gidron의 외재적, 내재적 동기를 적용하면 가치

가능 동기를 내재적 동기, 다른 다섯 가능 동기를 외재적 동기로 정리할 수도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지각된 자율성에 근거하여, 동기나 의도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그리고 네 가지 외재적 동기로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죄책감이나 수치심, 인정 등의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중요성에 근거하는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행동과 자아개념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마지막으로 외부의 다른 목적보다도 내부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 등을 얻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자원봉사 동기를 설명하였다(Deci & Ryan, 2000). Deci와 Ryan의 구분 역시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다시 정리될 수 있어, 결국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자원봉사의 참여 및 지속 동기를 내재적·외재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앙 및 신앙생활은 이러한 봉사활동의 참여 및 지속 동기로 때로는 가치, 관심, 소명 등의 내재적 동기, 때로는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기대나 인정, 요구와 같은 외재적 동기가 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과 신앙생활, 특히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봉사활동 동기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에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2.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개념과 요인

Gidron(1985)은 앞서 자원봉사 동기를 외재적, 내재적 동기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 그 초점을 ‘참여’보다는 ‘지속’에 둘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동기는 봉사자 개인의 내재적 성향에 따른 것이기에 변화시키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반면, 지속 동기는 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의 노력, 즉 봉사자의 봉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봉사자로 하여금 인정, 격려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지원과 관리를 통해 봉사자의 봉사 지속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Gidron, 1985). 최근의 자원봉사 관련 연구들이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과 봉사활동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두어 봉사자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익·최영창·최윤진, 2015; 김진희, 2016; 김창래, 2016; 백운옥·김정기, 2016; 양미애, 2016; 송기영·김옥진, 2017; Chacón, Vecina, & Dávila, 2007).

지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이를 대입하면 봉사활동의 지속성은 ‘봉사활동을 오래 계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들은 이 때의 ‘오래 계속함’을 “우연이나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지속의 ‘의도성’을 강조하였다(김창래, 2016; Omoto & Snyder, 1995; Chacón, F., Vecina, M. & Dávila, M., 2007). 이처럼 지속성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할 것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지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봉사활동 지속성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시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기간’ 뿐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할 의사, 즉 ‘지속의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강도’로 이해할 수 있다(구혜영, 2005; 오호근·김옥, 2008; 김창래, 2016). 본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를 두어, 이에 대한 기독교 청년의 자원봉사활동 및 신앙생활 특성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상황 및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로 봉사활동의 참여 뿐 아니라 지속에 대하여도 주요한 요인이 되며(정소희, 2010; 구혜영·김일동, 2012; 이응우, 2014; 김영익·최영창·최윤진, 2015; 백운옥·김정기, 2016; Chacón, Vecina, & Dávila, 2007),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큰 동력이다(김진희, 2016; 김창래, 2016; 양미애, 2016; Chacón, Vecina, & Dávila, 2007; Yanay & Yanay, 2008). 또한 봉사활동의 운영, 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의 조직적 요인(김영익·최영창·최윤진, 2015; 김창래, 2016; 송기영·김옥진, 2017; Yanay & Yanay, 2008)과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요인(박종배, 2011; 김창래, 2016)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인적 요인 중 참여 동기의 경우, 그 동기의 내용과 근원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타적, 이기적 또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로 이분화 되어 분석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동기별 영향 내지 다양한 동기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분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봉사활동의 동기와 지속성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적 요인 중 하나인 신앙생활을 보다 세분화하여 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기독교 신앙생활과 자원봉사활동

기독교 신앙이 기부, 봉사활동 또는 그 외 사회참여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Park & Smith, 2000; Lam, 2002; Ozorak, 2003; Loveland, Sikkink, Myers, & Radcliff, 2005). Park & Smith(2000)는 기독교인의 신앙 및 신앙생활을 독실한 신앙생활과 신앙적 정체성, 신앙적 사회화, 신앙적 사회망의 4가지로 나누어 교회 내 봉사활동과 교회 밖 봉사활동에 대한 이들 각각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독실한 신앙생활(그 중에서도 교회활동 참여)이 교회 내외 봉사활동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Lam(2002)의 연구와 Loveland 등(2005)의 연구도 각각 독실한 신앙과 개인 기도가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Ozorak(2003)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도 유형이 대학생의 봉사활동 재참여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 됨을 검증하였다. Lowe, Willis & Gibson(2017)은 18명의 봉사자 대상의 질적 연구를 통해 봉사활동의 주요 동기가 정의에 기반한 동기, 이타적 동기, 신앙적 동기임을 보임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의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주로 신앙 전체에 대하여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 비해 봉사활동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이용관, 2015), 이는 신앙이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김창석·최수일, 201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형탁과 김문섭, 이호택(2013)은 봉사활동 참여 동기로서의 신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타인기대 부응, 사회적 인정, 사회적 접촉, 성취, 사회적 책임, 경험 추구의 6가지 주요 자원봉사 참여 동기 중 사회적 책임감과 경험 추구 동기에 대해 신앙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앙은 봉사활동 참여태도(김보현·권희경, 2014) 및 봉사 만족도(김창석·최수일, 2012)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봉사활동 재참여 및 지속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송기영·김옥진(2017)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 중인 봉사자들에게서 신앙이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주요한 동기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신앙 및 신앙생활이 봉사활동 참여와 지속, 태도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유의 연구는 부족

하여 아쉬움이 크다. 신앙마다 그 핵심 가치와 가르침, 특징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앙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포괄하여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및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기독교인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속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어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고찰, 특히 예배 참석, 기도, 성경 읽기 등 신앙생활의 하위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크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1) 신앙생활 특성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은 ‘신앙 생활 기간’, ‘교회 봉사 활동(교사, 찬양단, 식당봉사, 기관임원, 차량봉사, 안내봉사)’,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소모임 참여(성경공부, 기도모임)’, ‘정기 예배 참석’에 대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예를 들면 성경 읽기에 관한 문항의 경우 ‘일주일에 2장 미만’(1점), ‘2장 이상 5장 미만’(2점), ‘5장 이상 10장 미만’(3점), ‘10장 이상 15장 미만’(4점), ‘15장 이상’(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은 구혜영(2005), 오효근·김욱(2008), 김창래(2016) 등의 연구들에 따라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속의지는 권순미(2000), 김만숙(2006)을 수정 활용하여 활동 지속의지, 활동의 즐거움 정도, 타인 권유, 지속적인 교육 참석, 평생 봉사 참여 의지 등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참여강도는 이병순(2004), 구혜영(2006)을 수정 활용하여 참여의 적극성, 신념과 일치, 인생의 유익함, 봉사활동에 대한 지식, 시간과 비용의 투자 등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지속성 역시 문항별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하도록 하는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SPSS version 24.0과 AMOS version 23.0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통계적 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교회봉사 유형에 따른 지속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4)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추천받은 월 1회 이상의 자원봉사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만 20~29세의 기독교인 청년 자원봉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4월 11일부터 약 4주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해 진행되었으며, 회수되지 않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 58부를 제외한 나머지 19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 22.3%, 여자 77.7%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4년제 졸 79.6%, 대학원 졸 11.7%, 전문대 졸 7.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59.9%, 회사원 28.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50만원 미만 52.8%,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3.1%,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0%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55.7%, 1개월에 1회 22.9%, 1주일에 2회 18.8%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시 1회에 몇 시간 하는지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5.1%, 1시간 미만 22.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1.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7개월 미만 29.2%, 5년 이상 28.6%, 1년 이상 3년 미만 22.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Details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44	22.3
	Female	153	77.7
Education	Under high school education	2	1.0
	Attending or graduated from two-year junior college	15	7.7
	Attending or graduated from university	156	79.6
	Attending or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23	11.7
Employment	Employed	57	28.9
	Student	118	59.9
	Self-employed	2	1.0
	Housewife	0	.0
	Neither in education nor employed	9	4.6
	Others	11	5.6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KRW	103	52.8
	Between 500,000 KRW and 1,500,000 KRW	45	23.1
	Between 1,500,000 KRW and 3,000,000 KRW	41	21.0
	Between 3,000,000 KRW and 5,000,000 KRW	4	2.1
	More than 5,000,000 KRW	2	1.0
Volunteering time (frequency)	More than once a week	107	55.7
	Twice a week	36	18.8
	Once in two weeks	5	2.6
	Once a month	44	22.9

[continued]

Details		Frequency	Percentage(%)
Volunteering hours per time	Less than 1 hour	43	22.2
	Between 1 hour and 2 hours	68	35.1
	Between 2 hours and 3 hours	42	21.6
	Between 3 hours and 4 hours	22	11.3
	Between 3 hours and 4 hours	6	3.1
	More than 5 hours	13	6.7
Volunteering period	Less than 7 months	56	29.2
	Between 7 months and 1 year	8	4.2
	Between 1 year and 3 years	43	22.4
	Between 3 years and 5 years	30	15.6
	More than 5 years	55	28.6
	Total	192	100.0

교회봉사 유형에 따른 지속성 차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의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참여강도의 경우 찬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강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사와 기관(임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안내봉사와 기타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강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One way ANOVA for persistence differences according to church service

		N	Average	SD	F	p-value	Duncan
Sustainable will	Teacher	97	3.67	.83	2.202	.070	
	Choir	39	3.84	.77			
	Agency (department)	22	3.59	.93			
	Executives	2	3.20	.00			
	Guide volunteer	37	3.28	1.07			
	Others	197	3.62	.89			
	Total						
Participation intensity	Teacher	97	3.70	.70	4.939***	.001	b>a,c>d,e
	Choir	39	3.93	.72			
	Agency (department)	22	3.62	.70			
	Executives	2	3.20	.00			
	Guide volunteer	37	3.18	1.03			
	Others	197	3.63	.80			
	Total						

*** $p < .001$

2. 주요변수 정규성 확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봉사활동 지속성 변수의 다변량 정규성 모두와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김대업, 2008).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의 분포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 비율의 상대정도를 의미한다. 음의 왜도는 꼬리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려있거나 중간에 적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양의 첨도는 자료가 평균 부근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말한다(Kline, 2005). Curran, West와 Finch(1996)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SPSS에서 첨도 값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3을 더해서 해석한다(Kline, 2005). 이 연구의 정규성 검토결과 왜도의 경우에 -2.12~1.46, 첨도의 경우에 -1.47~4.3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계수의 값도 0.5 이상으로 분석결과 나타나 판별타당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Normal probability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E	Statistic	SE
Volunteering frequency	1.93	1.226	0.899	0.175	-0.898	0.349
Volunteering hours per time	2.58	1.383	0.961	0.175	0.38	0.347
Volunteering period	3.1	1.585	-0.181	0.175	-1.474	0.349
Period since first believed in God	4.60	.773	-2.128	.173	4.306	.345
Praying(Per day)	1.77	.983	1.462	.173	1.991	.345
Reading the Bible(Per week)	1.87	1.188	1.384	.173	1.066	.345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3.06	1.236	-.084	.173	-.797	.345
Attending services	3.99	1.008	-.625	.173	-.635	.345
Sustainable will	3.6183	.88989	-.765	.173	.702	.345
Participation intensity	3.6365	.79481	-.756	.173	1.035	.345

3. 측정 모형 검증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봉사활동 지속성 변수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RMSEA는 .057, GFI는 .907, AGFI .907, NFI는 .927, TLI는 .927, CFI는 .907로 적합도의 경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정한 측정모형은 기준값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임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Goodness-of-fit index of the measurement model

χ^2	RMSEA	Q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187.291	.057 (.048~.064)	5.509	.900	.907	.958	.907	.927	.907
Acceptance level	.10 or less suitable .05 or less very fit	Less than 1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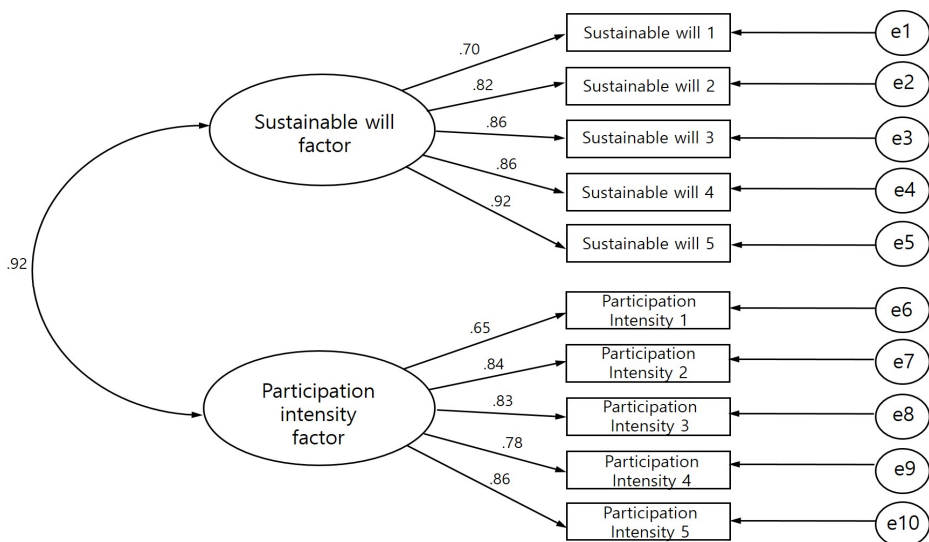


Figure 1. Verification result of measurement model

봉사활동 지속성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량은 0.5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간의 평균분산추출량은 Table 5와 같다. 판별계수의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the measurement model

	Path		Standard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p)	AVE	Concept reliability
Sustainable will 1	<---	Sustainable will factor	0.702	1				
Sustainable will 2	<---	Sustainable will factor	0.817	1.147	0.105	10.943***		
Sustainable will 3	<---	Sustainable will factor	0.856	1.075	0.094	11.446***	.564	.823
Sustainable will 4	<---	Sustainable will factor	0.856	1.143	0.1	11.446***		
Sustainable will 5	<---	Sustainable will factor	0.917	1.141	0.094	12.199***		
Participation intensity 1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0.655	1				
Participation intensity 2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0.838	1.072	0.106	10.115***		
Participation intensity 3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0.828	1.019	0.102	10.012***	.543	.826
Participation intensity 4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0.776	1.112	0.117	9.504***		
Participation intensity 5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0.865	1.143	0.11	10.358***		

*** $p < .001$

4. 구조모형 검증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봉사활동 지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수 값이 .8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의 경우 소모임 참여와 각각 $r=.191, .24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봉사활동 회당시간과 활동기간의 경우에도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부적인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Period since first believed in God	Praying (Per day)	Reading the Bible (Per week)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Attending services	Volunteering frequency	Volunteering hours per time	Volunteering period	Sustainable wil	Participation intensity
Period since first believed in God	1									
Praying(Per day)	.066	1								
Reading the Bible (Per week)	.115	.446**	1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031	.121	.238**	1						
Attending services	.128	.354**	.140*	.271**	1					
Volunteering frequency	.082	.161*	.053	.163*	.020	1				
Volunteering hours per time	.021	.113	.086	.093	.014	.024	1			
Volunteering period	.224**	.116	.129	.040	.155*	.152*	.226**	1		
Sustainable wil	.038	.026	.127	.191**	.052	.121	.358**	.175*	1	
Participation intensity	.117	.024	.097	.241**	.011	.125	.366**	.186**	.834**	1

* $p < .05$, ** $p < .01$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봉사활동 지속성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모형의 경우 $\chi^2=556.607(df=99, p<.001)$, TLI=.924, CFI=.959으로 적합도는 높게 나타났다.

Table 7 Goodness of fit and model comparison of research model

	χ^2	df	CFI	TLI	NFI	RMSEA (90% CI)
Research model	556.607	99	.959	.924	.931	.045(.015~.080)
Acceptance level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More than .90 excellent	.10 or less suitable .05 or less very fit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앙생활 특성과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회당시간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beta=.342$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성경 및 기도모임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beta=.263$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예배참여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beta=.173$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봉사횟수의 경우에도 지속의지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 회당시간이 길고, 성경 및 기도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예배 참여와 봉사횟수가 높은 경우에도 지속의지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당시간 요인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beta=.324$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성경 및 기도모임 요인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beta=.188$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봉사횟수 요인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beta=.155$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 회당시간이 길고, 성경 및 기도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강도가 높고, 예배참여와 봉사 횟수가 높은 경우에도 참여강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path coefficient of the final model

		Path	Standard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P
R e s e a r c h m o d e l	Sustainable will factor	<- Period since first believed in God	0.012	0.012	0.071	0.175	0.861
	Sustainable will factor	<- Praying	0.063	0.05	0.067	0.744	0.457
	Sustainable will factor	<- Volunteering hours per time	0.342	0.194	0.042	4.615***	<.001
	Sustainable will factor	<- Volunteering period	0.075	0.037	0.037	0.999	0.318
	Sustainable will factor	<- Reading the Bible	0.032	0.021	0.053	0.396	0.692
	Sustainable will factor	<-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0.263	0.148	0.043	3.425***	<.001
	Sustainable will factor	<- Attending services	0.173	0.119	0.054	2.211*	0.027
	Sustainable will factor	<- Volunteering frequency	0.15	0.096	0.046	2.077*	0.038
R e s e a r c h m o d e l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Period since first believed in God	0.124	0.111	0.064	1.753	0.08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Praying	0.14	0.099	0.06	1.641	0.101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Volunteering hours per time	0.324	0.163	0.038	4.299***	<.001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Volunteering period	0.101	0.044	0.033	1.331	0.183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Reading the Bible	0.048	0.028	0.047	0.599	0.549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0.188	0.119	0.047	2.516*	0.012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Attending services	0.134	0.104	0.06	1.731	0.083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 Volunteering frequency	0.155	0.088	0.041	2.139*	0.032

[continued]

	Path		Standard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P
Measurement	Sustainable will 1 <- Sustainable will factor		.713	1.000			
	Sustainable will 2 <- Sustainable will factor		.826	1.142	.102	11.180***	<.001
	Sustainable will 3 <- Sustainable will factor		.850	1.051	.091	11.500***	<.001
	Sustainable will 4 <- Sustainable will factor		.864	1.136	.097	11.685***	<.001
	Sustainable will 5 <- Sustainable will factor		.905	1.109	.091	12.204***	<.001
	Participation intensity 1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647	1.000			
	Participation intensity 2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848	1.098	.111	9.870***	<.001
	Participation intensity 3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807	1.005	.106	9.514***	<.001
	Participation intensity 4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775	1.125	.122	9.228***	<.001
	Participation intensity 5 <- Participation intensity factor		.879	1.177	.116	10.116***	<.00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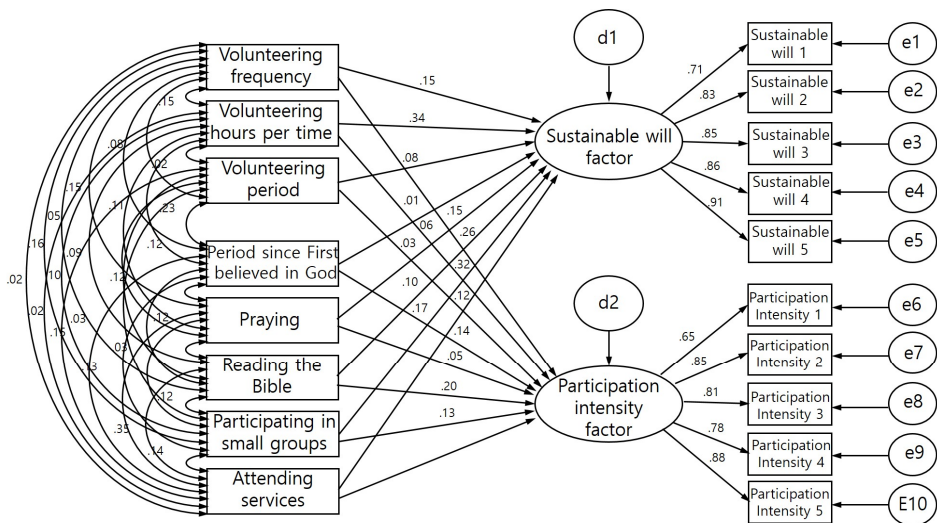


Figure 2. Verification result of the research model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와 지속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신앙생활 특성이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신앙생활 특성을 정기적 예배 참여, 기도, 성경읽기, 소모임 참여 등의 하위 요소로 나누어 각각의 자원봉사 지속성과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청년의 자원봉사활동 동기 부여 요인 확인과 중도 탈락 예방, 봉사 지속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을 통한 교회 사회복지실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월 1회 이상의 자원봉사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만 20~29세의 기독교인 청년 자원봉사자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방법은 교회봉사 유형에 따른 지속성 차이,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의 관계,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Duncan test, 피어슨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ver 24.0과 AMOS ver 23.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회당시간이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성경 및 기도 모임 참여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정기적인 예배 참여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횟수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기관에서 기독교 청년의 장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교회는 복음전파의 당위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현안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실제 참여하여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요청된다(손병덕, 2010). 따라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현안들을 파악하여 교회 내 가용자원과 인력을 결집하고 교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복음전파와 함께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 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다행히 현재 기독교 청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이형탁·김문섭·이호택, 2013),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현재의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앙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읽기, 기도모임, 예배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참여의미를 진작시킨다면 이미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선한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아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복지적 실천과제들을 해결,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을 세우고, 교회 내 청년자원들에게 봉사 직임을 맡기고자 할 때 청년들의 신앙특성과 자원봉사 경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봉사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지역사회 자원봉사 요구정도에 따라 자원봉사 필요 인력을 선발·배치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정도(신앙생활연수, 기도생활 수준, 성경읽기 정도, 성경 및 기도모임 참여정도, 예배 참여정도)와 자원봉사에 그간 지속해온 여부(봉사 횟수, 회당시간, 봉사활동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손병덕·구철회, 2013). 특히, 기독교 청년 자원봉사의 경우 장기적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친 정규적인 예배, 신앙생활정도, 성경모임이나 기도모임 참여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원봉사 선발 및 인력배치 등을 계획한다면 교회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한 한 방안으로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미치는 수많은 신앙생활 특성의 독립변인들을 다소 단순화 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화된 변인들을 포함한 정량·정성 통합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혜영 (2005).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 유효성에 대한 영향구조: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oo, H. Y.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 Work's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Service on the Volunteer's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Empowerment*. Ph.D. Dissert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광주: 학현사.
- [Kim, D. E. (2008). *AMOS A to Z: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the Process of Writing Articles*. Paju: Hakhyunsa.]
- 구혜영 · 김일동 (2012). 개인 · 업무 · 조직요인이 여성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1(1), 89-122.
- [Koo, H. Y. & Kim, I. Do. (2012). The study on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ing activities on the elderly women's volunteers by personal · work · organizational factors. *The Korean NPO Review*, 11(1), 89-12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tdweb2.korean.go.kr>]
- 김보현 · 권희경 (2014). 청소년의 봉사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특성.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2), 101-118.
- [Kim, B. H. & Kwon, H. K. (2014). Personal, family, and school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attitude toward volunteer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2), 101-118.]
- 김영익 · 최영창 · 최윤진 (2015). 자원봉사자의 활동참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 :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10), 41-50.
- [Kim, Y. I., Choi, Y. C. & Choi, Y. J. (2015). A study on the convergenc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 Focused on Ansan volunteer center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41-50.]
- 김진희 (2016).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3(2), 89-124.
- [Kim, J. H. (2016).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voluntary activities

- of volunte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33(2), 89-124.]
- 김창래 (2016).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7개 도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83-115.
- [Kim, C. L. (201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 Focused on the seven Gangwon-do volunteers urban area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2), 83-115]
- 김창석 · 최수일 (201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15-326.
- [Kim, C. S. & Choi, S. I. (2012). The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315-326.]
- 문재우 · 유연웅 (2013).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87-107.
- [Moon, J. W. & Yoo, Y. W. (2013).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87-107.]
- 박미정. (2016).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 ·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41-167.
- [Park, M. J. (2016). Effect of volunteering on self-efficiency, learning motivation & career plann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3(1), 141-167.]
- 박종배 (2011). **자원봉사정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 :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J. B. (2011). *Evaluation of Volunteering Policy and Volunteering Revitalization Program : Focusing on Volunteering Policies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ster's Dissertation of Yonsei University.]
- 백운옥 · 감정기 (2016). 청소년 자원봉사 지속의지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영향과 참여동기의 다중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4: 109-134.
- [Baek, U. O. & Kam, J. K. (2016). Influence of adolescents' conscious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on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volunteering and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motivat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4: 109-134.]
-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 종교별**. <http://kosis.kr>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Statistics of Social Welfare Volunteers* -

- Status of Volunteer by Religion*.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18/05/23).]
-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http://kosis.kr>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tatistics of Social Welfare Volunteers*.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18/05/23).]
- 손병덕. (2010). 교회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Sohn, B. (2013). Church Social Welfare. Seoul: Hakjisa.]
- 손병덕 · 구철희. (2013). Are there the influences of religion and publicity on charitable giving? **사회복지연구**, 44(4), 351-366.
- [Sohn, B. & Koo. C. (2016). Are there the influences of religion and publicity on charitable giv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4), 351-366.]
- 송기영 · 김옥진 (2017).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444-460.
- [Song, K. Y. & Kim, W. J. (2017). A Study on the Duration of Volunteer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44-460.]
- 심정수 · 문재우 (2014).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사회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3), 225-247.
- [Shim, J. S. & Moon, J. W. (2014). The effect of adolescents' volunteering period on social responsibility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volunteering satisfaction.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13), 225-247.]
- 양미애 (2016). 자원봉사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7(2), 275-298.
- [Yang, M. A. (2016).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continuity of volunteeris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2), 275-298.]
- 오효근 · 김옥 (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지정책**, 35(1), 297-327.
- [Oh, H. G. & Kim, W. (2008).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35(1), 297-327.]
-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 [Lee, Y. K. (2015). Who will volunteer mor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1), 275-298.]
- 이용우 (201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 관리요소, 만족도가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지역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Y. W.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e, Management Factors and Satisfaction of Volunteering Activities to the Attitudes toward Volunteering : The Case of Volunteers of Volunteer Centers in the Region of Incheon*. Master's Dissert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이창수 · 김성운 (2014).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증진 방안 연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의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1: 105-125.
- [Rhee, C. S. & Kim, S. W. (2014).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promotion of the community voluntary activities. (Focusing on the community volunteer's consciousn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21: 105-125.]
-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사전*. 고양시: 헤민북스.
- [Lee, C. S. (2013). *Social Welfare Dictionary*. Goyang: Hyemin Books.]
- 이형탁 · 김문섭 · 이호택 (2013).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11(2), 121-140.
- [Lee, H. T., Kim, M. S. & Lee, H. T. (2013). The effect of religiosity on the motivation toward volunteerism. *Logos Management Review*, 11(2), 121-140.]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www.law.go.kr
- [*Framework Act o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www.law.go.kr]
- 전명숙 · 박선녀 (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28-237.
- [Jeon, M. S. & Park, S. N. (2016). The effect of community spirit on participation time to the youth volunteer activities : 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youth volunteer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8), 228-237.]
- 정소희 (2010). **대학생 봉사자의 활동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ung, S. H. (2010).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Voluntary Activities*. Master's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Seoul.]
- 한은섭 (2008).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교회사학*, 7(1), 155-181.
- [Han, E. S. (2008). Social changes and the histor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in Korea. *Study on Church History*, 7(1), 155-181.]
- 한인영 · 김성천 역 (2007). **세계화와 사회복지실천**. Dominelli, L. (2004). *Social Work:*

- Theory and Practice for a Changing Profession. 서울: 학지사.
- [Han, I. Y. & Kim, S. C. (2007). Globalizat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eoul: Hakjisa. Trans. Dominelli, L. (2004).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for a Changing Profession*. Cambridge: Polity Press.]
- 허성호 ·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 [Hu, S. H. & Jung, T. Y. (2010).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1(3), 143-164.]
- Binder, M. (2015).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a closer look at the hypothesis that volunteering more strongly benefits the unhappy. *Applied Economics Letters*, 22(11), 874-885.
- Brown, K., Hoyer, R. & Nicholson, M. (2012).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connectednes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8(4), 468-483.
- Chacón, F., Vecina, M. & Dávila, M. (2007). The three-stage model of volunteers' duration of servi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5), 627-642.
- Clary, G., Snyder, M., Ridge, D., Miene, K. & Haugen, A. (1994). Matching messages to motiv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129-1149.
- Curran, P., West, S.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ci, E. & Ryan, R.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Flanagan, C. & Levine, P. (2010). Civic engagement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159-179.
- Frisch, B. & Gerrard, M. (1981). Natural helping systems: Red Cross volunte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567-579.
- Gidron, B. (1985). Predictors of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service volunteer work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8(1), 1-16.
- Johnston, D., Swingle, M. & Reid, K. (2017). The social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young adult volunteers: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QMIP Bulletin*, 24: 42-50.

- Kim, J. & Morgül K. (2017). Long-term consequences of youth volunteering: Voluntary versus involuntary service. *Social Science Research*, 67: 160-175.
- Kline, R.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m, P. (2002). As the flocks gather: How religion affects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3), 405 - 422.
- Loveland, M., Sikkink, D., Myers, D. & Radcliff, B. (2005). Private prayer and civic involve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4(1), 1 - 14.
- Lowe, G., Willis, G. & Gibson, K. (2017). You do what?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motivation to volunteer with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Published online on September, 2017. doi.org/10.1177/1079063217729157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 (2018/05/23).
- Omoto, A. & Snyder, M. (1995). Sustained helping without obligation: Motivation, longevity of service, and perceived attitude change among AIDS volunt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71-686.
- Ozorak, E. (2003). Love of God and Neighbor: Religion and Volunteer Service among College Stud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3), 285-299.
- Park, J. & Smith, C. (2000). 'To whom much has been given...': Religious capital and community voluntarism among churchgoing protesta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3), 272 - 286.
- Snyder, M., Omoto, A. & Lindsay, J. (2004). Sacrificing time and effort for the good of others: The benefits and costs of volunteerism. in Miller, A. (Ed.) (2004).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New York: Guilford.
- Voogt, J. & Roblin, 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21st century competences: Implications for national curriculum polici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4(3), 299-321.
- Whillians, A. (2016). Does volunteering improve well-being? *Comprehensive Results in Social Psychology*, 1(1-3), 35-50.
- Yanay, G. & Yanay, N. (2008). The decline of motivation?: From commitment to dropping out of volunteering.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9(1), 65-78.

논문초록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신앙생활 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김민선 (충신대학교)

오혜정 (교신저자/충신대학교)

손병덕 (충신대학교)

본 연구는 월 1회 이상의 자원봉사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만 20~29세의 기독교인 청년 자원봉사자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와 지속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를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참여자 특성,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활동 회당시간이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성경 및 기도 모임 참여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정기적인 예배 참여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 청년 봉사자의 봉사 횟수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회의 기독교 청년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선발 및 배치방안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여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방안 또한 추가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청년, 신앙생활,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

교육심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 탐색

A Literature Review and Reflection on Educational Meaning that Christian Youths Have in Doing Volunteering Works : View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김셋별 (Saetbyul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호담 (Ho-dam Lee)**

Abstract

Doing good to others including taking part in certain volunteering work is aligned with God's words and the guidance in living Christian lives. In educational field, volunteering work is acknowledged as one of the activities that has positive effects for the participants and therefore, it has been widely researched by many different scholars so far. Considering the fact that volunteering work is in accordance with biblical teaching, identifying and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volunteering work with academic viewpoint will bring out many useful discussions on how to help the Christian youths to find out the better way they can become the ones living according to what they learned and realized.

This study mainly focused and sought to identify the Christian youths' volunteering behaviors and following positive effects with educational perspectives by reviewing literature. Especially and specifically in this study,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was applied in order to analyze and reinterpret the Christian adolescents' volunteering works discriminately from non-Christian youths': Expectancy-value theory,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a nutshell, applying three different theories with diverse experimental research and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육심리 전공 박사과정(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43210, kisabr@daum.net

** 전주반월초등학교 교사(Banwoul Elementary School)

2018년 06월 05일 접수, 08월 28일 최종수정, 09월 01일 게재확정

case studies, this study concluded that Christianity plays critical roles in understanding of 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works. For example, Christian youths are more likely to understand and perceive volunteering works with high value, which leads them to better conceptualize it with biblical importance. Second, when Christian youths acknowledge the volunteering works is aligned well with their religious social identity, they can get engaged in it more actively and deeply, experiencing high degree of goal self-concordance. Lastly, surrounding volunteers that Christian adolescents face in their churches, faith small groups or organizations become good role models from whom they are encouraged to learn how to live love-doers' lives by doing volunteering activities.

Key Words : Christian youths' volunteering works, volunteering activities,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educational effects

본 연구는 201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5.26)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

1. 서론

기독교인은 봉사적 삶을 요청받고 있다. 봉사적 삶은, 다름 아닌 나의 유익에 앞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고전 10:24)¹⁾.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돕거나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봉사의 본질적 삶에 관한 내용이 다수 등장하며, 특히 신약에 서만 봉사의 세부적 의미를 지칭하는 관련단어가 무려 열다섯 가지가 넘는다. 이렇듯 봉사는 성경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자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본 봉사적 삶은 크게 두 가지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구분된 ‘활동’으로서의 봉사며, 또 한 가지는 특정 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비단 성경에서 요청하는 삶의 모습으로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행이나 비종교인도 쉽게 동의한 인류 보편적으로 타당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실천하는 성경적 삶으로서의 봉사활동, 혹은 봉사적 삶의 태도는 어떤 특이성을 가지며 이는 교육적으로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을까?

개인이 소신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유익이 보고된다. 자라나는 아동기,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령기 시절을 비롯하여

1) (고전 10:24, 개정)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초기 성인기, 노년기 등 거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층과 그 외 다양한 직업군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상진, 2002; 김은영·유숙영, 2009; 김이영·진복수, 2002; 김지혜, 2012; 박완성·김기수, 2012; 이경은, 2003). Conrad와 Hedin(1989)은 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 영향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로 정리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유능감, 도덕성과 책임감 등은 개인적 성장에 해당하며 학업기술과 기타 지식, 기술, 판단력 등은 지적 성장과 발달,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참여정신,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색 등은 사회적 성장과 발달로 분류하였다.

이렇듯 봉사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지만 동시에 봉사 참여자에게도 유익한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내에서 진행된 봉사 관련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나 진로성숙도 같은 자아관련 구인(김미향, 2004; 김상진, 2002; 문성훈, 2002)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김은영·유숙영, 2009), 시민 의식과 공동체의식(홍봉선·남미애, 2004; 원미순·박혜숙, 2010; 박재숙, 2010; 김지혜, 2012)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경험적으로도 봉사활동의 유익이 실재함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봉사적 삶의 태도와 자세가 부분적으로 봉사라는 특정한 가시적 활동참여의 형태로 드러날 때 봉사활동의 교육적 요소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특수성과 결부되어 개인적 유익으로 이어지는지 문헌분석의 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달리 말해, 신앙적 명분이나 당위성, 신심의 표현으로 실천되곤 하는 봉사활동이 일반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으며, 이에 참여하는 봉사자 개인에게는 어떤 내적 과정이 수반되는지 학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경에서 요청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왜 이를 살아내는 당사자에게도 이로운지 역설하고자 한다.

II. 봉사활동에 대한 성서적 접근

1. 봉사의 기독교적 정신

봉사활동의 정신, ‘섬김’은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기독교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차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섬김을 의미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눅 10장 27절). 성경 속의 이러한 섬김은 상대를 돌보고 돕는 행위인 봉사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봉사’와 관련한 표현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그 근본정신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고전 10:24, 고전 10:33)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능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행동양상은 아닐 것이다. 특정한 목적의식이나 의도성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자기만족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부합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무엇인가?

봉사에 대한 의미가 신약에서만 무려 열다섯 가지가 넘는 상이한 단어(*uprosedros*, *doulos*, *latreuo*, *boetheo*, *antilepsis*, *sullambano*, *splagchnon*, *hupeereteo*, *therapu'o*, *epikouria*, *litourgeo*, *eparkeo*, *sunanteesis*, *latria*)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성경에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대상과 형태, 혹은 상황에 따라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개 봉사에 대한 성서적 어원은 *diakonia*(디아코니아)로 보며, 동종 어근의 변형을 포함하면 신약에서만 93개의 구절, 99회 언급된다(이재서, 2006). 그 외, 구약에서도 봉사를 뜻하는 단어들이 *ezer*나 *abad*, 또는 *amad paneh*와 같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성서에서 언급하는 ‘봉사’는 학문에서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구별된 ‘특정 활동’이라기보다, 타인을 향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자세’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봉사의 어원이 되는 *serve*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봉사한다(*serve*)는 것이 본질적

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행동이라면, 타인에게 봉사하는 경로는 반드시 ‘봉사활동’ 형태는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대인태도(interpersonal attitude)와 같은 측면에 가까운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특히 사복음서에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있는데 이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마 6:3-4), 어린아이에 대한 영접(마 18:5),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에 대한 선행(마 25:35),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 저는 자와 맹인 등에 대한 환대(눅 14:13-14)나 하나님에 대한 섬김(요 12:26) 등이 그 예이다. 이렇듯 성서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선행과 선대를 요구함으로써 이웃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봉사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III. 봉사활동의 교육적 요소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 참여가 갖는 교육적 효과 및 의미에 대한 분석은 기존에 Conrad와 Hedin(1989)이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유익과 발달적 측면의 긍정 효과로써 제시 및 분류한 준거를 참고하였다. 이들은 봉사를 하면서 참여자가 세 가지 측면, 즉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대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물의 분류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은 양적 및 질적 분석 모두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위의 분석준거에 따라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봉사활동’이라는 키워드로 국내외의 논문을 검색한 뒤 그것 중에서 봉사활동이 주는 교육적인 효과를 다룬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Elo · Kyngas, 2008). 본 연구의 초점은 국내외에서 다루어진 봉사활동의 교육효과를 포괄적으로 재정리하는 동시에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탐색 및 재해석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연구물의 발간 저널이나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메타분석의 방식으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의 초점과 관련성이 높은 30개 안팎의 연구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내용을 분류할 때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적 성장과 발달(Conrad and Hedin, 1989, 최무연, 2002 재인용)이라는 봉사활동의 기대효과영역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할 때 참고한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hree categories of positive effects from doing volunteer activity.

기대효과영역	내용
개인적 성장과 발달	자아존중감, 개인적 유능감, 자아와 도덕의 발달, 새로운 역할과 관심의 탐색, 새로운 도전의 수용과 위험의 감수, 가치와 신념의 수정과 강화, 책임감의 향상,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
지적 성장과 발달	기본적 학업기술(생각의 표현, 읽기, 계산하기), 높은 수준의 사고 기술(편견 없는 태도, 문제해결, 비관적 사고), 봉사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기술,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관찰, 질문, 지식에 적용), 지식의 습득과 보유에 대한 동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 판단 및 이해
사회적 성장과 발달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유능성, 민주시민의 참여정신 함양,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지식과 탐색, 다양한 배경과 삶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평가

Conrad & Hedin(1989). 조학래(1996), 최무연(200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기 분류준거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이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측면의 발달내용이 주로 자아감, 정체감, 성숙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아 관련’으로, 지적 측면의 발달내용은 학업성취도, 성취감, 학습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량 관련’으로, 사회적 측면의 발달내용은 공동체의식, 시민 의식 및 자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양 관련’으로 재명명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리한 봉사활동의 교육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아 관련)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현재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며 어떠한 활동을 즐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능숙한지를 비롯해 자기 자신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기회이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이 특히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자아관련 구인을 함께 살핀 연구가 많다.

먼저, 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이 봉사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

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성훈(2000)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중 자율성과 솔선성, 정체감을 높인다고 보고했으며 김상진(2002)은 봉사활동 참여도와 인간관계, 봉사의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미향(2004)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봉사활동 목적인지도와 봉사 참여도, 봉사 교육과 평가시간 유무에 따라 정체감의 발달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순히 봉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그것의 진행에 있어 참여자들에게 여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끼침을 시사하였다.

또한 봉사하는 과정은 진로탐색의 기회로 작용한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해승(2007)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학생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독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의 세부 특성과 진로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 장태성(1999)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밝혔으며, 이 때 봉사활동 만족도는 이후 봉사 참여자의 진로의식성숙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아실현의 의지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오대일(2006)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지속여부와 진로결정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전공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며, 전공분야 세분화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전공 및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된 봉사활동의 경험은 참여 대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특정 영역에 대한 배움의 욕구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 세분화선택에 도움이 된 봉사활동의 경험은 전공지식의 실천기회를 통해 봉사대상과 전공분야를 경험했다는 보고로 나타났다.

2.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 (역량 관련)

봉사활동은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자기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견하여 계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봉사활동의 이러한 측면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바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성·김기수(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그들의 봉사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와 더불어 학교환경이나 교사 및 친구들에 적응을 하는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정숙(2008)은 또래 교수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학습이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봉사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이지도록 만들었고 이타심, 성취감,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김정숙, 2008; 김은영·유숙영, 2009에서 재인용).

봉사활동이 가지는 이러한 효과들은 대학생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보상과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허성호·정태연(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고 타인에 대한 수용성도 개선되었으며 성취감과 자기발견, 사회적 교훈 내재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영·유숙영(2009)은 여대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여대생들이 봉사학습을 통하여 갈등해결, 문제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높아졌음을 밝혔다.

그 밖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Markus, Howard, King(1993)은 봉사학습이 참여 학생의 자신감, 책임감, 타인에 대한 관용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보고하였고 Aquila와 Dodd(2003)는 봉사학습이 자신감(self-confidence), 자존감, 리더십기술, 의사결정 기술과 같은 개인적 발달영역에서 특히 긍정효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였다. 더불어 Eyler와 Giles(1999)는 봉사학습 참여자들이 타인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등의 학업적 향상을 보일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증진, 문제해결능력, 그 외 경험을 통한 각종 리더십 및 의사결정기술과 같은 역량적 측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등 청소년의 봉사참여가 교육적으로 그들에게 큰 기회가 됨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으로 준비되는 과정 (소양 관련)

자원봉사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윤기중(2009)은 이를 공공복지를 향한 가치 이념이자 자주적·협동적 실천 노력으로써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화나 지식, 시간의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렇듯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구체적 활동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 하는 계기가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학습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적 자질을 배양하게 되었다(홍봉선·남미애, 2004). 김지혜(2012)의 연구에서도 봉사시간과 봉사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밝혀 학생들이 충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게 될 때,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자원봉사가 공동체 의식 뿐 아니라 나아가 시민의식을 기른다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청소년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시민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원미순·박혜숙(2010)의 연구결과, 전체 집단 중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성인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시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또한 김이영·진복수(2002)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했다.

Myers-Lipton(1996)은 학생들의 봉사참여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정치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Astin 외(2000)는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과 리더십,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자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대학 졸업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 정치참여, 종교적 이해 등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봉사활동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사회적 능력개발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 함양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잠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유익 또한 창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

소년의 봉사활동은 잠정적 사회구성원의 긍정적 사회 참여행동으로 조망되며, 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교육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Ⅳ. 교육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기독교소년의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

다양한 경험연구를 통해 볼 때, 대학생과 같은 초기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은 봉사 활동을 통해 일반적으로 내적 성장이나 진로 탐색, 관계적 자질 등에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청소년이 성경적 가르침의 실천적 측면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대개의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나 종류를 봉사활동을 설명하는 몇 가지 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여 보긴 하지만, 이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의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비교·검증하거나,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봉사 대상자뿐 아니라 봉사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긍정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별개로, 봉사참여자의 신앙이나 그가 가진 종교적 가르침이란 배경변수를 고려할 때, 봉사현상은 어떻게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어떠한 특이사항을 갖는지 이론적 성찰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비기독교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기독교소년이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활동 특성상의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소년의 특이성, 이를테면 신앙공동체로의 노출과 같은 경험적, 환경적 특성,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나 의미부여 등이 봉사의 기대효과에 더 기여한다거나 이의 지속을 촉진하는 일련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추후 이의 활용과 심화를 위해 본 연구의 비교가 의미 있을 것이다.

1. 기대가치이론에서 본 관점: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봉사 과제가치부여

교육학에서 말하는 과제가치란, 개인이 특정 과제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가치로움, 중요성, 흥미나 유용성 등을 의미한다(Wigfield and Eccles, 1992). 연구의 맥락에서는 주로 학습동기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Atkinson(1957)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근간을 두고 있다. Wigfield와 Eccles(1992)에 의해 과제

가치는 성취가치(attainment value), 내재가치(intrinsic value), 활용가치(utility value)를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과제가치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과제가치는 주로 학습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과 흥미, 유용성과 이의 만족도 간 관계를 살피는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성취도 역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Bong, 2001; Bures et al., 2002; Ruona et al., 2002; Miltiadou, 2000; 한순미, 2004; 정혜승, 2005).

그렇다면, 청소년은 봉사활동이라는 과제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대개 봉사활동을 학령기 시절, 향후 ‘입학’을 위해 점수 축적하듯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더 좋은 기회를 위한 자기홍보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처럼 외재적 목표를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써 봉사를 할 경우, 활동을 통한 만족감이나 자아성찰, 그리고 기타 다양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봉사의 만족도나 그 외 효과를 봉사의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봉사 전, 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봉사참여의 동기가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나 혹은 내재적이나, 외재적이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랐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봉사를 ‘하고’, ‘하지 않고’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기보다, 봉사활동참여의 이유와 동기의 방향성, 그리고 이의 내면화가 기대효과에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제가치란 개인의 학습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동기 중 하나로 이해되는 교육학 개념인데(Pintrich et al., 1993; Pintrich and Schunk, 2002; Song, 2000; Wolters, 1998) 이는 학습동기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봉사활동참여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성경은 구체적인 형태의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남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것,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것 등을 가르치며 선행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서(2006)는 타인을 향한 봉사적 삶의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그를 높이며(마 20:26-27, 마 23:11, 막 10:43-44, 눅 22:26-27), 둘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며(히 6:10, 마25), 셋째,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골 3:23-24, 벧전 1:4-5).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향한 봉사적 자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롬 14:17-18)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한다(요 12:26).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기독교신앙인의 내적 갈망, 즉 심리적 욕구에 비추어볼 때, 성

경의 가르침이 봉사를 통한 선행을 비롯한 봉사적 삶 전반에 대한 과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타인을 더 도와주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Batosn et al., 1985:198), 이들은 남을 돕게끔 구조화된 종교단체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욱 더 도움행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Batosn et al., 1985:205). 이는 종교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수준은 봉사활동참여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Wilson, Janoski, 1995; Campbell, Yonish, 2003)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명백히 개인이 갖는 종교적 성향과 신심 등이 봉사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종교기관의 체계와 구조, 프로그램 등이 그들의 봉사참여 촉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교적 봉사활동(religious volunteering)과 세속적 봉사활동(secular volunteering)을 구분하고, 전자는 교회나 회교 사원(mosque), 절과 같은 종교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후자는 건강, 보건, 교육시설과 같은 여타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정의(Musick et al., 2008)하기도 한다. Carabain과 Bekkers(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네덜란드의 이민자와 비이민자들이 종교적, 세속적 봉사활동 참여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봉사참여의 차이는 이민자, 비이민자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이나 기관으로부터의 ‘간청’(solicitation)이 아닌, ‘종교적 참여’(religious involvement)에서의 차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에 있어 개인의 특정 상황이나 신분 차이는 종교성만큼 큰 영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Uslaner(1997, 2001)가 근본주의 신자들(religious fundamentalist)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참여(religious attendance)가 봉사활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는 등 신앙은 타인을 섬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 및 강화, 신념에 근거한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일련의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상기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개인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고, 방향성을 조정하는 일련의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성경말씀과 설교자의 메시지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이나 모

습을 재해석하며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숙고를 통해 내재화하는 경험들은 개인에게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ewey(1910)는 이에 대해 어떤 믿음이나 지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반성적 숙고(reflection) 혹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설교의 행간에 녹아져 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자세는 봉사에 대한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며, 봉사적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2. 자기결정성이론에서 본 관점: 목표 자기일치성으로 인한 봉사 동인 제공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의 참여는 개인 내적으로, 개인 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도에 있어 봉사 동기나 참여경로, 혹은 참여형태 등이 상이한 효과를 갖게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봉사를 수행하거나 봉사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는 봉사실천과정에서 보다 더 높은 긍정정서를 느끼고, 외부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적 통합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것이 바로 ‘목표 자기일치성’(self-concordance)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교육학에서 목표와 관련한 연구에서 특히 많이 인용되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and Ryan, 2002)에서 유래하였고, Sheldon과 Elliot(1999)에 의해 정식으로 제안된 바 있다. 목표 자기일치성은 특정 목표가 어떤 압력이나 외부적 동기가 아닌, 자신의 관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도를 일컫는다(Koestner et al., 2002). 따라서 교회에서의 예배 참석, 교인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성경에 기반한 자기반성 및 숙고가 따르는 기독교인의 경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높은 목표 자기일치성의 활동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적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봉사활동과정에서 높은 목표 자기일치성을 경험하는 것인가? 목표 자기일치성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개인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와 같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특정 활동에 대한 그의 목표 자기일치성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상술하자면, 신(God)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신

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고,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예배와 같은 활동에서 낮은 목표 자기일치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청소년이라면 성경의 궁극적 가르침에 해당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에 있어 높은 목표 자기일치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 생활로 인해 신앙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태어난다(Rogoff, 1990). 선천적으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을 둘러싼 환경, 주변 사람, 소속된 집단의 성격과 그 영향에 따라 자아에 대한 평가와 형성은 달라지며 이를 사회적 정체성으로 명명하여, 교육학에서는 개인의 학업성취와 노력과 같은 부분에 있어 유의한 변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Turner와 Oakes(1986), Tajfel(1978)과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창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개인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일부 집단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거나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멤버십의 상이성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분화의 가능성을 유도한 것이다. Turner와 Oakes(1986: 240)는 사회적 정체성이 “준거 집단 구성원들의 감정적, 평가적, 그 외 심리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정체성에 대해 부여하는 설명력” 정도로 표현하였는데, 준거 집단의 평가는 집단원이 보유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멤버십과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은 일련의 가치판단과 행동 등에 있어 매우 지대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또래집단이 학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그들의 학업성취노력이 좌우되며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Fordham and Ogbu, 1986; Kagan, 1990)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의 영향력을 증명해왔다. 교회내 봉사활동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집단원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신앙과 믿음, 신념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행동의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Swann과 동료들(2010)은 특정 준거집단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집단에 대한 헌신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집단’을 신앙 공동체, 즉 교회로 비교해보는다면 개인이 갖는 다양한 정체

성 중 ‘신앙인’, 또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교회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과 지속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갖는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가 그 정체성에 일관된 방향에서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자신 또한 그 행동에 대한 실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Swann을 비롯한 연구 동료들(2009)이 열 차례에 걸쳐 시행한 연구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지지 및 환기(endorsement)를 처치했을 때 결과적으로 친집단(pro-group)적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기본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향한 봉사심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가르침을 받고 주일학교나 교회 임원단, 주방 봉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 등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지지와 환기(endorsement)로서 작용하여, 그들이 일차적으로 교회를 위해(pro-group) 봉사하되, 결과적으로는 봉사전반에 대한 행동력을 높일 가망성을 시사한다. Becker과 Dhingra(2001)는 교회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거나 혹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congregational identity), 즉 앞서 언급한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자신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여길 때,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가 교회나 그 외 신앙공동체를 ‘위하여’, 물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요컨대, 기독교청소년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앙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심리적으로 높은 목표 자기일치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치관과 합일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목표 추구 과정을 즐기며(Sheldon and Kasse, 1995, 1998; Sheldon et al., 2001), 이를 방해하는 유혹 자극에도 보다 더 꾸준한 실천을 할 수 있어 성공적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Koestner et al., 2002). 또한 이러한 목표 자기일치성은 목표몰입(goal commitment)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박종민 외(2011)의 연구에서는,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에 대한 목표 자기일치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활동 과정에서 목표의 동기가

제공되는 것이며 활동을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게끔 목표 추구에 대한 가치부여를 끊임없이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Hollenbeck and Klein, 1987). 결과적으로 신앙에 근거한 청소년의 봉사참여는 봉사과정에서도 높은 내적 일치감과 목표 자기일치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관점: 빈번한 봉사 관찰·모방학습과 롤모델경험

기독교청소년은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료, 선배, 혹은 이웃과 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로부터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관찰학습과 모방,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연령대별로 보다 더 적합한 교육적 이론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기의 학습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종석, 2008: 219). 또한 이때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자는 그렇지 않은 타자에 비해 롤모델로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생과 동시에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지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사를 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영향이 작용한다(Wilson 2000; Fisher and Schaffer, 1993; Midlarsky and Kahana, 1994). 즉 개인 내적으로 발동된 목표의식이나 동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독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등이 그 사람의 봉사 행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예측변인으로 알려진 요인에는 교육수준과 직장에서의 지위(Amato and Booth, 1997; Brady et al., 1995; Wilson and Musick, 1997)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학생의 경우 학년과 성적(권지성, 1998; 원미순, 2003; 김옥, 송미영, 2006)등이 일관되게 봉사활동 행동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봉사 참여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들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타인의 존재가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체들과의 관계 만족도나 그들의 지지가 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과들이 다수의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조남호, 2005). 즉, 타인의 영향력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

한 설명력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주변인의 봉사에 대한 인식, 가치부여 정도, 참여 경험 유무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기독교청소년의 교회출석, 혹은 기타 신앙공동체 참석을 통한 공동체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이고 실천가치가 있는 것임을 은연중에 학습하게 만든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가족 내 동일한 교회출석교인이 있는 경우, 교회라는 공간은 기독교청소년들에게 모델링 효과를 유발하는 교육의 장(setting)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은 가족 구성원들 간 공통분모를 상기시키고 공유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신앙의 유무, 교회출석여부, 그리고 교회봉사를 비롯한 활동의 참여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청소년, 초기 성인, 중년과 노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섬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는 대형교회와 같이 많은 수의 프로그램과 장비, 체계를 갖춘 조직뿐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작은 교회 또한 동일하게 모델링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성도와의 교제'와 같은 요소들은 누군가의 준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늘 누군가는 봉사로서의 준비과정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방봉사, 주일학교, 안내봉사, 예배 준비팀 봉사, 청소와 같이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넓게는 국내/외로 뻗어가는 선교여행과 같은 사회봉사 등 적재적소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세대 간 봉사의 현장에 노출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봉사적 삶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인물로 지목되어왔다. 이를테면 2002년 조사에서는 비자원봉사자 집단의 부모가 16.3% 비율로 봉사에 참여한데 반해 자원봉사자들의 부모는 봉사에 참여한 경험율이 30.8%로 훨씬 높았다. 즉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과 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봉사 참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볼런티어21, 2002). Bandura(1986)가 개인의 행동이 주변인의 유사행동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이타적 행동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행동이 강화되고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Bar-tal, 1976). 캐나다 15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20명을 대상으로 한 Pancer와 Pratt(1999)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가정 안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일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은 종교적 신념과 친구, 그리고 선생님의 제안과 자극, 어머니의 권유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예배의 행위와 의미를 넘어서, 교회의 교육적 역할을 시사한다. 특히 봉사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데 있어, 교회 내 부모의 봉사실천을 어릴 때부터 본 경우, 자연스럽게 봉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상, 학교생활의 성패는 개인의 긍정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학에서 청소년이 교사나 또래와 맺는 관계, 학업성취도, 학교에서의 적응은 교육학에서 의미 있는 주제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가족자원봉사활동은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부각된다. 이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이 자주 언급되며 가족간 유대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고 보고(김정은·최은희, 2010; 김혜래·최승희, 2009; 남영자·박태영, 2009)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봉사활동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양수민(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봉사활동을 처치효과로 설정하여 사전, 사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보고하는 학교적응, 하위요인으로는 학교교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족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 영향은 경험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의 현실화가 매우 열악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간 연합과 봉사참여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 현실화를 도와주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의미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교회는 가족봉사의 ‘장’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긍정효과에 이바지할 뿐더러 봉사자의 삶을 관찰하고 내면화하며 이후 모델링하는데에 유효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서 수차례 거듭하여 언급하고 강조하는 봉사적 삶,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봉사활동이 왜 봉사를 실천하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지 학문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에서 봉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 지 성경에 근거하여 살핀 후, 교회가 봉사활동의 장으로서 갖는 요소, 이로 인해 봉사자가 받는 관계적, 환경적 영향 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상술하였다. 연이어 봉사활동이 갖는 일반적 유익에 대해 정리하며, 교회봉사활동의 특수성이 어떻게 이러한 봉사에 따른 유익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기독교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봉사자 개인에게 봉사라는 과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이로 인해 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봉사수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해 볼 때, 기독교청소년은 교회 혹은 기타 신앙공동체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봉사하는 삶이나 구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높은 과제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외재적 목표를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서의 봉사활동이 아닌, 그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일관된 삶의 한 형태로서 봉사를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은 다수의 축적된 설교와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또래와의 교제 등을 통해, 타인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비기독교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다른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기독교청소년은 신앙공동체에 근거하여 형성한 사회적 정체성이 봉사실천에 있어 합일된다는 점에서, 봉사수행 과정에서 지각하는 목표 자기일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봉사과정에 더 몰입하고 즐기며 향후 지속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봉사현장으로서의 교회는 기독교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와 교회학교 교사들, 그 외 성도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롤모델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독교청소년들에게 모방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교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등도 자녀에게 교육적 효

과를 가지는데, 이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분주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보여진다.

교회는 성도가 자신의 영역과 세계에서 봉사의 임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길 요청하고 있으며, 성도가 반응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있어 이러한 봉사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위형운, 2006). 신앙인이 노출되는 모든 영역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신앙적 삶’의 영역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통전적 신앙은 사회봉사적 삶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져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이은성, 2015) 봉사활동이 교회 안에 국한되거나, 신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로 이해되기보다, 삶의 방식이자 자세로서, 그리고 학업 및 능력, 사회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개인내적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갖는 포괄적 활동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화하는 내적 과정 없이 실행에 급급하기보다 그것의 궁극적 결과가 개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주목할 때, 비로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유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봉사으로써 타인의 유익에 기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은혜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감격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김용은, 1970).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빌 2:4-5)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 성경을 거스르거나 반증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교육학적으로 부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지성 (1999).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won, J. S. (1999). *(The)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Type on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경은 ·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Kim, K. E. & Choi, E. H.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김미향 (2004).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의 만족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Kim, M.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and Satisfaction with Voluntary Activity among the Youth*.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김상진 (200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고교 YMCA회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Juveniles'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on Their Self-identity*.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용은 (1970). 특집/신앙생활의 문제점/봉사생활과 신앙. **활천**, 352, 15-18.
- [Kim, Y. E. (1970). Special Issue: Dilemmas in faithlife/Volunteering works and faith. *Hwal-cheon*, 352, 15-18.]
- 김옥 · 송미영 (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3, 343-355.
- [Kim, W. & Song, M. Y.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Level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 343-355.]
- 김은영 · 유숙영 (2009). 봉사-학습이 여자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7(3), 1-22.
- [Kim, E. Y. & You, S. Y.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service-learning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 in commun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1-22.]
- 김이영 · 진복수 (200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금구논총**, 2002, 189-195.
- [Kim, Y. Y. & Jin, B. S. (2002).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Keum-gu Non Chong*, 2002, 189-195.]
- 김정숙 (2008). **봉사-학습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Kim, J. S. (2008).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 Focused on the peer-tutoring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4(1), 41-62.
- [Kim, J. H. (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4(1), 41-62.]
- 김혜래 ·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30, 159-182.
- [Kim, H. R. & Choi, S. 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159-182.]
- 남영자 ·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Nam, Y. J. & Park, T. Y.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4), 47-71.]
- 문성훈 (2000).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Moon, S. H. (2000). *The Effect of Volunteer Club Activities on the Self-Identity of Youths*. Masters Dissertation. Jeju University, Jeju, Korea]
- 박완성 · 김기수 (2012). 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 ·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4(1), 23-40.

- [Park, W. S. & Kim, G. S. (2012). The Effects of High-school Student's Service Learning on Ego-Identity,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23-40.]
- 박종민 · 심덕섭 · 양동민 · 최경주 · 노현재 · 김형진 (2011). 대학생의 학업 목표 자기 일치성이 목표몰입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HRD 연구**, 13(1), 117-138.
- [Park J. M., Sim, D. S., Yang, D. M., Choi, K. J., No, H. J. & Kim, H. J. (2011). Relationship of Goal Self-Concordance to Goal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Leadership.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3(1), 117-138..]
- 박종석 (2008). **기독교 교육심리**. 서울: 생명의 양식.
- [Park, J. S. (2008). *Christian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Bread of life.]
- 볼런티어 21 (2002).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서울: 볼런티어21
- [Vounteer21 (2002). *2002 Vounteer work and donation status of Korean*. Seoul: Vounteer21]
- 양수민 (2013).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Yang, S. M. (2013). *The effect of family volunteering on adolescents'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오대일 (2006).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원주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Oh, D. Y. (2006). *The effe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career matur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Han-rim University, Kang-won do, Korea.]
- 원미순 (2003). **대학생의 봉사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Won, M. S. (200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rvice-Learning Outcome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원미순 · 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5.
- [Won, M. S. & Park, H. S. (2010). Effects of Volunteering Experience on Citizenship.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17(3), 225-245.]
- 위형윤 (2006). 교회봉사에서 사회봉사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11, 11-39.

[Wi, H. Y.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to Social Diakonia from Church Diakonia. *Theology and Praxis*, 11, 11-39.]

윤기종 (2009).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론**. 파주: 이담북스

[Yoon, K. J. (2009). *Voluntary activity*. Pajoo: Yidam Books.]

이경은 (2003). 가족자원봉사경험과 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63-87.

[Lee, K. E. (2003). Family Volunteering and the Family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2, 63-87.]

이은성 (2015). 교회 신앙교육에서의 사회봉사교육과 실천과제. **신학과 실천**, 43, 485-512.

[Lee, E. S. (2015). Social Service Education and its Practical Tasks in the Church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43, 485-512.]

이재서 (2006).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서울: 세계밀알.

[Lee, J. S. (2006). *Understanding of Social volunteer work in Biblical theological way*. Seoul: World wheat berry.]

장태성 (1999).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Jang, T. S. (1999). *Th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romotion of Volunteer Activity*.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정혜승 (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진로 의식과 직업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Jeong, H. S. (2007). *Influence of Volunteer Activity of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of Liberal Arts on Course Awareness and Vocational View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School*.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정혜승 (2005). **기업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제가치, 학습형태 (집합교육, e-Learning, Blended Learning) 가 학습만족도와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Jeong, H. S. (2005). *Effects of Self-Directedness, Task Value, and Learning Typ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o, H. L. (1996)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ing works on their self-identity and morality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최무연. (2002). **자원봉사활동수준과 청소년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경기도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Choi, M. Y. (2002).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olunteering work and self-esteem targeted to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한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Han, S. M.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29-350.]
- 허성호 · 정태연 (2011).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3), 287-304.
- [Hu, S. H. & Jung, T. Y. (2011). Processes of Voluntary Services Delivered by Korean Undergraduates: An Approach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3), 287-304.]
- 홍봉선 · 남미애 (2004).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Hong, B. S. & Nam, M. A. (2004). *Youth welfare*. Seoul: Yang seo won]
- Albert, B.(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Amato, P. and A, Booth. (1997). *A generation at ris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quila, F. D. and Dodd, J. M.(2003). *Learn and serve Ohio: annual evaluation report*. Cleveland, OH: Cleveland State University.
- Astin, A. W., Vogelgesang, L .J., Ikeda, E. K., and Yee, J. A. (2000). *Haw service learning affects students*.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Atkinson, J. W. (1957). Motication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6p1). 35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vie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lsted.
- Batson, C. D., Schoenrade, P. A. and Pych, V. (1985). Brotherly love or self-concern?

- Behavioural consequences of religion.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 185-208.
- Becker, P. E., and Dhingra, P. H. (2001).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315-335.
- Bong, M.(2001). Role of self-efficacy and task-value in predicting college students' course performance and future enrollment inten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4). 553-570.
- Brady, H. E., Verba, S., and Schlozman, K. L.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269-295.
- Bures, E. M., Amundsen, C. C. and Abrami, P. C. (2002). Motivation to learn via computer conferencing: Exploring how task-specific motivation and CC expectations are related to student acceptance of learning via CC.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7(3). 249-264.
- Campbell, D., S. Yonish (2003).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America. in Smidt, C. (ed.).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America. In Religion and Social Capital*. Waco, Tex.: Baylor University Press.
- Carabain, C. L. and Bekkers, R. (2011). Religious and secular volunteering: A comparison between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Voluntary Sector Review*. 2(1). 23-41.
- Conrad, D., &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Madison, WI: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Deci, E. L., and Ryan, R. M.(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ew York.
- Dewey, J. (1910). *How we think*. Boston: Heath & Co.
- EA Ruona, W., Leimbach, M., F Holton III, E. and Bates,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utility reactions and predicted learning transfer among traine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6(4). 218-228.
- Elo, S. and Kynga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Eyler, J. and Giles, D. E. (1999).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Fischer, L. and K. Schaffer. (1993). *Older volunteer*. Newbury Park, CA: Sage.
- Fordham, S., & Ogbu, J. (1986). Black students' school success: Coping with

- the burden of 'acting white.' *Urban Review*, 18, 176-206.
- Hollenbeck, J. R., & Klein, H. J. (1987). Goal commitment and the goal setting process: Problems, prospects and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18-23.
- Markus, G. B., Howard, J. P. F. and King, D. C. (1993). Integra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Results from an experi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5(4). 410-419.
- Midlarsky, E. and E. Kahana. (1994). *Altruism in later life*. Thousand Oaks, CA: Sage.
- Miltiadou, M. (2000). *Motivational constructs as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online classroom* The Arizona Educ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ERO) 13th Conference, Oct. 2000.
- Musick Marc, A. and John, W.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Bloomington, IN: Indiana.
- Myers-Lipton, S .J.(1996). Effect of a comprehensive service-learn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evel of modern racism.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3. 44-54.
- Kagan, D. (1990). How schools alienate students at risk: A model for examining proximal classroom variables. *Educational Psychologist*, 25, 105-126.
- Koestner, R., Lekes, N., Powers, T. A., & Chicoine, E. (2002). Attaining personal goals: self-concordance plus implementation intentions equ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231-244.
- Pancer S, Pratt M. (1999). *Social and family determinants of community service involvement in Canadian youth*. in Yates, M and Youniss, J. (Ed.) (1999) *Roots of civic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 32-55.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Youniss James. (1999). *Roots of Civic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trich, P. R., Marx, R. W., and Boyle, R. A. (1993). Beyond cold conceptual change: The role of motivational beliefs and classroom contextu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2). 167-199.
- Pintrich, P. R., and Schunk, D. H.(2002). *Motivational in education*. Merrill Prentice Hall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don, K. M., and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82-497.
- Sheldon, K. M., and Kasser, T.(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ong, S. H.(2000). "Review of approaches for designing motivationally adaptive web-based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4(3). 177-204.
- Swann Jr, W. B., Gómez, A., Seyle, D. C., Morales, J. and Huici, C. (2009). "Identity fusion: the interplay of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in extreme 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995.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Ed.), *European monographs in social psychology: Vol. 14. Dg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 61-76). London: Academic.
- Turner, J. and Oalkes, P. (1986).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identity concept for social psychology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sm, interactionism, and social influ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237-252.
- University of Guelph and University School of R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Arai, S. M.(1999). *Voluntary associations as spaces for democracy: Toward a critical theory on volunteers*. University of Guelph.
- Uslaner, E. M.(1997). *Faith, hope and charity*. *Unpublished Manuscript*.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 Uslaner, E. M. (2001).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how trust and religion shape civic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104-117.
- Verba, S., K. L. Schlozman and Brady, H. E. (1996).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room, V. H.(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 Wigfield, A. and Eccles, J. 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3). 265-310.
- Wilson, J. and Jonaski, T. (1995).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 137-152.
- Wilson, J. and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94-713.
- Wilson, J. and Musick, M. (1999). Attachment to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14(2). 243-72.
- Wilson, J. (2000). Volunteering. Forthcom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 Wolters, C. (1998).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llege students' regulation of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224-235.

논문초록

교육심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 탐색

김셋별 (교신저자/오하이오주립대학교)

이호담 (전주반월초등학교)

본 연구는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봉사적 삶이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형태로 실천될 때, 봉사의 경험을 하는 청소년 개인이 어떠한 유익을 갖는지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학에서 다양한 긍정 효과를 보고하는 봉사활동이란 것은 성경의 다수 구절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섬김의 자세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행동이 신앙심에 근거하지 않은 여느 일반학생의 봉사수행과 어떤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지 신앙적, 공동체적, 환경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의 내용을 다룬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를 교육심리이론들을 접목하여 관련한 경험연구와 함께 교육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유익의 차별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을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보면 이들은 봉사활동을 성경적 근거에 따라 바라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봉사에 대해 비교적 높은 과제가치를 지각하게 된다. 둘째,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면,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행동은 신앙공동체와 공유된 사회적 정체성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봉사 과정에서 높은 목표 자기일치성을 경험할 수 있어 봉사몰입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이론에 접목하여 보면 기독교청소년은 교회학교 출석을 통해 봉사실천가라는 롤모델을 빈번하게 접하고 이를 통해 모방학습효과가 발생하는 유익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학 내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유익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자아 관련),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역량 관련), 사회인으로 준비되는 과정(소양 관련),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봉사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정리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 교회봉사, 교육심리이론, 기대효과

폴 리쾨르의 성서 해석학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Biblical Hermeneutics of Paul Ricœur

이상민 (Sang Min Lee)*

Abstract

Paul Ricœur is evaluated as the one who contributed best to the field of biblical hermeneutics among the contemporary hermeneutic theorists. The aim of this study resides in the practical use of his biblical hermeneutics as the useful methods to interpret the Bible by analyzing it. Among the contemporary hermeneutic scholars, he originatively presents the method and the aim of the biblical hermeneutic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Because of that, his biblical hermeneutics can be established as a new alternative or breakthrough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the reality in which the various criticisms towards the Bible, which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the Christianity, are prevalent. Not only does he try to distinguish carefully the philosophical field from the theological field in order for these two fields not to poach on the other field each other, but also he tries to understand the biblical world unfolded by the biblical text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hile appreciating the advantages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s such as the structural method and the historical critical method, he criticizes the limits of these methods as well. Therefore, his biblical hermeneutics tha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hilosophical hermeneutics and its mutual connotation in relation to the latter contains the various merits and characteristics which may open a new horiz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bove all, he emphasizes the role of the interpretation communit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this study, his biblical hermeneutics is examined with these following subjects :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ld of the biblical text in state of unfinished and open (the Word of God still remains because it is not expressed yet and God has still something to say) ; the hermeneutic arch, the frame that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theory is used functionally so that the reader can creatively encounter the meaning of the biblical text ; the world of the text which constitutes a kind of new distance, that is, the distance of the oneself from the

*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Seoul Global High School),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3길 40, 7890jt@gmail.com

2018년 07월 30일 접수, 08월 14일 최종수정, 08월 15일 게재확정

reality ; the diversity and the criteria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text ; the hermeneutic cycle which means that one should believe what the text proclaims in order to understand it and one should also understand it in order to believe it because what the text proclaims is given only in the text ; the consideration on the original sin and the Adam myth ; the father as the designation of God.

Key Words : philosophical hermeneutics, biblical hermeneutics, world of the text, hermeneutic arch, hermeneutic cycle

I. 서론

폴 리쾨르(Paul Ricœur 1913-2005)는 철학자이자 해석학자로서 현상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밝히려 하고, 이런 유한성을 통해 초월적 존재인 신을 해명하려고 한다. 그는 종교적인 상징과 정신분석학적 상징에 관한 해석학을 개진하다가, 자신이 몰두해온 해석학의 철학적 주제를 ‘상징’에서 ‘텍스트’로 바꾸게 된다. 즉, 상징 언어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여긴 나머지,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는 현대 해석학 이론가들 가운데서 성서 해석학 분야에 가장 훌륭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해석학자들 중에서 그는 철학적 해석학의 원리를 원용하여 성서 해석학의 방법과 목표를 독창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의 해석학을 성서 해석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로마교황청 성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집 『교회 안에서의 성서 해석 *L'Interprétation de la Bible dans l'Eglise*』에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성서 텍스트 해석에 유용한 현대 해석학 이론들 가운데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이나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 이상으로 리쾨르가 가장 훌륭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로마교황청 성서위원회가 펴낸 이 자료집에 따르면, 성서 해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리쾨르의 철학적 해석학의 첫 번째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 취해지는 ‘거리 유지’(la distanciation) 기능이다. 또한 성서 주석을 위해 리쾨르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취해야 할 두 번째 장점은, 독자에 의해 텍스트가 수용될 때 독자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텍스트의 역량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리코르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우선 취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의 올바른 점유를 위해 미리 필요한 것으로서 ‘거리 유지’ 기능의 부각이다. 첫 번째 거리가 텍스트와 저자 사이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일단 생성되면 텍스트는 그 저자와 관련하여 어떤 자율성을 띠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의미의 여정을 시작한다. 또 다른 거리는 텍스트와 후속 독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후속 독자들은 텍스트의 이타성(異他性) 속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 방식들이 해석에 필요하다. (...) 그렇지만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를 점유하는 독자들의 체험 속에서 현실화되는 경우에만 완전히 주어질 수 있다. 독자들의 상황으로부터 독자들은 텍스트에 의해 지시된 근본 의미의 방향에서 새로운 의미작용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다(Commission biblique pontificale, 1994: 66-67).

리코르는 비판적 이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철학자이므로, 그의 관심사는 오래전부터 철학적으로 남아 있으며, 그는 철학 영역과 신학 영역을 세심하게 구분하려고 애쓴다. 더욱이, 그는 그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 종교적 경험이나 혹은 ‘종교적 담화’(le discours religieux)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철학적 담화’(le discours philosophique)의 자율성을 늘 옹호한다. 그래서 그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Soi-même comme un autre*』의 서문에서, “본서를 구성하는 열편의 연구는 나를 성서적 신앙에 결부시키는 확신들을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따로 짓혀 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Ricœur, 1990: 36)라고 하면서, 이런 구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언급한다.

성서적 신앙에 대해 독자가 취하는 입장이 거부이든, 수용이든 혹은 유보이든, 나는 독자의 입장에 관여하지 않는 논증들만을 나의 독자들에게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철학적 저서 전체를 특징짓는 이 같이 절제된 논증은 어떤 유형의 철학으로 귀결된다. 열 번째 연구의 마지막 부분이 입증하듯이, 이 철학에서는 신의 이름을 실제로 짓는 일은 없으며, 신의 문제는 철학적 문제로서 그 자체가 ‘불가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보 상태로 남아 있다. (...) 내가 나의 철학적 글들이 ‘비의(秘義) 신학’이라는 공격에 맞서 나의 철학적 글들을 옹호한다면, 나는 똑같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비의(秘義) 철학적 기능’을 성서적 신앙에 부여하기를 삼간다(Ricœur, 1990: 36-37).

그렇기 때문에, 리코르는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이라는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침해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두 영역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Ricœur, 1995: 10). 따라서 그에게 성서 해석학은 철학적 담화에 궁극적 토대를 제시하려는 의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것일 리 없으며, 그의 철학적 해석학은 이런 기만적인 야심에 맞서 끝

임 없이 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초기 저작 중 하나인 『역사와 진리 *Histoire et vérité*』의 서문에서, “나는 기독교적 강론의 청중으로서 신의 말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Ricœur, 1967: 11)라고 하면서 ‘신의 말’을 듣는 자로 자임한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유대·기독교 전통의 개신교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성서는 그의 삶과 연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리코르의 성서해석학을 살펴봄으로써 성서를 해석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적인 성서 해석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성서 텍스트 세계의 특징

리코르는 ‘기록’(l'écriture)에 의해 고정된 어떤 ‘담화’¹⁾이든 그 ‘담화’를 ‘텍스트’라고 부르면서(Ricœur, 1986: 154),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계시 사건을 전달하는 성서에 기초하기에 성서 텍스트와의 만남이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성서 해석학이란 철학적 해석학을 어떤 범주의 텍스트들에 적용시키는 것 중 하나일 따름이다”(Ricœur, 2014: 95)라고 하면서, 텍스트에 관한 철학적 해석학의 이론을 성서 텍스트에 적용시킨다. 텍스트야말로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진리를 매개하는 기반이기에, 진리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고 의미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은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텍스트 해석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철학적 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은 상호 내포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수아 자비에 암헤르트(François-Xavier Amherdt)가 “리코르에게 텍스트의 세계는 철학적 해석학에서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도 중심 범주이다”(Amherdt, 2011: 49)라고 지적하듯이, 리코르는 텍스트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해석학은

1) 언어학적으로 ‘담화’(le discours)는 연계된 상태에 있는 ‘언표’(言表) 행위를 가리키고, ‘일정한 사실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나 ‘사고나 추론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담화’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구어 형태의 언어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대화 상황에 따라 ‘담화’에는 정보 전달, 사고, 선언, 약속, 호소와 같은 각각의 목적이 있다. 리코르는 ‘구두’(口讀) 변이형(la variante orale)과 ‘기술’(記述) 변이형(la variante écrite)을 포괄하는 ‘담화’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sur quelque chose)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어떤 것에 대해서’가 ‘담화’의 침해할 수 없는 ‘지시적 기능’(la fonction référentielle)이라고 밝힌다(Ricœur, 1994: 285-286).

동일한 방법론적 틀 안에서 각자 자율적이면서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서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에서 나온 개념과 논증과 방법을 반드시 집어넣기 때문에, ‘국지적 해석학’(l’herméneutique régionale)으로서 성서 해석학은 ‘보편적 해석학’(l’herméneutique générale)으로서 철학적 해석학에 종속된다. 다시 말해, 철학적 해석학으로부터 성서 해석학으로 넘어가면, 성서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 해석 이론을 국지적으로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암헤르트는 애초에 리코르에게 있어 철학적 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이라는 두 분야 중 어느 분야에도 우위가 주어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더욱이, 성서 해석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성서 해석학은 ‘계시’라는 그 지시 대상의 유일성 때문에 매우 독창적인 특성을 드러낸 결과, ‘계시’는 결국 철학적 해석학을 자체의 도구로서 종속시킴으로써 그 둘 사이에 관계를 심지어 뒤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Amherdt, 2011: 37). 암헤르트는 리코르에게 있어 두 가지 해석학의 위상이 뒤바뀌기까지 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텍스트 세계의 중심 범주를 성서 주석에 적용함으로써 뒤바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 뒤바뀐을 통해 성서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을 국지적으로 단지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규범이 되는데, 해석 철학 이론은 이 규범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성서 계시의 텍스트들은 신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궁극적 지시대상들은 무한한 결집력과 ‘소실점’(消失點)²⁾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부분적 형태의 모든 담화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궁극적 지시대상들은 인간의 어떤 담화든 그 담화의 폐쇄성을 벗어나는 어떤 지평을 열어주고, 종교적 언어는 다른 언어들과 구별된다(Amherdt, 2011: 50).

이와 같이, 성서적 언어의 특수성, 곧 ‘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성서적 언어의 중심 지시 대상의 절대적 독창성 및 ‘신의 나라’라는 성서적 언어의 세계를 통해, 철학적 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의 관계가 뒤바뀐다. 또한 성서적 언어의 특수성을 통해, 성서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의 유일한 사례가 되어버린다. 다른 일반 언어들 가운데서 성서적 언어에 별도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성서적 언어의 대상인 것이다. 리코르에 따르면(Ricœur, 1986: 133), 바로 성서 텍스트라는 일종의 텍스트에 적용된 해석학으로서 신학적 해석학을 다룸으로써 두 가지 해석학 사이에 뒤바뀐 관계

2) ‘소실점’(le point de fuite). 회화나 설계도 등에서 투시(透視)하여 물체의 연장선을 그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으로서, 원근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도와주는 가상적인 점을 가리킨다.

가 나타난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학은 너무나 독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나머지 관계는 점진적으로 뒤바뀌고, 결국 신학적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을 자체의 기관으로 종속시킨다. 결국, 성서 해석학은 자체에 철학적 도구를 종속시키고, 철학적 해석학의 덮개 구실을 하게 된다.

암헤르트에 따르면(Amherdt, 2011: 24), 리코르의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해석’이라는 두 ‘극단’(極端)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극단’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한 ‘극단’은 다른 ‘극단’ 없이는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 속에서 활동 중인 작업은 ‘해석’이라는 작업을 보완대상으로서 필요로 한다. 역으로, ‘해석’의 역학은 텍스트 속에서 이미 활동 중인 역학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역학을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리코르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³⁾ 사이에 교차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는 그의 철학적 해석학의 중심 주제이다. 이런 철학적 해석학에 상응하여 성서 해석학은 동일한 철학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체화된다. 먼저, ‘성서 텍스트’라는 ‘극단’에 있어서는, ‘담화 사례’⁴⁾의 범주, ‘문학 작품과 문학 장르’의 범주, ‘기록’의 범주, ‘텍스트 세계’의 범주라는 네 가지 텍스트 범주가 중심을 이룬다. 다음으로, ‘성서 해석’이라는 ‘극단’에 있어서는, ‘전(前)이해’(la précompréhension),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독해(讀解) 행위와 점유’라는 세 부분에 힘입어 성서 해석학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된다.

리코르에 따르면(Ricœur, 1994: 286), ‘구두(口讀) 담화’(le discours oral)에서 대화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공통된 주변 세계와 연관시킬

3) ‘텍스트의 세계’(le monde du texte)와 ‘독자의 세계’(le monde du lecteur)라는 개념은 ‘텍스트의 자율성’과 ‘독자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되기도 한다. ‘독자의 자율성’보다는 ‘텍스트의 자율성’이 먼저이고, 독자의 해석학적 자율성은 텍스트의 자율성 때문에 생겨난다. 우선, ‘텍스트의 자율성’이란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로부터 독립해 있으며, 텍스트는 저자가 글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만, 저자의 글은 저자가 할 말을 다한 것이 아니며, 저자가 할 말은 저자의 의도 이상이다. 저자가 의식하고 의도해서 한 말이 글을 이루지만, 저자의 글에는 표현되지 않는 말이 배어 있다. 다음으로, 독자는 보편 의미를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는데, 보편 의미를 통하지만 나름의 개별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텍스트의 주도권은 여전히 유지되는데, ‘독자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텍스트의 세계’ 속에서의 자율성인 것이다(양명수, 2004: 179-183).

4) ‘담화 사례’(l'instance de discours). 실제로 담화가 이루어지는 개별적 발화 행위를 가리킨다. 벤베니스트(Venveniste)에 따르면, ‘담화 사례’는 매번 유일한 산재(散在)된 행위들로서 이 행위들을 통해 ‘랑그’(la langue)가 화자에 의해 ‘파롤’(la parole)로 구체화된다(Venveniste, 1966: 251).

수 있다. 그런데, ‘기록’만이 읽을 줄 아는 누구에게든 말을 걸음으로써, ‘구두 담화’에서 대화 상대자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곧 ‘텍스트의 세계’인 세계이지만 텍스트 속에는 없는 세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텍스트의 세계’가 해석학의 대상인데, ‘텍스트의 세계’는 텍스트의 저자로 추정되는 저자처럼 텍스트 뒤에도 있지 않고, 텍스트의 구조처럼 텍스트 안에도 있지 않으며, 텍스트 앞에서 펼쳐진다. 리코르는 ‘텍스트의 세계’라는 개념이 텍스트가 저자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세계임을 드러내는데, 우선 ‘기록’을 통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자율적이 된다(Ricœur, 2013b: 66). 즉,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저자가 언급하려고 했던 것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성서 텍스트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독자의 경청하고 싶은 욕구를 통해 열려진 채로 있는 성서 텍스트들이 지칭하는 신은, 무언가 말할 것이 남아 있는 방식으로 이 성서 텍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결국, 이 ‘텍스트들의 세계’, 곧 이 텍스트들이 펼치는 성서적 세계에 의해 신은 인간과 연루되어 있다.

Ⅲ. ‘해석학적 아치’와 ‘텍스트의 세계’

‘보편적 해석학’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해석 이론이 성서 해석학에도 적용됨으로써, 리코르에게 철학적 해석 이론은 이른바 ‘해석학적 아치’(l’arc herméneutique)의 틀 안에서 독자가 성서 텍스트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활용된다. 물론, 리코르 자신은 ‘해석학적 아치’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해석학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으나, 리코르 연구가들은 ‘해석학적 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리코르의 해석학적 구조를 소개한다. 특히, 암헤르트가 이렇게 지적하듯이 리코르도 이 용어를 기꺼이 사용한다.

볼트만의 저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리코르는 모든 텍스트에 있어서처럼 성서 주석을 위해 자신이 ‘해석학적 아치’라고 기꺼이 부르는 것을 통달해야 할 필요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즉, 해석의 완전한 경로는 텍스트와 마주한 어떤 독자이든 드러내는 ‘전(前)이해’에서 출발하고,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와 실존적 점유에 도달하기 위해 객관적 의미에 대한 설명의 순간을 거치는 것이다(Amherdt, 2004: 375).

그 뿐 아니라, 리코르르는 “나는 ‘학문적 주석’ 그리고 내가 ‘신앙적 주석’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관계인 이런 ‘해석학적 아치’의 한 단편을 선택했는데, ‘신앙적 주석’은 텍스트를 신앙의 관계 속에 포함시키는 주석이다.”(Ricoeur, 1983b: 27)라고 하면서, ‘해석학적 아치’를 ‘학문적 주석’과 ‘신앙적 주석’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리코르르에게 ‘철학’ 혹은 ‘철학적인 것’은 ‘비판’(la critique)이라는 표현으로,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은 ‘확신’(la conviction)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데, 리코르르의 성서 해석학은 이 ‘비판’과 ‘확신’을 반드시 겸하고 있다. 하지만 리코르르는 “철학은 단지 비판적 이지만 앎과 철학 역시 확신의 영역에 속하며, 종교적 확신 그 자체에도 내재된 비판적 차원이 있다.”(Ricoeur, 1995: 211)고 하면서, 이 두 영역이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교차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독자는 성서가 신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하나의 망으로서 성서 텍스트의 지적 측면에 관여하는데, 이는 ‘확신’에서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독자는 성서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미의 제시를 진리의 경험으로 변화시키고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는 ‘비판’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침내, 독자는 동일한 ‘해석학적 아치’ 속에서 ‘전(前)이해’, ‘설명’(l’explication), ‘점유’(l’appropriation)라는 세 가지 시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에 이른다(Amherdt, 2011: 56).⁵⁾ 암헤르트는 리코르르에게 있어 이런 단계와 과정을 ‘텍스트의 세계’ 및 ‘거리 유지’(la distanciation)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5) ‘해석학적 아치’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석은 무엇보다 텍스트 앞에 위치한 독자의 ‘전(前)이해’, 곧 독자의 언어와 문화·역사적인 전통으로 구성되는 ‘전(前)이해’에서 출발하고,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단계를 거쳐, 독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독해(讀解) 행위’와 의미의 ‘실존적 점유’ 과정에 이르게 된다. 리코르르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을 잘 할수록 이해를 잘 하게 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특히, 텍스트에 대한 ‘전(前)이해’는 설명을 통해 수정되거나 심화되고 설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점유’는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를 자신의 실존 안에 수용하는 것으로서, ‘해석학적 아치’의 절정을 이룬다. ‘점유’는 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텍스트가 자체의 강력한 대상 지시를 통해 텍스트가 열어 놓은 것, 곧 ‘텍스트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텍스트가 스스로 와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전개하는 새로운 존재는 실재에 대한 독자의 고유한 비전을 재구성하고 변형시킨다. 이처럼 ‘점유’는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 결단하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백운철, 2007: 25, 27, 43, 47-48).

‘기록’에 의한 ‘거리 유지’와 마찬가지로 구조에 의한 객관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텍스트의 세계’ 위에서의 일이다. ‘텍스트의 세계’가 ‘독자의 세계’와 만남으로써 독해(讀解) 행위가 생겨나고, 텍스트의 점유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텍스트의 세계’ 위에서의 일이다. 일상 언어가 추구하는 일상 현실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세계’, ‘은유의 세계’, ‘허구적 서사(敍事)의 세계’ 혹은 ‘성서 기록의 세계’가 확립되는 것은, 바로 이 ‘거리’에 의해서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지시대상이 해방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거리’에 의해서이다(Amherdt, 2011: 49-50).

리쾨르에 따르면(Ricoeur, 2013b: 71), ‘텍스트의 세계’는 일상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통해 현실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거리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거리 유지’를 이루어지는데, 이는 ‘허구’(la fiction)를 통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으로 들어오는 ‘거리 유지’이다. ‘서사’(敍事)⁶⁾와 ‘이야기’(le conte)와 ‘시’(le poème)는 지시대상 없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지시대상은 일상 언어의 지시대상과 단절되어 있다. ‘허구’와 ‘시’를 통해 세상에 존재할 새로운 가능성들이 일상 현실에서 열려 있으며, 문학에 의해 현실에 초래되는 ‘상상적 변이들’(les variations imaginatives)에 힘입어 일상 현실은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허구’는 현실을 다시 기술하는 특별한 방식이며, ‘시적 언어’(le langage poétique)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대해 고찰하면서 현실에 대한 ‘재현 행위’(la mimésis)라고 부른 것을 실행하는 언어이다. 리쾨르는 이 ‘재현 행위’를 이루는 세 단계로서 1단계인 ‘전(前)형상화’, 2단계인 ‘형상화’, 3단계인 ‘재형상화’를 이렇게 설명한다.⁷⁾

반면에, 해석학의 과업은 어떤 작업들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이 작업들을 통해 어떤 작품이 삶과 행동과 고통의 불투명한 배경에서 빠져나와 저자에 의해 독자에게 주어지며, 독자는 이 작품을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기호학에서 유일한 ‘조작 개념’은 문학 텍스트

6) ‘서사’(le récit). ‘서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으로서, 인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라는 프랑스어 표현으로 ‘la narration’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리쾨르의 표현에 있어 ‘le récit’를 우리말로 ‘이야기’보다는 ‘서사’로 옮기고, ‘le grand récit’도 ‘거대 이야기’보다는 ‘거대 서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쾨르는 ‘서사’라는 표현으로서 ‘la narration’과 ‘le récit’를 번갈아 쓰기도 한다(Ricoeur, 1994: 293, 294).

7) ‘재현 행위’를 이루는 세 단계는 ‘해석학적 아치’의 구조를 이루는 ‘전(前)이해’,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독해(讀解) 행위와 점유’에 각각 상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전(前)형상화’는 ‘전(前)이해’에 해당하고, ‘형상화’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에 해당하며, ‘재형상화’는 ‘독해 행위와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해석학은 작업들의 아치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 이 작업들을 통해 작품과 작가와 독자에 대한 실제 경험이 주어진다. 해석학은 ‘재현 행위 2단계’를 ‘재현 행위 1단계’와 ‘재현 행위 3단계’를 사이에 위치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재현 행위 2단계’를 그 매개 기능으로 특징지으려 한다. 따라서 관건은 구체적 진행과정인데, 이 진행과정을 통해 텍스트적 ‘형상화’는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실제 영역의 ‘진(前)형상화’와 ‘재형상화’ 사이를 매개한다.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독자는 자신의 행동, 곧 독서 행동을 통해 ‘재현 행위 1단계’로부터 ‘재현 행위 2단계’를 거쳐 ‘재현 행위 3단계’에 이르는 여정의 통일성을 책임지는 탁월한 조작자라는 사실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Ricœur, 1983a: 106-107).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재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실현하는 언어로서 ‘시적 언어’에 대해, 리코르는 이 ‘시적 언어’가 일상 언어와 단절된 새로운 세계인 ‘텍스트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하면서, ‘텍스트의 세계’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과 공감으로 펼쳐질 텍스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언어’가 바로 ‘시적 언어’인데, 여기서 ‘시적’이라는 단어는 ‘서사’나 ‘예언’ 등에 덧붙여 질 수도 있는 ‘문학 장르’가 아니라는 것이다(Ricœur, 1994: 301).

특히, 리코르는 ‘규정적 담화’, ‘서사적 담화’, ‘예언적 담화’와 같은 성서 텍스트의 다양한 형태의 담화는 ‘시적 기능’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⁸⁾, 결국 성서 텍스트를 ‘시적 텍스트’(le texte poétique)와 동일시한다. 이는 ‘시적 담화’(le discours poétique)에 감정적 기능만을 부여하기 위해 ‘지시적 기능’(la fonction référentielle)을 ‘서술적 담화’(le discours descriptif)에 한정시키는 이론을 그가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문학 텍스트의 지시기능을 자체의 내재된 의미에 구조주의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다음 같은 이론에 근거를 둔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서술적 담화’와 ‘비서술적 담화’(le discours non descriptif) 사이에 대립을 빙계 삼아 ‘시적 담화’가 자체의 ‘지시적 기능’을 이미 박탈당했다는 이론이다. 이와 반대로, 그는 ‘시적 담화’에도 ‘지시적 기능’이 있음

8) 리코르는 성서 기록자들이 성서를 기술하는 방식을 ‘규정적 방식’, ‘서사적 방식’, ‘예언적 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토라’의 내용이 주로 율법이나 계명과 관계되는 경우 ‘규정적 방식’으로 기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규정적 담화’(le discours prescriptif) 혹은 ‘규정’(le prescription)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신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행위나 해방 행위의 경우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신의 행위를 서술하는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되므로, 이는 ‘서사적 담화’(le discours narratif) 혹은 ‘서사’(le récit, la narration)의 영역에 속한다. 이와 달리, 예언서에서 주로 나타나듯이, 예언자들을 통해 ‘신의 말’이 선포되는 것은 ‘예언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예언적 담화’(le discours prophétique) 혹은 ‘예언’(la prophétie)의 영역에 속한다(Ricœur, 1994: 293).

을 인정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 담화’의 지시적 기능이 비종교적이고 비(非)유신론적이며 비성서적인 계시의 차원을 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 담화’의 지시적 기능이 성서적 의미에서의 계시가 뜻할 수 있는 바의 근사치를 제시할 수 있는 차원을 담고 있다고 밝힌다. 결국, 성서 텍스트는 상징적, 은유적, 신화적 언어 안에서의 ‘시적 기능’을 통해 계시의 말로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Ricœur, 1994: 287-288).

IV. 성서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과 기준

리콤프는 성서 텍스트 해석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구조적 방법’(la méthode structural)과 ‘역사 비평적 방법’(la méthode historico-critique)을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뒤섞지 말아야 하지만, 서로 간에 그 방법을 알게 되면 각각의 방법을 실행할 때 그 방법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 ‘구조적 방법’의 이점을 설명하면서, 구조주의 학문으로서 ‘구조적 분석’(l’analyse structural)과 그 자체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인 ‘구조주의’(le structuralisme)를 명확히 구분한다.⁹⁾ 리콤프에 따르면, ‘구조적 방법’의 이점은 텍스트에 대한 ‘객관화’와 ‘거리 유지’인데, 이런 원래의 ‘거리 유지’ 행위로부터 텍스트는 단지 텍스트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텍스트의 저자, 텍스트의 저작 환경, 텍스트의 수신자는 부차적이 되고, 현존하는 저작물은 그 자체의 저작 내력으로부터 단절되어 독자를 위해 홀로 존재한다. 텍스트는 상세히 검토되고, 텍스트 안에서의 모든 것은 똑같이 동시대적이고 공시적이 된다(Ricœur, 1971: 287).

리콤프는 ‘역사 비평적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전제들을 내세운다. 우선, 텍스트가 기록되고 읽히는 것은 동일한 전승(傳承) 속에서이기에, 텍스트 해석자가 텍스트

9) 리콤프가 ‘구조적 방법’과 ‘구조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할 때, ‘구조주의적 방법’과 ‘구조주의적 분석’에 해당하는 ‘la méthode structuraliste’와 ‘l’analyse structuraliste’ 대신 ‘la méthode structural’과 ‘l’analyse structural’이라고 쓴 것은, ‘구조주의적 방법’과 ‘구조주의적 분석’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구조주의’로부터, ‘구조적 방법’과 ‘구조적 분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방법’과 ‘구조주의적 분석’은 텍스트를 이루는 각 요소의 상호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기충족적인 체계와 구조로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연구할 뿐 아니라,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작용에만 관심을 두며 텍스트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몰두하기 때문이다(Ricœur, 1971: 261).

와 동일한 전승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해석은 전승에 적용되어 그 자체가 전승의 구실을 하며, 텍스트는 전승의 재언이며, 해석은 텍스트의 재언이라는 전제가 뒤따른다. 이런 전제들은 해석이 ‘해석하는 공동체’(la communauté interprétante)의 행위이며 이 공동체의 ‘반성적인 부분’(le segment réflexif)임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와 텍스트 해석자가 동일한 전승에 공동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공동체의 존재 토대가 되는 텍스트들을 해석함으로써 그 자체가 해석되는 공동체의 행위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와 같이, 리코르는 해석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가 읽는 텍스트 안에서 해석되는 것은 바로 언제나 공동체 자체라고 지적한다. 진정한 ‘해석학적 순환’(Le cercle herméneutique)은 해석하는 동시에 해석되는 공동체의 차원에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들로 성서 주석은 근본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리코르에게 있어 공동체는 바로 전승의 공동체이면서 해석의 주체이므로, 해석 자체는 공동체성을 지니는데, ‘역사 비평적 방법’의 고유한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Ricœur, 1971: 291-292).

리코르는 ‘역사 비평적 방법’에는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이같이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 비평적 방법’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세 가지 환상을 지적한다. 첫째, ‘근거자료’에 대한 환상이다. 즉, 텍스트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근거자료가 아니라, 자체의 근거자료들을 선택하고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텍스트이다. 왜냐하면 어떤 텍스트의 근거자료들을 통해 어떤 텍스트가 이해될 경우, 근거자료를 통하지 않는다면 근거자료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이해는 텍스트로부터 근거자료들로, 근거자료들로부터 텍스트로의 왕복 속에서 늘 이루어진다. 둘째, ‘저자’에 대한 환상이다. 저자가 품은 의도는 저자의 심리적 체험도 경험도 아니며, 저자의 담화에 의해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 영원히 파악할 수 없는 공동체의 경험도 아니다. 텍스트를 기록한 사람에게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에게 준거함으로써,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거나 혹은 공표되는 사람이 바로 저자이다. 따라서 저자라는 개념은 심리적 개념이 아니라, 해석학적 요소이며 텍스트 자체의 한 기능이다. 셋째, ‘수신자’에 대한 환상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소위 ‘최초의 수신자’가 이해했던 바도 아니지만, 현재의 독자가 자신보다 뒤쳐져서 텍스트에 투사하는 바도 아니다. 텍스트의 해석은 독자의 작용이나 기술하는 자의 작용이기 전에 텍스트의 작용이다. 결국, 텍스트의 해석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텍스트의 작업이고, 텍스트의 근거

자료들에 대한 텍스트의 작업이며, 이전의 텍스트 저술 단계들에 대한 텍스트의 작업이다(Ricœur, 1971: 292-293).

암헤르트가 “리쾨르에게 있어 성서 텍스트 세계의 객관성과 이타성(異他性) 및 성서 텍스트 세계의 기묘함조차도 거기에 계시되는 ‘신의 말’의 선재성(先在性)을 나타낸다.”(Amherdt, 2011: 50)라고 지적하듯이, 리쾨르는 ‘언어와 의미의 선재성’이라는 원리를 성서 해석학에 적용하면서, ‘신의 말’과 계시가 독자에 앞서 존재하고 독자는 ‘신의 말’이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리쾨르는 성서 텍스트 안에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의 언어로 확인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신앙의 선택에서는 경험이나 이성적 요소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써,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나 직접적인 종교 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리쾨르에게 해석은 텍스트 앞에 펼쳐진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icœur, 1976: 36-37). 따라서 리쾨르에게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 성서 비평의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나 혹은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만 한정되지도 않고, 텍스트 밖에 있는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 작용을 이해하는 데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특히, 암헤르트가 “리쾨르에게 있어 진정한 해석은 신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우선적으로 있다.”(Amherdt, 2011: 50)고 밝히듯이, 성서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리쾨르는 ‘공감어린 추정’(la présomption de sympathie)을 바탕으로 성서에 대한 주석을 시작한다. 즉, 리쾨르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절대적 존재가 특정 사건과 특정 텍스트에서 우연한 방법으로 드러났다는 가정과 더불어 성서를 대한다. 암헤르트에 따르면(Amherdt, 2011: 51), 리쾨르에게 성서 텍스트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세상에서의 존재’(l'être-au-monde) 가능성과 ‘시간 속에서의 존재’(l'être-dans-le-temps) 가능성을 나타낸다면, 이는 성서 텍스트가 신의 계시를 통해 언급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탄생, 신의 나라를 독자 앞에 비추기 때문이다.

리쾨르는 “나는 진리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한다.”(Ricœur, 1967: 58)라고 하면서, 성서 텍스트가 언급하는 종말론적 진리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성서는 인간 실존과 역사 그리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회복되리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진리로 선포한다는 것이다. 리쾨르에 따르면(Ricœur, 1971: 294),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진리는 인간이 따라야 하는 공통의 여정으로서 진리이며, 인간의 개화를 위한 진리이다.

또한 신앙의 진리는 인간의 미래에 관한 진리인데, 이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진리이다. 그리고 신앙의 진리는 세계 내의 인간 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 실존을 진작시키는 진리이고,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는 진리이며, 이 새로운 탄생을 지속시키는 진리이다.

리코르르는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성서 해석의 기준을 공동체에서 찾는다. 성서는 신앙 공동체의 산물인 동시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 독서의 주요 특징은 성서 텍스트 독서가 공동체의 행위라는 것이다. 해석 자체가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le vouloir-dire)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해석 과정이라면, 해석은 텍스트의 해석에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해석이 하나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텍스트를 읽는 여러 가능성이 늘 열려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하나일 수도 없지만, 해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의미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가능한 해석들의 장(場)이 해석의 공동체적 특성에 의해 여전히 제한된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적인 성서 해석 작업이 언제나 ‘해석 공동체’(la communauté d’interprétation)의 지평 위에서 뚜렷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다(Ricœur, 1971: 295).

V. ‘해석학적 상황’과 ‘해석학적 순환’

리코르르는 볼트만의 저서 『예수, 신화와 비신화화 *Jésus, mythologie et démythologisation*』의 서문에서(Bultmann, 1968: 9-28)¹⁰⁾, “기독교의 해석학적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어떤 특징들은 오늘날에서만 인식되었는데, 바로 이 특징들을 통해 해석학적 문제는 현대의 문제가 된다”(Ricœur, 2013a: 504)라고 하면서, 현대에까지 은연중에 이어지는 이 ‘해석학적 상황’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특징들을 차례로 설명한다.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성서가 근본적으로 해석학적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성서의 해석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를 나타내는

10) 이 서문의 내용은 리코르의 저서 『해석의 갈등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5장에 『볼트만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실려 있다(Ricœur, 2013a: 503-528).

‘그리스도 사건’(l’événement christique)이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독교 신앙 자체는 해석의 과정에서 생겨난다. 특히, ‘그리스도 사건’은 옛 언약을 완성하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옛 언약을 다시금 이해하게 하는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성서 해석학적 문제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관계라는 문제 혹은 두 가지 언약의 관계라는 문제이다. 실제로, ‘그리스도 사건’이 구약성서 전체를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사건’은 구약성서 전체와 해석학적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사건’은 그 자체가 해석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 전에, ‘옛 기록’인 구약성서에 대해 해석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문제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최초의 해석학은 구약성서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신약성서 자체가 그 영적 의미이지만, 구약성서를 해독(解讀)하는 이런 우회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앙은 ‘이해’(l’intelligence)의 차원에 있게 된다(Ricœur, 2013a: 504-506).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두 번째 특징은 성서의 해석과 삶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고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리콥르는 성서의 네 가지 의미를 추구한 중세시대의 성서 해석학의 유용성을 부각시키면서¹¹⁾, 성서는 인간 삶의 이해를 위한 해석의 척도가 되고, 실천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부여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해석학의 과업은 의미 추구에 대한 ‘이해’를 실존과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해석학은 기독교적 실존 체계 전체와 맞먹게 된다. 거기서 성서는 만물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전체적 해석을 담고 있는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로서 나타난다. 이처럼 성서에 대한 ‘이해’는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모든 문화 도구를 포함한다. 결국,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신성한 의미로서 성서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인 동시에, 잔류되어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이런 ‘이해’에 통합시키는 것인데, 이것에 힘입어 성서는 제한된 문화적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Ricœur, 2013a: 507-509).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사건’과 이에 대한 증인들의 선포 사이에, 또한 증인들과 복음서 기록자들 사이에, 그리고 선포된 사건과 정경 텍스트

11) 리콥르는 “역사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라는 성서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한 뤼박(Lubac) 사제의 놀라운 저작에 힘입어, 성서와 인간 실존에 대한 상호 해석의 풍성함이 알려진다”(Ricœur, 2013a: 507)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의미를 추구한 성서 해석학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한다.

사이에 해석학적 거리가 애초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속한 성서의 세계와 현대의 독자와는 더 커다란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세 번째 뿌리는 역사학이나 문헌학에서 차용된 비판적 방법들이 성서 전체에 적용된 이후인 현대에 이르러서만이 완전히 인정되고 이해된다. 특히, 현대인은 직접 보았던 증인이 아니라 증인의 말을 듣는 청자(聽者)이므로, 현대인은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 되어버린 텍스트를 듣고 다시 해석함으로써만이 믿을 수 있다. 요컨대, 현대인은 구약성서뿐 아니라 신약성서 자체와도 해석학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도 해석되어야 하는데,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 대해 해석하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삶과 현실 전체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 자체도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인데도,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해독(解讀)하는데 소용되었던 한, 신약성서는 절대적 규범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성서와 같은 신성한 텍스트에 비판적이고 문헌학적이며 역사적인 원리들이 적용되어 성서 전체가 『일리아드 *Illiad*』나 소크라테스 이전의 문헌들처럼 다루어지면, 성서의 ‘글’은 신성을 박탈당하고 ‘인간의 말’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약성서 자체는 ‘신의 말’로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말’로서 들려질 수 있는 것 사이에 해독(解讀)해야 할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복음 자체가 텍스트와 ‘글’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해석학적 상황’이다. 그 차이와 거리가 아무리 미미할 지라도, 텍스트로서의 복음은 복음 자체가 선포하는 ‘사건’에 대해 차이와 거리를 드러낸다(Ricœur, 2013a: 509-512).

리코르는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나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그는 ‘해석학적 순환’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한다.”(Ricœur, 2013a: 513-514)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표현은 지나치게 심리적이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믿기’(croire)의 이면에는 신앙에 대한 신앙 대상의 우위가 있고, ‘이해하기’(comprendre)의 이면에는 텍스트의 고지식한 독해(讀解)에 대한 해석과 방법의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해석학적 순환’은 심리적이 아니라 방법론적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신앙을 결정짓는 대상에 의해, 이해를 결정짓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순환’이다. 또한 그는 ‘이해하기’라는 과업은 텍스트 자체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의해 결정지어지며, ‘이해하기’는 대상이 원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대상의 우위, 곧 이해에 대한 의미의 우위는 이해 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해석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해석학

적 순환'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상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운데서만 알려지는데, 텍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신앙은 이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 텍스트 속에서 해독(解讀)될 수밖에 없고, 텍스트에 표현된 초기 교회의 신앙고백 속에서 해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이 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에 모아진 증언들은 자유롭고 개인적인 증언일 뿐 아니라, 예배와 복음 전파와 신앙 표현에서 신앙고백적인 공동체 속에 놓인 증언들이므로, 성서를 해독하는 것은 '사도적인 공동체'(la communauté apostolique)의 증언을 해독하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선포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텍스트가 선포하는 것은 텍스트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Ricœur, 2013a: 512-515).

VI. '원죄'와 '아담 신화'에 대한 고찰

리콥르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과 관련하여, 죄에 대한 기독교적 체험에 대해 '원죄' 개념을 통해 제시되는 해석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악에 대한 합리화 중 하나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리콥르에 따르면, 전통에 의해 오래도록 간직되고 기독교적 인간론의 토대가 된 이런 합리화는, 신의 신비와 인간 운명의 신비를 알리는 그노시스설의 주장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와 결부되어 있다. 물론, '원죄' 개념은 그노시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反)그노시스적인 개념이지만, '원죄' 개념은 그노시스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악에 대한 기독교적 체험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는 의미에서, '원죄' 개념은 그노시스설이 지배하던 시대와 결부되어 있다(Ricœur, 2009: 206). 그래서 그는 "사실상 그렇게 취해진 원죄 개념은 성서적이 아니지만, 원죄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고찰해야 할 합리적 도구를 이용해서 교회의 신앙고백과 일반적인 강론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이다"(Ricœur, 2013a: 364)라고 하면서, '원죄' 개념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한다.

리콥르는 논쟁적이고 기독교 호교적인 개념으로서 '원죄'는 다음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악이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자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악에는 존재도 본성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노시스설에서 악은 밖으로부터 인간을 둘러싸는 현실이며, 밖에 있는 물체이고 사물이며 세

상이다. 이처럼 그노시스설은 인간이 악을 체험하는데 있어 악의 절대적 외재성과 비인간성과 물질성을 그 토대로 제시한다. 악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노시스설에 맞서 교부들은 악에는 본성이 없고 악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악은 물질도 실체도 아니며, 악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리콤프르는 교부들이 이 때문에 ‘참회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끊이지 않는 전통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 ‘참회 전통’은 아담의 타락 ‘서사’(敍事)에서 그 전형적인 상징적 표현을 발견한다고 밝힌다. 우선 본질적으로, ‘아담’이라는 상징이 전달하는 것은 인간이 악의 절대적인 기원이 아니라면 적어도 세상에서 악의 출현 지점이라는 확신이다. 한 인간을 통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노시스설 훨씬 이전에 ‘야훼 문서’¹²⁾ 기록자나 혹은 그 유파는 바빌로니아적인 악의 표상들에 맞서 싸웠는데, 이 표상들을 통해 악은 당시 사물들의 기원에 있는 어떤 권세가 되었고, 악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쳐부수고 정복한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아담’이라는 상징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366-369).

리콤프르는 ‘원죄’에 대한 고찰이 후기 유대교의 아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인간이자 두 번째 아담이자 구원의 선도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파멸의 선도자인 첫 번째 아담 사이에 대조를 계기로 이 아담론을 기독교적 유산 속에 끌어들이고 밝힌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전(前)유형’(l’anti-type)일 따름인 첫 번째 아담, 곧 장차 올 존재의 형상인 첫 번째 아담은 그 자체로 사고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 역사가 둘로 나뉘듯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 역사는 둘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도식은 뒤바뀐 이미지들처럼 점점 더 서로 겹쳐진다. 말세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형적인 인간의 표상의 뒤를 잇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락에 앞

12) ‘야훼 문서’(le document yavhiste). 모세오경의 자료 문서로 이름 붙여진 사료로서, ‘야훼 문서’ 혹은 ‘제호바 문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는 ‘J 문서’라고 한다. 이 문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모세오경의 또 다른 자료 문서로 이름 붙여진 ‘엘로힘 문서’(le document élohiste)인 ‘E 문서’와 연관되어 성조(聖祖)들의 이야기와 이집트 탈출기를 내용으로 한다. ‘J 문서’가 ‘E 문서’와 다른 것은 하느님을 지칭할 때 ‘J 문서’는 ‘야훼’(Yahweh) 혹은 ‘제호바’(Jehovah)라는 말을 쓰지만, ‘E 문서’는 ‘엘로힘’(Elohim)이란 말을 쓴다는 점이다. 모세오경의 또 다른 자료 문서로 이름 붙여진 사료는 ‘신명기 문서’(le document deutéronomiste)와 ‘제사장 문서’(le document sacerdotal)가 있다.

서 완전하고 특출한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372).

이와 같이 ‘원죄’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리코르는 고대의 다양한 신화 가운데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서사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탁월한 상징으로서 ‘아담 신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리코르는 ‘아담 신화’가 악이 우주의 원리로서 처음부터 있던 것처럼 그런 고대의 우주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신화들에서 신화적 특성을 없애 버린 인간론이라고 주장한다. 즉, ‘아담 신화’에서 악은 인간이 행한 범죄의 산물이지만, 인간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서 나온 결과로서 자유의 올바른 사용, 곧 인간의 회개를 통해 악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담 신화’는 태초의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사라지리라는 ‘소망’(l'espérance)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전망을 포함한다(백운철, 2007: 16).

리코르에 따르면(Ricœur, 2009: 207), 신화는 이미지나 우화를 매개로 하는 허위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대의 기원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서사’(敍事)로서, 이 ‘서사’는 오늘날 인간들의 전례적인 행동의 토대를 이루고, 이 ‘서사’를 통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온갖 행동 형태와 사고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행동 형태와 사고 형태를 통해 인간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현대인은 자신이 비판적 방식으로 기술하는 그대로의 역사의 시대에 신화의 시대를 더 이상 연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현대인은 신화의 장소들을 자신의 지리적 공간에 더 이상 결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 신화는 단지 신화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신화는 더 이상 어떤 설명이 될 수 없다. 자연 현상이나 이름이나 제도나 혹은 삶의 방식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려는 신화의 목적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비신화화’(la démythologisation)의 주제이다. 하지만 신화는 자체의 설명적 의도를 상실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의 탐색적이고 이해적인 효력을 보여주는데, 이 효력은 신성한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신화의 역량이다.

리코르는 신화가 ‘서사’라는 특수한 수단을 통해서만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화는 다양한 ‘서사들’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신화를 통해 다양한 상징체계들과 맞닥뜨리는데, ‘악의 상징체계’¹³⁾라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화

13) 리코르는 철학적 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의 연결 고리가 되는 주제를 악의 문제에서 발견하는데, ‘악의 상징체계’(la symbolique du mal)는 해석이 발생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따라서 리코르는 ‘오점’(la souillure), ‘죄’(le péché), ‘죄의식’(la culpabilité) 등의 개념들을 분석할 뿐 아니라, 악의 상징

들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은 이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신화들을 반드시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신화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신화들에 대한 이런 유형별 분류를 통해, 다양한 문명에 의해 언어화된 신화적 형상들의 특수성을 곡해하지 않고서, 신화들의 다양성 속에서 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는 신화들의 단순한 분류나 신화들의 정체상태로부터 신화들의 역동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신화들의 세계는 조용하거나 조화된 세계가 아니고, 신화들은 끊임없이 서로 대결하는 상태에 있으며, 어떤 신화이든 다른 신화와 관련하여 우상과 괴적이므로, 이런 대결과 역동성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Ricoeur, 2013a: 394-395).

리코르르는 이 역동성은 신화들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악의 기원을 인간 이전의 재난이나 혹은 원초적 갈등과 연관시키는 신화들이 있고, 악의 기원을 인간과 연관시키는 신화들이 있다고 밝힌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신화 중 하나는 창조에 관한 바빌로니아의 시에 의해 묘사된 창조의 비극적 사건인데, 이 시는 가장 새로운 신들의 탄생이 유래되는 원초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한다. 또한 필연적인 운명에 사로잡힌 영웅을 보여주는 비극적 신화도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는 이와 같은 기원 신화, 창세 신화, 비극적 신화 맞은편에 아담의 타락이라는 ‘성서적 서사’(le récit biblique)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정확히 인류학적인 유일한 신화라고 주장한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속죄 체험 전체에 대한 신화적 표현을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화들의 세계가 두 경향 사이에서 이와 같이 분리된 채로 있다고 밝히는데, 하나는 악을 인간 너머로 옮기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나쁜 선택 속으로 악을 집중시키는 경향이다(Ricoeur, 2013a: 395-396).

더 나아가, 리코르르는 이 갈등이 두 그룹의 신화들 사이에만 있지 않고, ‘아담 신화’ 자체 안에서 되풀이된다고 하면서, ‘아담 신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타락의 순간’이라는 ‘서사’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것은 지속과 경과된 시간을 차지하는 ‘유흥’이라는 ‘서사’이고, 금지하는 신, 유흥의 대상, 유흥된 여자, 유흥하는 뱀과 같은 다양한 등장인물을 끌어들이는 ‘유흥’이라는 ‘서사’이다. ‘타락 사건’을 한 인간과 한 행위와 한 순간 속에 집중시킨 ‘아담 신화’는 ‘타락 사건’을 여러 인물

들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하는데, 인간은 이 악의 상징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의식’을 표현한다는 것이다(Ricoeur, 2013a: 389-390).

과 여러 에피소드에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측면에서는,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무구(無垢) 상태로부터 과오로의 질적인 추락이 식별할 수 없는 점진적인 이행이 된다. ‘아담 신화’는 중간 휴지(休止)의 신화인 동시에 이행과 변천의 신화이고, 인간의 나쁜 선택의 신화인 동시에, 유혹과 현혹의 신화이면서 악으로의 점진적인 미끄러짐의 신화이다. 연약함의 형상인 여자는 나쁜 결정의 형상인 남자에 극단적으로 상응한다. 이와 같이, 신화들의 갈등이 ‘아담 신화’라는 유일한 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관점에서는 악의 기원과 관련되는 다른 모든 신화를 역동적으로 비신화화 하는 결과로서 간주될 수 있는 ‘아담 신화’를 통해, ‘뱀’이라는 고도로 신화적인 형상이 ‘서사’ 속으로 들어온다. ‘아담 신화’ 한 가운데서, ‘뱀’은 다른 신화들이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악의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즉, 이미 거기에 있는 악이고, 인간 이전에 존재하는 악이며, 인간을 매혹하고 유혹하는 악이다. ‘뱀’은 인간이 악을 시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악을 발견하는데, 인간에게 있어 악을 시작하는 것은 전에 있던 악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자신의 탐욕을 투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뱀’은 자신보다 더 오래된 어떤 악의 전통을 형상화한다. 아담의 형상 자체는 현존하는 모든 악을 모아 놓은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원초적인 인간으로서 아담은 모든 인간보다 앞서 존재하며, 현재의 모든 악보다 앞서 존재하는 악을 형상화한다. 아담은 모든 인간보다 더 오래된 존재이고, ‘뱀’은 아담보다 더 오래된 존재이다. 이와 같이, 비극적 신화는 ‘아담 신화’에 의해 재확인되는 동시에 허물어뜨려진다는 것이다(Ricoeur, 2013a: 396-398).

VII. 신에 대한 칭호로서의 ‘아버지’

리콥르는 기독교에서 신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구약성서에서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제시한다. 리콥르는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데 있어 히브리인의 이런 신중한 자세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설과 연관시킨다. 즉, ‘아버지’라는 형상은 복귀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라는 형상은 친족적이지도 않고 부성적(父性的)이지도 않은 다른 형상을 통해 재해석됨으로써만이 복귀될 수 있다는 가설이

다. 리쾨르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환상’(le fantasme)으로부터 ‘아버지’라는 ‘상징’(le symbole)에 이르는 정제 과정을 통해¹⁴⁾, 충동적 차원, 문화적 형상의 차원, 종교적 표상의 차원에서, ‘아버지’라는 원래의 형상은 다른 형상에 의해 반드시 축소된다. 충동의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신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내세우지만,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셈족에게만 공통된 현상이 아니라, 인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그리스, 로마에서도 이렇게 호칭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정사실이므로,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631-633).

리쾨르는 역사적 전통 신학에 해당하는 ‘육경(六經) 신학’¹⁵⁾의 연구 작업을 예로 들

14) 이 정제 과정은 리쾨르가 ‘부성’(父性)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다음 같은 작업가설과 연관이 있다. 즉, ‘아버지’라는 형상은 불확실한 미완의 미결상태의 형상이며, 거세 콤플렉스를 일으키는 죽어야 하는 ‘아버지’라는 ‘환상’으로부터 자비심으로 죽는 ‘아버지’라는 ‘상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론적 차원을 거쳐 지나갈 수 있는 지칭이라는 가설이다. 리쾨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헤겔 철학에서의 ‘아버지’의 죽음을 분석함으로써, ‘환상’을 ‘상징’으로 변환시키는 ‘아버지’의 죽음이 존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는 ‘환상’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존재하지만,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비롯된 ‘살해’이다. 이런 ‘살해’는 자체가 불멸해지기를 갈망하는 전능한 욕망의 소산인데, 전능한 욕망은 ‘부성적인 이미지’를 내재화함으로써 부가적인 환상, 곧 ‘살해’를 넘어 불멸화된 ‘아버지’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히브리 종교에서는 예언자의 죽음을 통해 복귀되는 것이 바로 이런 환상이며, 기독교에서는 이 환상을 통해 ‘아들’이 이중의 역할을 맡는 ‘아들의 종교’가 생겨난다. 한편으로 ‘아들’은 인간 모두를 위해 신을 살해한 죄를 속죄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들’은 죄를 책임짐으로써 ‘아버지’와 나란히 신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마무리 지음으로 ‘아버지’를 대신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종교’에서 비롯된 기독교가 ‘아들의 종교’가 된다고 결론짓는다. 반면에, 헤겔 철학에서는 ‘친족’의 진정한 관계는 구체적인 윤리적 삶의 측면에서 설정되고 이 관계는 수호신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죽음은 후속 세대를 지배하는 ‘부성(父性) 관계’의 표상이고, 이 죽음은 더 이상 ‘살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살해’가 아닌 ‘아버지’의 죽음이 존재하고, ‘환상’을 ‘상징’으로 변환시키는 ‘아버지’의 죽음이 존재한다. 리쾨르는 이같이 분석한 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가설을 내세운다. 즉, ‘고난 받는 의인’이나 ‘고난 받는 종’의 죽음은 신의 죽음의 어떤 의미로 귀결되는데, 종교적 표상의 측면에서 신의 죽음은 ‘상징화’의 다른 두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신의 이런 죽음은 ‘아버지’의 비(非)범죄적 죽음의 연장 속에 위치할 수 있고, 신의 이런 죽음을 통해 자비를 통한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서 상징의 변화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613, 641-643).

15) ‘육경’(l’Hexateuque). ‘모세오경’(le Pentateuque)과 여호수아서로 구성된 6권의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6권의 성서에 나타나는 역사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주제와 문체의 유사성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6권의 성서가 단 1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한다. ‘육경(六經) 신학’은

면서, 신의 부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이지 않음을 밝힌다. ‘육경 신학’의 연구 작업은 다양하고 잡다한 기원의 ‘단편 서사들’을 ‘거대 서사’의 공백들 속에 정돈하는 것이며, 이 ‘거대 서사’를 창조 신화에까지 연장하는 것인데, 서사 구조에서 야훼는 ‘아버지’의 입장에 있지 않다. 서사 구조에서 지배 범주는 ‘행위’와 ‘행위자’라는 범주인데, 행위자는 서사 속에서 자신의 기능에 의해 규정된 ‘주인공’이라는 범주이다. 궁극적 행위자인 야훼, 유일한 역사적 인물로 취해진 집단적이고 주된 행위자인 이스라엘, 모세로 대표되는 다양한 개별 행위자들은 ‘육경 신학’의 주요 토대인 ‘행위와 행위자의 변증법’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행위와 행위자의 변증법’에서 ‘부성(父性)과 ‘친자(親子) 관계’(la filiation)는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632-633).

리콥르는 야훼가 ‘아버지’로 지칭되기 전에 ‘이름’을 통해 지칭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름’은 ‘고유명사’이자 ‘의미 내포’(la connotation)이며, ‘아버지’는 ‘수식어’이자 ‘묘사’(la description)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타오르는 덩불 서사에서 신이 모세에게 계시한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다’(Je suis)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름’을 계시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형상을 포함하여 온갖 형상과 형상화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콥르는 ‘부성적인 형상’(la figure paternelle)을 축소하는 것은 창조 서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도 신은 ‘아버지’로 지칭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따라서 그는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려면, 일반적으로 형상이 완전히 없는 상태, 특히 ‘부성적인 형상’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그때만이 ‘아버지’라는 형상의 복귀에 대해 언급할 수 있으며, ‘아버지’라는 형상의 이런 반복을 통해 다음 같은 의미 있는 발전과정이 제시된다고 밝힌다. 우선 어떤 ‘묘사’에 해당하는 ‘아버지’로 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신을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의 신에게 말을 거는 것, 곧 ‘아버지’로서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예수의 기도에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형상의 복귀와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인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634-637).

리콥르는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지칭은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간구를 향해 이와 같이 흐름을 바꾸지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구약성서 예레미야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신학을 가리킨다.

에 나오는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로 든다. 즉, 여기서는 아직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간구가 아니며, 구약성서 어디에서도 야훼는 ‘아버지’로서 간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신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단순한 진술이다. 리코르는 ‘아버지’로서의 신에 대한 간구를 향하는 미완의 단계인 신을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사’와 ‘예언’이라는 두 가지 담화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신이 ‘아버지’로 명명되는 성서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 텍스트는 ‘예언적 텍스트’인데, ‘예언’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수혜자인 ‘해방 행위’를 서술하는 ‘서사’와 달리,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며, 예언자는 ‘거대 서사’의 틀에서 고백된 것과는 다른 것을 선포한다. 예언자는 장차 일어날 역사의 파멸을 선언하고 역사의 파멸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선언하므로, ‘예언적 텍스트’에서 야훼는 ‘아버지’로 지칭될 뿐 아니라 ‘아버지’로 선언된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신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icœur, 2013a: 637-639)

리코르는 신을 ‘아바’¹⁶⁾라고 부르는 예수의 간구를 통해, ‘아버지’라는 형상의 복귀 움직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서, 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데 있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중함과 조심성이 신약성서에도 어느 정도 간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후대에 기록된 것이 정설이므로,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 애초에는 드물지만 나중에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이런 확대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에 의해 허용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하지만 ‘부성’(父性)은 복음서의 원래의 범주가 아니며, 마가복음에서 보듯이 복음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내용은 ‘신의 나라’의 도래와 종말론적 개념이다. ‘복음적 케리그마’에 의해 선포된 다가올 ‘신의 나라’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새로운 체제를 계승한 것이므로, ‘신의 나라’라는 범주로부터 ‘부성’(父性)이라는 범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종말론적 신의 통치’(la royauté eschatologique)와 ‘부성’

16) ‘아바’(Abba). 아람어에서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로서 신약성서에 3번 언급되어 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의 기도에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아바’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져 있다. 이는 예수가 그러한 단어들로 일상적인 기도를 했음을 암시하는데, 신에 대한 이러한 언사나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보였을 것이다(아가페성경사전 편찬위원회, 1991: 1026).

(父性)은 주기도문에서까지 분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주기도문이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시작하여 종말론적 성취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신의 ‘이름’과 ‘군림’과 ‘뜻’에 관련되는 요청들로 이어지므로, 간구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는 어린아이 같아야만 들어가는 ‘신의 나라’가 선포될 때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신의 나라’의 선포와 떼어 수 없는 ‘아버지’라는 형상이 종말론의 영역에 속하고 ‘아버지’라는 칭호가 종말론적 선포의 관점에 다시 놓이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담은 예수의 말에서 보듯이, ‘친자(親子) 관계’라는 개념도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인다.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아들을 모릅니다. 아들이 아니면,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를 모르듯이 말입니다.”¹⁷⁾라는 예수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서로를 알고 인정하는 유일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부성’(父性)과 진정한 ‘친자(親子)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토대 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아바’라는 예수의 기도가 이해될 수 있는데, ‘아버지’라는 지칭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듯이, 성령이 신과의 우리의 ‘친자(親子) 관계’를 입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친자(親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성’(父性)이 존재하고, 성령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친자(親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Ricœur, 2013: 639-641).

리콥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헤겔 철학에서의 ‘아버지’의 죽음을 분석하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가설을 내세운다. 즉, ‘고난 받는 의인’이나 ‘고난 받는 종’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신의 죽음을 통해, ‘누구를 위해 죽어감’이 ‘누구에 의해 살해됨’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자비를 통한 죽음’이라는 의미로 죽음의 의미가 뒤바뀐다는 것이다. 즉, 타인을 위한 죽음이 됨으로써 의인의 죽음을 통해 선함의 형상과 자비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서 ‘부성적인 이미지’의 변신이 마무리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전개과정의 끝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 죽기까지 순종한다. (...)”¹⁸⁾는 표현처럼, 빌립보서는 성스러운 송가를 통해 ‘봉헌’(奉獻)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린다. 여기서 ‘살해로서의 죽음’은 ‘봉헌으로서의 죽음’으로 뒤바뀐다. 결국, 리콥르는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바친다.”¹⁹⁾는 그리스도의 말은 완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론’(la christologie)만이

17) 마태복음 11장 27절. 리콥르가 인용한 성서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Ricœur, 2013a: 641).

18) 빌립보서 2장 8절. 리콥르가 인용한 성서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Ricœur, 2013a: 644).

진정으로 복음적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인 한에서, ‘아들’의 이런 죽음을 통해 ‘부성’(父性)의 마지막 도식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다(Ricœur, 2013a: 643-644).

리코르는 봉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드러난 ‘케노시스’²⁰⁾와 연관을 지어 설명한다. 우선, 리코르는 신이 없는 ‘그리스도론’은 야훼 없는 이스라엘처럼 생각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런 설명은 우리가 예수의 말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예수의 신’이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라는 인간은 신과의 연합과 다른 것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나사렛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이 기도 한 ‘예수의 신’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예수에게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시작하지만, 십자가는 신의 연합함에 대한 모든 징표와 연결되어서만이 ‘신의 버림’으로 이해될 따름이고, 부활은 신의 해방 행위에 대한 기억과 모든 인간의 부활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만이 이해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리코르는 구약성서를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신의 ‘전능함’(la toute-puissance)을 기리는 것 그리고 신약성서에 의해 선포되는 듯이 보이는 신의 ‘절대적 연합함’(la toute-faiblesse)을 인정하는 것, 이 둘을 동일한 의미 영역 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향으로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론’의 과업이라고 지적한다. ‘불변성’(l’immutabilité)과 ‘평정’(l’impassibilité)이라는 그리스적 신의 개념이 일단 박탈된 성서적 신의 ‘전능함’은, 신의 곤경에 의해 드러난 ‘절대적 연합함’의 경향을 띠는 점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에 의해 드러난 ‘케노시스’가 예수에 의한 ‘신의 나라’의 선포 속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에 의한 부활의 선포 속에서 표현된 권능과 관련되는 이상, 이 ‘케노시스’는 사람들이 이제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향해 끌고 가려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더 이상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Ricœur, 1994: 299-300).

19) 요한복음 10장 18절. 리코르가 인용한 성서 구절을 번역해서 옮긴 것이다(Ricœur, 2013a: 644).

20) ‘케노시스’(kenosis)는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6-8절에서 유래된 그리스 단어로 표현된 기독교 신학의 개념으로 예수의 낮아지는 움직임을 지칭하는데, 예수는 이를 통해 자신에게서 신적인 속성들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VIII. 결론

기독교 성서에 대한 비판들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성 모독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서에 대한 비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할 수도 없고 쉽게 지나칠 수도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비판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그 비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 비판들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한 반박이나 반대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서 자체에 드러나는 듯이 보이는 모순과 결함에서 비롯된 그 비판들은 성서가 제멋대로 왜곡되고 의미가 변질되어 종파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교리를 지탱해주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그 비판들을 통해 성서에 나타나는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파헤치려는 의도는, ‘신의 말’이라는 명분으로 성서에 부여된 신성함과 권위를 떨어뜨려, 성서의 내용이 불변의 절대적 진리로 강요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 비판들에는 성서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 비판들을 통해 드러나는 성서와 관련된 의문과 난제는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비판들은 성서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나 성서 텍스트에 담긴 영적 의미의 파악 같은 성서 해석 방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주로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콤프의 성서해석학을 통해 성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비판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서에는 역사적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성서 자체에는 신빙성이 없는 듯 하며,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성서 텍스트에서 많은 모순과 결함이 드러나는 듯이 보인다는 비판이다. 리콤프가 제시하는 성서적 언어의 특수성, ‘성서 텍스트 세계’의 자율성, ‘해석학적 순환’ 같은 개념 등을 통해 이 비판을 분석해보면, 이 비판을 통해 제기되는 성서와 관련된 문제들은 독자들이 성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적 언어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중심 대상인 ‘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및 ‘계시’가 지닌 절대적 독창성과 유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표현되지 않은 ‘신의 말’이 남아 있고

신이 말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완결되지 않은 채로 열린 상태에 있는 성서 텍스트를 통해, ‘신의 말’이 무한히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서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성서 텍스트의 선포 내용을 우선 믿어야 하고, 성서 텍스트의 선포 내용을 믿으려면 성서 텍스트를 치밀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둘째, 특히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성서에는 우화적인 서술과 허황된 이야기로 가득한 듯이 보이고,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되는 성서의 내용이 도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으며, 성서에는 수많은 율법과 미신적인 계율이 혼합되어 있는 듯 하고, 신으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는 예언자들이 망상가나 광신자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는 비판이다. 리코르가 제시하는 성서 해석학적 문제의 특징, 성서 텍스트의 ‘시적 기능’ 등을 통해 이 비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성서는 근본적으로 해석학적이므로 ‘그리스도 사건’이 구약성서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성서 텍스트를 ‘신의 말’로 받아들이거나 성서 텍스트가 신의 계시를 드러내는 데 문제가 없고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 텍스트는 성서 계시가 제시될 수 있는 ‘지시적 기능’이 담긴 ‘시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는 그 ‘시적 기능’을 통해 계시의 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복음서 및 예수와 관련하여 복음서 기록자들의 뒤떨어진 자질 및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상반 때문에, 복음서에는 진실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복음서에서 모순과 결함이 드러나는 듯이 보인다는 비판이다. 또한 예수와 관련된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듯 하고, 인간일 따름인 예수 안에 신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다. 리코르가 제시하는 ‘해석학적 아치’의 구조, ‘해석학적 거리’, ‘그리스도론’ 등을 통해 이런 의문과 문제 제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독자는 성서 텍스트의 ‘점유’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석학적 아치’의 틀 안에서 독자는 성서 텍스트를 통해 전해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성서 텍스트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삶과 현실 전체에 대해 해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약성서와 같은 신성한 텍스트는 절대적 규범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적 신의 ‘전능함’은 ‘절대적 연약함’도 띠고 있기 때문에, ‘강생’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한 성서적 신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인간의 조상이 지은 죄를 문제 삼아 신이 아무 죄도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

원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인간을 괴롭힌다는 ‘원죄’ 개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또한 신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이 먹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그리고 신화적이고 우화적이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뒤섞인 듯이 보이는 창세기의 역사적 진리와 사실성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 ‘악’과 깊이 관련된 ‘원죄’ 개념 및 ‘아담 신화’에 대한 리콤프의 고찰을 통해 이런 비판과 주장과 의문 제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리콤프도 ‘원죄’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서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원죄’ 개념에 대한 이런 비판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악에 대한 리콤프의 고찰에 따르면,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악을 시작하는 것은 전에 있던 악을 계속하는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제시하는 악과 상관없이 이미 거기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악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상황이 인간에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더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상황이 인간에게 조성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히, 신화는 우화를 매개로 하는 허위적인 설명이 아니라, 기원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되는 ‘서사’로서 이 ‘서사’를 통해 인간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 형태와 사고 형태가 만들어지므로, ‘아담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창세기에서 문제시되는 신화적이고 우화적인 측면은 신화가 지닌 또 다른 역량과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설과 관련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의 존재가 모순된다는 비판, 그리고 첫째 위격이 ‘어머니’로 지칭되기보다 ‘성부’인 ‘아버지’로 불리며, 둘째 위격이 ‘딸’로 지칭되기보다 ‘성부’인 ‘아들’로 불리는데 대한 의문 제기이다. 기독교에서 신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한 리콤프의 고찰을 통해 이런 비판과 의문 제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리콤프의 고찰에 따르면, 성서에서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구약성서의 신 야훼가 ‘아버지’로 지칭되기 전에 ‘이름’을 통해 지칭되며 스스로 ‘이름’을 계시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성부’와 ‘성자’라는 위격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친족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자 ‘아들’이 구약성서의 신 야훼로서 성부 ‘아버지’와 삼위일체설에서 동일한 존재인 한에서만²¹⁾,

21) 전통적인 삼위일체설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동일 본질’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삼위일체설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자와 성부가 동일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를 알고 인정하는 유일하고 진정한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콤프의 성서해석학은 기독교의 근본 토대를 이루는 기독교 성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새로운 대안과 돌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리콤프는 철학 영역과 신학 영역이 서로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분하면서도 성서 텍스트들이 펼치는 성서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쓸 뿐 아니라, 성서 해석에 있어 ‘구조적 방법’이나 ‘역사 비평적 방법’과 같은 다양한 성서 해석 방법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철학적 해석학과 깊이 결부되고 철학적 해석학과 상호 내포 관계가 있는 리콤프의 성서 해석학은, 성서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여러 장점과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Amherdt, 2004: 425),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활동을 빠뜨리고 있다. 물론, 그의 성서 해석학에서 성령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어떤 약점 중 하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약점이 철학자로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의 빌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존재라는 리콤프의 주장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동일 본질’로 보기 보다는 그 관계를 단일 신론적으로 보려는 리콤프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참고문헌

- Ricœur P. (1967). *Histoire et vérité*,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71). “Esquisse de conclusion” in *Exégèse et herméneu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287, 291-292.
- _____. (1971). “Table ronde” in *Exégèse et herméneu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261.
- _____.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 Worth: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 _____. (1983a). *Temps et récit I*,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83b). “Herméneutique. Les finalités de l'exégèse biblique” in *La Bible en philosophi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27.
- _____. (1986). *Du texte à l'action, Essais d'herméneutique, tome II*,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94). “Nommer Dieu” in *Lecture 3 Aux frontières de la philosophie*, Paris: Éditions du Seuil. 285-288, 299-301.
- _____. (1995). *La critique et la conviction*, Paris: Calmann-Lévy.
- _____. (2009). *Philosophie de la volonté II : Finitude et culpabilité*,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2013a).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Essai d'herméneu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2013b). “La fonction herméneutique de la distanciation” in *Cinq études herméneutiques*, Genève: Labor et Fides. 66.
- _____. (2013b). “Herméneutique philosophique et herméneutique biblique” in *Cinq études herméneutiques*, Genève: Labor et Fides. 95.
- 아가페성경사전 편찬위원회 (1991).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서원 ;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Agape Bible Dictionary (1991), *Agape Bible Dictionary*. Seoul, Agape Publishing House.
- 백운철 (2007). “리콥르의 성서 해석학” 『가톨릭 신학과 사상』 60호. 16, 25, 27, 43, 47-48 ; Baik Woon-chul(2007). “The Biblical Hermeneutics of P.Ricoeur”,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Vol.- No.60. 16, 25, 27, 43, 47-48.
- 양명수 (2004). “폴 리콥르의 해석학과 신학 : 텍스트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 127호. 179-183 ; Yang Myung-Su (2004). "P. Ricoeur's Hermeneutics and Theology: In the light of text theory", *Theological thought*, Vol.- No.127. 179-183.
- Amherdt, F.-X. (2004). *L'herméneutique philosophique de Paul Ricoeur et son importance pour l'exégèse bibliqu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 _____. (2011). *Paul Ricoeur, L'herméneutique bibliqu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 Bultmann R. (1968). *Jésus, mythologie et démythologisation Préface de Paul Ricoeur*, Paris: Éditions du Seuil.
- Commission biblique pontificale (1994). *L'Interprétation de la Bible dans l'Eglise*, Paris: Cerf.
- Venveniste É. (1966).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I*, Paris: Éditions Gallimard.

논문초록

폴 리콤프의 성서 해석학에 대한 연구

이상민 (서울국제고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해석학 이론가들 가운데서 성서 해석학 분야에 가장 훌륭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폴 리콤프의 성서 해석학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서 해석학을 기독교 성서 해석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특히, 현대 해석학자들 중에서 그는 철학적 해석학의 원리를 원용하여 성서 해석학의 방법과 목표를 독창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의 성서해석학은 기독교의 근본 토대를 이루는 기독교 성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혹은 돌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는 철학 영역과 신학 영역이 서로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분하면서도 성서 텍스트들이 펼치는 성서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쓸 뿐 아니라, 성서 해석에 있어 ‘구조적 방법’이나 ‘역사 비평적 방법’과 같은 다양한 성서 해석 방법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철학적 해석학과 깊이 결부되고 철학적 해석학과 상호 내포 관계가 있는 그의 성서 해석학은, 성서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여러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그는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해석 공동체’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다음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리콤프의 성서 해석학에 대해 살펴본다. 즉, 아직 표현되지 않은 ‘신의 말’이 있고 신이 말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완결되지 않은 채 열려진 상태에 있는 성서 텍스트 세계의 특징, 독자가 성서 텍스트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철학적 해석 이론이 그 틀 안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되는 ‘해석학적 아치’, 현실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거리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거리 유지’를 이루어지게 하는 ‘텍스트의 세계’, 성서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과 기준,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선포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텍스트가 선포하는 것은 텍스트에서만 주어지므로 믿으려면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학적 순환’, ‘원죄’와 ‘아담 신화’에 대한 고찰, 신에 대한 칭호로서의 ‘아버지’ 등이다.

주제어 : 철학적 해석학, 성서 해석학, 텍스트의 세계, 해석학적 아치, 해석학적 순환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 포토보이스의 적용

A Photo–Voice Study on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이은미 (Eun Mi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Qualitative and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is photo–voice method has been applied for this study with 9 participants. Main themes– self identity, career exploration, christian faith– are given to the participants who were asked to take or make choices of photos which they would consider its appropriateness with the themes for the photo–voice interview. 24 photos have been chosen and 18 theme clusters appe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theme ‘who am I’ was analysed as 6 sub–themes. ‘Ongoing process of choice and decision making’, ‘Not being myself’, ‘Knowing what would I be doing in the future but not specifically’, ‘Challenging person’, ‘Over self–conscious about others’. Secondly, the theme was ‘With what kind of person am I recognized to my significant others?’. 5 sub–themes are ‘A smile person’, ‘My unique style’, ‘A leader’, ‘Like a racing horse’, ‘Integrity and soundness’. Thirdly, the theme was ‘what kind of future do you imagine?’ 2 sub–themes for this are ‘My career plan is motivated from the adolescence and college life’ and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Finally, the theme was ‘what does christian faith mean to you?’ 5 sub–themes are as follows. ‘Driving force of my life’, ‘My real attribute and factor of reflecting myself’, ‘Dramatic turning point of my life’, ‘Faith mirrors my future and values of life’, ‘Commitment on faith without termi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a number of discussions and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 emlee5@stu.ac.kr

2018년 08월 14일 접수, 08월 26일 최종수정, 08월 28일 게재확정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role of christian church.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student, self-identity, career exploration, photo-voice research

이 논문은 2017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정책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Erikson(1968)의 생애발달이론 8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제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기에는 대인관계에 있어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인 청년기를 거쳐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는 것이다. Erikson(1968: 183, 박아청 1990에서 재인용)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개인의 연속성과 단일성 혹은 독자성과 불변성과 같은 동일성에 대한 연속적인 감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지각하며 자기에 대한 일관성과 통합성을 가지고자하는 노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박아청, 2003: 19-20, 2010: 105).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임을 감안할 때 자아정체감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Geijssels & Meijers, 2005). 자아정체감이 안정될수록 일관되고 통합된 인생 방향과 목적의식을 세울 수 있으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면서 개인의 삶이 자기주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에는 20대 중반의 나이까지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업이 연장되었고(Long, 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기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 규범이 강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자아를 깊이있게 탐색하고 자기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자기 적성이나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선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뿐 아니라 진로지도의 부족, 성적에 맞춘 대학이나 전공 선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청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기도 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탐색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경향을 띄게 된다(김태희·김종백, 2016; 이은경 외, 2017).

Super(1990: 215)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서유란, 2012; 유혜림, 2015: 34). 개인에게 있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평생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며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개척하는가는 인간육구의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과 연결이 된다.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확립될수록 진로선택도 안정적이며 진로에 대한 태도도 성숙해질 수 있다(최윤희·김순자, 2011: 753; 이송이, 2014). 그러나 자아정체감이 확립된다고 그 과정이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아정체감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의식이 시작되는 일생을 거쳐 지속되는 발달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대학생이다. 왜냐하면 대학생 시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가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준비와 전략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다르게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한 후 주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학문탐구의 기회로 인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자기정체성과 진로정체성 탐색이 진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탐색 부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나래·이기학, 2012: 176)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 확립과 진로탐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를 이뤄내는데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신앙(영성)이라는 요인에 주목을 하였는데 일찍이 Erikson(1968)이 밝힌바와 같이 신앙(영성)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신념이나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청소년이나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나 질

서, 세상의 이치나 방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Long, 2012). 청소년기는 신앙에 대한 탐색이나 몰입, 회심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신앙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기존연구에서는 신앙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 진로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readgold(1999)는 자신의 직업을 초월적 부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적다고 하였고, 박종수(2014: 31)도 소명의 하위요인 중 초월적 부름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진로에 대한 소명감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며, 신앙심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황아름, 2011: 46; 이억범, 2013). 소명의식이 신앙성숙과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한다는 연구(정숙희·이혜주, 2016: 246)도 있는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로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오수진, 2011; 황인숙·오윤선, 2015).

이와 같이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양적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기독교 신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변수 간 관련성이나 유의미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에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신앙과 자아정체감, 진로탐색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헌검토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화,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내는 참여적 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로 질적연구접근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젊은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신앙지도와 사역이 점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세대들이 자아정체감을 높이고 성숙한 진로탐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신앙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검토

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Schwartz et al(2005: 207)은 자아정체감이 안정되는 것을 일컬어 ‘자아정체감 일관성’, ‘자아정체감 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안정성이 삶에서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Schwartz et al(2005: 209)은 Erikson의 자아정체감을 자아(ego), 개인(personal), 사회(social)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가장 내적인 영역으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고 부모로부터 내재화되는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기(self)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개인적 정체감’은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목적, 가치와 신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집단 속으로 개인의 자기감(sense of self)을 통합시키는 결속감이라고 설명하였다.

일군의 학자들은 자아정체감을 시공간적 차원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Geijssel & Meijers, 2005; Lichwarck-Aschoff et al., 2008). 자아정체감을 ‘시공간에 걸친 변화와 변동을 통해 유지되는 자기동일성 및 지속성’이라고 정의하거나 개인의 과거나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지속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Geijssel & Meijers, 2005). McAdams(2001)은 내러티브 자아정체감을 개념화 한 연구자로서 개인의 생애 이야기와 자아정체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주장하였다.

에릭슨의 초기 개념정의에 기초하되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범주는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Marcia(1980: 111-112)는 Erikson의 이론을 토대로 ‘위기(crisis)’와 ‘관여(commitment)’라는 두 개념을 적용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을 네 가지 성취지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위기는 개인이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선택을 재고해보게 되는 격변의 시기를 의미하고, 관여는 이러한 위기를 겪고 난 후의 결과물이 어떤 역할이나 가치에 몰입하고 관여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단계의 청소년은 정체성 위기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심이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역할이나 가치에 몰입하거나 관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고한 신념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직업 역할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정체성 유예 단계와 유사하지만 위기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예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단계의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이나 가치, 목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 자신의 미래를 주로 부모나 다른 권위의 기대나 가치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고민하거나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가치를 여과 없이 수용한다. 그 결과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단계의 청소년은 외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적 충격이 오면 쉽게 자신이 지녔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체성 유예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단계의 청소년은 현재 위기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려는 노력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 곧 이루어지기 직전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체성 성취상태의 청년들보다 안전성과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 단계의 경우에는 정체성 위기를 이미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은 상태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역할과 가치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어떤 일에 관여를 할지 결정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인성발달의 전 분야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신념체계가 확실하고 자기주도적인 특징이 나타나면서 자기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상황이 변화

해도 큰 동요없이 성숙한 자기정체감을 유지하게 된다.

Erikson(1968)은 정체감의 성취나 유예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지만, 정체감 혼란은 정체감 발달이 가장 미숙한 수준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정체감 상태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는데 청년 초기에는 정체감 혼미나 정체감 유실을 경험하고, 청년 후기가 되어서야 정체감 성취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eilman, 1979: 230-231).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하위요인, 유형,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이면서도 복잡한 개념이다.

한편 진로탐색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탐색이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입하기 위해, 직업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기평가나 외부탐색 활동이다(Blustein & Phillips, 1988: 206). 이 행동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결정은 주로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민호 2012: 20).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진로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 역량을 탐색하거나 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자아정체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er, 1990: 215; 서유란, 2012; 이은경 외, 2017: 102-104).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확립되면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며 자기 진로에 대한 목적이나 확신, 준비나 진로결정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윤희·김순자, 2011; 이송이, 2014).

진로탐색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것이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에 대해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즉 진로결정과 관련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라는 개념은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말하며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양극단으로 나눌 수 있다(김봉환·김계현, 1997: 313).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진로결정을 연기한 상태를 말한다. 진로미결정의 정도가 심할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진로결정에 위에서 이야기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많은 국내, 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이고, 진로발달과정에 자아정체감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드러난 바 있다(Super, 1990; 228; 서유란, 2012; 손연아 외, 2014).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주도적이고 자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고, 진로태도가 성숙하다고 볼 수 있다(유혜림, 2015: 51).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충분한 탐색기를 거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부모나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과 함께, 취업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자기정체성이나 적성에 부합되는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영화, 김계현, 2011).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확립 노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평생의 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확립 자체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이 직업(진로) 선택이라는 중요한 성인기 진입 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 대학생의 기독교 신앙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탐색

변미희·이명순(2005: 88)은 신앙은 개인의 신념이나 생활자세,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정체감과 진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환(1997)도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신앙은 발달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앙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김은희, 2007; 변혜복, 2008; 이억범, 2013), 자아존중감도 높다는 것이다(이억범, 2013).

이억범(2013: 103-105)은 신앙성숙도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이나 자아정체감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기가치를 긍정적으로 확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 있고, 신앙의 영향으로 청교도적 직업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명에 따라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숙희·이혜주(2016: 242-243)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며 이를 통해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학생들이 단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의식에 따라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숙희·이혜주(2016: 230)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절대적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 내 성도 간의 생활,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학봉, 1985: 53-54; 최윤영, 2012: 296). 기독교의 신앙성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며,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인간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배은주, 2004: 180).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있어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 자기의 본성과 말, 실제의 삶을 돌아보며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자기 확신과 주도성, 자기수용성을 높이는 등 자아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신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울러(Fowler, 1984, 이재은 역, 1986)는 청년기 신앙이 비분석적인 관습적 신앙에 의존하는 단계와 주체적이고 반성적 신앙을 하는 단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년시기의 신앙이 관습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의 단계로 성장할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은 차치하고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2017)의 ‘2017년 한국대학생

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기독교 대학생 비율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12년 동일한 조사의 17.2%에 비하면 2.2% 감소된 것이다. 전반적인 기독교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개신교 대학생 중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학원복음회협의회, 2017).

신앙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대학생들의 신앙에 대한 의식과 그로 인한 자기 삶에의 영향을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대학생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대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실증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포토보이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1994)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연구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적 실천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방법이다.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수단으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연구접근법의 하나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선정한 주제에 대해 사진을 통해 그 경험을 탐색하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스토리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자발성과 참여를 통해 인식의 확장을 일으키고, 타인들과의 공유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사고를 은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탐색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자나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Wang, 1999: 188).

이러한 장점 외에도 포토보이스 방법이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에 기반한 사회문화의 시각화 현상과 자기정체성과 이미지, 사고와 가치관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코드와도 잘 맞기 때문에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경기도 4년제 A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 총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추천을 받은 학생을 중심으로 최종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문에는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지, 언제 모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1) 현재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경험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교회 청년부(대학부) 리더로 활동하거나 교회 생활에 열심 있는 대학생 2)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성별, 학년, 학과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학년, 신앙경험, 전공분야, 진로분야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sex	year	history of christian faith	major	vocational field on consideration	
Group1	No.1	female	3 rd	since birth	christian education	teacher
	No.2	male	3 rd	since birth	christian ministry	academia
	No.3	male	4 th	since birth	language	police officer
	No.4	male	3 rd	since middle school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5	female	1 st	since birth	christian education	teacher
Group2	No.6	male	2 nd	since middle school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7	female	1 st	since elementary school	christian education	teacher
	No.8	female	4 th	since birth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9	male	4 th	since birth	christian ministry	missionary

2. 자료수집

(1)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해 생소하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주제, 포토보이스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 시점에 참여자들로부터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고, 이어 자아정체감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간략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4개의 주제가 주어질 것이며 한 주에 2개씩 주제에 관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선정하며, 그 사진의 주제와 설명을 덧붙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연구질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 주제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고 진로탐색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로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추출한 질문들이다. 이 연구질문들을 기초로 연구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참여를 위한 사진촬영과 의미해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주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2주제: “주변 사람(가족, 친구, 친척, 선후배 등)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3주제: “앞으로의 내 모습은? 나의 꿈은?”

4주제: “신앙은 내 삶에서 ○○○이다”

각 참여자들이 주제에 따라 1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거쳐 사진을 찾거나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집단인터뷰 시간에 준비한 사진파일과 설명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였다. 집단인터뷰는 회당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20분까지 소요되었고 그룹 별로 각각 2회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준비한 사진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 해당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진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그 제목에 따른 본인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본인은 해당 사진과 이야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였다. 동시에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과 소감을 나눌 수 있게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가능한 참여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Wang과 Burris(1994)는 사진선정(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범주화(codifying)를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사진과 설명, 집단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듣고,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의미와 경험에 가장 부합한 사진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된 직후 참여자들이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 신앙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일차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개개인의 주제별 진

술내용을 맥락화하고 범주화하되, 집단면접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와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화하였을 때 연구질문에 따른 4개의 대주제 아래 총 18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진은 최종적으로 총 24개가 선택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각 주제를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을 거쳤다.

4. 연구의 진실성 확보 및 연구 윤리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고르는 작업, 그 사진의 의미와 맥락을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사진과 그 사진을 해석하고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미와 맥락상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특성

(1)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척도¹⁾와 진로태도성숙도 척도²⁾를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질적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적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공인된 척도의 결과

1)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사용

2) 이기학·한종철 (1997).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사용

에 비취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사고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질적연구이고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자기진술에 자료수집의 비중을 최대한 싣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결과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보조자료로만 사용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자아정체감의 경우 9명의 참여자들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점이며, 가장 높은 점수는 4.72점, 가장 낮은 점수는 3.13점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1.59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기수용성’ 항목이었고(4.53점), 가장 낮은 항목은 ‘주도성’ 항목(3.69점)이었다.

진로태도성숙도의 경우 9명의 참여자들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자아정체감 평균점수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진로태도성숙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4.44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3.34점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1.1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독립성’ 항목이었고(4.3점), 가장 낮은 항목은 ‘결정성’ 항목(3.7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참여자 소개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 참여자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1

대학 3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참여자9명 중 6번째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닌 반면에 진로태도성숙도는 참여자 중 2위로 높은 편이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으며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 갈등과 불일치를 경험한다.

참여자2

대학 3학년이다. 학업에 열중하는 편이며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참여자 중 중간정도이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큰 그림은 가지고 있다. 가정 내, 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3

대학 4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점수는 높은 편이나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는 낮은 편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성향과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여러 집단에서 리더로 활동하다보니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다.

참여자4

대학 3학년이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독립성이 높은 편이며, 진로준비에 있어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이 높은 편이다. 성실하고 꾸준하며 경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이다.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점수가 모두 높다.

참여자5

대학 1학년이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나 아직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점수가 전체 참여자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참여자6

대학 2학년이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자기판단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다. 신앙생활을 매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은 유리한 편이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참여자7

대학 1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전체 9명 중 두 번째로 높다. 다정다감하고 친구를 잘 챙기며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학교 때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웠으나 현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도 전체 그룹에서 2번째로 높다.

참여자8

대학 4학년이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소극적이던 성격이 많이 바뀌고 대학졸업

반인 지금까지 많은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검사결과가 또래 또는 후배 집단보다 낮은 편이며,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도 연구 참여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내적 갈등이 깊거나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9

대학 4학년이다.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다.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방면의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적극적인이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그룹 내에서 자아정체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태도에 있어 목적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포토보이스 결과 분석

(1) 나는 누구인가?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로 ‘내가 살아 온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자기의 정체성 고민이나 진로 탐색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해하기도 했으며,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타인에 의한 평가를 받을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란을 한, 두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지와 sns사용이 익숙한 세대여서인지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해냈다.

①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고 심리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바(Schwartz et al., 2013) 본 연구참여자들을 볼 때에도 역시 자신에 대한 심리 내적 갈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한 참여자는 이를 ‘철길’사진으로 표현하였다.



Figure 1. Railroad

“저는 형이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차 남이지만 거의 장남처럼 뭔가 해야된다는 결정들이, 순간들이 많았고, 여기 철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결정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신학교 오기전에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다가 신학교 오면서 계속 결정하게 되고, 군대 갈때도 군목으로 갈지 운전병으로 갈지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고, 어, 뭐 그런것들의 갈림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종착역이 있는것처럼, 제 선택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순간들이 다가오고, 다가왔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이 맞는 것 같아서 찍게 됐어요”. (참여자9)

② ‘나’다운 모습이 아닌 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심리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사소하거나 큰 일에 이르기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항상 살면서 제가 걱정이 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걱정하고, 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던지 그럴 때가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저 자신을 보면 ‘아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중략) 저는 환경이 진짜 참, 좋은 환경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외부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아무리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제 자신 안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등감을 느끼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과 힘들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참여자2)

한 참여자는 불안한 삶은 아니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은 역할을 해내야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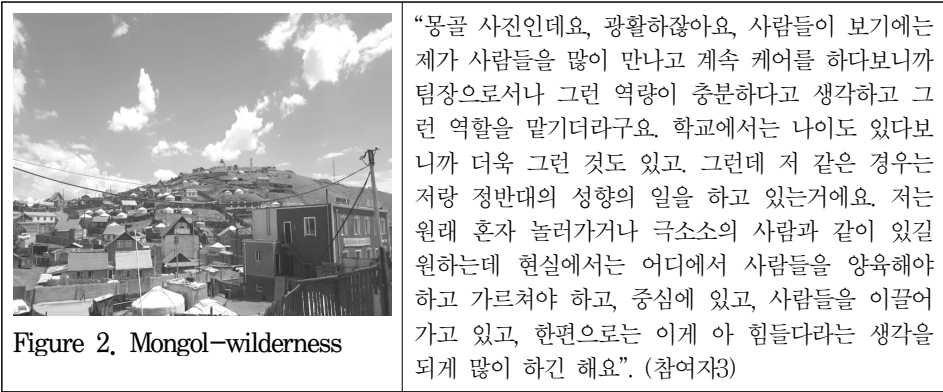


Figure 2. Mongol-wilderness

‘나’다운 나로 살고, 나의 모습에 대한 내적 갈등이 감소되어야 긍정적이고도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을테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자기다운 모습에 대한 혼란과 갈등,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③ 구체적이진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는 나

자아정체감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온 참여자들은 자기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높은 편으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igure 3. Bicycle- Life of diversity

“제가 그 은따 이런 걸 겪으면서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주류/비주류로 나누면 그런 비주류인 친구들은 말할 기회가 없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

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희망에서도 선생님인데, 제가 따돌림 당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대처를 잘 못해주셔가지고, 아 나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여자1)

④ 오늘의 내 모습은 가정(가족)의 영향

자아정체감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념이자 부모로부터 내재화되고 가정(가족)이라는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Schwartz et al., 2013: 35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매우 크게 영향 받아 왔으며 오늘의 자기(self)를 구성하는데 있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9는 장애가 있는 형으로 인해 부모의 기대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자기다운 자기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현재는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내는데 부족하나마 성공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단 형이 정신지체장애1급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일이 어렵고,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볼 때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는 저 혼자이니까, (중략) 제 인생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엔 저 뿐만 아니라 형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는 좀 일찍 철이 들려고 했죠.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가 있었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평판도 좋았던 게 억지로라도 짜내서 착한이미지 만들려고 했던게 있어요 그게 물론 나중에 군대가서 터졌지만... 호호호. 확실히 좀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담을 가지면, 형이 부모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면 부모님의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으로는 좀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밑바닥에는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런 것들을 군대에서 좀 이겨냈어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참여자9)

힘들지만 일관성 있게 가치를 따라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며 자기의 역할과 가치를 정하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중고등학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을 하다보니까, 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대학에 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큰지, 소중한 것인지, 저도 그 가치를 똑같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참여자3)

학창시절 매우 적극적이고 리더 역할을 오래해 온 한 참여자는 대학에서도 여전히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는 부모님의 성향과, 가정에서의 분위기로 인해 영향 받았음이 드러났다.

“공부를 끈기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학생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회나 과대나, 6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은파 이런 걸 겪으면서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주류/비주류로 나누면 그런 비주류인 친구들은 말할 기회가 없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에 부모님이나 가정환경이 미친 영향이 있어요?) 동생도 이런 성향이고 부모님도 두 분 다 막내이시긴 한데 이런 일을 잘 맡으세요. 아버지도 사업도 하시고, 어머니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항상 주도하는 그런 쪽이어서 가정도 좀 전체적으로 그래요.” (참여자1)

긍정적인 영향과 달리 부모님의 계속되는 비교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이 참여자는 전공 성적도 매우 높고 다방면의 활동으로 유능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나 자기확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자아정체감이나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점수도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낮게 나왔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개인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님이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거 그런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더 잘하는데, 너는 왜...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비교 당하는 게 저의 삶에 있어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애들하고...”. (참여자8)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불화가 해결되지 않자,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자의 경우는 단순히 신앙심이 떨어졌다는 차원이라기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춘기 가장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에 신앙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나가기 어려웠던 장애물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제가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지옥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빠의 모습을 본거예요. 문이 있는데 첫 번 째 문에 아빠가 슬픈 표정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세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예요. 주변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없고. 아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술을 마시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분이세요. 술 안 마실 때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부모님의 다툼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중략)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행복한 가정을 보이는데 나는 맨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데 왜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됐어요”. (참여자7)

가정의 분위기나 출생서열상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감을 키우지 못한 한 참여자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다보니 너무 관계에 몰입하는 자신으로 인해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였다.

“제가 아까 관심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3남매의 둘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빠랑 동생한테만 관심이 간다고 생각해서, 가족한테는 안그러는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좀 그런게 있어요. 내가 좀 맞춰주니까 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러면 저를 좀 좋아해줄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게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 운 적이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닭다리가 2개 밖에 없었는데 언니랑 동생 쥐, 계란도 2개 밖에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양보를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어도, 양보를 하는. 저도 집에서는 항상 양보를 하고, 사랑을 못받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5)

⑤ 도전하는 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신앙이 개인의 자기에 대한 기본 신념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신앙이 더해져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참여자와, 삶에서 열정을 모토로 삼는다는 참여자의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Figure 4. Climbing to the top

“20대가 되니까 교회나 고등학교 안에서만 있다가 대학을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도전을 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내가 그만큼 깎고 만들어야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되게 작은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원래 잘 만나서는데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 해외도 다녀오고, 낯선곳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의 성격이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경험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 (참여자8)



Figure 5. A Baseball ground-Full of Passion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되게 열정있게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있게 하는거랑 그냥 하는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뭘을 하나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것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좀 있어요. 특히 보여지는 것들, 과제물로 성과가 나는 것들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자1)

⑥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나

한 참여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자기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는’ 성격이라고 답하였다. 자기 주관보다는 늘 친구나 타인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설명한 이 참여자는 실제로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도 이진술과 일치하는 점수가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항목 중 주도성 점수나 목표지향성, 주체성 점수가 다른 참여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그러면 엄청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자는 타입이라서, 다른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엄청 신경을 써요.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요. 저만의 색깔이 없는 느낌, 다른 사람이 하자는데로 끌려가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해봤어요. (중략) 제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맞춰주다보니까 저만의 어떤 특성이 없다고 느껴요. 결정장에도 있고...”. (참여자5)

자존감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관심을 매우 신경 쓰는 참여자5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타인에 대해 매우 의식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1은 매우 열정적으로 살고, 유능한 학생이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경우였다. 참여자1은 타인과 다른 삶을 살고, 뒤처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였다. 삶에서 타월함, 남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참여자의 경우 자기정체성이나 진로태도성숙도 점수 모두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가치나 만족을 타인과의 경쟁에서의 우월성이나 타인의 평가에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봄의 꽃 하면 생각나는 꽃이 벚꽃인데 저는 00과 하면 이수영(가명) 이럴 정도로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게 있어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은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사회활동 이렇게 열심히 해 하려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모습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길을 걷는 게 두려워서, 내년에 휴학 결정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22살인데 이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중략) 이번에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좋으면 만나면 되는데 제가 자꾸 주변에 묻게 되더라고요, 재 어때 괜찮은 거 같애? 얼굴은 어때? 키는 어때? 이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애?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거예요 제가. 제가 쯤대가 없구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게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좀 힘든거 같아요. (참여자1)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주변 사람(가족, 친구, 친척, 선후배 등)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Cote, 1996).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나 가치를 규정짓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본질적인 감정과 인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하

게 답변하였는데 이는 객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인식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① 나는 항상 ‘웃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제 대학교 새내기인 참여자 7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한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웃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하며 스마일 사진을 내놓았다. 그녀는 이러한 이미지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웃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스스로를 웃는 역할로 가두는 어려움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저는 스마일로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잘 웃어요. 다 행복한 거예요. 학교 오는 것도 재미있고, 항상 행복하다보니깐 맨날 웃는 상이 되는거예요. 친구들도 너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애. 그러다보니 저는 안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거예요. 저는 행복해서 웃었을 뿐인데. 친구들한테 너가 웃으니까 내가 행복해져라는 말을 듣다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나는 항상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구나, 밝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관념이 박혔는지, 내가 힘들어도 웃게 되는거예요. 내가 더 힘든데, 친구들을 위해서, 웃겨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웃게 되다보니까 어찌 좀 힘들게 된거예요.”. (참여자7)

같은 새내기인 참여자5도 비슷한 평가를 듣는다. 늘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남을 너무 인식하고 남에게 맞춰주다 보니 자기는 특성이 없는 그러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5는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다른 참여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특히 주도성이나 주체성 점수가 낮게 나왔다. 타인에게 자기를 늘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있는 편인데 이러한 성향을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Figure 6. A Mirror

“이 사진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찍으니까 제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거울처럼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다보니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소한 건데, 카톡을 하다보면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말투를 쓰고, 저 친구한테는 저 친구 말투를 답아가는게 있어요... 맞춤법을 잘 쓰면 저도, ㅋㅋㅋㅋ 많이 하면 저도 많이 하고, 활발한 친구한테는 나도 활발하게, 조용한 친구한테는 저도 그렇게... 그런식으로 제가 좀 많이 사람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중략)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거 같아요. (참여자5)

참여자5는 자신이 ‘관심병’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그 보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닌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노력임을 감안할 때 참여자5는 이런 측면에서 혼란과 유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규정하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②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참여자6은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명확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기를 원하며, 현재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였다. 여행이든 음식주문이든, 옷차림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신과 타인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도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Figure 7. Unique Style

“스페인에 여행 갔을 때 숙소 가는 길에 찍은 앞에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져서 도촬한 사진이에요.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듣고 너 정말 늙었다, 애 늙은이 같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미리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어선택도 좀 늙은이 같고, 이 할아버지 사진을 찍은 게 옷을 참 잘 입으셨어요. 저도 제 멋대로, 제가 생각하는 멋대로 옷을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끔 동물원 잠바를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아 오빠는 정말 오빠의 패션아이덴티티가 정말 뚜렷하구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웃음)”. (참여자6)

참여자9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개성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마당발’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즉 타인과 자신을 경계 짓는 울타리라고 하였다.



Figure 8. Relationship like a spider's th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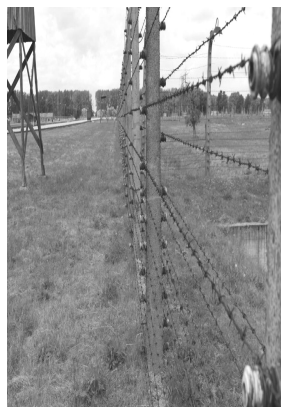


Figure 9. Boundary in relationship

“저의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된 것 같고, 학교도 친구들보다는 선배들을 사귀다 보니 꼭 다 알게 되고, 교수님 조교도 보통은 대학생들이 하는데 저는 학부3학년 때 이미 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울타리를 쳐놓고 만나고 저는 제 개인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만의 시간이나 계획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보니 연애도 못하는 거 같은데(웃음). 제 개인적인 걸 막지 않았으면 하는...”(참여자9)

③ 이끄는 사람 (대장/기둥)

자아정체감은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되는 다양한 환경과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 영향 받는다. 특히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교육적, 양육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참여자1은 특히 가정으로부터의 장녀역할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 상당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의 역할기대에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3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중심에 서서 일해야 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성향은 개인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모임의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Figure 10. Thumb—an image of boss

“엄지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대장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대장이어도 이렇게 하자 이런 것 보다는 친구들 얘기 듣고, 그럼 너 의견 너 의견 이거니까 이 의견 합쳐서 이렇게 하자 조율을 잘해서 대장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장녀다보니까 좀 장자이미지. 저한테 집중되는게 있어요. 아버지 핸드폰에도 ‘우리집 기둥’ 이렇게 써있거든요. 작년에 큰 아빠랑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울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울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1)



Figure 11. Maple tree leaves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스무 살 부터 교회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동아리나 학생회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일이 잘 진행돼’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제가 맡은 것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중추가 좀 되더라구요. 저 성향 상 나서기 싫은 게 있는데 심리검사를 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쎄는데 남들 시선 신경 많이 안 쓰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자리에서 팀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요. 그래서 좀 된다고 생각해서 단풍잎 사진을 선택을 했구요. (참여자3)

④ 경주마 같은 사람

참여자8은 매사에 계획적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타입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 꾸준함으로 그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녀를 ‘경주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실상 본인은 ‘경주마’라는 표현을 듣고 그제서야 ‘아 내가 경주마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봤다고 한다. 참여자8은 그녀의 학업성취도나 역량에 비해 자신감이나 자기확신이 부족한 편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런 점이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청소년기 가정에서 격려받거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한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Figure 12. A racing horse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 실습지도 선생님이 수료사를 적어주셨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경주마’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 친구들한테 책을 보여줬더니, 경주마?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는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경주마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게 공감이 가요. 제가 좀 결과중심적인게 있어서, 계획적으로 꼭 이룰 수 있게끔, 다 생각을 해놓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참여자8)

⑤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

참여자4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활동도 1학년 때부터 3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술이나 담배 등을 절제하기로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이를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p>“첫 번째 사진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1-2학년때부터 한 일자리이고, 복학하면서 다시 들어간 일자리인데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지만 만난지 얼마 안됐지만, 나에 대해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같다고 말을 해줬어요. 제 스스로도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1학년때부터 한 일이니까 나를 성실하다고 생각되요. 두 번째 사진은 좀 건전한 사람이다를 표현한 사진이에요”. (참여자4)</p>
<p>Figure 13. A person of integrity</p>	<p>Figure 14. A person of soundness</p>	

참여자4는 술이나 담배 대신 음료수나 간식을 즐기며 친구들 모임도 참석한다고 하였다. 자기만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대인관계에서도 명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나의 미래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로 ‘(과거,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어떤 꿈을 이루기 원하는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고도 진지하다. 자기정체성에 대해 많은 탐색을 하고 어느 정도 정체성 성취를 이룬 사람은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단순히 부모나 사회적 기대에 부합한 결정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기의 진로에 응답은 다양했다. 아직 진로에 대한 선택이나 결정이 대부분 미완성인 단계이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가진 경우도 많았지만 여러 참여자들이 초중고 경험과 청소년기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 신앙생활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살이 진로계획과 관련이 큰 경우

청소년기에 겪었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모두 진로 고민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의 축적의 결과로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진로결정을 완벽하게 마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러 대안들을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인 ‘정체성 유예’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자7은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의 모델을 통해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이 꿈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한 편이다.



Figure 15. A teacher

“저는 우선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정의를 못내리겠는 거예요. 원래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 확실한 오랜 꿈은 병설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진은 고3때 담임생의 인맥을 활용해서 유치원 교사로 하루 체험한 모습이에요. 제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미래에 뭘 할지의 기준이 돈을 잘 버는 거 이런 거 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을 줄 수 있는 일 이런걸 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쫓겨 잘 맞는 일이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겪어왔던 일이고, 제가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 생각을 해서”. (참여자7)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자주 다니고 도서관이 매우 익숙했던 참여자는 대학에서도 수업을 통해 자기의 관점이 크게 변화하여 진로를 연구자나 교수자로 꿈을 정하게 되었다.

3학년 1학기 때 ‘과학발전과 창의성’이라는 과목하고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수업은 청강으로 들은 수업인데, 그 두 가지 수업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대학강의와 초중고 수업중에 가장 깊은 깨달음,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약간 회열이 느껴졌고.. 이 수업을 계기로 해서, 전에는 목회나 선교를 생각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문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수업이었습니다. (참여자2)

다른 한 참여자는 학창시절 입시위주의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좋은 친

구를 잃었던 아픈 경험 때문에 청소년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고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이 참여자가 준비한 사진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발 사진이었는데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 마음과 함께 아동들의 아픈 상처나 힘든 일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설 수 있게 해주는 신발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참여자의 바람을 담은 사진으로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Figure 16. Children's Shoes

“저는 애가(자살한 친구가) 왜 그랬지 그게 이해가 안가고,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아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어렴풋이 학교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오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8)

참여자1은 참여자7과 같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은 같지만 좋은 경험이라기 보다 실망스러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가 중고등 때 선생님에 대한 배신이 되게 컸어요. 저는 선생님이라면 소외된 친구를 챙겨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도 생각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고, 소외받는 친구를 오히려 선생님이 더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고, 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컸고 반발심이, 나는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내가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더 돌보고 싶은”. (참여자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과 학교 경험은 자아정체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부정적 경험이든 긍정적 경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진로선택에 있어 이상과 현실에서의 격차를 언급한 경우가 여러 명 있었다.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주로 가치 지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부양과 사회적 인정, 부모의 기대 등과 충돌하는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현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Figure 17. A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뮌헨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의식하고 찍은 건 아닌거 같은데 앞에 스프 드시는 썬그라스 쓰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웨이터가 서빙을 하고 손으로 여기가 포크고 나이프고 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런거 보면서 이 사람은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드시는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드시는구나. 뭔가 부끄러운 마음 반, 존경의 마음 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게는 제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갖는다든지,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참여자6)

이러한 이상을 가지지만 참여자6은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³⁾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안정적인 수입, 직장,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 성당 옆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성당 앞에서는 미사를 드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고 그 옆에 레스토랑에서는 영업을 하려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음). 성당 앞에는 이렇게 목표, 휴가기간의 꿈을 찾아 온 사람들인데 레스토랑에서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이 꼭 나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6)

3) 지면관계상 사진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관련 사진을 생략하였다.

참여자6은 위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게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에서도 하위항목 중 독립성 항목을 제외하고는 결정성이나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참여자4는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준비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였다. 처음에는 직업에 있어 ‘돈’을 매우 소중하고도 제 일의 가치로 여겼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직업가치와 직업관이 변화되었다.



Figure 18. Interconnection

“저희 아버지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관리 자셔서 돈을 꽤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직업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직업을 정할 때 돈만 보고 정하면 안되고, 다른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은 도서관에서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직업에서 연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닌 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항상 쫓겨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저렇게 쫓겨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제가 군대다녀오고 성장해서 생각해보니까 돈이라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큰 걱정이 생기고 계속, 돈이랑 걱정이 비례하는 것 같아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참여자4)

(4) 신앙이 나의 정체성과 진로탐색에 미친 영향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는 ‘신앙은 내 삶에서 ○○○이다’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던져진 질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로서 각자의 삶에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신앙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사진으로 표현하고 이를 해석해냈다.

①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

신앙을 가지는 것의 여러 가지 유익 중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함으로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인간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감이 긍정적이 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책임과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참여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일들(형의 장애 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자녀를 유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신앙이라는 것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고, 부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는 역지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참여자9)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큰 충격과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던 한 참여자에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게 된 교회는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제 중학교 2학년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거든요. 집에 항상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못보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부 미워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는 걸 그만뒀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 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중략) 학교를 다니고 친구랑 놀다보니 그 중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놀거리가 있는게 아니니까 주일이 되면 그 친구가 불러서 교회에 가고, 피씨방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 교회 간 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스무살이 되어서 청년부에 나갔더니 주위에 제 친구들은 다 안 나오고 저만 교회 나오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제가 측은해보였는지 저를 잘 챙겨줬어요. 같이 놀다보니까 제가 교회에 적을 둔게 신앙이 아니라 거기 있는 형들이 좋아서, (중략)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방향을 잡아준 게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형들을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교회에 안나갔다면 지금보다 안 좋게 살고 있을게 분명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이 사진을 첫 번째 주제사진으로 선정했어요”. (참여자6)

참여자7은 참여자6과는 경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정환경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이 더욱 성장한 경우이다. 부모의 불화로 인해 청소년기 많은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받으며 안정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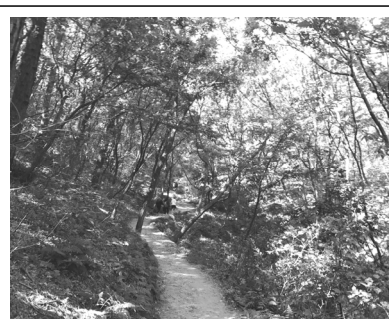


Figure 19. A path up a mountain

“왜 나는 아직 어린데 힘든 일을 주실까. 그런데 뒤 돌아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하고, 엄마한테 사랑고백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거예요. 그 이후로 감사함이 많아지고, 작은 아픔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생활이 산 타듯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행복감을 누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산에 오르는 사진을 첨부하게 되었어요. (참여자7)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의 성숙은 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 성취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사실 청소년기에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었는데, 사람들을 믿다 보니깐 너무 제가 흔들리는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런 게 너무 질리는거예요.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에도 상처가 되는,,, 그래서 사람 기대면 안되겠다. 그래서 교회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자에게 기대는 거,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걸 보면 어려운 순간을 넘기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뻗어 있다”. (참여자4)

② 신앙은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내 속성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나 그 모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을 통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본질을 ‘크리스찬’으로 규정하며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려는 것은 큰 축복이자 신앙의 참된 가치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이 아직 대학생으로 재학중인 20대 청년들이지만 나름의 신앙 연륜과 경험을 통해 신앙이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 이자 ‘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리는 이러한 이야기말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일에 핵심적인데, 신앙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진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0. A tree-cross on barbed wire

“이 사진은 제가 순례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첫 번째 마을에서 두 번째 마을로 가는 길 사진인데 철조망에 나무십자가가 있는 사진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제 속성을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크리스천인 것, 그것인거 같아요”. (참여자6)

참여자9도 신앙과 자기의 삶,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 말로만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를 이뤄내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Figure 21. A sincere brother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은쫓대를 가지고 도망쳤을 때 미리엘 주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정으로 봤을 때,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을 때 자기를 믿어 준 사람이 주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 어떻게 더 우선이나 이런 논쟁보다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모습이 좀 더 제가 추구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참여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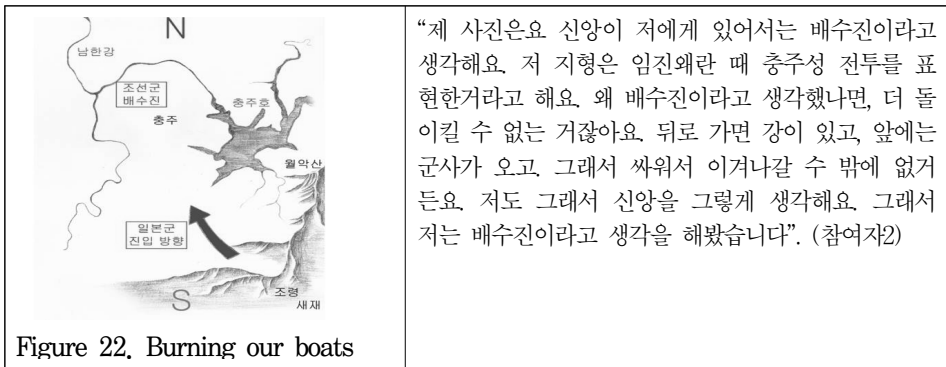
한 참여자는 신앙이 자기 삶에서 숙명,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참

여자도 철길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삶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저는 신앙이 제 삶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니까 나를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진리안에서 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제해주기도 하고, 이정표를 제시해주기도 하고, 버팀목, 길, 방향, 신념, 근본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가장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숙명입니다. 신앙은 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거나 거부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늘 제 옆에 계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8)

“신앙은 제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은 정말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많이있구요”. (참여자3)

참여자3의 고백과 비슷하게 앞 뒤 더 나아가거나 물리갈 곳이 없는 ‘배수진’으로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배수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국어사전, 2018), ‘목숨을 걸고 일을 도모하는 결연한 자세를 비유하는 말’(다음 백과사전, 2018)이다. 참여자3은 자신에게 있어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붙들고 가야하는 그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나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 신앙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초등학교 이후, 또는 중학교 이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앙의 년수는 다양했지만, 각기 신앙생활을 통해 회심의 경험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태도, 성향, 언어습관, 관점 등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 경험을 했으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바뀐 참여자들도 여러 명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23. light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친구가 엄청 어려워서 욕을 해도 제가 맞장구 치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친구처럼 엄청 어두운 환경 속에서 친구가 한 개라도 빛을 내면 그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제 어두웠던 생활이 밝게 빛나는 거 같아서 이 사진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 자신이 스스로 가장 느끼는 거는 내가 달라졌더라는 걸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한 번씩 물어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내 생활이, 태도가 달라져보여서 그 친구들도”. (참여자7)

“제가 확실히 나서지 않는 성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오히려 나서고 있는? 중고 등부 회장, 찬양 리더도 하고 이런거요. 고3때도 새벽기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졸다가 종점까지 갔다 학교 늦고,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너 왜 이렇게 늦냐, 뭐 일 있냐 이럴 정도로... 그 땐 사실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공부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미련 없이 10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8)

신앙이 없었다면 무미건조하고 목적이 없는 그저 그런 삶이었을 거라는 참여자와, 신앙은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원동력이라는 의미는, 신앙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더라는 걸 많이 느껴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음,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도 미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1)

④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영향을 미친 신앙

결국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견디고, 새로운 꿈을 찾으며, 이전의 성격이나 나쁜 습관, 태도를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는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해보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이러한 영향이 진행중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원래는 경제적인 게 컸거든요, 엄마가 교사하면 시집 잘 간다고(웃음), 맨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어려서 경제적 관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뿌듯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소라”라고 했을 때 “아 그 선생님, 그 분 나한테 이랬던 분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여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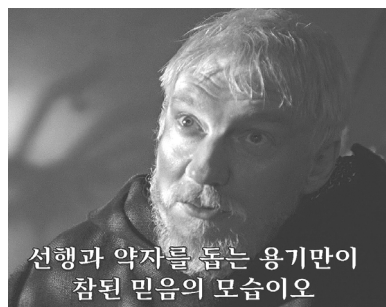


Figure 24. Faith based on doing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 전반적인 내용이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중세시대거든요. 그 시대 관념으로는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근데 전쟁에 갔더니 십자군 사람들이 자기랑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거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기 위해 왔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제가 너무 스킵해서 말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신부에게 물어봤을 때 ‘선행과 약자를 돕는 용기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참여자9)

참여자9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신앙과 신학관이 뚜렷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길, 누구나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목회나 선교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 자체를 자신의 신앙관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참여자1도 현재 자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확신이 높은 편이다. 졸업 후 어떤 분야로 가게 될지도 거의 정해진 상태이다. 이 참여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소년기 신앙안에서 기도하고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솔직히 이 학교에 오게 된 거 자체가 기도응답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학교에 붙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학년부터 교육에 관련 된 일을 터주시는 것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참여자1)

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 교회에 다니다가도 중도에 어떤 이유로든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켰던 경우로서 그 꾸준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비중이 큰데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어도 그냥 다녔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큰 계기는 없었고, 저도 어디서부터 신앙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가장 큰 거는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임원이거나 종교등부 학생들 보면서 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쁜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6)

“10대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던 시기 같아서... 한 목사님이 다윗이 어릴때부터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10대 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내 인생에 후회도 더 없고, 그게 기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참여자8)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때로는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훈계를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는 야간자율학습 안하고 교회 가면 너 수능 언제 준비하나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도 있었고, 주일이나 토요일에도 따로 자유시간을 쓰거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략) 회의감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지 못할까...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모든 삶을 드러보자, 그런 시간 뿐 만 아니라, 주중에 있어서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이런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2)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나는 여태 뭐한건가... 이래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일이니깐 이리면서 하고 있는거죠’.. (참여자8)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교회로부터,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거나 부담이나 상처를 받기도 한다.

“원래부터 유치원 교사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교육과를 들어오다보니까 이제 더 크게 나오는데요. 그럼 유치부 설교를 해라, 그런데 저는 아직 생각을 키우는 수업을 듣고 있지, 기독교교육에 대해 아직 아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이거하자 저거하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거예요. 제가 거절을 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못하고 순종하는 스타일이예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하다보니 너무 지치는거예요. 저도 할 일도 많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하는데..” (참여자7)

제가 모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본 결과, 그때는 헌신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건 기쁜일인데, 그 가운데 너~무 사람들에게 요구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걸 따라야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학생부서가 부흥해야 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나자빠지는 것 같은거예요.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결국에는 나쁜 의도는 아닌걸 알겠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는데 그런말 때문에. 누구좋자고 하는걸까. (참여자9)

신앙의 성숙도와 표현 모습은 각 개인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신앙은 개인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 모두에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여적 실천 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총9명의 기독교 대학생들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진로, 신앙에 대해 4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각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선택해서 그 사진에 주제를 붙이고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기초로 각 그룹당 2회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대주제에 관한 사진은 총 24개의 사진이 선택되었고, 주제묶음은 18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참여자들 대부분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 상에서 자기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으며 청소년기를 보내왔고, 현재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진행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지키기 원하는 가치와 원칙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성향과 성품, 가정환경과 학창시절의 경험이 오늘의 자기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주제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들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게 하였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한 사진들이 많이 제시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주로 관계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끌어주는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설명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미지, 리더의 이미지, 성실하고 건전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같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세 번째 주제인 ‘나의 미래는?’이라는 주제에서는 주로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활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상 교사, 사회복지사, 선교사역자가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세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갈등이나 혼란 속에서 막연한 계획인 경우도 있었다. 미래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에 부합하거나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았거나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였고, 미래의 진로계획에 대한 자기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 주제인 ‘나에게 신앙은 000이다’라는 주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드러났다. 신앙은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었고, 자기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속성이며,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신앙이라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또한 신앙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오늘의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켜 준 힘이라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기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기독교대학생들의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및 청년 사역자들을 포함한 교회는 기독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강조한 바대로 개인에게 자아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고 특히 청소년기 및 청년기에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아정체감이 안정될수록 인생 방향과 목적을 일관되게 세울 수 있으며,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독특성을 인식하면서 개인의 삶이 자기주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청소년기 생활과 적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정에 치우친 인식들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유실을 경험하게 될 진로지도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혼란과 부적절한 진로정체감이 대학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성급함이나 즉흥성, 돈이나 지위 가치 위주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기존연

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주지해 볼 때 기독교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미래시대의 중추로 키워야 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책임이 크다 하겠다. 교회는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의 양육과 신앙지도에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자들이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관련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한다면 신앙의 성숙과 함께 성숙하고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기독교인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기반한 진로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들도 ‘돈’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반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소명감을 기반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깊이있고 명확하게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직업세계에 적용하여 가르침을 받거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과제이자 고민으로 남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와 같이 세상(사회)의 가치관과 이분화된 것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인식적으로나 생활세계에서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가르침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도그마적 교리에 갇혀 그 가르침만을 강요하는 답답한 교회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술, 담배, 재정사용, 이성관계, 직업에 대한 선택, 가정관 등 전반적으로 갈등하고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태의 참여자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다. 또한 이전처럼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봉사와 예배참석,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을 잘 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강해질 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 및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 세대에 맞는 문화코드를 적용하고 입시 스트레스 및 사회문제(자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청년빈곤 등)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고

등학교 시기에 교회에 진입하는 학생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의 교회이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의 문화코드를 잘 인식해서 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20~30년 전만해도 기타를 배우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출입하게 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화코드가 현재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부의 가치를 전부인 것처럼 인정하는 사회문화속에서 생활 상의 여러 아픔이나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조건 없이 따뜻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의 문화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러한 사랑과 돌봄의 역할을 기독교적 사랑에 기반 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한다면 이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일과 장소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로는 마음을 담아 즐겁게 할 일과 갈 곳도 없는 이 자본주의 현대화 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적, 정신적 기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 이성관계, 상대적 박탈감, 낮은 자존감 등의 주제는 생각보다 상담할 곳이 많이 부족하다. 청년들이 학비나 생활비로 인한 빚이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교회에서 이러한 분야의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실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교회는 이러한 모든 사역이 단지 국가나 복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도 역량이 되는데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넷째, 기독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영성훈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다행히도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경험적 차원에서 밝혀졌지만, 신앙 자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청년세대를 볼 때 성숙한 신앙은 차치하고라도 기독대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으며, 의식과 생활 전반에서도 기독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응답한 기독대학생은 20.3%, 비기독교 대학생은 24.8%,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기독대학생은 21.7%, 비기독교 대학생 24.1%로 크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신앙이 이들의 삶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영향력을 점차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믿으나 안 믿으나 불안과 부정적 심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할의 부적절함과 부족함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준다. 기독교대학생 중 거의 3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학원복음화협의회, 2017)는 교회에서 영적으로나 심리정서적, 현실적으로 얻을 도움이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신앙이 긍정적 자기상을 형성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정학봉, 1985: 53-54; 최윤영, 2012: 296)와 같이 교회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이들 개개인의 내적, 외적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이 A기독교대학생들로 한정되어 다른 기독교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기독교대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후속연구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대학생들과의 질적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애착, 학교진로지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wak, M. H. (2012).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ion-behavior,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parent's attachment and career support from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축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0(6), 73-102.
- [Kim, G. Y. (2013). A Status and Narrative Approach i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3-102.]
- 김나래 ·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Kim, N. R. and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175-191.]
- 김봉환 ·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Kim, B. H. and Kim, K.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김영화 ·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69-182.
- [Kim, Y. H. and Kim, K. H. (2011).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Ego-identity Achieved and Foreclosed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19(1), 169-182.]
- 김영환 (1997). 기독교 신앙유무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Y.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Faith and Self-Identity*.

-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은희 (2007). **크리스찬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E. H. (2007). *The Effect on fear of faith maturity and Self-Identity of Christian Adolescent*.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종백 · 김태희 (2014). 자아정체감 탐색 도구로서 내러티브 접근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청소년학 연구**, 21(8), 463-493.
- [Kim, J. B. and Kim, T. H. (2014). Narrative as a Vehicle for Exploring Ego-identit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463-493.]
- 김재휘 (2004). **기독교대학생의 신앙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W. (2004). *A Study on Faith and Self-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태희 (2015).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T. H. (2015). *An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 Identity Based on the Narrative Identity*.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김태희 · 김종백 (2016).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교육심리연구**, 30(1), 1-25.
- [Kim, T. H. and Kim, J. B. (2016). An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 Identity Based on the Narrative Ident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1), 1-25.]
- 박중수 (2014). **진로소명 하위차원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태도 성숙 및 삶의 만족에서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J. S. (2014). *Clusters by subtypes of calling, self-reflection and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Park, A. C. (1990). **World of Identity**. Seoul: Kyoyookbook, Korea.]
- 박아청 (2003). **정체감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Park, A. C. (2003). *Prospect and Tasks of Identity Research*. Seoul: Hakjisa. Korea.]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Park, A. C. (2010). *Human Understanding of Erickson*: Kyoyookbook, Korea.]

- 변미희 · 이명순 (2005). 청소년의 종교 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저널**, 8(3), 81-102.
 [Beoun, M. H. and Lee,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igious Life and Sexuality: Awareness among Juveniles, *Baeksok Journal*, 8(3), 81-102.]
- 변혜복 (2008).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신앙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oun, H. B. (200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hristian teenagers' self-esteem and their christian life*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Korea.]
- 배은주 (2004).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의 관계 연구. **복음과 상담**, 3, 178-189.
 [Bae, E. J. (2004).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Faith Mutuality and Self Esteem in Korean Theologic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3, 178-189.]
- 서유란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Seo, Y. R. (2012).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Korea.]
- 손연아 · 신수지 ·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Son, Y. A. Sin, S. J., & Son, E. Y. (2014).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Career Education*, 27(1), 109-125.]
- 오수진 (2011).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Oh, S. J. (2011). *Effect of Faith maturity and sense of the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Myonggi University, Korea.]
- 유혜림 (2015). **전문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You, H. L. (2015).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Korea.]
- 이기학 ·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Lee, K. H. & Han, J. C. (1997). Tools for Validation of Inventory On Career Attitud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8, 219-255.]
-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 [Lee, S. Y. (2014). The Effects of Self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1), 109-128.]
- 이억범 (2013).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총**, 17, 93-107.
- [Lee, E. B. (2013).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with the Faith Matur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17, 93-107.
- 이은경 · 신아라 · 김선경 · 이웅택 (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중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0, 92-112
- [Lee, E. K., Shin, A. R., Kim, S. K., & Lee, E. T.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Analysis. *Forum for Youth Culture*, 50, 92-112.]
- 이재은 역 (1986). **신앙의 단계들**.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Lee, J. E. (1986). Stages of Faith. Seoul: Korea Christian Publisher. Trans.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정숙희 · 이혜주 (2016).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225-253.
- [Jung, S. H. & Lee, H. J.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alling i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piritual Maturity and Career Maturity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2), 225-253.]
- 정학봉 (1985).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 서울: 요단.
- [Jung, H. B (1985). *First Step for Christian Faith*. Seoul: Jodan.]
- 최윤영 (2012).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기독교 영성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3), 293-317.
- [Choi, Y. Y. (2012). A Study on Faith Maturity and Ego-Identity of the Students. *Faith & Scholarship*, 17(3), 293-317.]
- 최윤희 · 김순자 (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43-762.
- [Choi, Y. H & Kim, S J. (2011). The Influence of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on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43-76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글로
벌리서치, 목회사회학연구소.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2). *A Study on Perception and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2012*. Global Research & Pastoral Sociology Institute Korea.]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지앤
컴리서치, 목회사회학연구소.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A Study on Perception and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2017*. Ji & Com Research & Pastoral Sociology Institute
Korea.]
- 황아름 (2011).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 및 진로결정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관
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wang, A. R. (2011) *The Relation of 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christian
adolescence's faith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 황인숙 · 오윤선 (2015). 영적성숙도와 진로미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연구: 기독교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1), 343-372.
- [Hwang, I. S. & Oh, Y. S. (2015).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Spiritual Maturity and
Career Future - Focusing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1), 343-372.
- Blustein, D.L. & Phillips, S. D (1988).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in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2):203-216
- Cote, J. E.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The culture-identity
link and identity capital. *Journal of Adolescence*, 19(5), 417-42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ijsel, F., & Meijers, F. (2005). Identity learning: the core process of educational
change. *Educational Studies*, 31(4), 419-430.
- Lichwarek-Aschoff, A., van Geert, P., Bosma, H., & Kunnen, S. (2008). Time and
identity: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theory formation. *Developmental Review*,
28(3), 370-400.
- Long,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Formation and Faith Maturity*,
Electronic Thesis, Treatises and Dissertations, The Graduate School, Florida
State Universit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 J. (Ed). (1980).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Wiley, 109-137.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eilman, P. W. (1979). Cross-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30-231.
- Schwartz, S. J., Cotter, J. E., & Arnett, J. (2005). Identity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Two developmental routes in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Youth & Society*, 37, 201 - 229.
- Schwartz, S. J., Donnellan, M. B., Ravert, R. D., Luyckx, K., & Zamboanga, B. L. (2013). Identity development,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recent advances. In R. M. Lerner, M. A. Easterbrooks, J. Mistry,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39-364).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et al.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readgold, R. (1999). Transcendent vocation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 Wang, C., and Burris, M. A.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p. 171-186.
- Wang,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 포토보이스의 적용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여적 실천 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총9명의 기독교 대학생들과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진로, 신앙에 대해 4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각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선택해서 그 사진에 주제를 붙이고 내용을 설명한 결과, 4가지 대주제에 관한 사진은 총 24개의 사진이 선택되었고, 주제묶음은 18개로 분류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는 6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되었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 ‘나다운 모습이 아닌 나’,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는 나’, ‘도전하는 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나’ 등이다. 두 번째 주제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는 5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되었다. ‘나는 항상 웃는 사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이끄는 사람’, ‘경주마 같은 사람’,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 등이다. 세 번째 주제인 ‘나의 미래는?’에서는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활이 진로계획과 관련이 큰 경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2개의 주제묶음이 나타났다. 네 번째 주제인 ‘나에게 신앙은 000이다’는 5개의 주제묶음이 나타났다.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 ‘신앙은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내 속성’, ‘나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 신앙’,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영향을 미친 신앙’,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기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기독교대학생들의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논의,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학생, 자아정체감, 진로탐색, 신앙, 포토보이스 연구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A Study of René Girard's Idea of Mimetic Rivalry From Bad Mimesis to Good Mimesis

이풍인 (Poong-In Lee)*

Abstract

Girard's theory of mimesis begins with his discovery of human mimetic desire in the works of five European novelists.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copy each other, not merely in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internal matters. For Girard, human desire is imitative and acquisitive. The pattern of desire is not linear but triangular: it runs from the subject through the mediator to the object. The distanc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model is what decides whether the mimesis between them will be in conflict or not.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books such as *Deceit, Desire, and the Novel*, *Violence and the Sacred*, and *Things Hidden*, scholars in many fields including anthropology, theology, psychology, law, politics, have been interested in his work. They have reacted to his theory. Some aspects of the criticisms above are worth considering, but Girard's theory of mimesis has some merits. Firstly, his understanding of mimesis provides a powerful tool for finding reality beyond the text. A text does not exist only for aesthetic enjoyment but also for practical contribution to human life. Secondly, Girard's enthusiasm to propose a theory and his effort to test its validity is admirable in a context in which cognitive nihilism is dominant.

In addition, Girard's theory demonstrates more clearly the aspect of Jesus' obedience to God. Jesus' willingness to follow the will of God the Father is expressed in the mode of good mimesis. Jesus' suffering and obedience, which accompany his humiliation and exaltation, are essential qualifications for him to overcome the power of the devil. He is presented as a model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to follow in their journey to glory and honor, which God the Father wants to bestow on them. In other words, Jesus' obedience and self-giving becomes the pattern of the non-rivalistic mimesis for the Christian life.

Key Words : René Girard, mimesis, mimetic rivalry, desire, mediation, triangular structure of desire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1년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것임.

* 충신대학교 신약학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poonginlee@chongshin.ac.kr
2018년 09월 01일 접수, 09월 12일 최종수정, 09월 14일 게재확정

I. 서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는 중요한 관심사다. 비(非) 신앙인과 비교할 때 신앙인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도 월등히 높다. 교회나 카페에서의 성도들의 모임에서 죄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로 등장한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대화가 매우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죄라는 단어는 사회규범을 어긴 범법 사실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여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도 정작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두루뭉술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본 연구를 위해 문화인류학자이며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사용할 것이다.¹⁾ 특히 그의 이론 중 모방적인 경쟁심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²⁾ 이 글에서는 모방적인 경쟁심과 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할 것이다. 구약성경, 중간기 시대의 유대문헌, 그리고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양상을 살피기 위해 여러 문학작품들도 살필 것이다. 이 글은 단지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르네 지라르가 성경에서 찾은 죄와 악의 극복 비결을

1) 한국에 지라르를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현을 들 수 있다. 그의 책,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는 지라르 사상에 대한 좋은 입문서다. 그 외 지라르의 다수의 책을 번역하고 지라르의 이론에 근거한 논문들을 쓰고 있는 김진식 교수와 지라르의 이론을 불교와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분석 작업을 한 정일권 박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라르의 이론을 성경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피는 작업이 소수 있었다. 구약의 입다 이야기를 다룬 이윤경 교수와 신약의 빌레몬서와 요한삼서에 적용한 차정식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2) 지라르의 모방적인 경쟁심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라르가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이루어졌다. 지라르에게 성경은 그의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공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다. 지라르의 이론을 성경에 적용할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다. 하나는 지라르가 다루지 않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내용들에도 그의 모방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기존의 성경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 속에서 성도가 삶에서 모방적인 경쟁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II . 모방적 경쟁심에 관한 르네 지라르의 관심

르네 지라르는 문학평론가, 역사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다. 1923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문학의 다윈”³⁾,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⁴⁾, 혹은 “기독교의 헤겔”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만큼 지라르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유행에 따라 연구주제를 바꾸거나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담론(metanarrative)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그의 관심은 한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초시간적인 진리를 찾는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특정한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학 비평, 철학, 인류학, 신학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켰다.⁶⁾ 그의 이론은 그리스와

3) 지라르가 2005년에 프랑스 최고 권위의 한림원 프랑세즈의 종신회원인 ‘불멸인(Les immortels)’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의 스탠퍼드 대학교 동료교수인 마이클 세레스(Michael Serres)가 한 찬사다.

4) 2015년 11월 4일에 지라르가 세상을 떠난 후 제리 보우어(Jerry Bowyer)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포브스(Forbes)**에 2015년 11월 30일에 기고한 글로 제목은 “René Girard, ‘Einstein of the Social Sciences’”다.

(<https://www.forbes.com/sites/jerrybowyer/2015/11/30/rene-girard-the-einstein-of-the-social-sciences-rip/#13b724435a1a>, 2018년 8월 29일 검색).

5) 1980년대부터 지라르는 ‘기독교의 헤겔’로 불렸다. 실제로 헤겔의 사상은 지라르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 지라르의 책과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을 원하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Michael Deguy와 Jean-Pierre Dupuy의 *René Girard et le problème du mal: Textes rassemblés par Michel Deguy et Jean-Pierre Dupuy*. 316-333; Alphonse Juilland의 *To Honor René Girard*. iii-xxxii; Mark I Wallace와 Theophus H. Smith가 편집한 *Curing Violence*. x-xiv; Willard M. Swartley의 *Violence Renounced: René Girard, Biblical Studies and Peacemaking*. 321-322; Richard J. Golsan의 *René Girard and Myth*. 181-199; James Williams의 논문, *The Innocent Victim: René Girard on Violence, Sacrifice, and the Sacred*. *Religious Studies Review*, 14(4), 320-324를 보라. 지라르의 책

다른 민족들의 다양한 신화들과 서구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진 플라톤(Plato), 소포클레스(Sophocles), 단테(Dante), 셰익스피어(Shakespeare)와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 뿐만 아니라, 뒤르켕(Durkheim),⁷⁾ 프로이트(Freud)⁸⁾,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⁹⁾를 포함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이론들과 기독교의 성경, 특히 4 복음서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라르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모방(mimesis) 혹은 모방적 경쟁심(mimetic rivalry)과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 mechanism)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모방적 경쟁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지라르의 모방(Mimesis) 혹은 모방적 경쟁심

(1) 지라르의 모방에 대한 개념이해

인간 욕망의 모방적인 특성에 대한 지라르의 관심은 그의 이론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다양한 신화, 소설, 민담 등에서 이 모티프를 찾아내었다. 그는 영어 단어 imitation보다는 헬라어 단어 mimesis(미메시스)를 선호한다. 그런데 ‘미메시스’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하나의 공통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엄 워드(Graham Ward)는 미메시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마치 뱀장어의 몸을 손으로 만지면 쉽게 빠져나가는(slippery)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Ward, 1994: 3). 예를 들면, 미메시스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물들끼리의 생김새의 유사성을 설명할 때도 사용한다. 문학

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담고 있는 마이클 커윈(Michael Kirwan)의 *Discovering Girard*. 126-130는 지라르 읽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7) 지라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심 가치체계에 관심이 있었던 뒤르켕의 이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라르의 *Things Hidden*, 43, 63, 69-70, 82; *Violence and the Sacred*, 120, 306-307; *I See Satan*, 100; *Violent Origins*. 2, 13, 127을 참고하라. 이 논문의 각주에서 지라르의 글을 언급할 때는 축약된 형태로 할 것이다.
- 8) 프로이트는 지라르의 이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지라르의 책, *Violence and the Sacred*의 두 챕터 ‘Freud and the Oedipus Complex’와 ‘Totem and Taboo and the Incest Prohibition’, 그리고 *Things Hidden*의 3권 ‘Interdividual Psychology’에서 다루고 있다.
- 9) 지라르는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 타부와 친족 개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책의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Violence and the Sacred*, 223-249; *Things Hidden*, 5-6, 28-29, 39, 62, 74, 75-76, 105-125; *The Scapegoat*, 52-54; ‘Generative Scapegoating’, 12-14, 19, 86, 95, 193-194를 참고하라.

작품을 읽을 때 본문의 묘사가 독자의 마음에 실재(reality)로 새겨지는 과정을 미메시스라는 말로 묘사하기도 한다(Finamore, 2009: 61). 그러면 지라르에게 있어서 미메시스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을 다 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매우 단순하게 이해한다. 지라르는 의미만 놓고 보자면 미메시스가 영어 단어 imitation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지라르는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일까? 지라르는 영어 단어 imitation은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는데 국한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서는 갈등이나 충돌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라르는 모방 개념을 설명하며 갈등과 충돌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imitation으로서는 부족해서 굳이 헬라어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Girard, 1987a: 18; 이풍인, 2014: 96-97).

지라르의 이론은 인간의 모방적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초한다. 모방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들이 형성되기에 모방은 문화와 종교의 원동력이라고 지라르는 생각한다.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모방을 통한 갈등의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모방(acquisitive mimesis; Girard, 1987: 26)은 결국 갈등을 유발한다. 이성간의 삼각관계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같은 장난감을 두고 벌이는 다툼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모방을 통한 갈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방을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절제를 하기에 노골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성인들에게 모방적인 경쟁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Girard, 1987a: 8-9).

(2) 외적 중재(External Mediation)와 내적 중재(Internal Mediation)

인간의 욕망은 타고 나는 것일까? 지라르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럼 독립적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다(Girard, 1977: 169-71). 그럼 무엇일까? 지라르는 욕망을 촉발시키는 중재자가 있다고 말한다.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기 원한다. 그런데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은 어떤 모델의 중재(the mediation of model)나 중재자(mediator)를 필요로 한다. 지라르가 생각하는 욕망을 설명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체(subject), 중재자 혹은 모델(mediator or model), 그리고 대상(object)이다. 욕망의 구조

는 욕망하는 주체가 곧바로 대상을 얻는 직선적인 관계(a linear relationship)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중재자 혹은 모델이 필요한 삼각형 구조(triangular structure)라고 본다(Girard, 1978: ix; Girard, 1965: 41-42; Kirwan, 2004: 33).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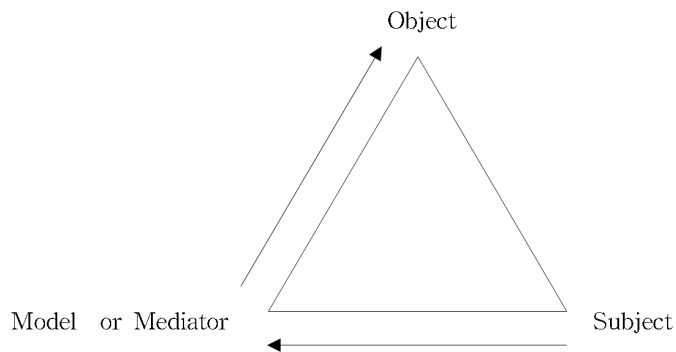


Figure 1. Triangular Structure of Desire

지라르는 중재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외적 중재(external mediation)인데, 이것은 행동의 주체가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model), 즉 중재자와의 거리가 멀어 단순한 모방으로 끝나기 쉽다.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의 아랫변의 길이가 긴 모습을 띠는데, 이 경우는 중재자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사회적 지위나 다른 요소들로 비교할 때 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좀처럼 갈등과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외적 중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르반테스(Cervantes)의 **돈키호테** (*Don Quixote*)를 들 수 있다(Girard, 1965: 9).¹⁰⁾ 중재의 두 번째 유형은 내적 중재(internal mediation)라고 부르는 것으로, 욕망하는 주체와 중재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다(Girard, 1965: 9).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의 아랫변의 길이가 짧은 경우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난다. 형제나 사촌과 같은 가까운 관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에서 굳이 ‘사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

10) 1965년에 출판된 지라르의 저작인 *Deceit, Desire, and the Novel*의 챕터 1은 1996년에 James Williams가 지라르의 글을 모아 편찬한 *Girard Reader*의 챕터 3 ‘Triangular Desire’에 다시 수록되었다.

일까? 사촌이라는 관계가 내적 중재의 모방이 유발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이기 때문이다(이풍인, 2014: 98).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샀다는 뉴스를 들으면 일반 시청자들은 아무런 경쟁심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촌이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체와 중재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중재자는 경쟁자가 되고 주체가 목표하는 것(object)을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Girard, 1965: 41-42). 이와 같은 중재에서는 심한 경쟁과 폭력이 발생하는데, 좋은 예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를 들 수 있다(Girard 1965: 9). 이처럼 욕망의 삼각형 구도에서 주체와 중재자(혹은 모델) 사이의 거리는 모방의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문학작품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의 예들

많은 문학작품들이 모방적 경쟁의 모티프를 담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많은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의 신화에 나오고 현대 소설에도 등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문학 장르 중에서 꼭 소설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화와 대중 드라마에서도 모방적 경쟁은 즐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지라르의 모방적인 경쟁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책 *Deceit, Desire, and the Novel*이다. 이 책의 불어판 원작의 제목은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인데 직역하면 ‘낭만적인 거짓과 소설적인 진실’이다. 지라르에게 *romantique*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이라는 말과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인간 욕망의 모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romanesque*는 ‘소설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욕망의 모방적인 성격을 드러낸 것이란 의미로 사용된다(Girard, 1965: 17; 이풍인, 2014: 97-98 참고). 지라르는 이 책에서 다섯 명의 작가들, 즉 세르반테스, 플로베르(Flaubert), 스탕달(Stendhal),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대해 다룬다. 지라르가 이런 순서로 작품들을 살피는 이유는 세르반테스부터 도스토예프스키로 갈수록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욕망은 점점 더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외적 중재’에서 ‘내적 중재’로 바뀌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말한 다섯 명의 작가들은 인간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acquisitive desire)’이 ‘갈등을 유발하는 욕망(conflictual desire)’으로 변하는 과정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작가들의 작품들은 ‘낭만적인 거짓’이 아닌 ‘소설적인 진리’를 잘 보여준다. 각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중재된 욕망의 부질없음이 잘 드러난다. **돈키호테**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인공은 죽음에 직면하여 자신의 이전의 삶을 거부한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판단은 자유롭고 분명하며, 기사도에 관한 책을 읽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무지의 두꺼운 담요를 자신이 더 이상 덮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 책들에 등장하는 것들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음을 후회한다. “I do not have time to make up for my mistake by reading other books which would help to enlighten my soul(나는 나의 영혼을 계몽시키는데 도움이 될 다른 책들을 읽음으로써 나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 Girard, 1965: 291-92).” 마지막 단계에서 이 소설들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환상을 포기한다. 이것은 일종의 회심, 즉 ‘욕망에 대한 승리(victory over desire)’라 할 수 있다(Girard, 1965: 300).

이어지는 내용은 지라르가 *Deceit, Desire, and the Novel*에서 살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 그리고 지라르의 *The Theatre of Envy*에서 다룬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에 관한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단순히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에 대한 묘사가 잘 담겨 있다. 등장인물인 돈키호테와 산초 판자(Sancho Panza)가 모험적인 여행을 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다. 알론소 키타노(Alonso Quijano)는 기사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보통의 스페인 아이다. 그는 특별히 펠리치아노 드 실바(Feliciano de Silva)가 쓴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로 바꾸고 자신이 직접 기사가 되어 스페인을 돌아다닌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약한 노새인 로치난테(Rocinante)를 타고 다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돈키호테는 일반 여관을 마법에 걸린 성으로, 농부의 딸들을 아름다운 공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풍차를 보며 악한 마법사들이 보낸 거인이라 생각하여 싸운다. 이런 방랑의 여정을 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인물이 있다. 돈키호테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인데, 그는 바로 아마디스(Amadis)로 골(Gaul)의 유명한 기사였다. 아마디스가 그랬던 것처럼, 돈키호테는 자기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할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했다. 그는 자기 이웃집 농부의 딸을 돌치니 델 토보소(Dulcinea del Toboso)라고 상상한다. 그는

아마디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고행을 했던 것처럼 자신도 고행을 하기 위해 시에라 모레나 산(Sierra Morena mountain)으로 간다.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행을 준비하는 그의 말 속에서 잘 드러난다. “Refresh my memory, O Amidas, and teach me how I am to imitate your deeds(오 아마디스여,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모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오; Cervantes, 1949: 211; Golsan, 2002: 3 채인용; 이풍인, 2014: 99 참고).” 이 작품에서 돈키호테는 “삼각형 구도의 욕망의 전형적인 희생물”(Girard, 1965: 3)로 묘사되고, “기사도의 열정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욕망으로 정의된다”(Girard, 1965: 4). 그러나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하지만,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방하는 주체와 모델의 간격이 큰 외적 중재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Kirwan, 2004: 25).

이어서 살필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체가 담고자 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로서의 중재자의 이중적인 역할이 잘 드러난다. 중재자가 주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재자의 역할은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대상의 역할은 더 줄어든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Girard, 1965: 45, 47-50). 아내가 죽은 후에 파블 파블로비치(Pavel Pavlovitch)는 그의 아내의 이전 연인들을 만나기 위해 페테스부르크를 향해 떠난다. 아내는 죽었지만 그녀의 연인들은 살아있다. 대상은 없고 중재자만 존재하는 모습이다. 파블로비치는 자기 아내의 이전 연인 중 하나인 벨차니노프(Veltchaninov) 주위를 서성거린다. 지라르는 이 장면을 모방적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여인을 유혹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최상의 모델을 찾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 여성과 재혼하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의 이전 경쟁자였던 벨차니노프가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인을 만나도록 초대한다. 그는 자기의 경쟁자가 그 연인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 여인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두 남자는 같은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아이들처럼 한 여인을 놓고 싸운다. 결국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경쟁자에게 그 여인을 빼앗기고 만다(Girard, 1965: 47-50; Kirwan, 2004: 27-28).

지라르는 영문학의 거장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살피며 자신의 책 *A Theatre of Envy*에서 새로운 읽기를 제안한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시와 희곡들에서 시기(envy) 혹은 중재된 욕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Girard, 1991: 40-49). 이러한 주장은 매우 도발적인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는 『한 여름 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살핌으로 이것을 입증한다. 이 작품 속에는 네 명의 청춘 남녀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짝을 바뀌가며 사귀면서 지라르가 말한 욕망의 삼각형 구조 위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갈구한다. 청년들은 같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다가 또 다른 여인에게로 관심이 옮겨진다. 이런 모습은 연인을 찾는 두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극 중에서 헤르미아(Hermia)의 “to choose love by another’s eyes(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란 대사는 중재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Girard, 1991: 72-79; 이풍인, 2014: 97 참고).

요약하면, 지라르에게 인간 욕망은 삼각형 형태의 중재된 욕망이다. 세 가지 요소, 즉 갈망하는 주체, 얻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갈망이 습득되는 모델 혹은 중재자가 있다. 욕망은 중재자를 모방함을 통해 습득되는데, 주체는 중재자 혹은 모델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한다. 주체와 중재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둘 사이가 멀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면에 둘 사이가 가까우면 갈등은 심화되고 급기야 폭력으로 발전한다. 지라르는 이렇게 발생한 갈등과 폭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든다. 이것은 모방적인 경쟁심과 더불어 지라르 사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Ⅲ. 신구약성경과 유대 중간기 문헌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심

성경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책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첫 책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과 폭력을 접하게 되고 독자들은 적잖게 당황하게 된다. 왜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책에 폭력과 살인이 등장할까? 위에서 지라르가 소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죄악의 기원으로서의 모방적인 경쟁심과 그것이 잘 드러난 신구약성경 속의 몇몇 장면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죄와 악의 뿌리로서의 모방적 경쟁심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2-14절은 우리에게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 대해 묘사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으나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된 하늘의 존재에 대해 말한다. 이 구절을 지라르의 관점에서 읽으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높아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탄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시기한 모방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최초의 모방자였던 사탄은 이후의 모든 잘못된 모방적 경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Munk, 1990: 258). 이사야 14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잘 어울리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책이다.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쓴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기독교적인 작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대 혹은 기독교적인 기원을 떠나서 이 책 12-16장에서는 아담의 창조와 천사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Charlesworth, 1985: 249-57).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 천사들을 불러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을 받고 천사장 미카엘을 포함하여 천사들이 아담에게 와서 절을 했다. 그러나 절하기를 거부하는 천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담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과 더 좋은 재료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는 결국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난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존귀한 지위에 이른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인간이 누리는 그 지위를 시기하고 그런 일을 행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의 저자는 시기, 자기 높임과 불순종을 악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풍인, 2006: 213).

창세기 2-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창 2:16-17)은 금지를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amerton-Kelly, 1985: 92). 우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경쟁과 무질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의 원천의 모습을 발견한다(창 3:4-5,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

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Munk, 1990: 259).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본 나무는 이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뱀이 말한 대로 지혜를 가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욕망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변하여 모방적인 경쟁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길 거부하며 홀로 금지한 대상을 가지려는 ‘인간과 경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친다. 그런 하나님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의 갈망을 갈망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Hamerton-Kelly, 1985: 92; 이풍인, 2006: 213). 여기서 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게 만든다(Munk, 1990: 259). 또한 하나님의 금지의 내용을 강화한다. 금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금지의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갈망은 더 커지게 된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며 흔히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라드의 관점으로 보면 원죄는 욕망의 부패이며, 하나님이 모델이자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된 사건이다(Hamerton-Kelly, 1985: 93).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다. 금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기 원하시는 것을 독점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방을 방지하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Hamerton-Kelly, 1985: 93). 기원전 1세기나 주후 1세기 초반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대문헌(deSilva, 2000: 1268)인 **솔로몬의 지혜서** 2장 24절에서는 “By the envy of the devil death entered the world.(마귀의 시기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적고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타락 사건을 마귀의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심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Girard, 1978: 149-53; Girard, 2001: 107-20; Schwager, 1987: 71-72). 그는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다. 요셉은 십칠 세의 소년이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노년

에 얻었기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겉으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났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게 했다. 여기서 채색옷은 단지 여러 색깔의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족이나 고관들에게 적합한 옷을 의미한다(Goodhart, 1978: 99).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꾀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요셉의 곡식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었다. 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곡식 단이 ‘서는 것(rising up)’인데, 그것은 요셉의 높아짐을 의미한다(Goodhart, 1988: 100).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겠느냐?”라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라며 형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충애를 받는 데다 그가 꾸 두 개의 꿈은 형들로 하여금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간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 넣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한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진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간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한다. 형들은 요셉이 꾸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말한다. 그들은 요셉의 꿈의 내용을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이야기로 대체한다(Goodhart, 1988: 104). 그들의 행동은 요셉을 향한 모방적인 경쟁심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요셉이 채색옷으로 구별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그들도 받기 원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대상이며 요셉은 모델이나 중재자가 된다. 꿈을 통해 이것은 더욱 심화된다. 요셉은 꿈을 꾸 후에 그 내용을 말함으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형들은 중재자인 요셉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도 갈망한다. 결국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요셉이 갈망하는 것을 빼앗고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형제라는 관계는 갈망하는 주체와 모델 혹은 중재자 사이의 거리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가깝다. 내적 중재가 발생하기 쉬워 자연스럽게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서 다루게 될 사건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이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온

다.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섬기는 모세를 시기하고 있다(Schwager, 1987: 72).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민 12:2).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신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나의 뜻을 전하였지만 모세는 다르다. 내가 대면하여 그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를 비방하느냐?”고 꾸짖으신다(민 12:6-8).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시자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다. 그것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간청한다. 아론이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시기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세가 누리는 것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는데 모세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모방적인 경쟁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슬러 시기와 비방을 하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온다. 레위의 후손인 고라를 필두로 하여 다단, 아비람과 온이 파당을 만들었다(Schwager, 1987: 72).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여 모세에게 대적했다.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비방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레위 지파에 속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이 중한데, 어찌 제사장의 직무를 요구하느냐?”고 그들을 꾸짖었다(민 16:9-11).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고(민 16:28),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하셨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고라를 포함한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죄의 특성인 자기 높임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모세가 누리는 지도자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아론이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그들도 가지기를 갈망하였다. 모방적인 경쟁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릇된 욕망은 그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노래한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은 사울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한 사람을 향한 시기와 모방적인 경쟁심이 얼마나 무섭고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 사울 왕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다(Schwager, 1987: 72-73). 이외에도 구약성경

에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있다.

신약성경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의 대화다(막 9:33-37).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길 단락(8:27-10:52)’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가야하는 길인가?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막 8:34).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 숭고하고 비장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명을 따라 걷는 주님과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수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막 9:30-32).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변론하고 쟁론을 벌인다. 주제는 ‘서로 누가 크냐?’는 것이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수난 당하실 것에 대해 세 번째 예고하신다(막 10:32-34). 이어지는 단락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부탁한다. 그 내용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다(막 10:37).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낸다. 그들도 마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수께서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신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하심으로 세상의 방식을 뒤엎으신다. 스승이신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뿌리인 시기와 모방적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죄가 인간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Ⅳ. 모방적 경쟁심을 극복하는 비결

죄의 뿌리인 모방적인 경쟁심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구출될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은 사탄과는 정반대였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생애는 모방적인 경쟁심과는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비참함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왜곡된 욕망의 치료제로서의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모방적인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살 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vs 사탄의 불순종

사탄은 모방적인 경쟁심을 주관하는 자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예수의 모방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탄의 것과 전적으로 달랐다. 예수의 모방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진다(Alison, 1998: 168).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하게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하게 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자기를 내어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Fodor, 2000: 256-57). 빌립보서 2장 5-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잘 보여준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한다(Carson, 1975: 551).¹¹⁾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는 사탄이 주도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위로 향하는 모방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아래로의 모방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모습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히

11) 디트리히 본헤퍼(Dietrich Bonhoeffer)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비움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짐을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2장 5-18절에 잘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 2장 6-8절은 시편 8편 4-6절의 인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는 일시적인 낮아짐에 대해 말한다. 시편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있다. 둘째는 아들이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신적인 지위가 아닌 그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Smothers, 1985: 339). 인간과 같게 되어 천사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비하를 끝내고 높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다(Peterson, 1982: 55; Attridge, 1989: 72-73). 여기서 예수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가는 아래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예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아버지를 닮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고자 했다(Girard, 2001: 13). 반면에 사탄은 어떨까? 지라르는 그리스도의 모방과 사탄의 모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사탄)는 예수의 옳고 순종적인 모방과는 가능한 한 정반대로 시기로 가득하고 기괴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든 것들 속에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유지한다. 반복하면, 사탄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방꾼이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caricature)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쟁이(ape)다(Girard, 2001: 44-45).

히브리서 2:10-18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히브리서 연구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나,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내용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수의 맏아들이심은 히브리서 1장 6절의 도입부인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고, 히브리서 2:5-18절에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의 맏아들이심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장 10절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표현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성도는 그의 동생들로 묘사된다(2:11, 12, 13, 14, 17; 3:1; Gray, 2003a: 338).¹²⁾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것을 명확히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한 근원’인데, 헬

12)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묘사하는 신약성경 구절로는 롬 8:29, 골 1:15, 18, 계 1:5를 들 수 있다.

라이어로는 ‘하나로부터’를 의미하는 ‘헤노스(ἐνός)’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¹³⁾ 이 표현은 ‘하나의 기원(one origin)’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운명(one destiny)’를 가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럼 같은 운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Miller, 1969: 416). 만아들은 우리말 성경에서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아르케고스(ἀρχηγός)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히 2:10), 이 말은 ‘리더’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아들인 예수에게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라는 역할을 맡기셨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 구원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는 인간들과 조화를 이룸으로 구원의 리더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버지를 향한 만아들의 태도는 히브리서 2장 12-13절에 나오는 시편 22장 22절과 이사야 8장 17-18절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2:11; Peterson, 1982: 61). 만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히 2:12; 시 22:22).”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히 2:13; 사 8:17).”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히 2:13; 사 8:18).” 이 단락은 동생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남이 동생들과 그들이 받을 상속물을 돌보는 ‘약자를 위한 후견인 제도(tutela impuberum)’의 배경에서 읽을 수 있다(Gray, 2003b: 126; Gray, 2003a: 340). 예수는 성도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동생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

(2) 성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본혜퍼는 그의 책 *The Cost of Discipleship*의 마지막 문장에서 분명한 대답을 한다: “The follower of Jesus is the imitator of God(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다; Bonhoeffer, 1959: 273; Carson, 1975: 550 재인용).” 성도의 제자도는 하나님을 모방하신 예수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13) 블릭(Bleek), 리겐바흐(Riggenbach), 부캐넌(Buchanan), 휴즈(P. E. Hughes), 애트리지(Attridge), 그레이(Patrick Gray)와 같은 학자들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한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모델이다. ‘바라본다(아포라오, ἀφοράω)’는 ‘응시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격려와 지지를 예상하며 바라보는 의존적인 감정이 포함된 말이다(Croy, 1998: 174).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채워졌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모방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인간과 경쟁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릇된 모방을 하게 했던 사탄과 달리, 그리스도는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다. 예수의 모방을 닮고자 하는 자들의 모방의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모방의 내용은 자기 낮춤과 자기 버림이다(Alison, 1998: 176).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기 원하는 모방의 방향은 위를 향한다. 이러한 모방은 파당과 분쟁을 불러오는데, 고린도교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다(고전 4:16).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의 학식, 능력과 은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일까? 그렇지 않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거처가 없고, 사도지만 손수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신의 모습, 한 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다(고전 4:9-13).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고 밝힌다(고전 11:1).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비방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비방을 감내하는 약함의 사도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Harmerton-Kelly, 1985: 69-70). 이러한 삶을 본받을 때 자만과 모방적 경쟁심으로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은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지라르의 모방 이론은 죄악의 속성을 잘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좋은 모방을 성도의 삶의 윤리로 제시한다(Dunnill, 1996: 108).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중재자를 통해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되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사랑과 자기를 내어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본받으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갈등과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Hardin, 1992: 382).

V. 결론

2015년 11월 4일은 이 시대의 지성인 중의 한 사람인 르네 지라르가 우리 곁을 떠난 안타까운 날이다.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의 사상은 오래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20세기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거대담론이 줄어든 시대였다는 것이다. 분야에 상관 없이 원리보다는 각론에 관심을 더 기울인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신학, 인류학, 철학 등등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곳곳하게 외길 인생을 걸은 지라르의 삶은 미지의 세계의 새로운 길을 찾는 개척자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대 신화, 민담, 역사, 문학, 인류학, 철학, 그리고 신학과 인문학 전반에 관심을 가졌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가졌다. 그의 이론은 여러 학문영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성경 신학 전공자인 필자의 지라르에 대한 평가는 역사 비평을 통해 ‘그때 거기(there and then)’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지금 여기(here and now)’로 끌어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본다. 성경이 더 이상 케케묵은 과거 이야기로 채워진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생명력 넘치는 살아 숨 쉬는 책이 되게 했다.

그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논문에서 다룬 미메시스 혹은 모방적 경쟁심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는 미메시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주체, 중재자 혹은 모델, 그리고 대상으로 설명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니는데, 주체는 중재자를 통해 대상을 가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방은 주체와 중재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마침내는 폭력으로 번지게 한다. 지라르는 이런 욕망의 잘못된 모방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성경이다. 그는 잘못된 모방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좋은 모방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가치를 빛나게 하였다.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릇된 모방과 사랑과 조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모방 사이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이론을 성경과의 상관성 가운데 살핌으로 죄가 단순

히 거룩과 부정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모방과 시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도구인 나쁜 모방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모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라르 이론의 한 축인 미메시스만 다루었기에 개인의 삶과 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희생양 모티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 논문은 동전의 양면 중 한 면만 설명한 셈인데, 다음 기회에 동전의 다른 한 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 현 (1987). *르네 지라르 혹은 욕망의 구조*. 서울: 나남.
- [Kim, H. (1987). *René Girard or the Structure of Violence*. Seoul: Nanam.]
- 이풍인 (2006). 우리 구원의 리더이신 예수님. 김광건 (편저). *하나님 나라와 리더십* (pp. 197-215).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 [Lee, P. I. (2006). Jesus, A Leader of Our Salvation. In Kim, K. G. (Ed.). *The Kingdom of God and Leadership* (pp. 197-215). Seoul: Westminster Press.]
- 이풍인 (2014). 세월호 참사와 희생양 메커니즘. *신학지남*, 81(2), 87-110.
- [Lee, P. I. (2014).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Scapegoat Mechanism.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1(2), 87-110.]
- Alison, James (1998). *The Joy of Being Wrong: Original Sin through Easter Eyes*. New York: Crossroad.
- Attridge, Harold (1989).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 Bonhoeffer, Dietrich (1959).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 Carson, Ronald A. (1975). The Motifs of *Kenosis* and *Imitatio* in the Work of Dietrich Bonhoeffer, with an Excursus on the *Communicatio Idiomatu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XLIII, 542-553.
- Charlesworth, J. H. (Ed.) (1993 & 1995).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Garden City. New York.
- Croy, N. Clayton (1998). *Endurance in Suffering: Hebrews 12:1-13 in its Rhetorical, Religious, and Philosoph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guy, Michael and Dupuy, Jean-Pierre (1982). *René Girard et le problème du mal: Textes rassemblés par Michel Deguy et Jean-Pierre Dupuy*. Paris: Bernard Grasset.
- deSilva, D. A. (2000). Wisdom of Solomon. in Craig Evans & Stanley Porter. (Eds.) (2000).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L: IVP, 1268-1276.
- Dunnill, John (1996). Methodological Rivalries. *JSNT*, 62, 105-119.
- Finamore, Stephen (2009). *God, Order, and Chaos: René Girard and the Apocalypse*. Milton Keynes; Colorado Springs; Hyderabad: Paternoster.
- Foder, Jim (2000). Christian Discipleship as Participative Imitation: Theological Reflections on Girardian Themes. in William M. Swartley. (Ed.) (2000). *Violence Renounced*. Telford: Pandora Press. 246-276.
- Girard, René (1965).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 Structure*. Trans. Yvonne Freccer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Paris: Grasset. 1961.
- _____ (1977). *Violence and the Sacred*. trans by Patrick Greg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Grasset, 1972.
- _____ (1978). *"To Double Business Bound": Essays on Literature, Mimesis, and Anthrop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Scapegoat*. Ttrans. Yvonne Freccer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Le Bouc émissaire*. Paris: Grasset. 1982.
- _____ (1987a).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rans. Stephen Bann and Michael Mette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Des Choses cachées depuis la fondation du monde*. Paris: Grasset, 1978.
- _____ (1987b). 'Generative Scapegoating.' in Hamerton-Kelly. (Ed.) (1987). *Violent Origins: Walter Burkert, René Girard, and Jonathan Z. Smith on Ritual Killing and Cultural 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73-145.
- _____ (1991). *A Theatre of Envy: William Shakespea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Inc.
- _____ (2001). *I See Satan Fall like Lightning*. Trans. James G. Williams. New York: Maryknoll. Originally published as *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 Paris: Grasset. 1999.
- Golsan, Richard J. (2002). *René Girard and Myth*. New York & London: Garland.
- Goodhart, Sandor (1988). I am Joseph: René Girard and the Prophetic Law. in Paul Dumouchel. (Ed.) (1988). *Violence and Truth: On the Work of René Girard*. London: The Athlone Press. 53-74.
- Gray, Patrick (2003a). Brotherly Love and the High Priest Christology of Hebrew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2(2), 335-351.
- Gray, Patrick (2003b). *Godly Fear: The Epistle to the Hebrews and Greco-Roman Critiques of Superst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Hamerton-Kelly, Robert (1985). A Girardian Interpretation of Paul: Rivalry, Mimesis

- and Victimage in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Semeia*, 33, 65-81.
- Hardin, Michael (1992). Mimesis and Dominion: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the Imitation of Christ in Maximus Confessor.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36(4), 373-385.
- Juilland, Alphonse (Ed.) (1986). *To Honor René Girard*. Saratoga, CA: Anmi Libri.
- Kirwan, Michael (2004). *Discovering Girard*.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 Munk, Linda (1990). The Design of Violence. *Journal of Literature & Theology*, 4, 251-262.
- Peterson, David (1982). *Hebrews and Perfection: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Perfection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SNTSMS*, 4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Schwager, Raymund (1987). *Must There Be Scapegoats? Violence and Redemption in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Originally published as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München: Kösel-Verlag. 1978.
- Smothers, Thomas G. (1985). A Superior Model: Hebrews 1:1-4:13. *Review and Expositor*, 82, 333-343.
- Swartley, Willard M. (Ed.) (2001). *Violence Renounced: René Girard, Biblical Studies and Peacemaking*. Telford, PA: Pandora Press US.
- Wallace, Mark I. and Smith, Theophus H. (Eds.) (1994). *Curing Violence*. Sonoma: Polebridge Press.
- Ward, Graham (1994). Mimesis: the Measure of Mark's Christology.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ology*, 8(1), 1-29.
- Williams, James (1988). The Innocent Victim: René Girard on Violence, Sacrifice, and the Sacred. *Religious Studies Review*, 14(4), 320-326.

논문초록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이풍인 (충신대학교)

지라르의 모방이론은 유럽의 다섯 명의 소설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모방 욕망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서로 모방하는데, 단지 외적인 특징들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들도 모방한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모방적이고 소유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본다. 욕망의 패턴은 직선적이지 않고 삼각형 구조를 띤다. 주체는 모델 혹은 중재자를 통해 대상에게로 나아간다.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는 그들 사이의 모방이 갈등을 유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지라르가 *Deceit, Desire, and the Novel*, *Violence and the Sacred*와 *Things Hidden*을 출판한 후에 인류학, 신학, 심리학, 법학, 정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그의 이론에 반응했다. 비판도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모방에 대한 지라르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지닌다. 첫째, 그의 모방에 대한 이해는 본문 너머에 있는 실재를 발견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본문은 단순히 심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거대담론에 해당하는 그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실험하는 그의 노력과 관심은 인식론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거대담론을 피하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지라르의 이론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순종의 양상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는 예수의 마음은 좋은 모방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수반한 예수의 고난과 순종은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명예로 가는 여정에서 따라야 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순종과 자기를 내어준 기독 교인의 삶을 위한 비경쟁적인 패턴이 된다.

주제어 : 르네 지라르, 미메시스, 모방적 경쟁심, 욕망, 중재, 욕망의 삼각형 구조

계몽과 경건의 변증법 - 18세기 독일 사상의 지형도

The Map of Thought – Dialectics of German Enlightenment and Pietism in the 18th Century

정인모 (In-Mo Jeong)*

Abstract

German Enlightenment and Pietism in the 18th century have some areas in conflict with each other. However, when seen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se are the forms of faith created in opposition to the orthodox which was a church and doctrine centered at the time. Of course they took the different paths; the Enlightenment pursued something rational with human mind, and the Pietism believed the grace of God should be stowed in the heart and reflected through action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originates from the rejection of the orthodox doctrine or recognition of existing Lutherans.

This paper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centering on the view of faith of Nicolaus Ludwig Zinzendorf, who is rated to have not only completed but also overcame the view of faith and thought of Gotthold Ephraim Lessing, one of the outstanding representative thinker of the Enlightenment eras. Although the two have differences in their orientations in that Lessing emphasizes a rational and tolerant faith whereas Zinzendorf emphasizes the 'theory of the heart', they both have the common ground in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pirit of Jesus, Urchristentum.

In other words, they emphasize that the rationality of the mind and piety of the heart is not something that is separated or divided. Rather, they are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in regard to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pirit of Jesus, and must be integrated dialectically through communications.

Key Words : Enlightenment, Pietism, Lessing, Zinzendorf, Dialectic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jim@pusan.ac.kr

2018년 07월 04일 접수, 08월 24일 최종수정, 08월 29일 게재확정

I. 서론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데카르트(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Cogito 명제를 내세움으로써 합리적 철학이 시작되었다. 이어 18세기에 진입하면서 영국의 존 로크, 데이비드 흄 등과 독일의 라이프니츠, 볼프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사안을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 태도를 갖고 따져본 후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으며,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무조건 덮어놓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리를 따지며 사유한다는 18세기의 이러한 합리적 세계관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¹⁾ 여기에는 이성과 양심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선의의 활용, 기대 등 긍정적 의미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머리’(이성 혹은 합리)와 ‘가슴’(감성 혹은 신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사고 없는 열의, 감정 없는 사유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18세기에 도 중요한 화두였다. ‘머리’와 ‘가슴’의 분리 사상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굳건한 관습 중 하나였고, 18세기 계몽주의 출현으로 인해 ‘가슴’과 ‘머리’의 이러한 분리가 종교적 측면에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유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머리’와 ‘가슴’은 한 지체 안에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한 각각 신체의 부분으로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 둘 다 필요하며 서로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사상의 본격적 출발이었던 18세기의 사상적 조류를 개관한 다음,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계몽주의를 정리해 보고, 이 계몽주의와 병행하여 등장하는, ‘가슴’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신앙관을 계몽주의와 비교해서 살펴본다.

결국 이 두 사조에는 서로 대립되는 면이 존재하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 두 사조 모두 당시 교회, 교리 중심의 절대적 주류에 반대해서 생겨난 신앙형태라

1) 그래서 슈테리히는 ‘우리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계몽주의 시대만큼 철학이 여론과 사회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87).

는 점에 천착하여 이 두 사조의 공통 및 상이한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계몽과 경건의 조화로운 통합 모색을 시도한다. 올바른 사고와 뜨거운 신앙적 체험, 즉 계몽과 경건이 서로 상치되기보다 이 둘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원주의 사상이 자리 잡은 포스터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반지성주의가 만연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한국 교회 현실에 바람직한 길잡이 내지는 희망의 불씨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다.

II.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18세기가 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세계상의 변화가 도래했다. 신, 혹은 종교 중심의 세계관 대신 인간의 이성에 의한 계몽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화두의 중심에 서게 된다.²⁾ 또 절대주의의 권위는 도전 받기 시작했는데, 절대주의 대신 자유를, 신분질서 대신 평등, 편견 대신 경험과 학문의 인식을, 교의주의 대신 관용을 중시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종교에 있어 전통적 신을 벗어난 인간의 새로운 사고와 삶의 양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 및 합리주의자들의 철학은 교조적 신학자들의 영향을 감소시켜 갔다. 종교적 신앙 권위의 자리에 이성적인 교훈과 관용 이념이 등장했다. 달리 말해 계몽주의적 신앙관은 ‘신의 은총에 의한’ 봉건적 세계상을 거부하고, 이성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유를 시작한다. 교회의 봉건적 권위에 반발하여, 이성의 판단과 인격적 존재를 존중하는 사상이 등장했던 것이다. 계몽주의는 전통적 권위를 비판하고 인간의 사유를 신학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일체의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는 그러한 자율성 추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일 계몽주의는 프랑스와는 달리 비교적 무신론적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독일 계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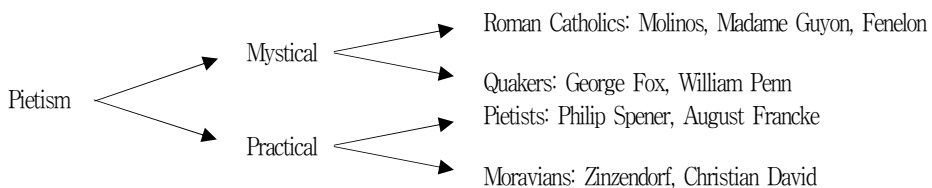
2) 독일 계몽주의에 본격적인 골격을 갖추게 한 칸트는 일찍이 『계몽이란 무엇인가?(Was ist Aufklärung?)』에서 계몽은 인간의 ‘미성숙(Unmündigkeit)’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성숙의 원인으로 ‘소심함(Feigheit)’과 ‘게으름(Faulheit)’을 들면서 ‘감히 ... 하려고 시도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Sapere aude! Habe Mut, dich deines eigenen Verstandes zu bedienen!)’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칸트는 이어 인간은 미성숙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ant, 1976: 9).

주의는 개신교와 밀접히 관련되어 생성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벨(Pierre Bayle), 볼테르 등의 계몽주의가 강한 이신론적 성향을 가졌다면 라이프니츠, 레싱(G. E. Lessing)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계몽주의는 프랑스만큼은 과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프랑스 계몽주의가 독일의 계몽주의와는 달리 다소 과격한 성향을 가졌다면(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54), 독일의 경우 전통 기독교에 관해 온갖 비판을 가하면서도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독일의 계몽주의는 새로운 철학체계를 제시하기보다 실천적이고 도덕적 이성의 우월을 강조하고 실생활에의 영향을 지향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철학적 계몽주의와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성의 가치평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이것이 교회의 정통교리를 압박·거부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주관적 경건성은 보지(保持)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경우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서로 근본적인 다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통 교리에 대한 강한 거부 및 개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8세기 계몽주의(1720-1785)와 경건주의(1740-1780)는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 물론 계몽주의보다 경건주의(혹은 감상주의³⁾)의 전통이, 중세 신비주의에까지 이른다고도 말하지만,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18세기 동시대에 발생한다. 경건주의의 뿌리가 고대 영지주의(그노시스 파), 중세 신비주의와 관계있다고 하지만, 18세기 등장한 소위 독일 경건주의는 이것과는 달랐다. 즉 전자가 신비적 내적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개인적 영성을 통한 신과의 내면적 교통이라는 생활의 실천적 의미가 강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Pietism Influence c.1650-1750



Source: <https://goo.gl/images/w35S38>

3) 종교적 측면에서는 ‘경건주의’, 문학의 영역에서는 ‘감상주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둘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독일 경건주의(Pietismus)는 18세기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19세기는 물론 오늘날까지 종교 사상에 미친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요한 아른트(Johann Arndt)에서 출발하여 슈페너(Spener), 프랑케(Francke), 친첸도르프(Zinzendorf)로 이어지는 독일 경건주의는 영국 퓨리탄과 더불어 종교개혁 이후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적 혁신운동(religiöse Erneuerungsbewegung)’(Wallmann, 2005: 21.)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건주의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 이후 각 종파의 교리나 신조를 강조하는 정통주의(Orthodoxie)가 생겨났는데, 개신교 정통주의는 루터가 배척했던 스콜라 철학(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변증학)을 다시 수용하려고 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적 시도가 있었으며, 경건주의자들은 바로 루터교 제도권 안에서 교리보다 실천적 삶을 중시하였다.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진정한 기독교 정신(Das wahre Christentum)』을 쓴 요한 아른트에 이어 슈페너는 저서 『경건한 소원들(Pia Desideria)』을 통해 경건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교리와 삶의 관계가 이제부터 이론적인 요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슈페너는 경건한 루터교 신자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그 자신도 루터를 존경했을 뿐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다만 슈페너의 견해로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교회시스템은 개혁 되었지만 개인 신앙의 내면과 영성까지는 개혁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교회의 영적 쇠신을 다시 부르짖게 된 것이다. 루터가 ‘오직 믿음 주의(solafideism)’(Wellbery, 2004: 225)를 강조했다면, 슈페너는 ‘신앙 경험’을 한 인간의 내적인 변화, 즉 형식적, 학문적 신앙이 아니라 신과 교통하는 내밀한 신앙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슈페너에 이어 프랑케는 경건주의 사상을 교육, 사회 복지에까지 확대시킨 사람이었다. 할레(Halle) 대학을 중심으로 세상 도피적 공동체보다는 주위 일상생활에서의 종교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슈페너, 프랑케에 이어 경건주의를 명실상부하게 꽃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친첸도르프는 복음주의 정신에 충실했던 인물로서, 헤른후트(Hermhut)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영적 각성운동과 교육,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초교파를 지향하면서 종교의 교리화를 거부하였고 생활 속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다. 그가 추구한 소위 모라비아(Moravia) 공동체는 평신도

신앙의 수준을 성직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친첸도르프는 경건주의를 완성한 사람이자 또 경건주의를 극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계몽주의와 경건주의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또 다시 강화되는 종교의 교리화에 맞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계몽주의는 종교의 교리화에 반대하며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경건주의 역시 종교의 교리화에 반대하며 개인의 영성과 신과의 직접적 교감을 강조하였다. 이 사조 모두 종교의 교리화와 경직화에 반대하여 생겨났다는 공통점은 가지지만, 대안은 달랐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는 이성을, 경건주의는 감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전 양면에 불과하며,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지나친 합리성에 반발한 인간 내면의 감정을 중시한 면은 있지만 결국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안삼환이 경건주의(감상주의)를 계몽주의의 큰 사조 안의 하나의 운동으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안삼환 외, 2016: 154).

1730년 무렵부터 등장한 경건주의(감상주의)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이성적인 감성문화’였다. 이것은 ‘내면지향적 계몽(김병옥 외, 2001: 258)’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몽의 합리적 조류와 경건의 감성주의적 조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신적 전제조건에 바탕을 둔 상호제약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레싱과 친첸도르프의 사상 비교

1. 레싱의 경우

프랑스, 영국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라이프니츠, 볼프 등에 의해 꽃 피운 독일의 계몽주의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인간성(Humanität), 관용(Toleranz), 이신론(Deismus), 합리주의(Rationalismus)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레싱의 작품 - 특히 그의 대표작 『현자 나탄(Nathan der Weise)』 - 에서도 이러한 독일 계몽주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레스링의 경우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을 보기 때문에 이신론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가 계시를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 이신론적 계몽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레싱의 종교적 신념은 무신론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전통적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도 한 때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레싱은 이후 자기 스스로를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Liebhaber der Theologie)(Lessing, 1970: 130)’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함부르크의 주임신부 괴체(Goeze)와의 신학적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 이 논쟁의 금지가 낳은 작품이 『현자 나탄』이다 -, 레싱의 기독교 비판은 당시 성경만능, 혹은 성경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축자설, 성경무오설을 강조했던 루터 정통(Lutherische Orthodoxie)⁴⁾에 대해서 이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Christentum)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그는 문자지상주의로 교리화된 루터교가 루터가 원래 표방했던 그리스도 정신과는 거리를 갖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예수와 당시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본다. 다시 말해 예수는 보되 당시 기독교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전통적 교리 중 성경무오설은 신앙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신과 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하나의 오류로 본다(정인모, 2012: 19).

레싱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지, 죽은 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종교가 지적 유희에 빠져버렸다는 주장을 편다. 레싱의 입장에서 보면 성서 안의 자체 모순 부분, 비합리적 사건 등을 볼 때, 역사가들이 그런 것처럼, 성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축자적 영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레싱은 학창시절부터 경직된 루터 교회에 공격을 가하면서 ‘자유정신의 성서’를 강조한다. 그는 개인에게 믿음을 허락한 루터의 전통을 변호하며 - 이를테면 레싱은 루터의 큰 공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여한 자유, 기독교 정신에 대한 중재자 없는 독자적 해석 허용 등이다(Willmer, 1984: 24)- 성서의 연구, 종교에 대한 개인적 이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 레싱이 보기에 루터는 순수 기독교 정신을 발견하는 길 위에 있었던 종교연구가였다. 그래서 루터와 루터교 간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4) 원래 ‘바른 믿음(rechtgläubig)’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통(Orthodoxie)’은 경건주의 이후 언어의 세속화(Sekularisierung) 과정을 거치면서 ‘증오에 찬 외침’, 일종의 비하하는 욕설로 변하게 된다(Sperber, 1930: 513).

그리고 레싱은 기독교가 예수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예수는 그것을 발전시킨 선지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교가 기독교적 종교보다 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교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변모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Willmer, 1984: 21). 신앙과 인간적인 면 중 인간적인 면을 더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현자 나탄』을 쓰게 되었고, 이러한 레싱의 신학 전통은 미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인간성의 새로운 문화(eine neue Kultur der Humanität)(Stolte, 1998: 27)’의 토대를 놓게 된다.

레스링은 종교의 이름으로 득세하는 증오와 광신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인 종교와 정치는 인간을 점진적으로 계도하여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85).

레스링은 『그리스도의 종교(die Religion Christi)』란 글에서 “그리스도의 종교(die Religion Christi)”를 “기독교적 종교(die christliche Religion)”와 구분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종교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기독교적 종교는 너무 애매하고 다의적이어서 특정한 자리를 부여하기가 힘들다(Lessing, 1970: 711-712).”

이로써 레싱의 기독교관은 종전의 신학적 해석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레싱은 예수와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오직 성경’ 주장을 루터파의 오류로 본다. 성경의 무오류, 영감에 의한 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루터와 함께 레싱은 새로운 이상적 상태, 즉 황금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레싱에게 이성이란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개인에게 신적인 것(Göttliche)에 관한 명확한 상(像)을 중재해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요소(maßgebender Faktor)(Willmer, 1984: 158)’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싱의 경우 어느 특정한 부분 - 이를테면 원죄 등의 교리이다 - 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싱은 신비주의자도, 헤른후트 파도, 더구나 루터 정통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종교적 진리를 추구했고 ‘참 계시진리(echte Offenbarungswahrheit)’와 ‘거짓 계시 진리’를 구별하려고 시도했다(Schneider, 1953: 110).

칼 레싱(Karl Lessing)에 보내는 편지에서 레싱은 ‘묵은 정통(alte Orthodoxie)’을

‘깨끗하지 않은 물 (unreines Wasser)’에 비유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틀로 제시했다(Willmer, 1984: 157).⁵⁾

Table 2 Comparison among the old orthodoxy, the Neologen and the purer doctrine

----- reines Wasser						
1	2	3	4	5	-----6-----	7
•	•	•	•	•	•	•
----- orthodox			heterodox -----			

깨끗하지 못한 물은 묵은 정통에서 자유주의자(Neologen)를 거쳐, 결국 중국에는 이 합집산, 무신론으로 이르게 하는 ‘잡동사니 분노’로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깨끗한 물은 루터로 나아가고 1 세기 초대 신앙에까지 거슬러 간다고 한다. 예수의 교훈도 덧붙여진 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조화와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종교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레싱의 당시 정통(Orthodoxie) 비판은 결국 루터 정신과 원시기독교 정신의 복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레싱은 신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신비적 초월주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계몽의 입장에는 서 있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초월성 자체를 신비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일반적인 계몽주의자라면, 레싱은 도그마한 기독교, 즉 원 기독교 정신에서 멀어진 종교를 비판했고, 이는 역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레싱은 계몽주의적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적 계몽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한다(김주연, 1991: 44).

- 5) 설명: 1- 온전한 기독교 정신; 오염되지 않은 물(Vollkommenes Christentum; ungetrübtes Wasser)
 2- 전통적 기독교; 원시기독교(Traditionelles Christentum; Urchristentum)
 3- 루터의 기독교 정신 의미(Luthers Deutung des Christentums)
 4- 묵은 정통: 깨끗하지 못한 물(Alte Orthodoxie: “unreines Wasser”)
 5- 자유주의자; 분노(Neologen: ‘Mißtjauche’)
 6- 자유사상가 영역; 이신론; 소시아너; 아리우스 파(Bereich der Freigeister: Deisten, Sozianer, Arianer, usw.)
 7- 무신론(Atheismus)

어쨌든 레싱은 교리의 기계적 적용이 사랑에 앞설 수 없다는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유명한 작품 『현자 나탄』에서 나타난 사상과 종교관은 ‘신=이성=사랑’의 화해라 볼 수 있다. 또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신의 계시라 볼 수 있다. 그는 “계시는 이성을 인도하였으며, 이성은 이제 홀연히 계시를 조명해주었다는 것이다(Lessing, 1970: 646).

레스링은 성서를 하나의 문서로 보았고, 전통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서 해석에 있어 도덕과 이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신학 역사에서 자유신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2. 친첸도르프의 경우

그러면 친첸도르프의 입장은 어떠한가? 카멘츠(Kamenz)에서 태어난 레싱처럼 친첸도르프도 같은 작센 지방 출신 오베른 라우지츠(Oberen Lausitz)에 있는 그로스헨너스도르프(Großhennersdorf) 출신이며 레싱과 동시대인이다. 물론 친첸도르프와 레싱은 각각 1700년, 1729년 생으로 한 세대 차이가 난다.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친첸도르프는 존 웨슬리(John Wesley)와도 교분을 가졌고 선교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고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 신앙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 운동이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14). 그렇다고 경건주의가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내면적인 면만 강조하지는 않았다.⁶⁾ 오히려 실제로 경건주의는 신자의 내면적인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였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14).

친첸도르프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기존 종교전통에 따르지 않는 비정통적 사상을 일부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향한 경건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의 평가에 두 부류, 즉 젊은 친첸도르프의 거룩함애의 노력과 후기 친첸도르프의 신의 은총 강조 사이의, 혹은 종파를 넘어선 노력과 루터 정통주의 절대성 요구 사이의 긴장이 있지만, 그는

6) 칸트가 대표적인 예인데, 칸트는 경건주의가 강화된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사회론적 혹은 사회적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였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34).

어쨌든 초교과적 형제사랑의 통합을 통해 교회분열을 극복하려고 했다.

친첸도르프는 당대 독일 최고의 문인이랄 수 있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의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부분 -, 20세기 현대 신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칼 바르트(Karl Barth)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바르트는 그의 신학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었다. 바르트는 그를 두고 “가장 위대한, 어쩌면 근대의 유일하고 매우 전형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며, 또한 어쩌면 최초로 전형적인, 즉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연합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Barth, 1960: 763, 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234).

친첸도르프의 사상은 그의 대표 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Herz und Herz vereint zusammen)』에서 잘 드러난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어』(EG 251)라는 제목의 시는 두 번에 걸쳐 개작되었다(Schrader, 2006: 135). 친첸도르프의 시는 지금도 독일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많이 불리고 있는데, 1994년 ‘독일 개신교 찬송가 EKG’ 개편 작업 때도 친첸도르프의 많은 찬송 가사는 유지되었다. 루터 이후 찬송가 가사는 당시의 신앙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친첸도르프의 시작(詩作)은 보통 초기(1713-1720년), 중기(1721-1727년), 후기(1728-1734년), 세 국면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음을 나타낸 초기, 약간의 사회적 비판의 톤을 나타내었던 중기, 그리고 부드러운 톤으로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년의 시로 나눌 수 있다. 친첸도르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이 시를 통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상처 등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시 형식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언어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첸도르프같은 경건주의자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고대의 수사학이나 화려하고 장식적인 많은 바로크적 언어사용을 거부하면서 단순하고도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했다(Sperber, 1930: 503). 하지만 바로크에서 즐겨 썼던 은유적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⁷⁾, 이 시의 다음 부분은 ‘물’ 은유나, ‘불(Feuer)’과 ‘빛(Licht)’의 은유가

7) 경건주의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유로는 ‘물 메타퍼(Wassermetaphorik)’, ‘신부 메타퍼(Brautmetaphorik)’, ‘갈망 메타퍼(Sehnsuchtmetaphorik)’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수직 역동(Vertikaldynamik)’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사용 - 이를테면 신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entgegen-, herab-, zu-, herzu-, herunter-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과 마음이 함께 모아
주님 품에서 안식을 찾네
너희 사랑의 불길이
주님을 향해 불 타 올라라
그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
그는 빛이시요, 우리는 그의 비침
그는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형제
그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네(Schrader, 2006: 138)

또한 친첸도르프는 이 시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바탕한 ‘우리’라는 형제애가 잘 드러나고 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Die Liebe des Menschen zu Gott)(Schrader, 2006: 27)’과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Die Liebe Gottes zum Menschen)(Schrader, 2006: 28)’을 강조했다.

오, 지체들이여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시오.
자기 형제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분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 준
그분
그렇게 그는 피까지 다 쏟으셨으니
당신 스스로가 어려워하고만 있다면
그가 얼마나 맘 아파하실까(Schrader, 2006: 138)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 이것은 친첸도르프의 주된 신학적 주제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의 문학과 사상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문학의 경우 이를테면 쉴러(F. Schiller)의 『독일의 뮤즈(Die deutsche Muse)』에서 친첸도르프의 위의 시에서 보여주는 ‘물 은유(Wassermetaphorik)’ - 흐른다, 넘쳐난다, 스며든다 등 - 가 잘 나타나고 있다(Zimmermann, 2002: 2).

와 인간에서 신으로 향하는 auf-, hinauf-, aufwärts-, empor-, hinan-, dahin-, himmelwärts- 등이 있어, 하나님과 인간 가슴 간의 교통을 이어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Zimmermann, 2002: 10-21).

18세기 루터교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다(Willmer, 1984: 10). 그의 신학적 전통은 루터의 가르침, 보헤미안 형제 전통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한 단어 중 ‘형제들(Brüder)’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친첸도르프는 루터교의 경직된 교리 중심 사유에서 벗어나 개인의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가슴의 신학’을 설파했다.

친첸도르프의 노력은 또 ‘박애주의적(philadelphisch)(Brecht, 2006: 227)’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는 루터교 신도였으며 비텐베르크와 할레에서 공부하고 튀빙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1700년 5월 26일에 경건주의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에게 경건주의 루터교도인 슈페너가 그의 모델이었다. 그는 영적인 삶과 모라비아 이주민들에 관심이 많았다.⁸⁾

친첸도르프는 새로운 종파를 만드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개혁을 요구한 사람이었다. 그는 차디차고 삭은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 즉 ‘교회 안의 교회(ecclesia in ecclesia)(McCormack, 2005: 14)’를 시도했던 것이다.

친첸도르프는 레싱이 말한 성서의 본질, 기독교인 전통, 종교적 관용 등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간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레싱은 친첸도르프가 기존 루터교회를 비판하고 바꿀 생각은 없는 사람⁹⁾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레싱은

8) 모라비아는 보헤미아의 한 지역이며, 여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순교자 얀 후스(Johannes)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 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9세기 불가리아와 모라비아의 왕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함에 따라, 또 그리스의 두 수도사 메토디오스(Methodius)와 치칠로(Cyrillus)에 의해 신앙을 받아들였다. 메토디오스는 첫 주교가 되었고 치칠로는 성서를 슬라브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 이후 그들은 로마 가톨릭에 속했으나 종교개혁 시기 동안 개혁자들의 신조를 수용했다. 1621년 교황청의 심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신앙을 지키려했던 개신교 신도들은 타 지역, 즉 영국이나 독일의 작센 주,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크리스티안 다비드(Christian David)의 신조를 가진 자들로, 1722년 모라비아에서 루사티아(독일 동부와 폴란드 서남부에 걸친, 엘베 강과 오더 강 사이의 지방) 상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친첸도르프의 보호 하에 헤른후트 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앙을 지켜왔다. 종교 박해를 피해 떠난 많은 피난민들이 헤른후트로 몰려들었고, 여기에는 루터교도, 칼빈교도, 보헤미아 형제교도, 심지어 소시언(유니테리언)들도 있어 복잡한 구성 단체를 이루었으나, 친첸도르프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들 신앙요구를 수렴하여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나갔고, 자신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하는 루터교도로 계속 남아 있었다(McCormack, 2005: 11-22).

9) 실제로 친첸도르프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보다 끝까지 루터 교단을 떠나지 않았고, 다만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도모했다.

친첸도르프를 ‘대담한 평신도 친구(verwegenen Freund der Laien)(Willmer, 1984: 23.)’로 보았다. 레싱은 루터교가 주님의 인간사랑, 그의 대속죄물 등에 대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논쟁에만 빠져있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눈을 돌리려 한다고 했다. 루터교가 예수의 인간되심을 등한시하고 그의 신성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어쨌든 레싱과 친첸도르프 공히 루터교의 경직된 교권주의에서 벗어나 이성 혹은 계시의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이로써 레싱의 계몽적 이성과 친첸도르프의 경건적 감성의 통합, 혹은 이 둘의 변증법적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

IV. 결론

예수 출현 이후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종교적 교리화가 늘 있어왔고, 이것이 또한 국가 권력과 야합하면서 종교적 타락이 진행되기도 했다. 중세의 종교관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으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그릇된 종교관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시도, 즉 왜곡된 구원관, 신앙적 가치 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시도였다.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슬로건으로 예수 정신의 참 종교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루터의 신학적 전통은 시대가 갈수록 역시 교리화되고 추상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실제 신앙생활과는 동 떨어진 교리가 강조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수 종교의 가르침이 희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요구가 더해진 성경관이 요구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레싱의 『현자 나탄』이다. 여기서 레싱은 종교적 관용, 교회, 교리 중심의 성서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단행하면서 순수 복음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시대 슈페너, 프랑케, 친첸도르프로 대표되는 소위 독일 경건주의의 발생은 이러한 요구, 즉 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실천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18세기의 시대정신에 따라 탄생한 계몽주의의 기독교 비판은 신앙의 부정이 아니었으며, 단지 문자를 예수와 일치시키며,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적 경전제일주의와 맹목적 신앙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레싱의 대표작 『현자 나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듯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주창하였고 더욱 인간적인

배려, 은유함, 관용, 선행 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18세기 경건주의는 합리주의의 반대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서용좌, 2008: 132). 경건주의자들에게는 교회의 도그마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 이성(Menschenverstand)’을 갖춘 개인의 이성적인 ‘성찰(Nachdenken)’이 강조되었다(서용좌, 2008: 132). 이성이라 할 수 있는 ‘머리’에 ‘가슴’(감성, 마음)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감성은 이성 혹은 오성의 편에 서서 이성을 보완해야하는 의미였다. 즉 이성은 계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밝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일 계몽주의의 대표작가 레싱은 18세기 종교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된 계시와 이성의 문제를 이러한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싱의 사상은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면서도 신비주의적 경향도 내포하고 있다.

18세기 말 독일에서는 무신론과 계시종교 간의 제 3의 길로 자연신적 계몽주의 변종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신이 더 이상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를 이신론(理神論)이라 하였는데, 독일에서는 모세스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과 프리드리히 니콜라이(Friedrich Nicolai), 그리고 헤르만 자무엘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¹⁰⁾를 들 수 있다.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인간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계몽의 꿈은 예상과는 달리 결국 원래의 기대에 전혀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에 의해 직접 설파된 ‘원시기독교’, 루터가 보여주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 생활 속의 ‘가슴 신학(Herz-Theologie)’을 추구한 친첸도르프를 비롯한 경건주의자들의 복음주의 정신, 또 당시 또 다시 교리화 되어버린 루터교도들의 추상적 교리를 떨쳐버리고 이성에 입각한 인간적 신앙을 추구한 작가 레싱 등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과 사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오늘날은 경건과 계몽 둘 다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바처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0) 레싱과 친분이 있었던 라이마루스는 종교의 신랄한 비판자였으며 대표적으로 『신의 이성적 숭배자를 위한 변론』이 있다.

참고문헌

- 김문기 역. (2015). **경건주의(1675~1800)**, Schicketanz, Peter. (2002). Der Pietismus von 1675 bis 1800. 천안: 호서대학교출판부.
- [Kim, M. G. (2015). Der Pietismus(1675~1800). Cheonan: Hoseo University Press. Trans. Schicketanz, Peter. (2002). *Der Pietismus von 1675 bis 1800*.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김병욱 외 (2001).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B. O. (2001). *Literaturelexik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영선 (2013). **경건주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Y. S. (2013). *Understanding pietism*.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유동 외 역. (1996). **계몽의 변증법**, 3. Aufl., Horkheimer, M., Adorno, Th. W.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서울: 문예출판사.
- [Kim, Y. D. et al. (1996). Dialektik der Aufklärung. Seoul: Moonye Publishing. Trans. Horkheimer, M., Adorno, Th. W.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Fischer.]
- 김주연 (1991). **독일문학의 본질**, 서울: 민음사.
- [Kim, J. Y. (1991). *The essence of German literature*. Seoul: Minumsa.]
- 박민수 역. (2008). **세계철학사**, Störig, Hans Joachim. (1999).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서울: 자음과모음.
- [Park, M. S. (2008).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Seoul: Jaeum&Moeum Publishing. Trans. Störig, Hans Joachim. (1999).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Frankfurt: Fischer.]
- 박혜숙 (2008). **프랑스 문학 입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Park, H. S. (2008). *Introduction to French Literatur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서용좌 (2008). **도이칠란트 · 도이치문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Seo, Y. J. (2008). *Deutschland · Deutsche literatur*.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안삼환 외(2016). **새 독일문학사**, 서울: 세창출판사.
- [Ahn, S. H. et al. (2016). *Neue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eoul: Sechang Publish.]
- 이은재 역. (2009). **경건주의와 신학자들**, Lindberg, Carter. (2005). The pietist theologians. 서울: CLC.
- [Lee, E. J. (2009). The pietist theologians. Seoul: CLC. Trans. Lindberg, Carter.]

- (2005). *The pietist theologians*. USA/UK/Australia: Blackwell Publishing.]
- 정인모 (2012). **독일문학감상**, 서울: 새문사.
- [Jeong, I. M. (2012). *appreciation of German Literature*. Seoul: Saemoonsa.]
- 정인모 (2017). 독일경건주의 운동 고찰, **독일언어문학**, 78, 237-255.
- [Jeong, I. M. (2017). Der deutsche Pietismus als evangelische Reformbewegung,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78, 237-255.]
- Barth, Karl(1960). **Kirchliche Dogmatik IV/1**, Zürich.
- Brecht, Martin & Peucker, Paul(2006).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Göttingen.
- Bouman-Komen, Truus(2009). **Bruderliebe und Feindeshaß**, Hildesheim.
- Kant, I.(1796). **Was ist Aufklärung?**, Stuttgart.
- Langen, A.(1963). **Zum Problem der sprachlichen Säkularisation in der deutschen Dichtung des 18. und 19. Jahrhunderts**, Deutsche Philologie Bd. 83, Sonderheft, Bonn.
- Lessing, Gotthold Ephraim(1771).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IV.
- Ders.(1771).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VII.
- Ders.(1771).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VIII.
- McCormack, Richard(2005). **Luther, Zinzendorf and Wesley**, Rev. Peter Anstadt, D. D.
- Sauder, Gerhard(1980). **Erbauungsliteratur, in: Deutsche Aufklärung bis zur Französischen Revolution 1680-1789**, hg. v. Rolf Grimmiger, Wien.
- Schneider, Johannes(1953). **Lessings Stellung zur Theologie vor der Herausgabe der Wolfenbüttler Fragmente**, Gravenhage.
- Schrader, Hans-Jürgen(2006). **Zinzendorf als Poet**, in: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hg. v. Martin Brecht/Paul Peucker, Göttingen.
- Sperber, Hans(1930). **Der Einfluß des Pietismus auf die Sprache des 18. Jahrhunderts**,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8. Jahrg.
- Stolte, Heinz(1998). **Kleines Lehrbuch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8. verbessert Aufl., 대구.
- Wallmann, Johannes(2005). **Der Pietismus**, Göttingen.
- Wellbery, David E.(2004). **German Literature**, Cambridge, London.

Willmer, Peter(1984). **Lessing und Zinzendorf: Eine vergleichende Studie zu Lessings persönlichem Glauben**, Vancouver UBC.

Zimmermann, Mattias(2002). **Der Einfluß des Pietismus auf die deutsche Literatursprache im 18. Jahrhundert - mit einer Analyse zweier Texte von N. L. Graf von Zinzendorf und F. G. Klopstock**, Norderstedt, Grin.

<https://goo.gl/images/w35S38>

논문초록

계몽과 경건의 변증법 - 18세기 독일 사상의 지형도

정인모 (부산대학교)

18세기에 등장한 독일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면이 있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조 모두 당시 교회, 교리 중심의 정통주의(Orthodoxie)에 반대해서 생겨난 신앙형태라 볼 수 있다. 물론 그 대안은 달랐지만 - 전자가 인간 머리로 이성적인 것을 도모했다면, 후자는 신의 은총을 가슴에 담아 생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 기존 루터주의자들의 정통의 교리나 인식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계몽주의자의 대표 사상가이자 작가인 레싱의 종교관과, 경건주의를 완성했고 또 그것을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친첸도르프의 신앙관을 비교 분석 하였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 레싱은 합리적이고도 관용적인 신앙을, 친첸도르프는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슴의 신학’을 강조한다 - 결국 둘 다 초기 기독교 정신(Urchristentum)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된다.

즉 머리로서의 이성과 가슴으로서의 경건이 서로 분리되고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정신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관계가 있고, 서로 소통하며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계몽주의, 경건주의, 레싱, 친첸도르프, 변증법

禧年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Jubilee Law - Focused on Basic Income

조혜신 (Hye-Shin Cho)*

Abstract

Today, we cannot but turn our eyes to the Jubilee law of the Bibl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our society to face situations such as unemployment, debt, poverty, exploitation. However, I think it is time for us to find a way to implement the idea of the Jubilee law in our laws and institutions more effectively and in a more adequate way by adopting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past in applying this Jubilee law to reality. The norm-addressee of Jubilee law is limited to the Israelite covenant community, and the legitimacy and effect of the law is fully secur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m-maker and the norm-addressee,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d and the Israelite covenant community. In this respect, attempts to universalize the Jubilee law only in its content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and thus, the spirit of the Jubilee law can still be meaningful today, only when applying, in addition to its contents, the principles of relationship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which are the premise of this norm.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 earlier discussion of seeking the contact between the Jubilee law and modern law is that there is not much room for contact between the two. Rather, considering the message given to the world of today by the Jubilee Law, I think the contact is the “restoration of lost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will refer to the totality of the whole relationship that human beings make with other human beings, the family, the region, the nation, and various levels of community, nature, and ultimately Creator God. And there will be a modern significance of the Jubilee Law in making progress in the

*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yeshin@handong.edu

2018년 00월 00일 접수, 00월 00일 최종수정, 00월 00일 게재확정

direction of reviving the relationship of care and responsibility.

As the basic income system challeng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legal system, it is obvious that it mirrors the Jubilee Law in terms of its fundamental and reformatory character of imagination. In other words, the basic income system is likely to be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restore the community solidarity among members law and the relativity of ownership to shared assets of human beings, making it worthy of discussion and reflection. Of course, i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Jubilee Law and the Modern Law is obviou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does not keep pac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rights and duties of 'labor', and furthermore, particularly with the work ethics of Christian Reformers that still have a profound influence to this day. This could also be a part of the difficulty of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the Jubilee Law. However, by thoroughly examining social and economic norms based on the Bible's genuine teachings, and by continuously seeking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is era, I hope that we can find a direction for Christian practice.

Key Words : Jubilee law, modern law, Pentateuch, covenant, land ownership, basic income

이 논문은 한동대학교 2018년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한국의 교계와 신학계에 있어서 '회년'은 지속적인 관심의 주제였으며,¹⁾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이를테면 분단과 통일, 빈부격차의 극대화, 실업, 부채, 부동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다문화화, 인권 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해결 혹은 회복을 위한 전망을 기대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적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기능해 왔다(양희송, 2016). 특히 성경의 회년제도는 '법' 혹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를 '이상적 모형'으로 삼아 현실의 법과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교회의 역사 내내 꾸준히 이어져왔다(남기엽, 2012: 259).

성경의 고유한 제도로부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1) 이러한 회년법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장진광, 1994: 39).

위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현하는 일에 부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목표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특히 회년제도를 현실의 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제기되는 가장 빈번한 의문은 바로 그 ‘실현가능성’이다. 일찍이 19세기 후반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²⁾을 통하여 회년법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토지제도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토지단일세’를 주창하였다. 하지만 이 대안 자체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혁명이 아닌 이상 법과 제도의 개선은 기왕의 것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구성원의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법 및 제도와 괴리가 매우 큰 대안은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비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것이 성경에 전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부채, 빈곤, 착취 등과 같은 경제적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이를 타개할 영감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회년법에 다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회년법을 현실의 제도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회년법의 정신과 원리,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어야 할 맥락이 되는 ‘근대법(modern law)’³⁾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회년법과 근대법은 그 사상적,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날 국가, 사회, 시장의 제도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근대법의 맥락에 회년법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지, 그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의 본질 및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대법과 그 현대적 수정원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

2) Henry Georgy (1981). *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3) ‘근대법(modern law)’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대법은 19세기 ‘근대국가’와 함께 탄생한 것인데,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국가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근대헌법, 근대사법, 근대형법 등 오늘날 법체계의 근간을 정초하였다.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를 회년법의 정신과 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담지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시론(試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이지만,⁴⁾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친 상상으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 상상에 참여하는 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국가, 주, 도시, 마을 단위로 기본소득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실로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회년법의 원리 혹은 정신을 현실의 제도로써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본고에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회년법의 의의 및 내용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의 구성원리라는 측면에서 회년법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 즉 ‘관계성(關係性)’이 전제되어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회년법과 근대법의 전제를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두 법 사이에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로써 ‘기본소득’이 갖는 의의, 특히 그 성경적·윤리적 정당성을 회년법의 원리 및 정신에 비추어 논함으로써, 회년법적 실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관계성

1. 회년법의 의의

회년법은 구약성경 뿐 아니라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4) 기본소득의 개념요소들이 비교적 온전하게 갖추어진 논의는 18세기 영국의 혁명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박형준, 2018: 41).

나라의 통치질서'를 설명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고, 모세오경의 율법, 예언서, 사복음서, 바울서신 등에 걸쳐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사야 61장 1~2절은 오경의 회년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구약의 회년 사상을 신약적 메시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본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장성길, 2012: 97). 하지만 예언서의 곳곳에서⁵⁾ 발견되는 회년의 흔적은 오히려 그 정신이 망각되고 간과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년법의 핵심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될 수 없다는 사상은 끈질기게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 1~19절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⁶⁾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회년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누가복음 4:18~19이다. 회년 선포의 세 가지 효과인 노예해방, 부채탕감, 토지반환이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점에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누가복음의 나사렛 선언은 회년의 선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본고에서는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의 본문을 중심으로 회년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인데, 먼저 회년법 관련 본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이다. 20장의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여 23장에 이르는 이른바 '언약법전'에서 회년법과 관련된 부분은 21장 2~11절, 22장 25~27절, 23장 10~11절 등이다. 각각 빚으로 인한 종에 관한 규례, 이자 금지에 관한 규례, 휴경년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⁸⁾ 먼저 21장 2~11절에서는, 채무변제 불능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팔린 남성 노예의 해방과 첩이나 아내의 신분으로 팔린 '아마'⁹⁾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22장 25~27절에서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3장 10~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위해서 7년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의 약자들 뿐 아니라 하나

5) 야모스 2장 6~8절; 미가 2장 1~4절; 예레미야 34장 8~22절; 느헤미야 5장 1~5절 등 참조.

6)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하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7) 신약에 있어서 회년법의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Gert Volschenk & Anereis van Aarde (2002). *A Social Scientific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the Jubilee in the New Testament*. HTS 58(2)

8) 이들 본문에 관한 설명은, 김병하 (2005). **회년 사상의 형성**. 대한기독교서회. 34면 이하; 김희권 (2005).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대한기독교서회, 256면 이하 참조.

9)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주지 못한 팔린 딸을 일컫는다.

님의 피조물인 들짐승들에게도 휴경을 통하여 안식년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도 성경의 회년법과 유사한 관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따금 정의(justice)의 시현으로서 ‘해방(release)’을 선포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주 혹은 어떠한 주기로 반복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경의 회년법에서와 같은 자동적 주기성을 가진 관습으로서 행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신명기 15장 1~11절에서는 부채탕감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와는 달리 신명기에서 명하는 부채탕감은 매 7년마다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닌 가난한 ‘이웃’ 혹은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 면제의 상대방에 이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3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회년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간 관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5장 12~18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1장 2~11절과 유사한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주기성’인데, 출애굽기 21장의 종의 해방 규례는 개인적이라 할 수 있으며, 첩으로 팔린 여종인 ‘아마’의 경우에는 정확히 7년마다 해방된다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 반면, 신명기 15장의 종의 해방 규례는 전 국가적으로 또한 주기적으로 7년마다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¹⁰⁾ 이 노예해방에 관한 부분에서도 앞서 살펴본 부채탕감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대상이 되는 노예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로 제한된다(12절). 비록 회년법과 관련된 본문에서 토지반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훼의 선물로서의 ‘땅’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로서,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야훼의 분명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다(김병하, 2005: 40).

레위기 25장은 2~7절의 안식년에 관한 규례, 8~22절의 회년에 관한 규례, 23~34절의 유업(특히 토지)의 회복에 관한 규례, 35~38절의 대부에 관한 규례, 39~55절의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3~34절의 유업의 회복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23절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10) 이것은 신명기 15장 1~11절의 규례와의 구조적인 상관성에서 도출되는 해석이다. 김병하 (2005). 앞의 책. 43면.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부분은 가히 ‘모든 회년 법규의 궁극적인 기초’라 할 만할 것이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야훼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유주라는 것이 모든 회년 법규 시행의 동기가 되는 신학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김병하, 2005: 50). 레위기의 회년법은, 종의 뜻에 따라 영구히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휴경년 규례의 동시성과 주기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점,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들을 위한 안식이 아닌(출 23:11)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언급하고 있는 점(레 25:4), 유업 혹은 기업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규례(레 25:23~34)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년법의 가장 완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앞서 개관한 모세오경의 안식년법과 회년법이 갖는 가장 급진적이고도 개혁적인 면모는 바로 그 ‘주기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러한 주기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명기와 레위기 본문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또한 주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체결 당시의 본래적 질서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주기적인 회복성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의 시혜칙령들과 유대 지혜문학의 자선의 개념을 넘어서는 안식년과 회년 규례들의 특이성이며 급진성이라 할 수 있다(김병하, 2005: 20).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왕이 통치목적상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칙령을 반포한 점에서 그 규범의 실행이 전적으로 왕의 의지에 달려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년법은 동시성과 주기성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식년과 회년의 도래를 예측하면서 삶을 영위하도록 제한하는 실질적 규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

회년법의 원리와 정신을 이 시대에 제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선결적 과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전제’를 확인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도적 구현이라는 것은 곧 현재의 법체계에 대해서 기존의 구성요소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정한 변경을 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체계는 일정한 이념적, 역사적, 논리적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년법의 전제와 기존 법체계의 전제

가 어느 정도로 정합(整合)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나의 법질서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제도, 규칙, 조직 등은 그 체계적 혹은 논리적 연결성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 요소에 가해진 변경은 다른 요소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상호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때로 개선 혹은 발전으로, 때로 혼동 혹은 후퇴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원리 혹은 정신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와 점검이 거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이하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리’라는 측면에서 회년법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땅과 사람을 채무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돌아가도록 하는 ‘무름(redemption)’이 갖는 기능이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3)”를 근거로 하는 이 무름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 즉 ‘근족(近族)’ 혹은 ‘고엘’을 통하여 기업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구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 무를 자가 근족 혹은 고엘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름이 바로 각 가족의 유산을 최소한 친족의 소유에 머무르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즉 ‘가구(家口)-친족(clan)-지파’의 층위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친족을 단위주체로 하여 부여된 기업¹¹⁾ 그 친족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각 지파의 견고성을 지키려고 했던 회년의 무름에 관한 규례들은 유산의 소유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게 해 주는 주요한 원칙이자(김병하, 2005: 48),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엘에 의한 무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대안이 바로 회년법에 따른 토지반환이라 할 수 있다.¹²⁾

이스라엘의 지파체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층위로 촘촘하게 엮인 공동체에 편입되도록 하는 언약공동체의 구성원리이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covenant)’은 곧 이들 두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

11) 이 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본문인 민수기 33:50~34:29 그리고 여호수아 14~19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2) 레위기 25장 13~17절에 ‘토지반환’의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 때 토지가 일방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반환의 대가로 회년 후의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 지불되는 일종의 ‘환매(還買)’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점은 십계명에서 잘 드러난다. 십계명은 제1계명 내지 제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애굽 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십계명을 통하여 설정된 이중적 관계는 율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법은 법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법의 상위 개념인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장성길, 2012: 7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회년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일정한 관계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파생된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회년법 역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즉, 회년법은 이 법의 제정자와 수범자 사이, 그리고 각각의 수범자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회년법에 있어서 관계성이 핵심을 이룬다는 것의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회년의 법이 오로지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만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15:1 이하에 기록된 면제년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웃(fellow Israelite)’ 혹은 ‘형제(brothers)’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지만, ‘외국인(foreigner)’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 역시 이스라엘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레위기 25:44에 따르면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울 것이며”라고 함으로써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본문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종을 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기 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종으로 엄하게 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빚진 자에 대한 빚 독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된 구성원들 역시 서로서로 그 언약에서 비롯된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그러한 관계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¹³⁾ 이러한 관점을 좀

13)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회년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수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더 확장한다면, 회년법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이상은 자연법적 이성으로부터는 연원(淵源)될 수 없는 사상으로,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활동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희권, 2004: 136). 회년법의 규범적 정당성은 그 윤리적·도덕적 보편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한총적 구원이라는 신학적 특수성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책임 혹은 공동체 책임의 원리로부터 확장된다. 고엘에 의한 무름 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언약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책임 혹은 공동체 책임의 원리는 비단 친족 혹은 지파 범위 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 전반으로의 확장성이 있는 연대성이라 할 수 있다(Fager, 1993: 90). 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선(charity)’의 개념을 명백히 넘어서는 상호책임인 것이다(Fager, 1993: 90). 또한 고엘에 의하여 물려진 토지는 고엘이 아닌 원래의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친족에 의한 토지공유와도 분명히 다르다. 즉, 친족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름이 아니라, 토지를 잃은 친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행사되는 것이다(Fager, 1993: 94).

이처럼 회년법은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로 그 수범자가 제한되며,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회년법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보편적인 윤리적·도덕적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회년법을 제정하고 이를 부여받은 제정자와 수범자의 특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라는 관계성으로부터 그 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년법을 오로지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과 더불어 이 규범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책임의 원리를 함께 적용할 때 회년법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3. 회년법과 근대법, 그 전제의 대조

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입장에서 구약성서를 읽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임태수, 1991: 117).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회년법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국가, 사회, 시장을 틀 지우는 근대법 체계와 회년법 사이에 그 어떠한 접점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방대한 논의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시론(試論)으로서, 회년법과 근대법 각각의 핵심적인 전제를 검토해 보고 양자를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양자의 접점, 즉 근대법을 근간으로 구성된 오늘의 세계에 회년법이 가질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양자간의 대조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도될 것인데, 하나는 각각의 규범이 상정하는 ‘수범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1) 수범자: 공동체와 개인

수범자(受範者)란 일정한 법 혹은 규범에 구속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근대사법¹⁴⁾의 수범자는 바로 ‘개인’이다. 이러한 근대법의 수범자는 근대법의 ‘인간상’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¹⁵⁾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적 인간상의 변화를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¹⁶⁾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개인주의 ·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 성립한 근대사법은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

14) 근대법 중에서도 회년법에서 규율하는 근로 혹은 노예계약, 소비대차계약 및 이를 위한 담보설정 행위, 토지매매 혹은 임대 등은 모두 ‘사법(私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대사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5) 법에는 일정한 인간상이 겹치기 마련인데, 이 ‘법에 있어서의 인간’에 관하여 지승원 (2007).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법률인**. 이문출판사. 54면 이하의 논의, 특히 59면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음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상에는 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실적 인간상과 비록 이념의 형태로 법규 배후에 은폐되어 있긴 하지만 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인간상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상이 있는 바, 전자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법을 인간에 일치시키는 것이요 후자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토대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공동체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간을 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쌍방향에서의 접근을 통해 ‘법과 인간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다면, 근대법의 수범자로서의 인간상은 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실적 인간상이라기 보다는 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인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H. S. Maine (1954). *Ancient Law*, J. M. Dent & Sons Ltd. p100(지승원 (2007). 앞의 책, 69면에서 재인용).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곽윤직, 2002: 30). 즉 근대사법의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Person)’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곽윤직, 2002: 30). 근대법의 인간상은 한 마디로 ‘이성적 인간’인데, 초월적 힘이 아닌 인간 이성에 의해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이미 자유이며,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곽윤직, 2002: 78). 이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근대법의 보편적 인간유형이 마련된 것이다.

근대사법은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원칙으로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¹⁷⁾ 이 중에서도 특히 고대 혹은 중세와 비교하여 근대의 법에 혁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사유재산권을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근대적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로 확장시켜 나가는 논리적 전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¹⁸⁾ 근대사법의 원칙이 재산권이나 계약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인간상을 ‘경제인’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회년법을 포함하는 율법의 수범자는 이스라엘 공동체¹⁹⁾이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가문-가구의 여러 층위의 공동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근대법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은 독립적인 개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

17) 사적 자치의 원칙(혹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사법의 支柱가 되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내지 계약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채무의 이행에는 신의성실이 요구된다는 이른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원칙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근대법의 뿌리가 되는 로마법의 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로마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고전 후기법에서 폭리행위 및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확립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관해서는 조규창 (1991). **로마법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6, 25면 이하 참조. 폭리규제의 법리에 관해서는 성준호 (2014). 로마법상 ‘막대한 손해’의 성립과 발전 - 로마법에서 교회법에 이르는 폭리규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4(1), 108면 이하 참조.

18) 이는 특히 로크의 소유권 사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술한다.

19)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연약이 체결되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이 연약의 상대방이 ‘야곱의 집(the house of Jacob)’ 과 ‘이스라엘 자손들(the people of Israel)’로 명명되어 있다.

식된다. 율법의 613개 조항 그 어디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율법에 따라 지게 되는 개인의 갖가지 의무조차도 다른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쌍무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율법은 언약공동체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가르침’으로서,²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함의하는 바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도 아니요 사회적 약속 혹은 계약에 대한 위반도 아니요, 언약상대방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자 반역으로서 그 언약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 대가는 언약에의 신실한 구속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된 복(신 28:1~19)의 박탈과 저주(신 28:20~68)이다. 이러한 점에서 율법과 회년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규범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법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유권: 토지소유권의 상대성과 절대성

소유의 절대성과 상대성은 물론 일도양단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절대성과 상대성 중 어느 것을 소유제도의 근간으로 삼을 것인가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법질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소유 문제는 토지가 갖는 ‘인간생존의 바탕이며 국가존립의 기초’라는 성격(김상용, 1995: 5)으로 인하여, 체제와 질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토지소유권의 귀속과 범위에 관한 역사적 변천을 고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념성, 절대성, 전면성, 단일성, 항구성 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며(이종근, 1995: 104), 이러한 설명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역사적 보편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서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총유적 토지소유권으로서 가족, 씨족, 부족 등의 공동체가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졌으며, 중세에는 토지소유권을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領主가, 후자는 領民이 가지는 분할소유권으로 존재하였다(김상용, 1995: 39).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20) ‘토라(torah)’의 의미는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주로 가르침, 바른 행동지침, 올바른 삶의 道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희권 (2008)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 (출 20:22-23:33), 성결법전 (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 (신 12-26)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 4면 이하 참조.

비로소 중세의 신분구속적인 분할소유권을 극복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이고,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토지권이 정립된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 그리고 로마법의 계수가 있다(지승원, 2007: 85).

특히 로크(J. Locke)의 이론은 소유권에 관한 근대의 이해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person) 안에 하나의 소유(property)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소유(property)’란 생명, 자유, 재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소유를 보존할 힘을 가지며, 이는 개인의 자연권으로서 神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박창열, 1999: 367). 이처럼 로크가 설명하는 소유권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 아니며, 인간의 자기보존과 생존을 위한 천부의 자연권인 것이다. 태초에 神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공동이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존하고, 그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박창열, 1999: 368). 사람의 육체적 ‘노동’이나 ‘일’은 정확히 그 사람의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를 그 사람이 옮겨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혼합시킨 것이며, 그 자신의 것을 거기에 결합시킨 관계로 결국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지승원, 2007: 82).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노동한 자 이외의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타인의 공동소유권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한편 회년법에서 발견되는 소유관념은 위에서 살펴본 근대의 소유관념과 정확히 대치되는 것이다. 특히 회년법은 토지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점은 레위기 25:23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근족(고엘)에 의한 무름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회년에 이르러 ‘궁극적 고엘인 하나님’에 의하여 원래의 상속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이를 인간의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유업 혹은 기업의 일부로 인간에게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인간은 궁극적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이스라엘 각 공동체에게 주어진 토지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년법은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년법에 있어서 실제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유권보다는 토지를 이용한 생산적 활동과 그로부터의 수익권이라 할 수 있다. 회년법이 이처럼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의 분리를 일반적 원칙 혹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회년법상 토지소유권은 성경에서 ‘토지’ 혹은 ‘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관계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후의 땅의 획득, 상실, 회복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땅에는 언약공동체의 서사(narrative)가 단단히 응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땅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 혹은 약속, 이를테면 아담에게 주어진 창세기 1: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9:1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있어서 땅은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에 관한 신학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은 선물이자 은혜이며, 때로는 유혹, 책임, 위협인 것이다(브루그만, 2005: 103-138).

언약공동체에 있어서 땅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레위기 25장 23절)”, 즉 신적 소유권(divine ownership)에 담겨있다. 이로부터 그 파생원리로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소유는 결국 선물 혹은 은혜로서 주어진 것, 사고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즉, 토지와 인간)과 허락되는 것(즉, 토지의 산출물과 인간의 노동력)이 있다는 것, 토지는 오로지 그 산출물로부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²¹⁾ 이자를 받고 양식을 꾸어주는 것과 같이 토지와 그 산출물의 일정한 이용방식은 금지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근대법의 원리들, 특히 소유권의 절대성, 배타성, 전면성, 항구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 밖에도 토지가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²³⁾ 역시 오

21) 레위기 25장 29~30절에 따르면,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은 무름의 법에 있어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연간 당해 토지로부터의 소출량에 다음 회년까지의 남은 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2) Burnside, Jonathan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 Oxford. p.180을 참조하여 저자가 일부 원리를 추가한 것이다.

23) 물론 해마다 토지의 소출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평균적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소출량을 기준

늘날 토지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단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토지와 그 소출을 기반으로 지대 혹은 이자를 통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회년법과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있다.

(3) 소결

이처럼 회년법과 근대법의 전제 사이에는, 특히 그 규범의 수범자,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을 구성원으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년법, 그리고 일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신분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단위로 하는 근대법 각각에 있어서, 구성원간 법률관계를 권리 혹은 의무로서 구성하는 방식이나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 문제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이 맺게 되는 정치적 및 사회적 관계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히 ‘경제체제’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을 토지제도 및 경제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 근대법과 이와는 반대로 토지소유권의 상대성, 즉 주기적으로 또한 전국가적으로 토지상태가 전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회년법은 전혀 다른 사회운영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 앞서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바로 양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법 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갖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공동체가 규범을 형성하고 전달하며 해석·전달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함의를 주고받기 어려운 서로 다른 고유한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회년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그 백성에게 유업이자 선물로 부여된 땅’, 그리고 ‘그 땅의 궁극적 소유자로서의 하나님’ 개념은 회년법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주의 깊게 되새겨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회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제도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 결국 실현가

으로 토지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능성이 매우 낮은 적용방안으로 귀결될 위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년법의 규범을 그 실천적 의미는 사상(捨象)한 채 신학적 혹은 상징적 의미만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약속된 기업의 물리적·실재적 실체인 ‘가나안 땅’이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어졌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하나님 나라가 내세 혹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그의 구체적 사역을 통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현실적으로 도래하였듯이, 회년법에서 요구하는 변혁의 규범들 역시 지극히 실천적인 규범으로서 시대적 모순을 과감하게 돌파하도록 하는 사회적 상상력의 원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영원한 유업을 상기하며 갈구하도록 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 제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회년법에 있어서 ‘땅’이 갖는 의미는 ‘기업’ 혹은 ‘유업’의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생’ 혹은 ‘구원’을 가리키게 된다.²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로서 ‘기업’이 갖는 의의, 그리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바로 그 언약의 맥락 속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통하여 회복한 기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회년법과 근대법이 그 전제와 근본원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한다는 이상의 주장은 근대법을 기초로 구축된 오늘의 법현실에 회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근본에서부터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뿌리 깊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에, 근대법의 전제와 근본원리에 대한 전복적 회의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것은 근대법의 전제들, 즉 인간이 그가 속한 공동체 및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되고 단절된 개체라는 전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서서 회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즉 그가 속한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 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회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24) 마 25:34; 고전 6:10; 갈 5:21; 막 9:45-47; 10: 25-26 참조.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도모할 수 있는 희년법의 실천은 바로 그 전제의 ‘모방적 구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모방’이 의미하는 것은 희년법과 근대법이 그 본성상 서로 정합(整合)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만 법과 제도를 통한 타율적 구속을 통하여 현상적 혹은 결과적 차원에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통전적(統全的) 삶을 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이 자율적으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과 법의 형성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계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간 돌봄과 책임의 원리를 법과 정책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거나, 모든 경제활동이 이윤추구를 동기로 한다는 경제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거부하고 돌봄과 책임의 동기로 운용되는 다양한 대안적 제도들을 현행의 법질서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그 논의가 활력을 띠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연대와 책임을 핵심적 원리로 삼는 희년법이 구체적인 제도로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IV.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희년법 원리의 실천 가능성

1. 기본소득의 의미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 및 주기적으로 교부되는 현금으로 정의된다.²⁵⁾²⁶⁾ 기본소득의 목적은 ‘실질적 자유의 실현’에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²⁷⁾ 이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25)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 제시하는 정의이다.

26) 영국의 경제학자 조지 콜(1889-1959)이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기본소득의 철학적 체계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학자로서 필리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현진 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Philippe van Parijs.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서울: 후마니타스.

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급권이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그 조건으로서 노동 혹은 노동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다(파레이스·판데르보흐트, 2018: 31). 먼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급부가 제공된다는 개인성 혹은 개별성은 사회보장 제도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가구 내에서 자원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히 젠더 평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보편성과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개별성과 보편성, 이 두 개념은 기본소득이 시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120). 그밖에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의 하나로 정기성을 꼽기도 하는데,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급 간격 혹은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논자마다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²⁸⁾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수급자가 이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하에 구체적인 제도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본소득의 정의 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제도들도 있다. 예컨대,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²⁹⁾ 참여소득,³⁰⁾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³¹⁾ 사회수당³²⁾ 등은 일부 기본소득의 정의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편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소득의 개념적 특징들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와 구별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노동’과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은 과거 충분한 기간 동안에 노동을 통하여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되는 것이고, 현재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 혹은 노동의지를 조

28) 예컨대, ‘사회적 지분급여(social stakeholder grants)’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시금으로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9)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조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30)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활동들, 예컨대 자원봉사, 가사, 훈련 등을 하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1) 모든 시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32) 아동, 노인, 청년 등 생애주기의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으로 근로연계복지가 제공된다. 그밖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산 혹은 소득 수준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는 사회부조가 있다. 이들 노동을 중심으로 범주화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소득과 그 본질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충실하면서 실제로 제도화에 성공한 예는 바로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펀드이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그 결실로 1976년 미국 앨라스크아에서 ‘알래스카 영구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³³⁾ 이 알래스카 영구펀드는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지급되는 배당금 형태의 종신기금이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시민이라면 무조건 배당금을 받는다. 2015년에는 1인당 2,072달러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알래스카 주의 예에 비견할만한 제도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는 유의미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미비아,³⁴⁾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 브라질의 Bolsa Familie 등이 주목할 만한 예이다. 특히, 스위스에서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채원마련이나 이민자의 대량유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지만,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제도화의 가능성을 가시화하였다는 성과를 남겼다. 2017년에는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스코틀랜드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33)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낸 미국 공화당 출신인 Jay Hammond는 1970년대 중반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루도만(Prudhoe Bay) 유전을 주정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그는 석유 채취에서 발생한 엄청난 부가 현세대의 알래스카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말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해먼드 주지사는 석유수입의 일부를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보존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1976년 주 헌법을 수정하여 ‘알래스카 영구펀드’가 세워진 것이다(파레이스·판데르보흐트, 2018: 217-8).

34)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 성과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8년 1월부터 오미타라와 오토지베로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단 1년만에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였고, 영양실조 아동 비율이 42%에서 17%로 줄어들었다.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비율이 한 달에 12회에서 6회로 감소하였고, 빈곤 관련 범죄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평균 267달러에서 308달러로 증가하였고, 특히 5분의 분배율에서 가장 극빈한 20%의 계층은 기본소득 급여를 제외하고 측정한 평균소득이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143-4).

2.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것이 그 보편성 및 무조건성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이것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셋째, 이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논제는 주로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문제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논제는 앞서의 것과 연결되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논제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라는 선명한 원칙 앞에서 기본소득을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노동윤리’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화는 ‘노동과 소득의 관계’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로 인하여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계가 약화됨을 우려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통하여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계를 끊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과 소득의 관계 문제를 규명하는 일은 철학, 정치, 경제, 신학 등 여러 차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노동윤리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배경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최근 기본소득 제도가 주목을 받는 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이래 산업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인간의 노동이었다. 생산이 중심이 되었던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이것은 부가 축적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은 찬미의 대상이 되고, 게으름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근면한 노동은 다른 한편 종교적인 미덕이기도 하였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경제사회사상에서도 기독교적 노동윤리는 매우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칼빈의 노동관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정세열, 2016: 43). 또한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하여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된다. 인간의 노동과 임금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결한 것은 중세신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이면에는 실업을 사회악으로 인식하고,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비약적 기술혁신이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고용과 실업에 미칠 효과, 즉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하여 저숙련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 숙련 노동까지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³⁵⁾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노동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은 일찍부터 존재했었다(Jeremy Rifkin, 1994). 물론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단기적인 노동력 대체효과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오히려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궁극적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정혁, 2017: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노동의 의미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상품화된 노동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었지만,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창출된 가치가 분배되는데 있어서도 노동력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드는 반면, 대중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활용한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몫이 집중된다는 것이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37-9).³⁶⁾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치의 생산 및 분배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단지 일시적·경기적(景氣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기적·구조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35)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함으로써 2010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겠지만,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WEF, 2016: 13).

36)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로운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가치’와 ‘노동’ 사이의 연결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노동’과 ‘소득’의 연결성도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과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즉 노동에 소득이 상응하지 않는 상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노동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양적 감소 뿐 아니라 생산양식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노동의 시간과 장소가 탈집중화되고 노동과 비노동간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노동관계가 유연화되고 노동자간 연대와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54). 근대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 균형이 깨어지고 자본은 노동자의 동의와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국 노동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결정되는 임금 내지 소득은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되기 어렵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은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하는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최근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주장과 실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희년법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제도의 의의

희년법의 원리인 공동체적 관계성과 연대의식은 복지국가의 핵심가치와도 맥이 닿아 있다. 복지국가의 핵심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인데, 즉 자유에 대한 권리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연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상호책임을 위해 집단적 자기이익의 관점을 초월하고, 연대적 재정충당방식을 선호하며, 경쟁보다 협동, 권리보다 의무, 개인보다 공동체, 자조보다 의타심을 강조한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50). 한편 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있어서 그 중심적 지위를 상실한 오늘날, 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복지체계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기존의 복지국가는 노동과 연계된 복지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을 구분하여, 전자의 집단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

혹은 보장으로서의 급여를 제공하고, 후자의 집단에게는 노동집단으로부터 마련한 재원에 의존하는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온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 탈정형화, 개인화 등의 현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화·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대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방식과 생산양식에 있어서,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노동윤리’는 더 이상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성에 비추어 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회년법의 기초는 바로 자격을 묻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유업 혹은 기업에 있다. 이것은 회년법의 초기조건이 되며, 회년법의 내용이 되는 규범들도 전반적으로 이 유업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회년법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소득 제도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화는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회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유업이자 선물로서 주어진 공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여지가 생긴다. 언약공동체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땅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이지, 노동한 자에게만 혹은 노동한 만큼만 부여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오늘날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노동에 대한 무의지 혹은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일하고 싶어도 혹은 일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별, 나이, 재산, 장애 등 모든 조건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업의 계승자가 되고 공동체적 돌봄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회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 이 정신에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년법의 돌봄의 정신이 비단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국한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며, 이에 근거한 유업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의 정신은 공동

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비단 성경, 특히 회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도입의 주장 근거로서 인류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을 일부가 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언약백성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원에 대한 신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타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긍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노동의 의무, 특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삶의 근간이 되는 유업에 대한 지분이 박탈되는 그런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³⁷⁾ 유업에 대한 권리가 노동의 의무에 앞선다는 것이 성경, 특히 회년법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노동의 의무 혹은 윤리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반박하는 주장은 정작 자본가들이 노동 없이 자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일종의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설사 노동윤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부여되는 노동의 ‘의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차원에 존재하는 의무인 것이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이 박탈되는, 일종의 제재가 따르는 의무는 아닌 것이다.

V. 결론

회년법과 근대법은 그 전제와 근본원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는 본고의 논증은 근대법을 기초로 구축된 법현실에 율법과 회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었다 하겠다. 그간에 꾸준히 이루어진 성경적 토지제도를 제도화 혹은 입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도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묵도되는 법·제도 및 그 적용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성경의 회년법이 제시하는 혁명적 메시지는 오히려 그 전제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반환과 같은 회년법의 요구를 내용적으로 실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회년법의 전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및

37) 물론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유업을 박탈당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관계성’,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연대와 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년법은 그 제정자와 수범자, 그리고 수범자 상호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공동체적 연대, 책임, 돌봄을 규범화 혹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근대법이 그 전제에 있어서 회년법과 접점을 모색하기 어려울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대법에 정초한 이 시대의 병폐는 그 전제를 전복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법체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에, 그 상상력의 근본성과 개혁성에 있어서 회년법을 투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근대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구성원간 공동체적 연대성, 그리고 전인류의 공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상대성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 고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도,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근본적 상이 혹은 충돌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법체제, 특히 사회복지체제와 정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윤리와도 긴장이 발생한다. 이 또한 회년법의 제도적 실천이 주는 어려움의 한 가지 양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윤리 혹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연구, 동시에 이 시대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법체제가 근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대법의 원리로 구성되고 그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는 사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는 역사적으로 입증된바 있기에, 근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현대적 수정원리’가 각 법 분야에서 진지하게 모색된바 있으며, 이미 우리의 현실을 규율하는 많은 규범들에 이러한 새로운 원리들이 수용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계약자유와 원칙을 보완하는 계약공정의 원칙이고,³⁸⁾ 비록 사인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성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공법적 개입으로서 노동법, 소비자법,

38) 계약자유와의 관계에서 계약공정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권오승 (2006).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77면 이하 참조.

공정거래법, 임대차법, 거래공정화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대법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적 혹은 사법적 간섭을 통해 일정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근대법의 갖는 근본적 한계를 증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근대법의 전제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관계들, 특히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혹은 단절된 개체라는 전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서서 회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그가 속한 가족,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에 회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윤직 (2002).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 [Gwak, Y. J. (2002). *Civil Law*(7th Edition). Park-Young-Sa.]
- 권오승 (2006).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Kwon, O. S. (2006). *Market Economy and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교성 · 백승호 · 서정희 · 이승운 (2018).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 [Kim, K. S. et al. (2018). *Baisc Income Comes - New Imagination for Distribution*. Social Criticism Academy.]
- 김근주 외 (2012).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 [Kim, G. J. et al. (2012).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김병하 (2005). **희년 사상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 [Kim, B. H. (2005). *Spirituality of Jubilee Thoughts*. Dae-Han-Gi-Dog-Gyo-Seo-Hoe.]
- 김상용 (1995). **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 [Kim, S. Y. (1995). *Legal Thought on Land Ownership*. Min-Eum-Sa.]
- 김선종 (2011). 레위기 25장의 형성 -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 [Kim, S. J. (2011). Formation of Chapter 25 Leviticus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Sabbatical and Jubilee. *Jang-Sin-Non-Dan*, 40.]
- 김희권 (2004). 구약성서의 희년사상과 사회윤리적 함의. **신학사상**, 127.
- [Kim, H. K. (2004). Jubilee Thoughts in Old Testament and Its Socio-Ethical Implication. *Sin-Hag-Sa-Sang*, 127.]
- 김희권 (2005).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대한기독교서회.
- [Kim, H. K. (2005). *The Pentateuch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Theology 1*. Dae-Han-Gi-Dog-Gyo-Seo-Hoe.]
- 김희권 (2006).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2**. 대한기독교서회.
- [Kim, H. K. (2006). *The Pentateuch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Theology 2*. Dae-Han-Gi-Dog-Gyo-Seo-Hoe.]
- 김희권 (2008).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신 12-26)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Kim, H. K. (2008). Laws in Old Testament - Covenant Law(Exodus 20:22-23:33), Snactification Law(Leviticus 17-26), and Deuteronomy Law(Deuteronomy 12-26):

- Decalogue. *Beob-Hag-Non-Chong*, 19.]
- 남기엽 (2012). **희년과 한국사회**. 김근주 외.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 [Nam, G. Y. (2012). *Jubilee and Korean Society*.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박창열 (1999). 근대 자연권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47(3).
- [Park. C. Y. (1999). Modern Thoughts on Natural Right and Economy Liberalism. *Gyeong-Je-Hag-Yeon-Gu*, 47(3).]
- 박형준 (2018).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미래 1 -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 ecommons (지식공유지대. <http://ecommons.or.kr>).
- [Park. H. J. (201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Basic Income 1 - The History of Basic Income*. ecommons(<http://ecommons.or.kr>)]
- 성준호 (2014). 로마법상 ‘막대한 손해’의 성립과 발전 - 로마법에서 교회법에 이르는 폭리규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4(1).
- [Seoung, J. H. (2014).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normous Damage’ in Roman Law - With a Focus on Regulation of Profiteering from Roman Law to Cannon Law. *Gong-Gong-Sa-Hoe-Yeon-Gu*, 4(1).]
- 신현우 (2012). 신약성경에는 희년법이 없는가?.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 [Shin, H. W. (2012). Is't There Jubilee Law in New Testament?.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양희송 (2016). **이매진 주빌리**. 메디치.
- [Yang, H. S. (2016). *Imagine Jubilee*. Medichi.]
- 이영호 역 (1996). **노동의 종말**. Jeremy Rifkin (1994). *The End of Work -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서울: 민음사.
- 이종근 (1995). 토지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5.
- [Lee, J. G. (1995). Study on the Concept of Land Ownership - With a Focus on Historical Development. *Bu-Dong-Sanj-Jeong-Chaeg-Yeon-Gu*, 5.]
- 이종근 (1995). 히브리 성서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람 제도. **구약논단**, 1.
- [Lee, J. G. (1995). Jubilee in Hebrew Bible and Misharum in Mesopotamia. *Gu-Yag-Non-Dan*, 1.]
- 임태수 (1991). 희년의 의미와 그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상**, 35(11).
- [Lim, T. S. (1991). Meaning of Jubilee and Its Modern Application. *Gi-Dog-Gyo-Sa-Sang*, 35(11).]

- 장성길 (2012). 구약성경에 나타난 희년법.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Chang, S. G. (2012). Jubilee Law in Old Testament.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장진광 (1994). **희년과 복음**. 두란노.
 [Chang, J. G. (1994). *Jubilee and Gospel*. Duranno.]
- 정세열 (2016).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 종교개혁과 경제**. SFC.
 [Cheong, S. Y. (2016). *Dialogue with the Reformers - Reformation and Economy*. SFC.]
- 정진원 역 (2005). **성경이 말하는 땅 -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Water Brueggemann.
 (2002). *The Land -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 혁 (2017).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heong, H. (2017).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조규창 (1991). 로마법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6.
 [Cho, G. C. (1991). Influence of Christian on the Development of Roman Law. *Beo-Hag-Non-Jib*, 26.]
- 조현진 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Philippe van Parijs.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후마니타스.
- 지승원 (2007).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법률인**. 이문출판사.
 [Ji, S. W. (2007). *Lawyers, A Human Pursuing Meaning*. I-Mun-Chul-Pan-Sa.]
- Bunrside, Jonathan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 Oxford.
- Georgy, Henry (1981). *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 Gert Volschenk & Anereis van Aarde (2002). A Social Scientific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the Jubilee in the New Testament. *HTS*, 58(2).
- Jeffrey A. Fager (1993). *Land Tenure and the Biblical Jubilee - Uncovering Hebrew Ethics through the Sociology of Knowledge*. JSOT Press.
- World Economic Forum (WEF) (2016). *The Future of Jobs*.

논문초록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조혜신 (한동대학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즉 실업, 부채, 빈곤, 착취 등을 보건대, 이를 타개할 영감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회년법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회년법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좀 더 실효적이면서도 적실하게 우리의 법과 제도에 회년법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회년법은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로 그 수범자가 제한되며, 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부여받은 제정자와 수범자의 특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라는 관계성으로부터 그 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년법을 오로지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과 더불어 이 규범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책임의 원리를 함께 적용할 때 회년법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 앞서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바로 양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그가 속한 가족,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에 회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회년법은 그 제정자와 수범자, 그리고 수범자 상호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공동체적 연대, 책임, 돌봄을 규범화 혹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근대법이 그 전제에 있어서 회년법과 접점을 모색하기 어려울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대법에 정초한 이 시대의 병폐는 그 전제를 전복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기

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법체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에, 그 상상력의 근본성과 개혁성에 있어서 회년법을 투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근대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구성원간 공동체적 연대성, 그리고 전인류의 공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상대성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 고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도,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근본적 상이 혹은 충돌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법체계, 특히 사회복지체제와 정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윤리와도 긴장이 발생한다. 이 또한 회년법의 제도적 실천이 주는 어려움의 한 가지 양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윤리 혹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연구, 동시에 이 시대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회년법, 근대법, 모세오경, 언약, 토지소유권, 기본소득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관계 분석 :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Jesus Christ

최명민 (Myung-Min Choi)*

이현정 (Hyun-Jung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ractice of social work, which has developed from the West, has formed its orientation and practical guidelines in the context of the Christian world view from the outset. Related to theory of relationship, the key to social work practice, this study intends to redefine how we should view and relate to the other as the disadvantaged from a Christian ethics of the oth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circumstances of the others referred to as clients of social work in modern society and examines what perceptions and ethical positions have been made about them in modern philosoph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Particularly referring to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recognized as its ethical base on Christianity, this study explores social work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based on Levinas's ethics. Furthermore, as an ultimate alternative, this study develops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by analyzing ideas and practice of Jesus Christ in bible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s of the other. This study can provide concrete action guidelines for the practice of social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hristian spirit and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about relationships in social work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Key Words : ethics of the other,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Levinas, Jesus Christ, the disadvantaged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mmchoi@bu.ac.kr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hjlee2003@bu.ac.kr

2018년 07월 25일 접수, 08월 30일 최종수정, 09월 08일 게재확정

I. 서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원조과정의 기반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관계’는 사회사업실천이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실천개입의 ‘영혼’이자 ‘심장’이며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Coady, 1993).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직으로 규정되고 있다(최명민, 2011). 그만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관계가 차지하는 의미는 제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1:1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를 실천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 즉 일자(一者)와 타자(他者)의 만남과 그 관계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교육 커리큘럼 중 가장 기초적인 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실천론>에서도 ‘관계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형성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자칫하면 과도한 개입으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항상 도움 받는 사람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이 가능한 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양옥경 외, 2010: 140-141).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윤리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간의 긴장, 클라이언트 알 권리와 자기결정, 고진된 동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김기덕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의 이상적 형태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한 교과서 상에서도 한 쪽에서는 관계형성의 요소로 ‘전문적 권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한 쪽에서는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일정한 거리를 강조하는 내용과, 평등한 권력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철학적 기반에 설 명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최명민, 2011).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클라이언트라는 타자(他者) 또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데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서 타자란 나(一者)와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빈곤계층,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소수 인종, 이주 노동자와 난민, 도시 철거민 등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주류나 사회복지사가 속한 집단과는 다른 문화, 계층,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나(우리)’라기보다는 ‘나(우리)와는 다른 낯선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화와 전 지구적 이동 현상에 의해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 했던 이질적 존재와의 조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상이한 태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세시대부터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서양철학에서도 타자에 대한 관심은 타자윤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관점이 존재한다. 단, 이러한 타자윤리학에서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에 대한 관심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에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 타자윤리학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했던 예수의 말과 행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모범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에서부터 발달해온 사회복지실천은 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그 지향과 실천적 지침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예수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을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타자윤리 차원으로 접근해 본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우선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로 지칭되는 우리 시대의 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대철학에서 이러한 타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윤리적 입장이 주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타자윤리학자로 지칭되는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타자윤리의 함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

의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실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타자윤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한층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현대사회에서 클라이언트의 위상 : 타자로서 클라이언트

역사적으로 타자, 또는 이방인은 환대와 수용의 대상이기보다 경계와 배제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류애와 인권이 강조되고 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속성을 관통하고 있는 학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타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바우만(Bauman)은 근대성이 갖고 있는 성질을 고체적(solid) 특성과 유동적(liquid) 특성의 혼합이라고 보았는데 후기근대로 갈수록 자본의 힘에 의한 세계화와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고체적 속성이 약화되고 유동적 특성이 증가하는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 기획과 실행, 예측 가능성, 사회적 연대와 결속과 같이 견고했던 사회적 속성들이 용해되면서 무질서와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개인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는 시대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일수 역, 2005). Beck은 이런 현대사회의 속성을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홍성태 역, 2014).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따라 사회구조가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견고한 결속이 점차 약화되고 노동을 중심으로 통제되고 운영되던 사회는 소비중심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생산자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보다 소비자로서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고체근대사회에서 중시되던 집단의 규범이나 규제가 희미해지고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을 지지해 주고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 주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급속히

유동화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혼란과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오히려 매뉴얼과 절차가 강조되며 감시와 감사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윤리의 약화, 수단과 절차의 강조에 따른 성찰성의 약화로 인하여 윤리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규범성이 쇠퇴한다. 따라서 공공성, 사회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무거운 담론보다 가벼운 가십이나 유명인의 사생활과 같은 이슈들에 화제의 중심이 되곤 한다(이일수 역, 2005; 김기덕·최명민, 2014).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나 이방인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설 자리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중심의 사회가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구매능력을 갖추지 못 한 이 사회의 타자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들도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통해 노동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홍지수 역, 2013: 127).

그러므로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연대 책임과 사회복지적 접근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미 어떤 공동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회복지지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공동의 윤리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조차도 성과와 효율성에 내몰리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 이러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는 경우는 이들이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나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때이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는 사회복지조차도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위험발생에 대비한 통제와 관리 위주의 방어적 실천에 경도되기 쉽다(Webb, 2006; 최명민 외, 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강제적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처럼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를 환대하고 수용하며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다. 결국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들은 더욱 구분지어지고 배제되며 사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급속도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운

영의 원리로서 경쟁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낯설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이나 난민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 등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시대적 특성 때문에 타자윤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고 무거워지고 있다. 이제 어떤 경제적 논리나 합리적인 논거로 이들의 존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댈 곳은 그런 논리나 합리가 아니라, 영성에 기초한 도리와 윤리이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타자윤리가 어떠한 기반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Ⅲ. 타자윤리학과 기독교적 타자윤리학

1. 타자윤리학(the ethics of the other)

근대철학의 인식론은 표상(表象 vorstellen, representation)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상이란 어떤 차이들이 ‘동일한 하나’의 지평에 귀속된 것으로서 이 표상에 따라 보편 범주나 원칙이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된다(서동욱, 2011). 따라서 표상활동에 따라 원래는 단순히 ‘다름’에 불과했던 ‘차이’에 좋고 나쁨과 의 의미가 부과되고 그 우열의 ‘정도(程度)’가 정해지게 된다. 그 결과 동일성은 정상성(normality)으로 규정되는 반면 동일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들은 ‘비정상’으로 인식되어 동화 또는 배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근대 철학은 다름과 차이 가운데 특정한 것을 ‘중심’, ‘보편’, ‘다수’,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하여 절대시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독자적 존재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나, 우리, 남성, 백인, 자국민, 이성, 주체, 서양 등은 보편과 중심에 서게 되며 너, 너희, 여성, 유색인, 이방인, 감성, 대상, 동양 등은 수동적, 의존적이거나 중심에서 파생된 소수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김기덕, 2016).

이와 같이 자율적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전근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려 했던 모더니즘은 이러한 해방 추구가 다시 억압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타자윤리(학)(the ethics of the other)는 바로 이러한 근대 인식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인식론이 갖고 있는 고립된 개인과 ‘나’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천적 억압성과 비윤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김유동 역, 2011).

그런 측면에서 타자윤리는 다름과 차이의 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동일성(identity)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근대철학이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와 다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배제해왔다는 반성과 비판의 산물이며, 다양성(diversity)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대안적 사고를 모색해 보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윤리학에서의 주요 관심은 ‘타자와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타자와 자기는 서로 간에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태도와 실천이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타자에 대한 접근을 인식론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나와 분명하게 다른 저 이질적인 존재가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타자의 존재이유와 그 정당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이질적인 존재를 나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결국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존재에 답해야 하는 철학의 차원의 접근이라고 하겠다(김기덕, 2016).

이러한 타자윤리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유대주의 윤리학자인 에마뉴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를 들 수 있다. 그의 철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그는 타자의 존재는 우리 인식에 의해 충분히 파악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질적인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형제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양명수 역, 2000; 강영안, 2005).

레비나스 외에도 리쾨르(Ricouer), 왈쩌(Walzer), 데리다(Derrida), 호네프(Honneth) 등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타자윤리의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리쾨르는 너와 나 사이의 호혜성 또는 상호성을 강조하며 타자를 친구로 규정하는 데에 비해(김응권 역, 2006),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왈쩌는 타자를 이교도로 간주하며 관용을 강조한다(송재우 역, 2005). 해체주의 탈근대론자인 데리다는 서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자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손님으로서 환대할 것을(남수인 역, 2004), 그리고 비판이론가인 호네프는 타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문성훈 역, 2011). 각 학자 별 타자윤리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¹⁾

1) 이 표는 김기덕(2016)에 의해 작성된 표를 저자 동의 하에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것임.

Table 1 Comparisons of key concepts and emphasis by ethics of the other scholars

Scholars	E. Levinas (1906-1995)	P. Ricoeur (1913-2005)	M. Walzer (1930-)	J. Derrida (1930-2004)	A. Honneth (1949-)
Images of the other	family member, sibling	friend	pagan	guest	member
Meanings of the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reature that makes me a transcendental self with the face of pain • An infinite being out of control or pos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necessary for my good life • A broad-breaking vehicle that makes oneself's abilities r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erson who wants coexistence with totally different identity, lifestyle and living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in me, forming my identity, seeking coexis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s fighting for equal treatment • A person seeking approval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mphasis of ethics of the other	responsibility	reciprocity	tolerance	hospitality	recognition
The practice toward the other /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the other, and responsibility is the sacrifice of oneself • Highlight one's active acceptance of passive the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arding self and the other as an equal being capable of judging behavior • Includes consideration for the other starting with respect for oneself • The other's help and institutional life are needed to realize one's 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ider the other as the subject of tolerance on the premise of self-contradiction between self and the other • Tolerance increases internal equality among individuals • The other is an object of coexistence, but not recognition, but something outside of one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erance presupposes a desire for control and ownership, responsibility assumes a sense of guilt and sacrifice, while hospitality presupposes equality • The tension of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hospit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other is an active being that shapes identity and self-consciousness from outside • Oneself grows up, resisting the intervention and evaluation from the other, creating one's own identity and self-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Limit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lateral responsibilities can be dispensations by sub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lacement and supplementation are needed when the proposed ina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is abs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erance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coexis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hospitality is insufficient, conflict resolution is required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레비나스가 타자윤리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타자 윤리학은 기독교적 타자윤리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적 사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기독교적 타자윤리 :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

레비나스 이전에 서구 철학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마주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화해 왔다. 따라서 ‘타자’는 이방인이나 주변인과 같이 배제나 배척의 대상으로 취급되곤 했다. 그러나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는 자기중심적 판단과 구별을 뛰어넘는 무한(無限)한 존재이며 주체와 타자의 올바른 관계는 이러한 ‘타자성’을 보존하는 관계이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주체에 의한 타자의 인정은 타자를 이해하거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정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타자란 나와 단지 ‘다른 존재’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타자의 존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목적론적 존재이지,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김연숙, 2001: 191-192; Harmonie, 2018). 따라서 타자의 다름에 대한 인식과 인정 없이 외부 세계를 한낱 사유의 대상으로 보고 자아의 범주로 가져와 자신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몰두하는 주체는 동일성의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임순미, 2001: 47).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자기중심적 ‘시선’ 개념과 상반된 타자의 ‘얼굴visage’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얼굴은 눈, 코, 입이 위치한 신체 부위라기보다는 주체가 자기를 나타내는 통로이자 타자와 자기를 관계 짓는 상징이다. 따라서 대면(對面)은 주체 간의 만남이며 타자의 얼굴에 드러난 호소는 신(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나 절대적 명령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우리가 신의 계시를 해석하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타자의 입장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다. 이렇듯 스스로 호소하고 표현하는 얼굴과의 만남은 주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레비나스는 특히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신’은 타자의 고통스러운 얼굴 속에서 타자의 생명과 복지, 안녕을 위해 우리의 무한한 책임을 요

청한다. 여기서 타자란 성서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또는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데 이처럼 고통 받는 타자가 호소할 때 우리는 마치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할 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 타자의 얼굴은 타자가 내게 보이는 대상으로서 수단화할 수 대상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명령이자 윤리성을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구미정, 2017; 시시한 삶의 자리의 영광, 2018; Harmonie, 2018).

레비나스가 이처럼 타자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의 변방인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지속적인 차별과 수용소 생활을 경험 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찌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하였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비극이 주체 중심의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자아 중심으로 윤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전체성의 사고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타자의 타자성을 제거시키고 주체 중심의 동일화 가능성만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연숙, 2001: 43-50). 이러한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제도, 유대인 학살, 제국주의적 침략과 같은 역사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타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아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성의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서양 철학의 ‘주체’의 견고함, ‘전체주의’, ‘동일성’의 폭력 등이 초래한 결과이다(이경화, 2007).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 윤리학을 제 1 철학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형이상학적이며 윤리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레비나스는 윤리를 ‘타자’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이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사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주체성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타자의 타자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헐벗고 고통 받는 모습으로, 또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의에 의해 짓밟힌 자의 모습으로 호소하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대신 짐을 지며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주체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강영안, 2005: 32-33).

3.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상은 신(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기독교적 타자윤리로 간주된다. 인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서 구현되는 모습이 타자윤리의 실천과 닮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원빈, 2010). 따라서 레비나스는 타자를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가족’이나 ‘형제’와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이는 다른 타자윤리학자들이 타자를 ‘친구’, ‘이교도’, ‘손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차별화된 것으로서 보다 친밀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바우만(홍지수 역, 2013)은 이와 같이 타인을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레비나스의 견해가 현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카인이 화를 내며 의문형으로 대답했다. “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알게 됩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윤리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이 화난 카인의 의문형 대답으로부터 모든 부도덕함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당연히 내 형제는 내 책임이다. 내 형제가 내 책임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지 않는 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내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내 형제의 안녕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내 형제의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갖는 순간, 그리고 카인이 그랬듯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내 책임을 저버리게 되고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의존성과 윤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홍지수 역, 2013: 120-121).

사회복지의 임무는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도움과 타인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실업자, 장애인, 병약자와 같은 이들을 돕고 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현실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목격하게 되는 일은 흔치 않으며 사회복지조차도 점차 성과와 편익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실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이들을 변화시켜서 노동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복지의 경제적 근거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바우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에 대한 책임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립적이지 못 하고 구매와 판매라는 소비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사회에 발 디딜 곳이 없으며 ‘의존’은 경멸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카인과 아벨의 일화를 통해 타인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임은 도덕성의 초석이며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도덕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복지와 경제의 순환적 논리로 사회복지의 정당성을

합리와 윤리 모두에서 찾을 수 있었던 지난 세기는 지나가고 이제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 윤리적 정당성만이 남은 셈이 되었다(홍지수 역, 2013).

이처럼 레비나스의 기독교적 타자윤리와 그에 대한 바우만의 해석은 현대 사회복지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서 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레비나스 중심의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사회복지에 주는 관계론 측면의 구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부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형제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효용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무조건 클라이언트를 돌봐야 할 윤리적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고통과 어려움에 민감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나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단편적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함부로 구분 짓거나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대상자 분류나 문제 분류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나 형태로도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타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타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받아들여지는 존재,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존재로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은 일방적인 시혜로 흐를 위험이 있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철학적 차원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의 구체적 대상과 장면에 대해 보다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지는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 보기 위하여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타자윤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V. 타자윤리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사회복지적 함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예수는 이처럼 그 사회의 소위 가장 소외된 이들을 자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어떤 타자윤리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로도 공생에 동안 항상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선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러나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 받는 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일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고통 받는 자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인격에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있으며 따라서 신성의 측면에서는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절고를 아시고 인간의 곤궁과 비참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릴 수 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고 특히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의와 성결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통렬한 고통과 슬픔, 고독감과 중압감을 경험하셨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련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인간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박희석 역, 2001: 168,172)

이처럼 예수는 타자를 돌보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타자윤리학의 모범적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고통 받는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열린 태도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고민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이자 이질적인 존재였던 타자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그 구체적 행적을 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변종길·신득일, 2008).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만나고 언급하고 상대했던 당시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다음과 같이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 그리고 장애인과 병자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의 행적은 크게 세 가지 일화로 구성된다. 첫째 일화는 예수께서 예수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사자들을 보내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자 하나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예수는 이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누가복음 9장 51~56절). 둘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어떤 율법인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묻자 예수는 강도를 만나 죽음의 지경에 이른 사람 곁을 지난 세 사람의 예를 든다. 그 중 첫째와 둘째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마지막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물으셨다(누가복음 10: 30-37).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환자 열 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 깨끗함을 받은 자 중 한 명이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에 예수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고 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7: 11-19).

이러한 일화는 먼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알면 좀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유대인과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서는 서로 교제나 결혼을 금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었다(신인철, 2017).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 마디로 유대인에게는 이질적일 뿐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의 타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이나 편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예수에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인들을 의인의 예로 들으로써 어떤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보이셨다. 이것은 두 번째 예에서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대비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을 피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표현하는 율법교사의 태도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해 형제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레비나스나 이교도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주장한 왈쩌의 타자윤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출신이나 소속 집단으로 구분지어 판단하거나 기존의 선입견을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탈피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행적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해 배제되고 낙인 찍혀온 사람들을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대신, 개별화된 고유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과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특히 이러한 예수의 사역은 이질적 문화와 존재를 접하는 다문화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겠다.

2. 세리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수차례 먹고 마시며 어울렸다(누가복음 5: 27-32; 누가복음 15: 1-2). 특히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일화에서 예수는 대중 앞에서 마치 일부러 보여주기가라도 하듯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누가복음 10: 1-10). 여기서 세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 취급을 당했던 그 시대의 ‘왕따’로서 대중으로부터 질시와 낙인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세리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꾸짖거나 그들의 삶의 모순을 직접 지적함으로써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우선 겸손한 태도로 그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러한 방식의 관계 맺기는 당시 시대 상황의 관습을 뛰어 넘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만큼 따돌림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에게는 강력한 위로를 선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타자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호혜

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리콴르(김응권 역, 2006)의 타자윤리적 주장과 맞닿아 있다. 결국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 친구로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비행청소년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이 소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여러 이유로 사회적으로 멸시와 소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대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이 때 삭개오에 대한 예수의 사역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유로든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며 ‘비심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의 사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받고 배척받는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에게는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대상이며 스스로 그와 함께 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한편, 삭개오의 일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를 경멸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며 스스로 안도하는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해 온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들의 친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계시다(누가복음 7: 34). 이는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 주는 위로와 관용의 메시지였지만 세리를 죄인취급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득권층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분 짓기나 편 가르기에 도전하면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모두가 사실은 다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우월의 논리가 결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러한 교훈은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소외계층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가져오는 기존관념이자 이런 관념을 갖고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만심과 허위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여인들

예수는 공생애 동안 많은 여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지를 세

워주셨다.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하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누가복음 7: 11-17),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의 발을 눈물과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성을 비난하자 예수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옹호하며 죄를 사해주셨으며(누가복음 7: 36-50), 심지어 악귀에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등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도록 허용하셨다(누가복음 8: 2-3).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minority)라는 점에서, 기원 전 중동지방에서 여성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께서 여성을 대했던 방식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타자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결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셨고 향유를 부은 여성의 예에서와 같이 오히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남성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시며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듯 예수는 당시 권력자인 바리새인이나 소위 의인들보다 천대받고 홀대받던 사마리아인과 세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 편에 섰듯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층계 취급당하며 고통 받던 여성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진심과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또한 여인들을 당시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던 다른 남성들의 저항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비판과 억압적 태도로부터 방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는 특히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다. 호네트를 비롯한 최근 타자윤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의 진정한 실천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단지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성서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4. 장애인과 병자

성경에 기록된 38년 된 중풍병자, 맹인 바디매오, 지붕 타고 내려온 장애인, 손 마른 장애인, 18년간 구부리고 있던 여인, 혈루증 여인 등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은 다른 소외 계층들과 더불어 예수가 짧은 공생애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며 4복음서에는 이들의 치유 사역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이들의 문제는 예수의 사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들에 대해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장애와 병자에 대한 관점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와 질병은 신앙적으로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식되었으며(요한복음 9: 34), 사회·문화적으로는 정결에 관련된 율법 규제인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정중규, 2012). 그러므로 장애인과 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을 받고 태어난 부정한 자요, 율법에 따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과 멸시를 받는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의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선포함으로써(요한복음 9: 1-3) 장애가 죄라는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였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한센 병자를 고치실 때는 직접 손을 대고 치유하며(누가복음 5: 12-16) 그들과의 접촉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몸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와 행동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예수는 장애나 질병의 치유 행위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치유행위를 펼쳤으며(누가복음 5: 17; 누가복음 5: 12; 누가복음 17: 13) 치유 행위가 일어난 후에는 많은 경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격려해 주셨다(누가복음 8: 48; 누가복음 17: 19). 이는 치유 행위 과정에 있어 예수는 장애인을 단순히 고쳐야 하는 피동적 수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와 인격을 존중하였으며 당사자의 의지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당사자가 치유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 것임을 인지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정중규, 2012). 예수의 이러한 접근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이 지닌 강점과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는 치유 행위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수는 한센 병자 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 치유되었음을 인정받도록 하셨다(누가복음 17: 14).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그 시대에 있어 모세의 율법대로 한센병이 치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이었다(정중규, 2012). 이처럼 예수는 장애와 질병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으로 배제를 경험해 온 이들에게 타자에 의해 수용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목적임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인간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들, 그리고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에 대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척당하던 그 시대의 타자에 대해 예수께서 보여주고 전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예수는 학술적으로 타자윤리를 논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시대에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타자윤리의 실천 사례들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의 사역은 레비나스의 형제론 뿐 아니라 현대 타자윤리의 이상적 유형으로 거론되어 온 이교도에 대한 관용(Walzer), 손님에 대한 환대(Derrida), 구성원으로서의 인정(Honneth), 친구로서의 호혜와 우정(Rocour)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타자 윤리적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자, 즉 타자를 자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는 점에서 기존 타자윤리학자들보다 더 개방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취하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의 친구를 자처하셨으며 고통 받는 자의 짐을 흔쾌히 나누어 질 뿐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는 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귀한 존재로서 존경과 섬김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 상호적이고 동등한 관계에 있어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예수 는 인간 사이에서 우열을 구분 지으며 우월감에 젖어 있는 행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 스스로를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한 지위에 두고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돕는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평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와 열린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외적인 요소로 그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권력의 대소(大小)에 상관없이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며 가장 작고 낮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훌륭한 범례를 제시해 주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따르려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의 출신, 소속,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의해 차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람 자체와 그의 고유한 삶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신이 비차별적 태도를 취하며 타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편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지만 이와 동시에 편향된 인식을 당연시하며 타자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 역시 변화를 위한 실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자애로웠지만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의 모습은 이러한 당위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통 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옹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이방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에 대해서도 세상 기준과 달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예수의 행

적은 여러 형태의 일탈자를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의 책임에서 제외되어도 좋을 존재란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는 사회복지실천관계론에서 강조되는 ‘비심판적 태도’와 ‘수용’의 원칙과 맞닿아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다섯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를 대했던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강점관점과 임파워먼트의 구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적 태도로부터 방어해 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간과해 온 숨겨진 강점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셨다. 따라서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라면 클라이언트 역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다. 특히 사회복지적 개입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개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그 공을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돌리기보다 그 동기나 계기를 클라이언트의 노력과 의지에서 찾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임파워링(empowering)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적 타자윤리에 의한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침들이 다소 추상적인 인식론 차원이라면, 예수의 사역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침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들은 기존 사회복지실천 관계와 부합하면서도 더 정교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수의 실천은 기독교적 타자윤리 뿐 아니라 현대 타자윤리의 실천적 완성이자 사회복지전문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범(典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V. 결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옛 사람을 버리고 구원의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구체적으로 타자를 상대로 실천이 될 때에야 입증될 수 있다(이문선, 2006). 그만큼 타자와의 관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바울 역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강조하였다(고성삼 역, 2010).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며 그 주요 관계의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받고 기회를 얻지 못한 타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윤리적 태도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에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타자로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타자윤리가 가질 수 있는 함의를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토대로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과의 관계에서 타자윤리의 모범적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러한 일화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줄 수 있는 실천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예수의 삶이 현대 타자윤리가 제시하는 이상적 타자관계를 포괄할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실천적 지침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에서 논의되어온 기존 내용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철학적 기반으로 타자윤리를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관계의 기본 원칙을 보다 성경적으로 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타자의 위상, 그리고 그에 따른 태도와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는 타자 윤리학을 사회복지라는 현실 전문직에 응용한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타자 윤리학 연구를 첫째, 기존의 모더니즘 사상을 비판하면서 타자의 존재의미를 규명하는 연구, 둘째, 바람직한 타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탐구하는 연구, 그리고 셋째, 타자윤리학을 현실분야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현대 전문직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로 구분할 때(김기덕, 2016) 본 연구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 뿐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이를 직접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ang, Y. A. (2005). *Face of the other: Levinas's ethics*. Seoul: Moonji Publishing Co.]
- 고성삼 역. (2010). **목적이 이끄는 삶**.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 [Ko, S. S. (2010). *The purpose driven life*. Seoul: Timothy Press. Trans.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구미정 (201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탈북자-이웃을 환대하기. **현상과 인식**, 41(1/2), 30-51.
- [Koo, M. J. (2017). Where is the friend's home?: Being a neighbor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Phenomenon and Recognition*, 41(1/2), 30-51.]
- 김기덕 · 최소연 · 권자영 (201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파주: 양서원.
- [Kim, K. D., Choi, S. Y. & Kwon, J. Y. (2012). *Social Work Ethics and Philosophy*. Paju: Yangseowon.]
- 김기덕 (2016). **타자윤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 [Kim, K. D. (2016). *Ethics of the other*. 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A collection of Winter workshop.]
- 김기덕 (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7(4), 325-348.
- [Kim, K. D. (2015). A Study on implications of recognition paradigm for social 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4), 325-348.]
- 김기덕 · 최명민 (2014). 바우만(Bauman)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53-75.
- [Kim, K. D. & Choi, M. M. (2014). An Analysis of liquid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through Bauman's theory of modern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53-75.]
- 김연숙 (2001).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 [Kim, Y. S. (2001). *Levinas the Ethics of the Other*. Seoul: Ingansarang Press.]
-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Adorno, T. and Korkheimer, M. (1947). *Dialectic of enlightenment*.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im, Y. D. (2001). *Dialectic of enlightenment*. Seoul: Moonji Publishing Co. Trans. Adorno, T. and Korkheimer, M. (1947). *Dialectic of enlightenment*. London: Verso

Books.]

김응권 역. (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Ricouer, P. (1995). *Soi-meme comme un autre*. 서울: 동문선.

[Kim, E. K. (2006). *Soi-meme comme un autre*. Seoul: Dongmoonsun, Trans. Ricouer, P. (1995). *Soi-meme comme un autre*. Paris: Editions du Seuil.]

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Derrida, J. (1997). *De L'hospitalite*. 서울: 동문선.

[Nam, S. I. (2004). *De L'hospitalite*. Seoul: Dongmoonsun. Trans. Derrida, J. (1997). *De L'hospitalite*. Paris: Calmann-Levy.]

문성훈 역. (2011). **인정투쟁**.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고양: 사월의 책.

[Moon, S. H. (2011). *Kampf um anerkennung*. Goyang: Aprilbooks. Trans.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Munich: Grin Publishing.]

Harmonie (2018).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1): 그 안에서 엿볼 수 있는 그리스도 윤리. <https://blog.naver.com/sparkman7/220892704154>(검색일 2016.12.23.)

[Harmonie. (2018). Levinas's time and the other(1): A glimpse of Christ's ethics in it.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sparkman7/220892704154>(2016.12.23.)]

박원빈. (2010). **레비나스와 기독교 :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서울 : 북코리아.

[Park, W. B. (2010). *Levinas and Christianity : Modern philosophy in Christian theology*. Seoul : Book Korea.]

박희석 역. (2001). **조직신학 개론**. Berkhof, L. (1937).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Park, H. S. (2001).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oyang: CH Books. Trans. Berkhof, L. (1937).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Michigan: Eerdmans.]

변종길 · 신득일 (2008). **성경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양식.

[Byeon, J. G. & Shin, D. I. (2008). *A Guide to the Bible*. Seoul: The Bread of Life.]

서동욱 (2011).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Shu, D. W. (2011). *Difference and the other*. Seoul: Moonji Publishing Co.]

신인철 (2017). 신약성경 독자들을 위한 사마리아의 배경적 이해. <https://blog.naver.com/davidych0/220384742002>(검색일 2015.6.9.)

[Shin, I. C. (2017). Understanding Samarita's background for the readers of the New Testament.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davidych0/220384742002>

- (2015.6.9.)]
- 송재우 역. (2005). **관용에 대하여**. Walzer, M. (1997). On toleration. 진천군: 미토.
[Song, J. W. (2005). On toleratio. Jincheongun: Mito. Trans. Walzer, M. (1997). *On tole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시시한 삶의 자리의 영광 (2018). 쉽게 읽는 철학_에마누엘 레비나스: 부조리와 실존을 넘어, 타자성의 윤리학. <http://gloriousruins0203.tistory.com/582>(검색일 2016.6.24.)
[The glory of a dull life. (2018). Philosophy of reading easily_Emmanuel Levinas: Beyond absurdity and existence. Retrieved from <http://gloriousruins0203.tistory.com/582>(2016.6.24.)]
- 양명수 역. (2000). **윤리와 무한**. Levinas. E. (1982). *Ethics and Infinity*. 서울: 다산글방.
[Yang, M. S. (2000). Ethics and Infinity. Seoul: Dasangelbang. Trans. Levinas, E. (1982). *Ethique et infinity*. Paris: Fayard.]
- 양옥경 · 김정진 · 서미경 · 김미옥 · 김소희 (2010).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나남
[Yang, O. K., Kim, J. J., Suh, M. K., Kim, M. O. & Kim, S. H. (2010). *Social Work Practice*. Paju: Nanam.]
- 이경화 (2007). 성경적 맥락에서 살펴본 레비나스의 윤리학과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연구. **문학과 종교**, 12(2), 23-41.
[Lee, K. H. (2007). Reading Levinas's ethics in the biblical context and Levinasian reading of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Literature and Religion*, 12(2), 23-41.]
- 이문선 (2006). **그리스도의 새 생활**. 고양: 엔크리스토퍼CUP.
[Lee, M. S. (2006). *A New Life of Christ*. Goyang: AnChristopher CUP.]
-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Lee, I. S. (2005). Liquid modernity. Seoul: Gang. Trans.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임순미 (2010).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가치로서 '타자중심윤리-책임'의 적합성과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41-59.
[Lem, S. M. (2010). Suitability & implications of 'others-centered ethics-responsibility' as social value of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Korean Citizen Ethics*, 23(1), 41-59.]
- 정중규 (2012).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관과 교회의 장애인사업에 관한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Chung, J. K. (2012).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s about Jesus*

- Christ's Teachings and the Churches for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Rehabilitation Field Practitioner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최명민 (2011).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전문가-이용자 관계의 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실천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49.
- [Choi, M. M. (2011). *A study on the pre-modern aspects and alternative practices of the professional-user relationship in the filed of social work*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 collection of Autumn Academic Conference, 21-49.]
- 최명민 · 권자영 · 김기덕 (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8(4), 225-246.
- [Choi, M. M., Kwon, J. Y. & Kim, K. D. (2016).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4), 225-246.]
- 홍성태 역. (2014).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서울: 새물결.
- [Hong, S. T. (2014). *Risikogesellschaft*. Seoul: Newwave. Trans.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 홍지수 역.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서울: 봄아필.
- [Hong, J. S. (2013). *The Individualized Society*. Seoul: Bomapil. Trans.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Cambridge: Polity.]
- Coady, N. (1993). The worker-client relationship revisited.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32, 291-298.
- Webb, S. A. (2006). *Social Work in a Risk Society :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논문초록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관계 분석 :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중심으로

최명민 (백석대학교)

이현정 (교신저자/백석대학교)

서구에서부터 발달해온 사회복지실천은 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그 지향과 실천적 지침을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인 관계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로서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기독교적 타자윤리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관련 문헌고찰과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로 지칭되는 우리 시대의 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대철학에서 이러한 타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윤리적 입장들이 주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여러 타자윤리학자 중 기독교적 타자윤리학자로서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타자윤리가 주는 사회복지적 함의와 한계를 탐색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궁극의 대안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실천을 타자윤리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적 지침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한층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타자윤리, 사회복지실천관계, 레비나스, 예수 그리스도, 사회적 약자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Transformation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J. Calvin's reformation which started in Geneva and how it transformed the whole city. As the second generation of Reformation after M. Luther in Germany and H. Zwingli in Zürich, Calvin did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In this article, an investigation is made to see how he transformed Geneva together with Protestant Christians who came to that city from France. Many French Protestant (Huguenots) refugees brought their skills and know-how to Geneva. As pastors, teachers, lawyers, doctors, printers, watchmakers, goldsmiths, textile experts or bankers, they contributed greatly to the city's economic growth.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1685), Geneva once again became a safe haven for Protestants from France. They boosted the industries that Geneva became famous in the 18th century for watchmaking, banking and the manufacture of a type of printed or painted fabric. They also consolidated the city as a centre for art and science.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Reformation, Geneva was then called as the "Protestant Rome" and it grew especially as the global cent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transformation to Korean context are drawn.

Key Words : Calvinism, Reformation, Huguenots, Geneva, Social transformation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2018학년 교내연구지원 사업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2018년 06월 12일 접수, 08월 02일 최종수정, 08월 05일 게재확정

I. 서론

2017년은 교회개혁(Reformation) 500주년이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사실 ‘교회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Transformation)’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Huguenots)과 함께 제네바에 오기 전까지 스위스는 사실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특히 당시 제네바는 각종 범죄자들, 정치적 망명자들, 스파이들 그리고 선원들로 가득차 술 취함과 매춘이 성행하여 “유럽에서도 가장 냄새나는 도시(the smelliest city in Europe)”로 불렸다(Bloomer, 2009: 5). 칼뱅도 임종 며칠 전 남긴 유언을 보면 그가 처음 제네바에 왔을 때 이 도시는 “무법천지(Tout estoit en tumulte)”였다고 말하고 있다(Calvin, 1870: 892). 하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위그노들은 비록 난민들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및 전문적인 직업인들, 즉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어서 이들의 탈출은 프랑스 편에서 볼 때 고급인력의 고갈(brain drain)이었다(Treasure, 2013: 369-375). 제네바는 당시 인구가 만 명 정도였으나 칼뱅의 개혁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위그노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는 두 배로 급증했고 칼뱅의 직업 소명론 및 개신교 노동윤리 등의 성경적 세계관은 제네바를 놀랍게 변혁시켰다. 나아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가 1598년에 개신교도의 신앙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해 선포한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퐁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의해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들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큰 기여를 했다(Beaudreau, 2016;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칼뱅은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변혁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설교, 치리회(Consistoire) 및 법제정을 통해 영적, 도덕적 및 사회적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많은 어려움과 반발이 있었으나 마침내 괄목할만한 열매를 맺었으며 1559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를 창설하여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 기관은 나중에 콜레주 칼뱅(Collège Calvin) 및 제네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Graham, 1971). 그 후에 제네바가 “개신교의 로마(Protestant

Rome)”로 불리면서 성시화의 모델 및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결코 칼뱅의 사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제네바는 인구가 20만 정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28대 윌슨(T. Woodrow Wilson)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본부가 있었으며 이 건물이 지금은 유엔(UN)의 유럽 본부가 되었고 기타 국제기구들이 200여개나 있는 글로벌한 외교적 수도(diplomatic capital)가 되었다. 나아가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 화두로 제시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도 제네바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봉직한 후 은퇴했으며 그가 이끄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칼뱅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McGrath, 1990; 정성구, 1980; 김재성, 1997; 문병호, 2015 등) 그의 사상과 사역이 어떻게 당시 제네바를 변화시켰고(Bainton, 1985; Biéler, 1959; Bousma, 1988; Wallace, 1988; Benedict, 2009; 오덕교, 2005; 안인섭, 2015)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다(Bratt, 1964; McNeill, 1967; Reid, 1982). 하지만 칼빈주의가 당시의 제네바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킨 공헌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사역과 사상이 어떻게 그 당시의 제네바를 총체적으로 변혁시킨 동시에 현재의 제네바를 낳는데 공헌했는지 고찰한 후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칼빈주의와 제네바의 변혁

1. 역사적 배경

제네바의 역사는 블루머(Thomas Bloomer)가 말한 것처럼 폭력과 부패, 음모와 용기 등 다양한 요소로 가득차 있다(Bloomer, 2008: 103). 중세의 제네바는 이태리, 프랑스,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를 통해 유럽 여러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교차로이며 이태리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한 때 번영하여 메디치(Medici) 은행가들은 1422년에 이곳에 지점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무역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관

들도 많았고 상인들 외에도 제네바 호수의 항해자들, 정치적 망명자들, 범죄자들 및 스파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른 후 프랑스 왕이 무역의 중심지를 제네바에서 리옹(Lyon)으로 옮기는 바람에 제네바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Benedict, 2009: 2). 또한 16세기 초반 제네바의 교회들도 유럽의 다른 교회들 처럼 부패하여 주일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도박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크게 웃거나 소동을 벌이는 사람, 술꾼들, 좀도둑들,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및 간통을 범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가톨릭 사제들이 운영하는 사창가들이 성업할 정도였다. 이처럼 교회가 성결을 상실하자 영적 힘과 권위 그리고 리더십도 잃어버리게 되어 (Bloomer, 2009: 5) 제네바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네바의 독립을 추구했던 의회(Le Grand Conseil)는 1526년 2월 20일에 베른(Bern) 및 프리부르(Fribourg)와 동맹을 맺어 구 스위스연방(Alte Eidgenossenschaft)에 가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해 3월 12일에 스위스 다른 주들의 대표들이 제네바 의회에 모여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제네바는 중세시대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주교의 통치권을 박탈하여 영토 확장을 꾀하던 사보이(Savoy) 공작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처럼 16세기 유럽의 대부분은 여전히 각 지역마다 군주가 통치하였으나 제네바만큼은 독립을 쟁취하여 자치정부를 가진 도시공화국이 되었다. 나아가 베른이 1528년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후 여러 지역에 확대하면서 프랑스어권에는 파렐(Guillaume Farel)을 개혁자로 파송하였다. 파렐은 제네바로 와서 1532년부터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1535년 8월 26일, 제네바 시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개신교도시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가톨릭 미사는 금지되었고 성상들은 제거되었으며 대부분의 교회 재산은 몰수되어 이것으로 시립 병원을 세우자 가톨릭 공동체들은 제네바를 떠나기 시작했다. 예배는 단순화되었으며 모든 가톨릭 휴일들도 폐지되었고 매춘, 간음, 가무 및 주점들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어 프랑스가 사보이지역을 점령하고 베른이 뻘이 드 보(Pays de Vaud)를 통제하자 제네바 시민들은 성경에 따라 살기로 서약했다(Benedict, 2009: 3). 하지만 파렐은 혼자 모든 개혁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고 마침 칼뱅이 제네바를 방문하자 그의 동역을 요구하였다.

2. 제네바 1차 개혁(1536-1538)

1536년 7월부터 2년간 파렐과 함께 칼뱅은 제네바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비록 시민들이 정의롭게 살기로 맹세하였으나 분파가 생겨났고 의심도 있었는데 당시 칼뱅은 약관 27세였다. 가장 심각한 교회 정치적 갈등은 제네바와 동맹을 맺은 도시인 베른이 교회 예배에 통일성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령 성찬식에서 무교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파렐과 칼뱅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연기하였다. 결국 취리히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 시의회는 이것을 요구하였으나 파렐과 칼뱅은 부활절 예배에서 성찬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시의회는 이 두 개혁자를 추방하였다(McGrath, 1990: 98-100; Cottret, 2000: 129-131; Parker, 2006: 85-90; Wallas, 1988: 19-20; McNeill, 1967: 142-143). 그리하여 파렐은 너샤텔(Neuchâtel)로 갔고 칼뱅은 바젤(Basel)에 머물다 부쩌(Marin Bucer)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프랑스 난민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3. 제네바 2차 개혁(1541-1564)

1) 개혁의 목표와 세 방법

하지만 1541년 9월 13일,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의 요청으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당시 제네바는 가톨릭으로 돌이키려는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동안의 개혁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따라서 칼뱅이 다시금 제네바의 선임 목회자로 임명되자 유럽의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환영했으며 특히 프랑스의 많은 위그노들이 다시 제네바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칼뱅은 기존의 교회 및 사회질서가 무너져 진공상태에 있던 제네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총체적 변혁”이라는 실험을 감행했다. 도시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단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가와 신학자로서 성경적 원칙에 의해 정부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나아가 다양한 실제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실행에 옮겼다. 결국 그가 가졌던 비전은 제네바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의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었다(Benedict, 2009: 4).

블루머는 깔뱅이 추구한 개혁의 세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첫째, 복음을 개인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며 교회도 성경적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을 바로 가르쳐 올바르게 살고 권세를 가진 공무원들은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들 및 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삶의 모든 영역에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었다(Bloomer, 2008: 108).

이를 위해 깔뱅이 사용한 세 가지 중요한 개혁 수단이 있었는데 베네딕트는 이것이 설교, 치리회 그리고 법제정이었다고 말한다(Benedict, 2009: 5-7). 먼저 그가 강조한 것은 설교였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이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것이 개혁의 기초라고 믿었다. 따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그들이 이를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제네바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네바 교회법에 따라 세 군데 교구에서 세 명의 목사가 매주 26번 설교했는데 깔뱅은 주일에 두 번, 주 중에 세 번했다.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시의회는 1542년 말, 주일에 한번만 설교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1549년 10월에 그는 다시 주일에 두 번 설교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의 설교는 보통 한 시간이 넘었으며 원고를 사용하지 않았다. 비서가 그의 설교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549년 이전의 원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설교는 분명한 성경 주해와 더불어 당시 제네바 및 세계정세에 맞는 주제에 대한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제네바에서 25년간 사역하면서 약 4천 번 설교했으며 이것은 제네바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Benedict, 2009: 5).

두 번째로 깔뱅이 사용한 개혁 수단은 치리회였다. 그는 무엇보다 안정된 치리회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다시 제네바에 온 지 2주 만에 제네바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치리회가 들어있었다.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이 법은 1541년 11월 20일 주일에 승인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치리회는 12명의 목사들과 시의회에서 매년 선출된 12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 치리회는 이전에 이미 바젤에서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및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쩌가 시작했다가 실패했지만, 기독교 윤리를 어기고 성만찬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더럽히는 사람은 경고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성찬 참여를 금지시켰다. 또한 이 법은 교회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목사는 설교하고 성만찬을 집행하며, 교사는 신앙교육을 하며, 장로는 권징을 담당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직분이었다. 이러한 직분은 당시 가톨릭교회에는 전혀 없던 매우 혁신적인 제도였다(Ganoczy, 2004: 15-17). 시정부는 시민들을 소환하는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치리회는 교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었으나 집행권은 시정부에 있었다(Cottret, 2000: 165-166).

나아가 칼뱅은 가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제네바로 이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제네바는 바젤처럼 길드조직이 시의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던 것과는 달리 길드조직이 시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어 외국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제네바에는 점점 더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제네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공헌하였다. 칼뱅은 제네바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모든 가톨릭 관습들을 버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경청하며 소요리문답을 배워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성적 문란, 간음, 도박, 과도한 음주 또는 지나친 가무, 경제적 사기 또는 고리대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설교자들에 대해 무고한 혐담을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치리의 대상이었다. 치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회개할 경우 치리회 앞에서 훈계를 받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거나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수찬 정지를 당했다. 가장 심각한 치리는 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이는 시정부에 넘겨져 법적 처벌을 받았다(Benedict, 2009: 5-7).

세 번째로 칼뱅이 사용한 개혁 수단은 법률 제정이었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의 삶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회법뿐만 아니라 시에서 정한 법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왕국은 연결된다고 보았고 지상의 권세를 가진 기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여 참된 종교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칼뱅도 법을 전공했으므로 제네바 시의 법률 제정에 대해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었다.¹⁾ 가령 유아세례 시 아이들에게 성자의 이름을 부여하던 가톨릭 전통을 폐기하는 법률을 정하여 특정한 이름들-가령 엠마누엘(Emmanuel), 만성인(Toussaint), 십자가(Croix) 또는 주일(Dimanche)-의 사용을 금했다. 다른 법률은 가령 저속한 노래를

1) 칼뱅은 제네바에서 참정권 중 피선거권은 없었고 선거권만 가지고 있었다.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지 못하게 하며 도박을 허용하지 않는 주점 및 식당만 영업을 허가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부당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춤은 전면 금하였으며 기타 음란, 술주정, 방랑 또는 심지어 시간을 어리석게 허비하는 것과 허랑방탕하는 것도 금하였다(Benedict, 2009: 7).

그 외에도 1542년에 갈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용하던 예배모범을 참고하여 제네바 “교회의 기도 및 찬송 규범(*La Forme des Prières et Chants Ecclésiastiques*)”을 출판했다. 그는 음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성경봉독을 지원하는 음악도 사용하길 원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마로(Clément Marot)가 만든 시편 찬송에 더 많은 찬송을 첨가하여 자신이 작곡하기도 했다. 1542년에 마로가 제네바로 오면서 19개의 시편찬송이 추가되었고 다른 난민이었던 부르조아(Louis Bourgeois)도 제네바에 16년간 살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Old Hundredth)’이다(Cottret, 2000: 172-174).

같은 해 갈뱅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서(*Catéchisme de l'Eglise de Genève*)도 발간했는데 이것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하던 부쩌가 1534년에 발간한 ‘성경을 설명하는 소책자(*Kurze Schrifftliche Erklärung*)’를 참고한 것이다. 반면에 그가 제네바에 처음 머물 때 작성한 요리문답은 주로 루터의 대요리문답을 참고하여 작성했는데 이 대요리문답은 주로 교육적인 목적에서 율법, 신앙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나중에 발간된 것은 신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과 기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Cottret, 2000: 170-171). 기타 제네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해 갈뱅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다시 쌓아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Bloomer, 2008: 109).

2) 치리와 반대 (1546-1553)

당시 제네바에는 가족에 대해 무책임하고 술에 자주 취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시의 무질서와 빈곤 그리고 부도덕성을 조장했다. 이에 대해 갈뱅은 가장은 먼저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및 모든 요금들을 성실히 납부하고 십일조를 하며 근검절약할 것을 가르쳤다. 일

(work)이 곧 예배(worship)이므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쳤다(Larson, 2009: 1-20; Höpfl, 1985).

하지만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546년경 방종주의자들이 점차 조직화되면서 영적 운동가들 또는 애국주의자들이라고 불렸다(Schaff, 2006). 그들은 주로 부유하고 정치력이 있으며 서로 연결된 제네바의 기득권층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교회법이나 시민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Cottret 2000: 185-186). 가령 1546년 1월말, 아모(Pierre Ameaux)는 카드놀이를 하다가 치리회와 부딪혔다. 그는 갈뱅을 “빠까르(Picard)”라고 놀리면서 제네바 시민들의 반프랑스 정서를 부추겼고 갈뱅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아모는 시의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시내를 걸어가면서 사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다(Cottret 2000: 187). 갈뱅을 다시 제네바로 데리고 온 빠랭(Ani Perrin)도 이 사건 이후 공적으로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브르(Françoise Favre)라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의 아내 및 장인은 치리회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법원은 빠랭과 많은 귀족들이 춤추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그를 소환했는데 처음에 그는 이 명령을 무시했다가 갈뱅의 편지를 받고 치리회에 출두했다(Parker 2006: 127).

1547년에는 제네바 시의원 다수가 갈뱅을 반대하기에 이르렀고 6월 27일에는 그가 설교하던 성 삐에르 교회당 설교단에서 서명도 없이 제네바 사투리로 적은 협박 편지가 발견되었다. 교회와 정부 양자에 대한 음모라고 의심되어 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그루에(Jacques Gruet)가 체포되었고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하자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결국 교회 지도자들을 음해하려던 범죄들을 자백했고 정죄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Cottret 2000: 190-191). 이처럼 방종주의자들은 계속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목회자들을 모욕하고 치리회의 권위에 도전했으나 시의회는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빠랭이 1552년 2월에 평의원으로 선출되자 갈뱅은 자신의 권위가 매우 약화된 것처럼 보여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반대파들도 갈뱅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Parker 2006: 139-145).

3) 개혁의 성취 (1553-1555)

삼위일체를 부인하던 스페인 출신의 의학자요 신학자이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가 제네바 시의회의 재판으로 1553년에 처형된 후 칼뱅의 개혁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으나 마무리하는데 2년이 더 걸렸다. 칼뱅은 치리회가 출교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러 혐의로 치리를 받던 베르텔리에(Philibert Berthelier)는 한 목사를 모욕하여 출교 당했으나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칼뱅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교회법을 재검토하여 칼뱅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베르텔리에는 항소하였고 당시 칼뱅에 대해 반감을 품던 의원들이 많았던 시의회는 판결을 번복하여 출교권이 치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자 목사들이 항의하였고 스위스 교회 전체의 의견을 구하여 결국 시의회는 치리회의 권한으로 유지하기로 재결정하였다(Cottret 2000: 195-198).

그 후 방종주의자들은 1555년 2월 선거에서 참패하였고 많은 프랑스 개신교 난민들은 시민권을 받아 칼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5월 16일에 방종주의자들은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시위하며 프랑스인들이 사는 집들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나아가 빼앗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었으며 그가 시청으로 소환되자 그와 일행들은 제네바를 탈출하였고 체포된 네 명은 처형되었다. 1557년 1월 베른과의 시민권조약이 갱신된 후 칼뱅의 개혁은 확고히 마무리되었다(Cottret, 2000: 198-200).

4) 가정 및 교육 개혁

당시 제네바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술 취하며 부정직한 가정들이 많았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빈곤에 허덕였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도시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뱅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여 가장이 먼저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우쳤으며 따라서 열심히 일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저축도 할 것을 가르쳤다(Bloomer, 2008: 109). 나아가 시민법정제를 도입하여 가령 아내에게 폭행하는 남편이 있거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있다면 이웃들이 판사가 되어 책임을 물었다(Bloomer, 2008: 110).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면서 부처가 슈투름(Johannes Sturm)을 초빙하여 세운 학교를 보고 깊이 감동을 받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가졌던 마지막 주된 관심은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개신교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 교육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여자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초로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면서 문맹률을 0%로 낮추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배경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가톨릭 사제의 중개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읽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다. 1558년 3월 25일에 학교부지가 선정되었고 다음 해 6월 5일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문법을 배우는 학교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는 학교로 나누어졌다. 칼뱅은 이를 위해 베자(Theodore Beza)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5년 이내 1,200명의 학생들이 문법학교에 등록하였고 300명이 고등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이 학교를 통해 이후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된 존 낙스(John Knox) 및 프랑스 개혁을 위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마침내 고등학교인 폴레쥬 칼뱅 및 제네바 대학교가 되었다(Ganoczy, 2004: 19-20; Cottret, 2000: 256-259). 이 두 학교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며 제네바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로 발전했다.

5) 구제 사역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매년 천 명 가량 제네바로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위해 많은 구제 사역을 하였다(Van Halsema, 2007: 238-239). 먼저 그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시의회를 설득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하면서 의복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사설 복지 기금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알려진 것은 칼뱅이 깊이 관여했던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이다. 이 기금을 통해 그들에게 임시 거처, 의료 지원, 직업 재훈련 그리고 식량 및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였다.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후에는 다시 이 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부와 고아, 장애인, 환자 및 매우 약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이상규, 2009: 177-199). 대부분의 서구 개신교 구제단체는 그 기원이 제네바에서 행해진 구제 사역이었다(Bloomer, 2009: 6).

6) 도덕 개혁

당시 제네바는 죄악과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주일 예배시간에 집에서 카드놀이를 한 사람, 교회 내에서 크게 웃거나 소동을 벌인 사람, 술꾼들, 좀도둑들, 싸운 사람들, 간통을 범한 사람들은 교회 치리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그리하여 술집은 문을 닫았고 그 대신 식당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먼저 기도하지 않은 손님은 음식을 받을 수 없었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았다(Van Halsema, 2007: 260-261). 이런 규율에 반대하던 일부 제네바 시민들은 갈뱅을 외국인으로 무시하며 그 이름을 ‘가인(Cain)’으로 적어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돔과 같던 제네바는 점점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어 갔다.

제네바의 법률은 매우 엄격했다. 법을 어긴 시민들을 처벌할 법률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물론 있었다. 갈뱅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유럽에서 처음 제정되었다고 한다:

“거리에 음식 찌꺼기나 분노를 버려서는 안 된다. 굴뚝이 없는 방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발코니에는 난간을 달아 어린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모들은 아기와 함께 침대에서 잘 수 없다. 집주인들은 경찰의 허가 없이 방을 임대할 수 없다. 보초병은 불침번을 성실히 서야 한다. 상인들은 정직하게 거래하고 상품에 과도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왕을 섬기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용병을 모집할 수 없다.” (Van Halsema, 2007: 294-295)

1562년의 기록에 의하면 14명이 제네바에서 처형되었는데 이중 세 명은 강간, 다른 세 명은 청부살인, 또 다른 세 명은 반복된 심각한 절도, 두 명은 납색, 다른 두 명은 마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위조 혐의였다(Benedict, 2009: 5-7). 이러한 도덕개혁은 결국 열매를 맺어 제네바의 도덕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고 따라서 낙스는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학교”라고 칭송할 정도였다(Knox, 1855: 240).

7) 경제 개혁

갈뱅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경제 분야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그는 부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창세기 2

장 15절의 주석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하나님
의 청지기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biblehub.com/commentaries/calvin/genesis/2.htm).
나아가 일과 예배를 구별하는 성/속(sacred/secular) 이원론(dualism)을 배격하면서 하
나님께서 부르신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공헌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신명기 23장 19-20절 및 에스
겔 18장 13절에 대해 설교하면서 사유재산 및 5%까지의 정당한 이자도 인정하였다
(Calvin, 1863-1900: 121). 그가 정한 이 이자율은 당시의 고리대금업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며 그 후 4세기 동안 스위스에서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스위스
의 은행업 및 경제가 번영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Bloomer, 2008: 109).

그는 경제 문제들은 구조적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
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구제를 의무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지
기 정신으로 제네바 사회를 조화와 봉사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
력했다. 이런 성경적 경제관은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현대적 자본주의와 분명 다르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보여준 자발적 나눔(행 2:44-45)의 사
회를 구현하려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깔뱅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해 부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는 이자
를 허용했지만 가난한 자에게 빌려 주는 경우에는 금했다(Calvin, 1871: 245). 또한 그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지주들, 귀족들 및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
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부나 지식 또는 자원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상호성(reciprocity) 및
연대성(solidarity)의 원리를 주장했다(Bousma, 1988: 201-203; Wallace, 1988: 127). 이러
럼 깔뱅은 기독교적 사회란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임을 강조했다.

당시 제네바와 왔던 개신교 난민들 중에는 섬유, 인쇄 및 시계 제조공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깔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제네바의 변혁에 큰 공헌
을 했다. 가령 그들 중 에스띠엔느(Robert Estienne) 및 바드(Conrad Bade)는 위대한
인쇄기술자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깔뱅의 고향 출신인 드 노르망디

(Laurent de Normandie)는 부유한 기업가였다. 또한 제네바는 ‘인디엔느(indienne)’라고 불리는 특수 섬유염색 분야에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1905년에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서구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개신교 윤리, 그 중에서도 직업소명설을 주장한 칼빈주의가 당시 개신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어 검소, 절약하면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기업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Weber, 1905). 깔뱅의 윤리관에 따르면 부자는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것은 정의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적게 소비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이 적절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베버는 이러한 깔뱅의 윤리관과 자본주의 정신을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 자본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본 축적과 일자리 창출은 개신교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지금도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 깔뱅의 영향을 받은 서구 개신교 국가들의 경제가 가톨릭 국가들보다 대체로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최용준, 2014: 172-175). 가령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스콜라 철학도 검약과 정직을 강조하고 나태와 고리대금업을 금지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면서 스페인, 아일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톨릭 국가들도 자본주의를 촉진하였으며 오히려 개신교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Sombart, 1913). 반면에 타우니(Richard H. Tawney)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발흥 간에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깔뱅이 죽은 후에 칼빈주의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므로 칼빈주의만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Tawney, 1926). 나아가 로버트슨(H. M. Robertson)도 자본주의는 실제로 개신교보다 훨씬 이전인 14세기에 이태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Robertson, 1933). 그 외에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5개국이 지난 20세기 말에 새롭게 발전시킨 자본주의 형태는 베버가 말하는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신유교 윤리’(the New Confucian Ethic)라고 하버드대의 투웨이밍

(Tu, Weining)은 주장했다(Tu, 1989: 81-97).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마르크스가 유물 사관을 주창하면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베버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동시에 유럽 자본주의사회가 가치상실 및 소외로 대표되는 불안한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의 기저에 있는 종교적 가치를 새롭게 지적함으로써 처방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공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맥그라스(Alister McGrath)도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와 기업가 문화에 적어도 새로운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McGrath, 1990: 253).

8) 사회 정치적 개혁

칼뱅은 당시 제네바가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예레미야 1장 9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당시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17.pdf) 또한 그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에서 명상하기 위해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회적 책임과 의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Calvin, 1961: IV, xiii, 16).

나아가 칼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개혁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보았기에 사회적 프로그램은 모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했다. 나아가 그는 마태복음 12장 7절을 주석하면서 신자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32.pdf).

당시 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해 칼뱅은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사회 질서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다. 노예제도에 관해서는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사악함에 관해서는 창세기 6장 4절 주석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01.pdf).

나아가 칼뱅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의해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으로 인권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주 양심을 어긴다. 따라서 양심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은 정치 제도란 우리의 양심이 발견하는 자연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이라고 본다. 그는 『기독교강요』 4권 마지막 20장에서 정부의 형태를 군주제(monarchy), 귀족정치(aristocracy) 그리고 대중정치(popular ascendancy)로 구분한 후 군주제는 독재의 위험이 있고 귀족정도 소수의 과벌이 생길 경향이 있으며 대중정치는 선동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귀족주의 혹은 귀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제도(aristocracy, either pure or modified by popular government)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왕들이 정의롭고 옳은 것으로부터 타락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항상 올바른 통찰력과 예민함 그리고 지혜를 가진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vi.xxi.html). 결국 여기서 그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부패하기 쉬운 절대 군주제와 교황제를 비판하면서 정치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적 공화정(republicanism)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제네바대학의 기독교윤리학 교수인 데어망쥬(François Dermange)는 칼뱅의 공화정 및 민주주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칼뱅에게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법이라고 강조한다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e-creators-command). 칼뱅은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규정이나 법 그리고 정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의는 십계명,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관한 두 번째 부분에 기초하며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황금률, 즉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도덕적 및 법적 정의의 기준이며 이 기준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신명기 17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절대군주가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것보다는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Calvin, 1863: 450-460).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프랑스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개신교도들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결국 데어망쥬는 칼뱅의 공화주의는 다음 세 요소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첫째 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다스리며,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 둘째 정부는 이 법에 종속되며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정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만 그 정부 구성원들을 선출하며 법의 의미의 근원(the source of the law's meaning)이 된다. 나아가 그는 여기서 갈뱅의 민주주의 사상도 발견한다. 즉 정부의 권력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헌법이 존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이 법을 집행하는 원리에 기초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e-creators-command). 이러한 사상은 후에 장로교 정치제도 및 근대 민주정치 제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²⁾

국가 및 정부에 관해서도 갈뱅은 중세 가톨릭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인간의 악행을 통제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라고 보면서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도 인정했다. 즉 악한 군주나 통치자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관리들의 법적 직무 수행과 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저항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신은 결국 스페인의 전제 군주인 필립 2세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1568-1648)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나아가 미국이 건국 당시 이신론(Deism)의 영향도 적지 않았으나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삼분하여 서로 조화, 균형 그리고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놓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³⁾ 또한 갈뱅은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분함으로써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교회의 독자적 치리권을 확보했으나 이단 방지 및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양자가 협력해야 함도 강조했다.⁴⁾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가톨릭정부와 달리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스위스의 연방제도(federalism) 또한 갈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도 퍼져 나갔다.

2) 이 사상의 영향으로 네덜란드는 1588년 세계 최초로 공화국(The Dutch Republic)을 세웠다.

3) 삼권분립을 18세기 미국 정부 제도에도 도입하여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을 도와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재무장관을 지낸 알버트 갤러틴(Albert Gallatin)도 제네바 출신이었다(Bloomer, 2008: 110).

4)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이 사상을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교회의 이원론적 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각자 고유한 권위와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Kuyper, 1880).

9) 문화적 개혁

칼뱅은 루터가 강조한 칭의 교리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화의 교리도 매우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더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문주의 교양교육을 통해 수사학, 자연과학, 미술 및 음악 등 학문 및 문화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학문은 신앙과 불가분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보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문화는 복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이원론을 배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교회법을 제정하여 가령 예배에서 음악의 가치도 존중하고 회복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의 기독교 강요 불어판은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당시 프랑스어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이런 칼뱅의 유산은 미국 청교도들의 생활 규범에도 깊이 뿌리내려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⁵⁾ 물론 현대 미국의 대중 문화는 이러한 전통을 점점 상실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테러와 금융위기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타임(Time)지가 “신칼빈주의(New Calvinism)”를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10대 이념들(10 Ideas Changing the World Right Now)”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html?iid=sr-link1).

10) 개혁의 마무리 (1555-1564)

칼뱅의 말년에는 더 이상 그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는 국제적으로도 저명해졌다(Cottret 2000: 235). 1555년에 그는 영국 메리 여왕의 지배를 피해 제네바로 온 개신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곳에 있던 낙스와 휘팅햄(William Whittingham)의 지도하에 그들은 자체 교회를 설립했으며 나중에 칼뱅의 개혁사상을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확산시켰다(Parker 2006: 170-172). 그러나 칼뱅은 프랑스의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져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책자들을 나눠주며 목회자들을 파송하였는데 1555년에서 1562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파송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제네바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5) 가령 미국의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에서는 아직도 주일에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갈뱅은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 1556년에는 아메리카 신대륙인 현재의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최초의 개신교 목회자인 뻬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를 포함한 14명의 선교단을 조직하여 파송하였다. 이들은 6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마침내 1557년 3월 10일 과나바라 만에 도착하여 첫 개신교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던 가톨릭신자들 사이에 신학적 갈등(특히 성만찬교리에 대해)이 일어나자 칼빈주의자들 중 4명이 잡혀 신앙고백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그 결과 “과나바라 신앙고백서(Guanabara Confession of Faith)”라는 신대륙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1558년에 작성되었다. 이것은 위그노 평신도들이었던 장 뒤 부르들(Jean du Bourdel), 마티유 베르뇌일(Matthieu Verneuil), 뻬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 및 앙드레 라 폰(André la Fon) 네 명에 의해 12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17개 조항으로 나뉘며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온 신앙고백서만큼이나 논리정연하고 나아가 신학적인 용어 사용뿐만 아니라 중간에 초대교부들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이 평신도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Gillies, 1976).⁶⁾

약 30년 만에 제네바는 완전히 변화된 도시가 되었다.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났으며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무엇보다 도시의 성격 자체가 새로워졌으며 그 결과 다른 도시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갈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동시에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타협하면 금방 무질서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도 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제네바가 정치적으로 신생 독립 도시국가였기에 길드조직이 강하지 않았고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였으므로 그의 영향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네바의 변혁은 한 개혁자와 적절한 상

6) 하지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네 명의 위그노들은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고 그 후 리시에 목사를 비롯한 제네바 선교단은 7개월 정도 머물다가 10월 말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시 선교단의 일원이었던 평신도 구두수선공 장 드 레리(Jean de Léry)가 “아메리카라고도 불린 브라질 땅에서의 여행 역사(*l'Histoire d'un voyage fait en la terre du Brésil, autrement dite Amérique*)”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쓰게 되어(1578년)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그곳에서 돌아온 리시에에는 라 로셸(La Rochelle)에 개혁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라 로셸은 한동안 프랑스 개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역사는 프랑스의 역사소설가인 장 크리스토프 루팽(Jean-Christophe Rufin)에 의해 “붉은 브라질(Rouge Brésil)”이라는 제목으로 소설화되었으며 그 후 영화로도 나왔다.

황이 만나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Benedict, 2009: 12-13).

11) 칼뱅 이후의 제네바

칼뱅의 사후에도 제네바의 변혁은 계속되었다. 가령 은행가였던 에이나르(Jean-Gabriel Eynard)는 칼뱅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 독립전쟁에 후원했으며 셀롱(Jean-Jacques de Sellon)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기부했다. 하지만 제네바가 지금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칼뱅과 그의 영향을 받은 뒤낭(Henri Dunant) 및 미국의 윌슨(T. Woodrow Wilson) 대통령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고 제네바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그랑장(Michel Grandjean)은 예리하게 지적한다(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nOLsQ/1-le-mythe-de-geneve-the-myth-of-geneva).

가령 뒤낭은 칼뱅의 영향을 받았으며 1862년에 『*Un souvenir de Solferino*(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Dunant, 2018)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했다. 또한 그의 주도로 체결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은 구약성경의 아모스서에 기초하여 전쟁에서도 정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특별히 전쟁 포로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물루즈(Mulhouse)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아동 노동을 반대하여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여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를 창설하여 제네바에 본부를 두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 대통령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을 주창하면서 그 본부를 제네바에 두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한 칼빈주의자로서 제네바보다 정의의 원리가 더 잘 구현된 곳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9년에 『*L'Esprit de Genève*(제네바의 정신)』이라는 에세이를 출판한 드 트라(Robert De Traz)는 제네바의 이런 독특한 면을 ‘신화(myth)’라고 부르면서 칼뱅 및 뒤낭 이외에도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고 주장한다(De Traz, 1929). 그는 루소 또한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공동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여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고 스위스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보았다.⁷⁾ 나아가 뒤푸르(Alain Dufour)

도 제네바의 발전에 대한 깔뱅의 공헌을 인정하며 같은 ‘신화’라는 표현을 썼다(Dufour, 1959). 이처럼 깔뱅의 영향으로 적십자사와 국제연맹을 통해 제네바가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곳으로 인정되면서 그 후 국제연맹 본부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럽본부가 되었고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라는 장점이 가세하면서 전 세계의 국제기구들이 제네바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 제네바에 본부를 둔 대표적인 기구들을 보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이 있다. 또한 정부 간 조직들(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도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이 있다. 기타 제네바 환경 네트워크(Geneva Environment Network)과 같은 단체 및 여러 NGO들도 이곳에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로렉스(Rolux), 오메가(Omega)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여러 시계 가공업체들이 제네바에 있으며 UBS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깔뱅 사후 제네바와 스위스 개혁교회는 한동안 분열과 부패로 리더십을 상실했고 18세기에는 볼테르(Voltaire)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루소의 낭만주의적 이신론이 지배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181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온 할데인(Robert Haldane)이 로마서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다시 영적인 큰 부흥(*Le Réveil*)을 일으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및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Bratt, 1964: 38ff)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불어권 국가들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21세기 현재 제네바는 개혁교회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어 다른 서구 도시들처럼 세속화된 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깔뱅과 그의 사상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의 제네바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7) 하지만 루소는 『사회계약론』 3부 17장에서 시민 종교를 다루면서 칼빈주의의 예정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큰 반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루소가 제네바에 공헌한 것은 깔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칼뱅의 개혁이 제네바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칼뱅의 사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었다(Leith, 2010). 유럽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이 작은 도시-국가를 하나의 개혁의 실험실 및 시범 프로젝트로 주목하면서 성경적 원칙 위에 한 국가가 세워지는 비전을 체험했다. 칼뱅은 설교, 치리 및 법제정을 통해 당시 제네바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통찰하여 성경적 원리와 더불어 실제적 적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교회 및 사회변혁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각 구체적인 이슈마다 그가 대처한 글들을 보면 그의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칼뱅의 개혁은 완벽했는가? 아니면 그에게도 약점들은 없었을까?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먼저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함에 있어 그도 다소 경직된 율법주의를 추구한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옷차림이나 여가 활동에 관해 매우 엄격했던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나아가 교회가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여 프랑스와 신대륙에 선교사들을 보내긴 했으나 타 지역 선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또한 칼뱅도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했으나 역시 목회자에게 다소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상대적으로 평신도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단지 한 명의 신학자가 아니라 제네바라는 도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개혁자였음은 분명하다. 단지 복음을 듣고 구원만 받으면 전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게 구속되어야 함을 가르쳤다. 나아가 그는 당시 개발된 인쇄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의 설교와 강의는 즉시 기록되어 출판된 후 일주일 이내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 개혁 운동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계속 배출하여 그의 사후 오늘의 제네바가 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칼뱅의 이러한 개혁사상 및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적용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모든 일에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Sola Scriptura*) 삼았다는 점이다. 성경 원어에 능통했고 성령의 조명도 강조하였고 나아가 성경적 경건을 실천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속적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나

아가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학자들은 이와 같은 갈뱅의 성경 중심적 세계관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신앙생활과 통합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한국사회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동시에 진정한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갈뱅의 개혁은 치리회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대 한국교회는 치리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지 교인 수자를 늘리는 교회 성장에만 치중하여 지금과 같이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한국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갈뱅은 단지 교회와 신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신중한 전략들을 세워 변혁을 추구했다(Bousma, 1988: 193). 그는 당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legislateur et roy*) 및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Calvin, 1961: IX, xiii, 16)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갔다. 이런 칼빈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신칼빈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주도했던 카이퍼(Abraham Kuyper)는 신학자와 목회자로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하고 자유대학교를 세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으며 기독교신문도 창간하여 언론 영역에도 진출한 후 기독교당까지 창당하여 수상으로 지내면서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깨어있는 분들이 성시화 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는 성숙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일 중심의 개인 신앙에 머물면서 사회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기독교정치인들 및 기독교정치학자들이 갈뱅의 법제정을 통한 개혁의 노력을 연구하여 한국의 후진적 정치 및 법제를 어떻게 변혁시켜야 할 지 깊이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갈뱅의 개혁을 통해 제네바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근대사에도 선교사들 및 민족의 선각자들이 개혁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인재

들을 배출하여 한국의 독립 및 근대화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고 기독교 학교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 저출산 및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불공정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기독교성인들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깔뱅의 총체적 변혁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변혁을 적극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비전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깔뱅은 타락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인식하였기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책임지는 청지기로 정직하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근면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 역시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진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수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보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재성 (1997).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Kim, J. S. (1997). *Calvin and the Foundation of Reformed Theology*,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문병호 (2015). **칼빈 신학: 근본 성경 교리 해석**. 서울: 지평서원.
- [Moon, B. H. (2015). *Theology of Calvin: Interpretation of basic biblical doctrines*, Seoul: Horizon Books.]
- 안인섭 (2015). **칼빈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의 사람**. 서울: 익투스.
- [An, I. S. (2015). *Calvin - A man of passion for God's glory*, Seoul: Ixthus Press.]
- 오덕교 (2005).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Oh, D. G. (2005). *History of Reformation*,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이상규 (2009).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출판부.
- [Lee, S. G. (2009). "Calvin and His Ministry for the Poor" *Calvin and Society*, Kosin University Press.]
- 정성구 (1980).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 [Chung, S. G. (1980). *Calvin's Life and Thought*, Seoul: SejongKos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통권 58호), 153-181.
- [Choi, Y. J. (2014).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research" *Faith and Scholarship*, 19(1) (No. 58), 153-181.]
- Bainton, R. H. (1985).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 Biéler, A. C. (1959).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eva.
- Bouwsma, W. J. (1988).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Univ. Press
- Beaudreau, B. C. (2016). "Calvinism, Huguenot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www.iceg.uniparthenope.it/Submission_files/Beaudreau.pdf (검색일 2017.10.06.)
- Benedict, P. (2009). "Calvin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eva", in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éd. Hirzel M.E. and Sallmann, M.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13.

Bloomer, T. A. (2009). "Calvin's Geneva: small city, big impact" HOPE magazine, Winter 2009.

_____. (2008). "Calvin and Geneva: Nation-Building Missions" in *His Kingdom Come: An Integrated Approach to Discipling the Nations and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edited by Jim Stier et al., YWAM Publishing. 103-118.

Bratt, J. H. Ed. Miller, C., Lagerwey, W., Strikwerda, E. (1964).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Calvin, J. (1870). "Discours d'adieu aux ministres" (28 avril 1564) (PDF), dans Calvin, J. *Opera quae supersunt omnia*, Brunsvigae, [puis] Berolini, C. A. Schwetschke ; New York ; London, Johnson Reprint [etc.], 1863-1900, t. 9, col. 891-894.d396qusza40orc.cloudfront.net/calvin%2Fmateriel%20semaine%201%2Fcalvin_1564_discours_adieu_ministres.pdf (검색일 2017.10.06.).

_____, J. (1863). "Sermon on the book of Deuteronomy" *Opera quae supersunt omnia*, C. A. Schwetschke, 27:450-460; on Dt 17.

_____, J. (1863-1900). *Sermon on Deuteronomy, 23:8-20, Ioannis Calvini Opera* in the *Corpus Reformatorum*, Brunswick. 28: 121.

_____, J. (1871). ed. E. Cunitz, J.W. Baum, E. Reuss, "De Usur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10.

_____, J. (196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London.

Cottret, B. (2000). [1995], *Calvin: Biographie* [Calvin: A Biography] (in French), Translated by McDonald, M. W.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Dufour, A. (1959/4). "Le myth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Revue suisse d'histoire*, 9, 489-518.

Dunant, J. H. (2018). *Un souvenir de Sofférino*, (Classic Reprint) (French Edition) Forgotten Books.

Ganoczy, A. (2004). "Calvin's life", in McKim, D.K.,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ies, J. (1976). *The Martyrs of Guanabara*. Moody Press.

Graham, W. F. (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 his socio-economic impact* John Knox Press.

Höpfel, H. (1985).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ox, J. (1855).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Johnstone & Hunter.
-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Larson, M. J. (2009). *Calvin's Doctrine of the State: A Reformed Doctrine and Its American Trajectory, The Revolutionary War,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Wipf and Stock.
- Leith, J. H. (2010).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ipf & Stock Pub.
- McGrath, A. E. (1990).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 McNeill, J. T. (1967).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Univ. Press.
- Parker, T. H. L. (2006). *John Calvin: A Biography*, Oxford: Lion Hudson plc.
- Reid, W. S. Ed. (1982).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Academie Books.
- Robertson, H. M. (1933) *Aspects of Economic Individualism: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Macmillan Co.
- Rousseau, J. J. (1762)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msterdam.
- Schaff, P. (2006). "§ 108. Calvin's Struggle with the Patriots and Libertine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III. Hendrickson Publishers, Inc.; 3rd edition.
- Sombart, W. (1913). *Der Bourgeois*,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 Tawney R. H. (1926)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Traz, R. de. (1929). *L'Esprit de Genève*, Lausanne, L'Age d'Homme.
- Treasure, G. (2013). *The Huguenot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Tu, Weiming (1989) "The Rise of Industrial East Asia: The Role of Confucian Values"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ej.lib.cbs.dk/index.php/cjas/article/viewFile/1767/1787.Van
- Halsema, T. (1981). *This was John Calvin*, Baker. 강변교회 청소년학교 역 (2007), 『이 사람, 존 칼빈』. 성약출판사 [Gangbyun Church Youth School. trans. (2007). Holy Covenant Press.]
- Wallace, R. S. (1988).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Weber, M. (2009).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naconda.

biblehub.com/commentaries/calvin/genesis/2.htm (검색일 2018.05.06.)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검색일 2018.05.07.)
www.ccel.org/ccel/calvin/calcom17.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32.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01.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32.ii.ix.html?scrBook=Matt&scrCh=12&scrV=7#ii.ix
-p35.1 (검색일 2018.07.09.)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e-creators-command (검색일 2018.05.10.)
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
html?iid=sr-link1 (검색일 2018.05.11.)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n0LsQ/1-le-mythe-de-geneve-the-myth-of-geneva (검색일 2018.05.12.)

논문초록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장 칼뱅(Jean Calvin)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교회개혁(Reformation)이 어떻게 그 도시 전체를 변혁(transformation)시켰는가에 고찰이다. 칼뱅은 독일의 루터(Martin Luther)와 스위스 취리히(Zürich)의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에 이어 대표적인 2세대 개혁자로서 제네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그와 함께 왔던 위그노들은 그들의 직업과 기술로 제네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낭트 칙령의 폐지(1685) 이후 제네바는 다시금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이들은 목회자, 교사, 법률가, 의사 시계제조, 은행가, 금속기술사 및 인쇄기술자들로 18세기 제네바의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공헌했다. 그 결과 제네바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 되었으며 “개신교의 로마(Protestant Rome)” 및 “언덕 위의 도시(the city set on a hill)”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시계제조, 은행, 인쇄 및 특수 섬유염색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제네바는 현재 국제기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글로벌 센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개혁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신교도들을 통해 제네바를 변혁시켰는지 그의 사역 전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지 고찰하겠다. 그 후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도출하겠다.

주제어 : 칼빈주의, 종교개혁, 위그노, 제네바, 사회개혁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 of the Christian World View

허은철 (Eun Chul Heo)*

Abstract

Value neutrality that is demanded in the field of history education in Korea and history textbooks ground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work currently as barriers when Christian history teachers give history lectures in their cla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history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s in Korea from the Christian viewpoint of the world grounded on the Bible in order to find out ways for teachers having a Christian viewpoint of the world to give lectures properly with those history textbook.

History textbook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a righteous view of the Christian world and information with statements included in them. But it does not mean they should describe history biasedly in the Christian viewpoint. If like current textbooks, they describe Christian events only based on facts or outcomes with no explanation about why it has happened, students may end up having misconceptions. In order to explain Christian events properly and get rid of any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biasness, when describing any Christian events, it is necessary to write a Christian view of the world briefly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y such events have happened unavoidably.

It is needed to provide historic distinctiveness associated with Christianity as well as explanation about general Christianity at least. A course should be set to describe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Christianity itself rather than religious biasness. If you avoid accurate descriptions about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to eliminate controversies related with religious biasness, it may rather result in arousing anti-Christianity sentiments and social conflicts, too. Therefore, above all, experts of history equipped with a systematic Christian view of the world should participate in writing history textbooks actively and describe related contents briefly but accurately.

Key Words : Christian viewpoint, history curriculum, history textbooks, history teacher, describing history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ec03@hanmail.net
2018년 08월 07일 접수, 08월 28일 최종수정, 09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8년도 총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I. 서론

역사교육의 목적은 그 관점에 따라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역사의식의 육성’, ‘교양으로서의 역사’ 등으로 다양하다. 아직까지는 역사교육의 목표인 역사적 사고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역사교육의 목표를 ‘역사적 사고력의 증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은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가장 상위의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적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판단력은 다시 말해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역사의식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교사의 역사의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 교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학생의 역사의식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에서 역사교사는 자신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수많은 역사교육계의 논쟁 결과로 밝혀진 것처럼 이미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역사교사가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 교사는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 맞춰 제작된 역사교과서를 따라서 역사수업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가치중립성과 더불어 역사교사가 역사수업을 전개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역사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치중립성과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기독교 역사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큰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가 기독교 세계관과 괴리가 있다면 기독교 역사 교사는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검토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어떻게 역사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독교 역사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 세계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관은 어떠한 것인지 밝히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틀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

의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3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검토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독교 관련 내용만큼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는지,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데올로기의 수단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역사교과서에서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며 심지어 반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학생들이 한번 학창시절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영향을 받아 형성한 세계관은 그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쉽게 수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한국의 역사교과서 검토 작업은 향후 역사교과서를 서술할 때에 기독교와 관련된 개념과 사실 등 사소한 오류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 태도를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II.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과 교육과정

1. 기독교 세계관에서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 요소로 신관, 역사관, 사명관, 윤리관 등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신국원, 2005: 45).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첫째, 중생한 인간들의 영적인 세계관이다. 둘째로는 중생자의 영적 관점이 결국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한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

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을 때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메시아적 사역을 하실 때부터가 ‘종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서는 신약 성도들의 관점은 결국 이런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관점일 수밖에 없다(이승구, 2007: 48-52).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필수 요건이며, 특히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 기초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골격인 창조, 타락, 구속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신국원, 2005: 45).

첫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창조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창 1:1),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창 1:26). 이 말씀(창 1:26)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먼저 인간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창조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창조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문화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며(창 1:28),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선한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관리자,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소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를 조작,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양승훈, 1999: 63-68).

다음으로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있다. 사탄은 뱀을 통해 하

와를 유혹하였고, 하와의 권함을 받고 결국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훼손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이에 숨은 것은(창 3:8) 하나님과 인간의 훼손된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롬 1:25)이 곧 우상숭배이다.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닮은 모습에 따라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그 분의 속성을 문화에 반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 이런 문화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탕자 문화를 만들었고, 바벨 문화를 형성했다(창 18장, 19장).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고 모의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의 이면을 보면 예외가 없이 우상숭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을 섬기던 계몽시대에는 이성을 우상화하였고, 현대 사회에는 과학기술이 우상이 되어 무신론적 과학기술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양승훈, 1999: 73-91, 196).

마지막으로 살펴 볼 요소는 구속이다. 구속은 피조 세계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되어 훼손된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인간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훼손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이란 말은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화해는 하나님과 범죄 한 인간의 화해이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화해를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9)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롬5:8).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

고(롬3:25),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갈3:13). 구속은 인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고, 재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구속을 통해 회복된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문화 추종자가 아니라 문화 형성자가 되어야만 한다(양승훈, 1999: 93-107).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에 내재한 큰 구속사적 흐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교사의 역사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은 창조사관, 섭리사관, 종말사관, 보편사관 또는 역사의 세계사적 성격,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직선사관,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의 지위 등의 여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들 외에 창조와 종말을 다루는 기독교 역사관의 성격과 연관되는 특징으로서 거시사관과 마지막으로 구속 또는 구원 사관을 들 수 있다(김봉수, 2003: 79-80). 기독교 역사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인 세 가지 전제의 이해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그 전제는 첫째, 먼저 역사의 動因을 하나님으로 보며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섭리사관)과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일직선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직선사관과 구원사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으로 역사에서 그가 계획하신 목표대로 이끄신다는 것(종말론적 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태경, 2002: 141).

베빙턴은 근대의 여러 역사관 유형 가운데 기독교 역사관을 유형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독교 역사서술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1) 하나님이 심판과 자비 같은 행위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며 2) 역사를 심판과 구속이라는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인도하시며 3) 자신이 계획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과정에 개입하신다는 점을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기독교 역사가는 이러한 믿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변증법적인 과업을 맡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학계가 기본적으로 나뉘는 전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기독교 역사가들도 충분히 기독교적 전체에 대한 확신에 근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섭리사관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다(이진모, 2005: 156-157).

기독교 역사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

고 계시는가를 인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 외에 역사의 변화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간섭하심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역사적 인물의 활동에 관하여 해석을 할 때,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을 유일한 기준과 척도로 여길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이외의 역사기록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에 명시된 원리를 가지고 일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시기와 진행과정은 아무도 알 수 없다(홍치모, 1989: 6-7).

2. 역사과 교육과정의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모든 교육과정은 특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특정한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들 즉, 무엇을 가르칠까,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할까,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등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정미, 2008: 1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규범에 따라서 문화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 받고 일한다.(Van Brummelen, 이부형 역, 2006: 63-64).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사 교사들은 하나님의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역사를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역사교육과 기독교 역사교육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가? 가장 큰 차이는 역사 교사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교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역사 수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역사교사의 역사관은 크게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 또는 세속적 역사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과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 세상의 역사는 일반사이다. 한편 구속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 사람들인 기독교인들은 일반사와 구속사 두 유형의 역사를 모두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지상의 도성 사람들은 일반사만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사와 구속사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김종희, 2013: 198). 로이 스완스트롬(Roy Swannstrom)은 이 두 유형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는 타락과 구속의 장대한 드라마요 다른 하나는 좀 더 국한된 사건 서술이다. 그런데 구속사의 입장에서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의 의미를 역사 외부의 어떤 근원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구속사는 문서상의 자료에 의해 제시된 평범한 역사적 증거의 영역 밖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의실 안의 역사는 증명 가능한 좀 더 현세적인 사건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Swannstrom, 홍치모 역, 1982: 64).

위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인 역사관은 관점이 상이하다. 기독교 역사관은 타락과 구속에 관한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역사관이 세속적인 사건 중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역사 밖에서 그 의미를 찾지만 일반적인 역사관은 역사 내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는 상이한 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하게 되지만 그 둘 사이의 위계는 분명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역사관을 아우르면서 역사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 둘은 분명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적인 역사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교육인 것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의 목표와 내용 체계의 큰 틀은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적 문서로 구체화 되어 있다. 그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다시 역사교사와 역사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통해 전수된다. 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역사학습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역사 교사이다. 역사교사는 자신의 역사관을 역사교과서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 교사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실현과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이라는 2개의 목표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의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의 방법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역사학습에 있어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학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식하고 역사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교사는 역사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수업의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이다. 뤼젠은 역사가 일반적으로 감각과 의미를 획득해 왔던 시간이라면, 이 획득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수단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내러티브를 역사적 내러티브와 일반적 내러티브로 구분하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3개의 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억을 동원한다. 둘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의 실제 경험을 인간의 의도와 기대감에 적응시킴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현재 생활과 연관되게 만들고 미래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한다. 셋째,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것의 발화자와 청취자들 간의 동질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 속에서 실제 생활의 방향을 찾게 된다고 한다(허승일, 2009: 276-279). 따라서 역사교육에서는 일반적인 문학적 내러티브와 구별되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와 다르게 내러티브에서 과장된 기대를 경계한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과 과학성 어느 쪽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자연과학의 규범적 설명이 한 쪽 끝에 있고 때로는 허구적 상상까지 동원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문학 내러티브가 다른 한 쪽 끝”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근, 2013, 124). 이러한 역사적 내러티브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역사교사의 세계관이 담기게 된다. 일반적인 역사관을 지닌 역사교사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자유와 평등, 권선징악과 같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담지만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자신이 의식 하든 의식하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독교 역사관을 담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적 내러티브 방식을 통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평가에서도 기독교 역사교사는 기독교 역사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평가 또한 세계관이 개입되는 활동이다. 학습의 평가를 위한 성경적인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가는 분류하는 기능을 넘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진단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형성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필 평가 외에도 다양한 수행을 활용한 다면적 평가를 적극 활용한다. 둘째로, 평가는 학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으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보다 나은 배움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교사에 의한 평가 외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동료끼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로 성경적 의미에서 평가는 상대적 비교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나를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성취목표로서의 준거를 분명히 하고 평가하는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로 성경적인 평가는 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결과성취를 위한 과정과 노력도 소중히 여기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이정미, 2008: 34).

역사교사가 평가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 교사가 평가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의미 없는 암기를 반복하고 기억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에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을 응용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탐구력을 키워주는 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은 역사 학습을 통해 역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에는 자신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며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사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브루타, 포트폴리오, 현장견학, 프로젝트 활동 등 여러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의 성취라는 결과뿐만 아

나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는 역사과 교육과정의 목표-내용-방법-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역사 내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정한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라는 틀 안에서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기독교 역사관으로 본 역사교과서의 논쟁점

1. 창조론과 진화론

학생들의 기독교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역사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수업에서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묘한 역사교과서의 서술태도는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갖게 하거나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역사수업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역사교과서상의 어려움은 단연 창조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이다.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그 성경의 첫머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사관이라 함은 역사해석에 있어 세상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처음 첫 장,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기억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인 세상의 시작 또는 창조와 관련해서 성경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의 맨 앞부분에서 이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 교리는 신자의 삶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김봉수, 2007: 43).

이렇게 분명한 창조 사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

다. 많은 기독교 역사 교사들이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에 대해 의심하지 않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역사교과서가 진화론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학교급 별로 역사 수업의 첫 시간에 다루어지는 인간의 기원과 관련하여 현재 역사교과서에서는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진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진화론에서는 그 기원을 우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과서인 2009 개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창조론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진화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약 39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인류 화석은 19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남방의 원숭이)는 직립 보행을 함으로써 문화 창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김덕수, 2014: 33).

(나) 인류의 진화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직립 보행을 하면서 인류는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되어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 약 390만 년 전 출현한, 최초의 인류로 분류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두 발로 서서 걸었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조한욱, 2014: 27).

(다) 인류의 출현과 진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이들은 15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완전한 직립 보행은 아니었지만 두 발로 서서 걷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김형중, 2014: 29).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3종에서는 위에 보는 것과 같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의 탄생을 기술하였다. 공통적으로 최초의 인류로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소개하고 있다. (나) 교과서는 이에 더하여 인류의 조상이 6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초의 인류’와 ‘인류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류 개념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라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으로’라는 코너에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 중 인간의 우수성을 밝힌 글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가장 야만적인 인간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동물보다 우수하다. 인간은 고등 동물 가운데 분포 지역이 가장 넓으며, 다른 동물들은 모두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에게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저자가 의도한 동물보다 인간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또는 ‘생각하는 힘을 가졌다’는 정도의 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으로 의도한 도구 사용 능력이나 사유 능력의 원천을 다시 학생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교사라면 지구나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한계를 밝히는 동시에 궁극적인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가), (나), (다) 모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한 추정일 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에서는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세상과 인류의 창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교사가 수업활동이나 보충 교재를 통해 학생 스스로 과학의 입장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입장이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이해주, 1998: 84).

2.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세계사에서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헤브라이인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기술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3종의 교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특히, 금성과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거의 일치하는 서술 형태를 보였다. 기존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재검토 없이 역사 서술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헤브라이인은 기원전 11세기경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웠다. 이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으나 곧이어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두 나

라로 갈라졌다. 헤브라이인이 창시한 유대교는 훗날 그리스교와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덕수, 2014: 40).

헤브라이 인은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1500년경에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뒤 부족 사이의 대립이 심해져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유대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헤브라이 인은 민족적 고난을 겪으며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이며, 훗날 그리스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형중, 2014: 38).

헤브라이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도착하였다. 기원전 11세기 말, 이들은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으나, 솔로몬 왕의 사후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유대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여 많은 주민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바빌론 유수, 기원전 6세기). 헤브라이는 민족적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며, 유대교는 그리스교와 이슬람교의 모체가 되었다(조한욱, 2014: 38).

헤브라이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며,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족 간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고 결국 멸망하여 바빌론 유수라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현재 그리스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세계사 서술은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무미건조하게 유대인의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을 단순히 부족 간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이유로만 언급하고 있어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서 부족 간의 정치적 대립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사실 위주로만 다루거나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역사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사건을 세상적인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교과서 저자들의 편향성 시비에 대한 우려 또는 기독교 세계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않고 모두 일반 역사의 논리로 풀어가

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나지 않고 세상적인 수많은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일어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단순한 사실로 또는 부족 간 대립이라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만 알려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3.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은 세계사에서 로마사 서술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로마사를 서술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역사는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학문인데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변화상을 서술할 때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지방의 주민들은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였다. 이때 등장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평등, 인간애를 설교하였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이후 제자들을 통해 제국 안에 널리 퍼졌다.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활동상을 담은 “신약 성서”가 편찬되었다. 로마는 개방적인 다신교 국가로, 속주의 다양한 종교를 차별 없이 수용하였다. 그리스도교도 로마에서 수용한 여러 종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로마는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 하여 거부하고 군대 복무를 하지 않아 그들을 박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교세는 더욱 확장되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313),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정통으로 정하였다(325). 이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392). 이후 그리스도교는 전 유럽에 전파되어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김형중, 2014: 71).

(나) 고대 지중해 세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 전통이 강하였다. 로마는 속주의 다

양한 종교를 수용하였는데, 그리스도교도 그중 하나였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구세주(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가 등장하여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을 주장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그 후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로마 제국에 널리 퍼졌다.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의 행적 및 편지를 모은 “신약 성경”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교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카타콤바이)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층민 중심으로 퍼졌던 그리스도교는 점차 상류층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313)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였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 분쟁이 일어나자 니케아공의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교리로 확정하였다.(325) 이어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392). 이후 그리스도교는 전 유럽에 전파되어 그리스 로마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조한욱, 2014: 68).

(다)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

고대 지중해 세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 전통이 강하였다. 그러나 1세기 중엽 유일신 신앙인 그리스도교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전파되면서 다신교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스도교는 초기에 로마에서 탄압을 받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공인되었다.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다른 종교를 금지시키고 그리스도교를 사실상 국교로 확정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서유럽에서는 로마 교회가, 동유럽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강력한 권위를 갖고 신앙을 주도하였다. 이후 로마 교회는 서유럽의 게르만족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동유럽과 러시아의 슬라브족에게 교세를 확장해서 이후 유럽 문화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김덕수, 2014: 71).

고등학교 세계사 3종의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다른 영역에 비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빠르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학생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신교적 전통을 가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에 대해서도 2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황제숭배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복무 거부이다. 황제숭배거부에 대해서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여겨질 수 있으나 군대복무 거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징병제 국가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만 기술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황제숭배 거부와 군대복무 거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도 (가) 교과서에서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그러한 영향을 받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편협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인 상황을 아울러 설명함으로써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각도로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 교과서는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교리를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히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정통으로 정하였다(325)’고만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였고,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을 인식하고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 교과서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본문 옆 날개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하여 학생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라는 파벌적인 논쟁 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개인적 인물에 초점을 두고 부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오히려 묻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적인 교리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교과서의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선동

가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였다.’로 기술하고 있다. (나) 교과서의 경우에도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선동가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고 기술하여 두 교과서가 대동소이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유대교 지도자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으로 폄하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십자가 지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고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기술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동떨어진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 교과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서술이 세계사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3종의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비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 그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 축소,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관련 내용에 대해 기존 역사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역사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한 역사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역사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전문가나 역사교사들이 역사교과서 집필과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활동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한국사 전체에서 불교나 유교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 한국 사회에 대표적인 종교임에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현재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축소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역사교과서에서 풍수지리설이나 도교와 같은 부분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기여한 내용은 1-2줄 정도로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1) 기독교의 선교활동

기독교는 공식적인 국가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며 조선정부는 기독교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다. 1884년 알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교육과 의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개화론자였고, 이들을 통해 서구의 문화가 한국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개항기 지식인들은 종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서양 문명의 발전을 기독교 덕택으로 여겼고, 서양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문화를 굳건히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종교’라는 현상과 그것이 갖는 큰 힘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중략)... 개항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만족하였다. 포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에 들어서였다.

개항기에는 순수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방편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서양인 선교사를 방패로 삼아 지방관의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민회의 조직적 거점인 상동교회에 모인 우국지사들처럼 교회를 정치적 보호막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회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는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김종수, 2014: 279).

금성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양적으로 많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먼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를 순수한 기독교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서양 문화로 인해서 또는 정치적 방편으로 수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의료와 교육에 헌신한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물론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편협한 시각이다.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은 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이 성장한 결과이다. 그러한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명 없이 개개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한국의 기독교 수용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 한국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왜 매료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달리 신민회의 조직적 거점이 상동교회였다는 것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 기독교 발전의 계기로 서술하고 ‘평양기독교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장대현 교회’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실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라는 부분이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전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종교적 정체성이 불분명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분명히 하였다는 ‘종교적 정체성’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있는 뒤에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선교 문제이다. 개항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간접적 선교를 하는 데 만족하였고 포교의 자유가 대한제국 시기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 자체가 선교의 한 방편으로 간접적 수단이 아니다. 마치 직접적인 선교의 수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을 통한 간접적 선교에 만족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기술에 가깝다. 그리고 당시 조선정부는 1882년 미국과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교를 묵인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 포교를 허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면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에 전래된 개신교는 학교를 세우고 교아원을 운영하였으며, 서양의술을 보급하였다. 1880년대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전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글 보급, 미신 타파, 평등사상 전파 등에 이바지하였다. 고종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들을 환대하였지만 대다수 조정의 대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선교사들은 초기에 직접 선교하기보다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선교하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배재 학당을 언더우드는 1886년에 경신 학교를 세웠다. 1887년에는 언더우드의 주재로 2명의 장로가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교회인 새문안 교회가 세워졌다(최준채, 2014: 254).

위와 같이 리베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한글 보급, 미신 타파, 평등사상 전파’라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한 것인데도 그러한 기술이 없이 결과만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교과정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른바 분할협정을 시작한 것은 1892년이다. 즉, 1890년대라고 할 수 있다(백낙준, 1973: 211). 하지만 선교사들의 분할협정과 최초의 조직 교회로 새문안 교회를 소개한 것은 특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기독교의 학교 설립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것으로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독교 학교 설립과 관련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배재 학당(1885)과 이화 학당(1886)을 설립하고, 이어 서울과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과 함께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 한편, 애국 계몽 운동가들도 오산 학교(1907), 대성 학교(1908) 등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권희영, 2014: 218).

서양 선교사들도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는 데 힘을 보탰다(김종수, 2014: 276).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학당을 비롯하여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 등은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왕현중, 2014: 197).

개신교 선교사들도 학교를 설립하였다. 1885년에는 배재 학당, 그 이듬해에는 이화 학당, 경신 학교 등이 세워졌다(최준채, 2014: 251).

개신교 선교사나 민족 지도자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립되었다. 배재 학당, 이화 학당 등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한철호, 2014: 230).

이 시기 서양인 선교사들도 배재 학당, 이화 학당, 경신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 학교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도면희, 2014: 246).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배재 학당, 이화 학당, 경신 학교, 정신 여학교, 숭실 학교 등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는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정재정, 2014: 261).

선교사들은 배재, 경신, 이화, 정신 등의 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과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 이화 학당(1886)은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었다(주진오, 2014: 227).

비슷비슷한 서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서술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다. 각 교과서에는 ‘선교활동과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 ‘근대 교육 보급에 힘을 보탰다.’,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근대 교육과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리베르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 서술이 없으며 두산 동아 출판사의 경우에는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고만 기술하였다. 또한 근대 학문을 가르친 것과 근대 교육을 확산시킨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를 혼용함으로써 어떠한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웠느냐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설립으로 인한 한국 근대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비상출판사의 서술이 갖는 오해의 여지이다. 기독교 학교가 원래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분명 선교의 목적으로 근대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근대 학교가 한국 근대 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도 이를 것을 계획하였을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 설립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 선교사라고 주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단순히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로 지칭하여 어떠한 종교에서 학교를 세웠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두산동아 교과서의 경우처럼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학당을 비롯하여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 등은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로 서술하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배재 학당만 세웠고 제중원 의학당, 경신 학교, 이화 학당은 다른 주체가 세웠는데 서양식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기술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엔과 지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용하고 있다.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역사교과서에 쓰는 경우에는 개신교를 지칭한다. 따라서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역사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로 인하여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기독교의 찬송가 보급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 끼친 영향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 보급이다. 아래와 같이 찬송가 보급으로 서양 근대 음악이 발달했으며,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가 유행했다는 것이다. 이때의 창가는 계몽의 목적으로 확산되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교회에서 찬송가가 보급되면서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가 유행하였다. 주로 청년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학도가, 권학가, 독립가, 애국가 등이 많이 불려졌다(왕현중, 2014: 99).

찬송가를 통해 서양식 악곡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창가가 출현하였다. 창가는 대체로 계몽적 목적에서 지어졌는데 독립신문이 벌인 ‘애국가 짓기 캠페인’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 여러 애국가가 지어졌으며 독립가나 권학가 등의 계몽 창가들도 유행하였다(김종수, 2014: 277).

음악분야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찬송가를 보급하면서 서양 근대 음악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학도가, 독립가, 권학가 등 창가가 널리 애창되었다(최준채, 2014, 253).

하지만 아래와 같이 창가가 찬송가 확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서 창가와 기독교간의 연결성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음악에서는 찬송가가 불리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이 소개되었다. 또 서양식 악곡에 맞춘 창가가 유행하면서 애국가, 독립가, 권화가 등이 애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정재정, 2014: 265).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도 널리 퍼졌다(한철호, 2014: 233).

천주교·개신교 전파와 함께 성가, 찬송가 등이 도입되었다. 서양식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가 유행하였고(도면희, 2014: 253),

음악에서는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창가가 나타났다. 서양의 곡조에 주로 애국가와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를 붙여 불렀다(주진오, 2014: 230).

이 외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에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었으며 목숨을 위협받았다. 그리고 한글 보급, 미신타파, 근대문물 소개 등 한국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진도사업의 한 방편으로 폄하하였고(문교부, 1974: 191), 이후 그러한 서술도 점점 축소되었다.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복음주의를 강조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일제 침략을 옹호하기도 하였다.’고 기술(김한중, 2003: 134)하는 등 한국 기독교가 민족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이며 친일적이라는 뉘앙스로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종교가 전근대의 유물이며 현대인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선사시대와 고대에는 종교가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서술을 매우 소략하게 하거나 아예 빼버리기 때문이다(유요한, 2009: 19). 특히 애국계몽운동, 민족 문화, 일제의 탄압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각 종교의 기여를 소개하면서 ‘종교계’라는 말로 아울러 지칭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나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기독교의 기여와 역할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현대 한국인에게도 사고방식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차별을 반대하고 미신이나 허례허식을 멀리하며 음주나 흡연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지나칠 수 없다. 한국근대사 전공자라 해도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용어나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면 기독교 관련 서술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한국근대사 전공자가 관련 부분을 집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집필과정에서 최소한 관련 학회나 전문가에게 감수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IV. 결 론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큰 틀로 이와 관련한 역사교과서 내용인 인류의 탄생과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기독교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기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사교과서 서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역사교과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역사교과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편향적인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역사교과서에 서술한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기술하는 서술형태도 고쳐야 한다.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사실 위주나 결과 위주로만 역사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역사교과서 서술의 양적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고 하여도 역사의 기본인 ‘왜?’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히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일어난 경우가 많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 교리로 인해 다른 종교 혹은 상이한 가치관과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만

을 알려주는 것은 역사나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으로 기독교 관련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을 끌어들이게 되면 공정한 서술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성 시비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서술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 관련 사건을 모두 세상의 논리로 풀어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편향성 시비를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관련 서술을 할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을 서술하면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서술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적 편향성 논란보다도 기독교 자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서술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근대사에서 나타나듯 개별 종교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같은 분량으로 비슷한 서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각 시대별로 개개의 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공과를 엄밀히 따져 기술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서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불교가, 조선에서는 유교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한국근현대사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전문가들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광복 이후 다양한 종교가 한국 사회에 공존하면서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문교부 (1974). **고등학교 국사**. 서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 [Mongyobu (197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oreatextbook Company.]
- 김한중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H.J. (2003. *the high school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김덕수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천재교육.
- [Kim, D. S.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chun-jae publishing.]
- 김형중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H. J.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조한욱 (2014).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비상교육.
- [Cho, H. W. (2014). *the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visang publishing.]
- 권희영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교학사.
- [Kwon, H. Y.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yohaksa publishing.]
- 김종수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 [Kim, J. S.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kumsung publishing.]
- 왕현중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 [Wang, H. J.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doosandong publishing.]
- 최준채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 [Choi, J. C.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liberschool publishing.]
- 한철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 [Han, C. H.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miraen publishing.]
- 도면희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 [Do, M. H.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visang publishing.]
- 정재정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 [Jung, J. J.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jihaksa publishing.]
- 주진오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 [Ju, J. O. (2014),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seoul: chunjae education

- publishing.]
- 권태경 (2002). *대학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 서울: 그리심.
- [Kwon, T. K. (2002). *Christian world view and history for university youth*. seoul: gresim publishing.]
- 김봉수 (2007).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서울: 그리심.
- [Kim, B. S. (2002). *A love for eternity*. seoul: gresim publishing.]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 [Baek, N. J. (1973). *Protestant History of Korea*. seoul: Yonsei press]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Shin, K. W. (2005). *Nigodemo's glasses*. seoul: IVP.]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Yang, S. H. (1999).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seoul: CUP.]
- 이승구 (2007).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Lee, S. G. (2007), *What is the Christian Worldview?* seoul: SFC.]
- 허승일 (2009).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Heo, S. I. (2009). *Again What is history?*. seoul: seoul-university press]
- 홍치모 (1989). *기독교 역사관*. 서울: 생능.
- [Hong, C. M. (1989). *A view of Christian history*. seoul: saengneung]
- 홍치모 역 (1982).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Roy Swannstrom. History in making. 서울: 성광문화사.
- [Hong, C. M. (1982).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What is History?* seoul: sunggwang publishing. Trans. Roy Swannstrom.(1978). *History in making*. Westmont: InterVarsity Press]
- 이부형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 a biblical path. 서울: IVP.
- [Lee, B. H. (2006). *Christian education course steppingstone*. Seoul: IVP. Trans. Harro Van Brummelen.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 a biblical path* Colorad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이정미 (2008). *기독교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M. (2008). *Case study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toward Christian world view in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Ehwa University, seoul, Korea.]

- 김봉수 (2003). 기독교 사관의 정립을 위한 연구. **총신대논총**, 22, 74-111.
- [Kim, B. S. (2003).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Christian Apostasy. *Chongsindaeonchong* 22, 74-111.]
- 김종희 (2013). 기독교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논총**, 28, 187-213.
- [Kim, J. H.(2013). Christian history education, what to do?. *Korea Reformed Journal*, 28, 187-213.]
- 이진모 (2005).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문화연구**, 10, 139-163.
- [Lee, J. M. (2005). A view of Christian history, *A study of Christian culture*. 10, 139-163.]
- 이해주 (1998). 기독교 학교의 커리큘럼의 한 예, **기독교교육연구**, 9(1), 72-107.
- [Lee, H. J. (1998). An example of a Christian school curriculum.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9(1), 72-107.]
- 유요한 (2009).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서술의 문제점, **종교와 문화**, 16, 39-58.]
- [Yoo, Y. H. (2009). Problems of the Religious Descrip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Korean History Textbooks. *Religion and culture*. 16, 39-58.]
- 최호근 (2013). 내러티브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25, 95-128.
- [Choi, H. G. (2009). Narrative and Histor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125, 95-128.]

논문초록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허은철 (충신대학교)

현재 한국의 역사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치중립성과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는 기독교 역사교사가 역사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검토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교과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역사교과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편향적인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사실 위주나 결과 위주로만 역사교과서에 기술한다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관련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편향성 시비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 서술을 할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와 관련된 특수한 역사 서술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적 편향성 논란보다도 기독교 자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서술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종교편향성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정확한 서술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반기독교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역사전문가들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역사교사, 역사 서술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로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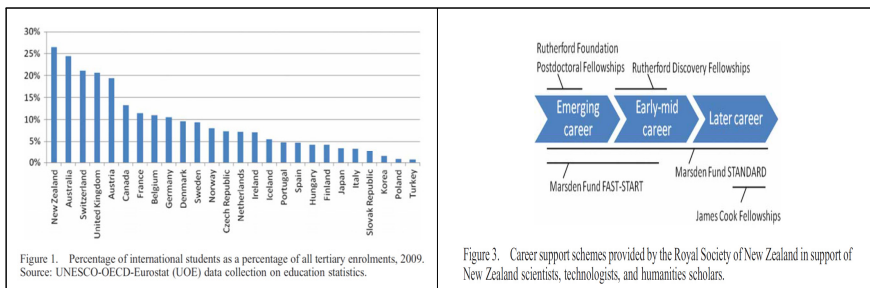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 장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장	손병덕 (총신대학교)
부 회 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편집위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창민 (부산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임춘택 (경남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총 무	이상무 (평택대학교)		이상무 (평택대학교)
학회이사	강영안 (서강대학교)		방명애 (우석대학교)
	권태경 (총신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Sungmin Chun (VIEW, 캐나다)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총신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3호 (통권 76호), 2018년 9월호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